

농업인 복지실태

교육 | 가족 | 지역개발 및 공동체

조사보고서 2015

Survey on the
Rural well-being

2015년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보고서

국가통계승인번호 제11437호

발 행 일 2016년 3월

발 행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장 이진모

편 집 농업환경부장 윤종철, 농촌환경자원과장 안옥선

연 구 원 국립농업과학원 최윤지 농업연구관, 최정신 농업연구사, 윤민혜 연구원
코뮤니타스 신동호 대표, 전윤정 선임연구원, 강구민 선임연구원,
김아영 연구원, 조이슬 연구원, 이진희 연구원
경북대학교 이강형 교수, 대구대학교 조희금 교수, 수원대학교 박진우 교수

발 행 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촌환경자원과
(565-851) 전북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16

전 화 063-238-2645

인 쇄 처 코뮤니타스 053-746-0021

ISBN 979-11-85591-39-1 93520

머 리 말

농어촌의 과소화·고령화에 대응하고 농어촌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04년 3월, 정부에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삶의 질 향상 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적인 대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농어촌 주민이 도시 주민과 균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농어촌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이 법을 근거로 제1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05~'09),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10~'14)을 수립하여 추진한 결과로 농어촌의 복지, 교육, 기초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사업과 농어촌서비스기준·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되는 등 다각적인 노력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농어촌과 도시 지역 간 생활 격차를 해소하고 농어촌 주민들의 생활 만족도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목표 달성까지는 아직도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에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15~'19)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교육, 가족, 지역개발 및 공동체'부문을 중심으로 「2015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5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는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해온 농촌생활지표조사(2000~2012년)와 통합 조정되어 실시된 두 번째 조사로서 이전 조사와는 다른 체계로 추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에서는 관련 조사들을 아우르면서도 조사의 신뢰도 및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표본개편 및 농촌 통계수요를 반영한 조사항목 선정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책자는 2015년 9월 1일에서 10월 11일까지 전국 농촌 및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3,934가구를 대상으로 교육, 가족, 지역개발 및 공동체 등 3개 부문에 대해 실시한 조사 결과입니다.

본 보고서가 관련 정책, 연구 및 지도 현장에서 농어촌에 대한 이해를 돕는 기초자료로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보다 정확하고 활용도 높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계 이용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연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본 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해주신 전국의 표본가구 조사대상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 3월

연구진 일동

이용자를 위하여

1. 이 보고서는 2015년 9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실시한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결과를 수록함.
2. 보고서에 수록된 결과분석에서는 조사대상이 된 읍면의 실제 가구 수 분포와 읍면 내에서 표본으로 추출된 가구의 확률상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모집단으로부터의 추출확률을 고려한 가중치가 적용되었음.
3. 조사결과의 전체 합계와 각 항목 값이 모두 소수점 아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되었으므로 전체 합계의 수치가 각 항목 값의 합과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음.
4. 보고서의 통계표는 모름/무응답을 제외한 수치임.
5. 통계표 작성 시 가구 특성을 반영하는 문항에는 가구의 인구통계적 특성별 통계 수치를, 응답자 특성을 반영하는 문항에는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별 통계 수치를 제시하였음.
6. 통계표에 해당 숫자가 없는 경우는 비워둠.
7. 이 보고서는 일부 문항에 대한 상대표준오차를 수록하고 있으며, 전체 문항에 대한 상대표준오차는 별책으로 발간된 「부록」을 참고하기 바람.
8. 이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2015년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보고서 ○페이지에서 인용」한 것임을 기재하여야 함.
9. 수록된 자료에 대한 문의사항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촌환경자원과(063-238-2645)로 문의 바람.

조사결과 요약

 2015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조사 개요
주요 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 조사목적

-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는 농어촌의 복지실태, 교육여건 및 기초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를 파악·분석하여 농어촌의 특성에 맞는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시책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 법적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 국가승인통계 제11437호('04.8.31.)

➡ 조사연혁

- 2004. 3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
- 매 5년 주기로 「농림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실시 의무화
- 2004. 8~11 : 「농림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승인 및 조사 실시
- 농림부에서 외주용역으로 조사 실시
- 2008. 3 :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통계청으로 조사 이관
- 2008. 10 : 「농림어업인 복지실태조사」로 조사명칭 변경
- 2013. 3 : 농촌진흥청 이관, 농촌생활지표조사와 통합 추진 결정
- 보건복지부의 농어촌보건복지실태조사 항목 포괄
- 2013. 9 :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로 조사명칭 변경, 조사주기, 조사내용 등 변경 승인
- 2014. 9 : 경제활동, 문화·여가 부문에 맞춘 조사내용 승인
- 2015. 9 : 교육, 가족, 지역개발 및 공동체 부문에 맞춘 조사내용 승인

➡ 2015년 조사체계

| 표1 | 표본설계 및 조사방법

구 분		내 용
표본설계	모집단	전국 농어촌 지역의 모든 가구
	표본추출틀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전국 농어촌 지역 가구
	표본규모	전국 농어촌지역 3,934가구(응답률 98.1%)
	표본추출방식	- 다단계화집락추출 - 1차 추출 : 표본 동읍면 추출 - 2차 추출 : 동읍면 내 조사구 추출 - 3차 추출 : 가구 추출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직접면접조사 - 조사대상 : 표본 가구의 가구주 또는 가구주 배우자(만 19세 이상) - 조사기간 : 2015년 9월 1일~10월 11일(1.5개월 - 추석연휴 제외)

➡ 2015년 조사내용

- 교육, 가족, 지역개발 및 공동체 등 3개 부문, 80개 항목

| 표2 | 주요 조사내용

구분	조 사 항 목
교육	평생교육, 학생교육 등
가족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가족 가치관, 부부관계 등
지역개발 및 공동체	지역개발, 공동체 등
가구원 정보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생년, 혼인상태, 학력 등
생활 전반	이주실태, 주택여건, 생활여건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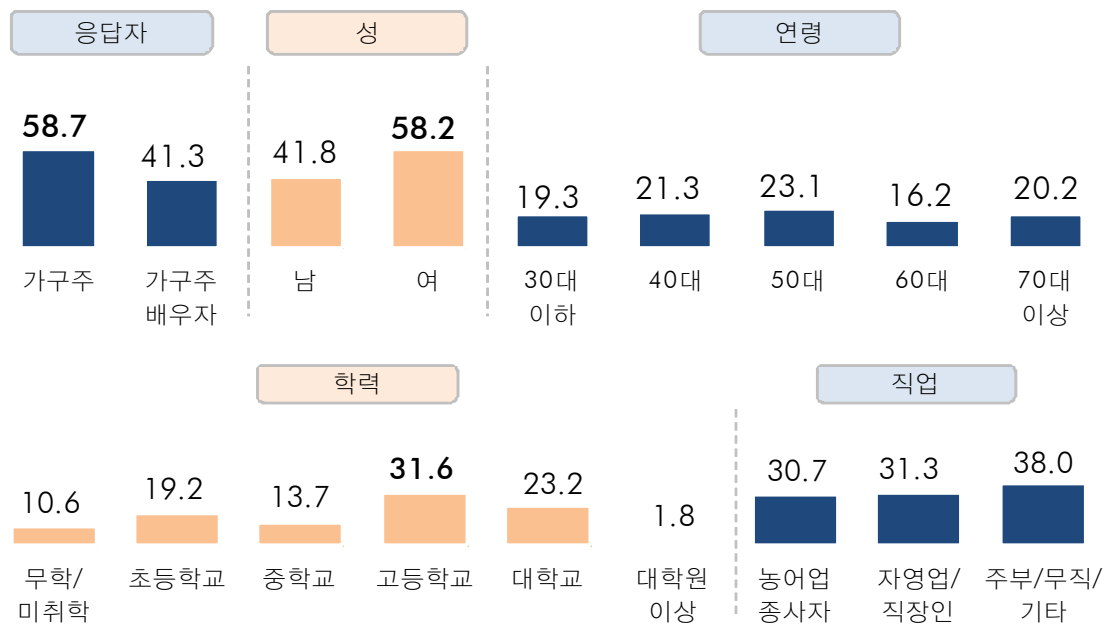
주요 조사 결과¹⁾

일반 사항

➡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 ‘가구주’가 58.7%, ‘여성’이 58.2%, [60대 이상] 연령층이 36.4%, [고등학교 이상] 비중이 절반 수준 (56.6%), ‘농어업종사자’층이 30.7%

단위 : %



➡ 조사대상 가구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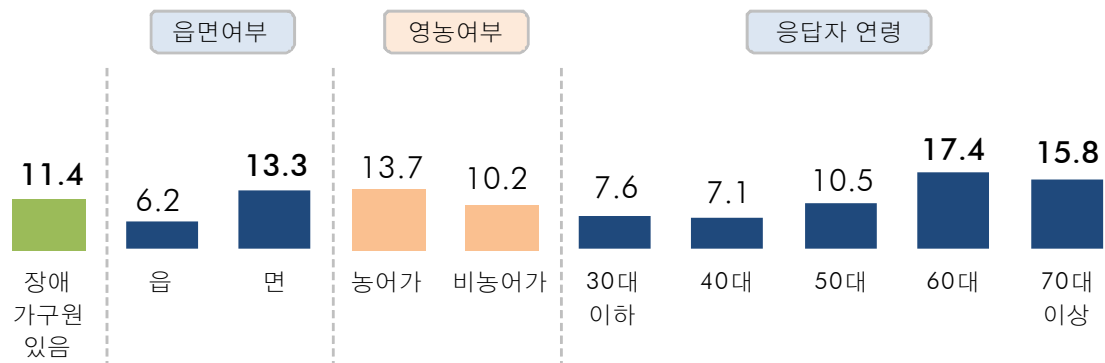
- ‘농어가’가 34.2%, 가구원 수는 평균 2.9명, ‘2세대 가구’(49.8%) 비중이 가장 높음

1) 확인/검증을 거친 최종 유효자료에 대해 코딩(Coding), 수정(Editing)과정을 거쳐 R을 이용,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교차분석(Crosstabs Analysis) 등으로 통계분석 함

➡ 장애 가구원 유무

- 장애 가구원이 있는 가구가 11.4%이며, 면지역,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장애 가구원이 있는 가구 비중이 높음

단위 : %



- '가구주' 본인이 58.0%, '지체장애'(52.1%)가 주된 장애종류, 장애 급수로 '3급'(23.4%), '2급', '5급'(각 20.2%) 비중이 높음

➡ 결혼 이민자 유무

- 결혼이민자가 있는 가구가 2.6%, 가구주와의 관계로 '가구주 배우자'가 81.0%였으며, 결혼이민자의 주요 출신국가로 '중국'(43.9%), '베트남'(34.4%) 비중이 높음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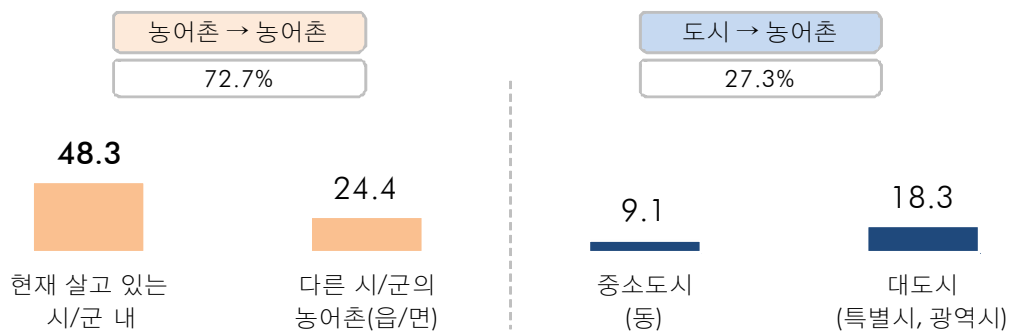
구분			중국	몽골	일본	베트남	태국	필리핀	네팔	우즈베키스탄	미국
합계 (113)			43.9	0.3	7.5	34.4	3.6	9.0	0.5	0.4	0.4
읍/면	읍	(22)	42.3	1.5	18.1	32.0	0.0	1.4	2.6	0.0	2.1
	면	(91)	44.3	0.0	5.0	35.0	4.4	10.8	0.0	0.5	0.0
영농여부	농어가	(44)	33.1	0.8	10.3	37.8	9.1	7.9	0.0	1.0	0.0
	비농어가	(69)	50.9	0.0	5.7	32.3	0.0	9.6	0.8	0.0	0.7

생활전반

➡ 현 거주지 고향여부

- '이주했다'(50.5%), '현 거주지가 고향이지만 외지에 나갔다가 다시 이주했다'(4.2%) 등 [이주민]이 54.7%로, 현 거주지가 고향인 [선주민](45.3%) 비중보다 높은 수준
- '현재 살고 있는 시/군 내'(48.3%), '다른 시/군의 농어촌(읍/면)'(24.4%) 등 농어촌 지역에서 이주해온 층이 72.7%로, '대도시(특별시, 광역시)'(18.3%), '중소도시(동)'(9.1%) 등 도시에서 이주해온 층(27.3%) 보다 많음

단위 : %



➡ 주택의 건축년도

- '1990년대'(34.5%), '2000년대'(31.4%)에 건축(신축)된 주택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1980년대'(11.2%), '1950년대 이전'(5.2%), '1970년대'(4.9%), '1960년대'(4.0%) 등 1980년대 이전에 지어져 30년 이상된 농어촌 주택이 25.3%로 전체 농어촌 가구의 1/4 가량을 차지함
- 농어촌 주택의 평균 노후정도는 2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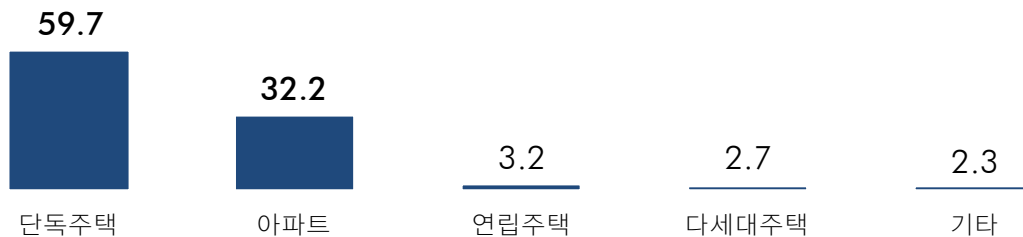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평균	1950년대 이전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 이후
합계 (3,780)		22.3년	5.2	4.0	4.9	11.2	34.5	31.4	8.7
읍/면	읍 (996)	17.6년	1.5	1.5	2.2	7.2	35.8	45.5	6.3
	면 (2,784)	24.0년	6.6	5.0	5.8	12.7	34.0	26.4	9.6
영농여부	농어가 (1,322)	25.9년	6.3	6.1	7.7	14.6	35.9	21.9	7.5
	비농어가 (2,458)	20.3년	4.7	2.9	3.4	9.4	33.7	36.6	9.3

➡ 주택의 종류 및 점유형태

- 주택의 종류로 '단독주택'(59.7%)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아파트'(32.2%), '연립주택'(3.2%), '다세대주택'(2.7%) 순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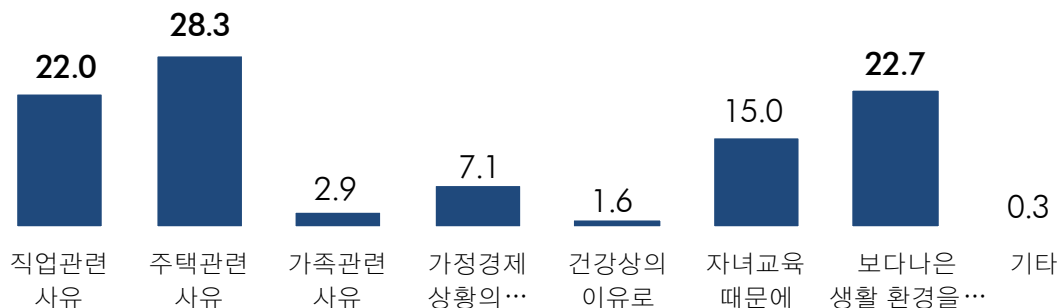


- 주택의 점유형태로 '자가'(78.8%)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전세'(8.8%), '보증부 월세'(5.8%), '월세(사글세)'(3.8%), '무상'(2.8%) 순

➡ 향후 이주의향

- 이주 의향층이 17.7%로 '현재 살고 있는 시/군 내'(56.0%), '다른 시/군의 농어촌(읍/면)'(12.1%) 등 농어촌으로 이동하겠다는 층이 68.1%
- 이주 희망 이유(n=684)로 주택 확장, 신규 분양, 계약 변동 등 '주택 관련 사유'(28.3%)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아울러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찾아서'(22.7%), 직장 이동, 창업 등 '직업 관련 사유'(22.0%) 비중도 높음. 다음으로 '자녀 교육 때문에'(15.0%), '가정경제 상황의 변화로'(7.1%), 가구원의 분가, 출생, 사망 등 '가족 관련 사유'(2.9%), '건강상의 이유로'(1.6%) 순

단위 : %



➡ 지역생활 만족도

- 지역생활전반에 대해 평균 52.5점으로 '보통 수준'의 평가를 보인 가운데, '환경·경관'(평균 65.4점), '자연재해, 사고, 범죄 안전'(평균 61.5점)에 대해 '약간 만족하는 수준'으로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보건·의료 및 복지 서비스'(평균 48.8점), '기초생활 기반'(평균 46.6점), '경제활동 여건'(평균 43.5점), '교육 여건'(평균 42.6점), '문화·여가 생활을 위한 여건'(평균 39.5점) 순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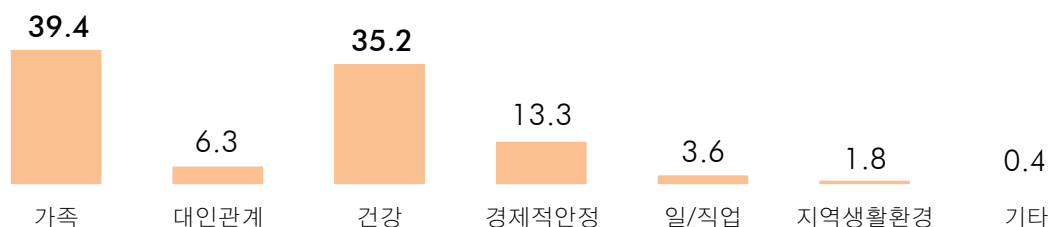
구분		지역의 전반적 생활여건			보건 의료 및 복지 서비스	교육 여건	문화·여가 생활을 위한 여건	기초 생활 기반	환경· 경관	경제 활동 여건	자연 재해, 사고, 범죄 안전
		종합 만족도	체감 만족도	차원 만족도							
합계		52.5	55.4	49.6	48.8	42.6	39.5	46.6	65.4	43.5	61.5
읍/면	읍	52.6	54.4	50.8	49.3	46.6	41.4	49.3	65.0	44.9	60.0
	면	52.5	55.8	49.1	48.6	41.1	38.8	45.6	65.5	43.0	62.1
영농 여부	농어가	53.3	57.2	49.4	49.1	40.1	38.3	47.7	65.8	42.7	62.9
	비농어가	52.1	54.5	49.6	48.6	44.0	40.1	46.0	65.2	43.9	60.8

*종합/체감/차원 만족도 : [조사연구 개요]의 '8. 자료처리 및 분석' 참조

➡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

- '행복한 편'(43.6%), '매우 행복함'(4.7%) 등 [행복한 편(합)]이라는 응답이 48.3%로, '행복하지 않은 편'(8.3%), '전혀 행복하지 않음'(0.8%) 등 [행복하지 않은 편(합)](9.2%)이라는 응답보다 높음.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은 60.7점으로 '약간 행복한 수준'의 평가
-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족'(39.4%), '건강'(35.2%)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경제적 안정'(13.3%), '대인관계'(6.3%), '일/직업'(3.6%), '지역생활환경'(1.8%) 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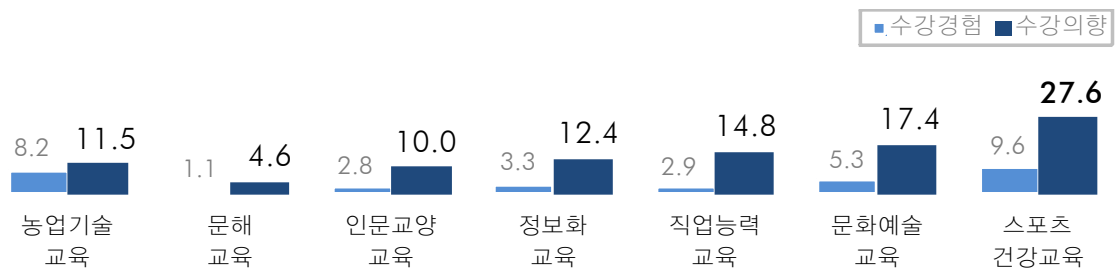


교육

☞ 평생교육 수강 경험 및 향후 수강 의사

- 농어촌 주민 10명 중 1명(9.6%)이 스포츠, 건강/의료 강좌 등 ‘스포츠·건강교육’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업기술교육’ 수강 경험층이 8.2%, ‘문화예술교육’(5.3%), ‘정보화교육’(3.3%), ‘직업능력교육’(2.9%), ‘인문교양교육’(2.8%), ‘문해교육’(1.1%) 순
- 수강 경험률이 높았던 ‘스포츠·건강 교육’(27.6%)이 향후 수강 의향률 또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문화예술교육’(17.4%), ‘직업능력교육’(14.8%), ‘정보화 교육’(12.4%), ‘농업기술교육’(11.5%), ‘인문교양교육’(10.0%), ‘문해교육’(4.6%) 순

단위 : %



☞ 평생교육을 받고자 할 때의 애로사항

- 시간적 여유가 없다(43.9%) 비중이 절반 수준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건강, 나이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다’(17.0%), ‘지역에 제공하는 시설(기관)이 없다’(12.7%),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10.0%), ‘원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없다’(7.4%), ‘교통이 불편하다’(4.6%), ‘비용이 부담된다’(4.1%)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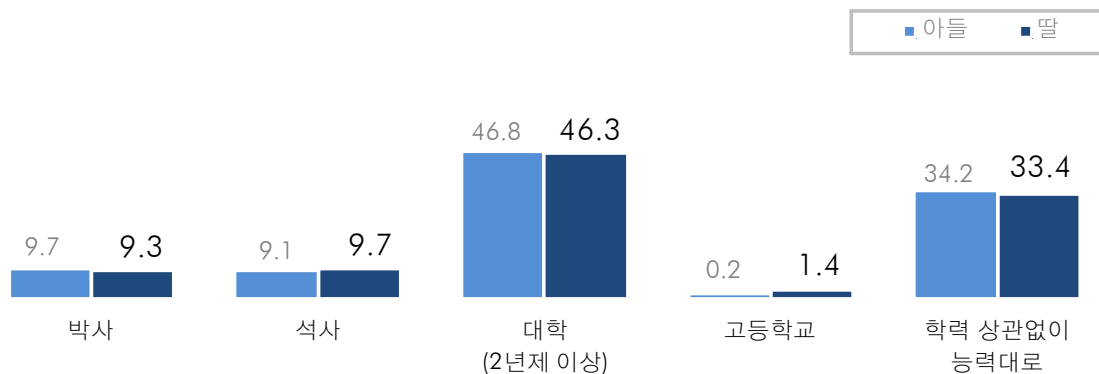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비용이 부담된다	시간적 여유가 없다	지역에 제공하는 시설(기관)이 없다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없다	교통이 불편하다	건강, 나이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다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	기타
합계 (3,665)		4.1	43.9	12.7	7.4	4.6	17.0	10.0	.4
읍/면	읍 (1,022)	4.1	51.4	10.9	7.9	3.4	9.3	12.7	.4
	면 (2,643)	4.0	41.0	13.4	7.2	5.1	19.9	9.0	.4
영농 여부	농어가 (1,219)	2.7	44.1	13.8	5.3	5.2	18.8	9.6	.5
	비농어가 (2,446)	4.7	43.8	12.2	8.5	4.3	16.0	10.2	.3

➡ 학생 자녀(손자녀) 유무 및 자녀에 대한 기대학력

- 학생자녀(손자녀)가 있는 가구가 29.5%, 가구 당 평균 학생 자녀 수는 1.6명
- 성별에 관계없이(아들 : 46.8%, 딸 : 46.3%) '대학(2년제 이상)' 비중이 절반 수준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석·박사', '고등학교' 순. 한편, '학력 상관없이 능력대로' 비중도 30% 이상임

단위 : %



➡ 자녀의 방과 후 시간 활용

- 자녀가 있는 농촌 가구 2가구 중 1가구(47.2%)에서 '사설학원 수강'이 주된 방과 후 시간 활용방법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방과 후 교내 보충학습 참여'(20.6%), '자녀 자율적으로 보냄'(14.5%), '방과 후 교실(학교 외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참여'(8.1%), '집에서 가족이 돌봄'(5.1%), '개인·그룹 과외'(4.4%)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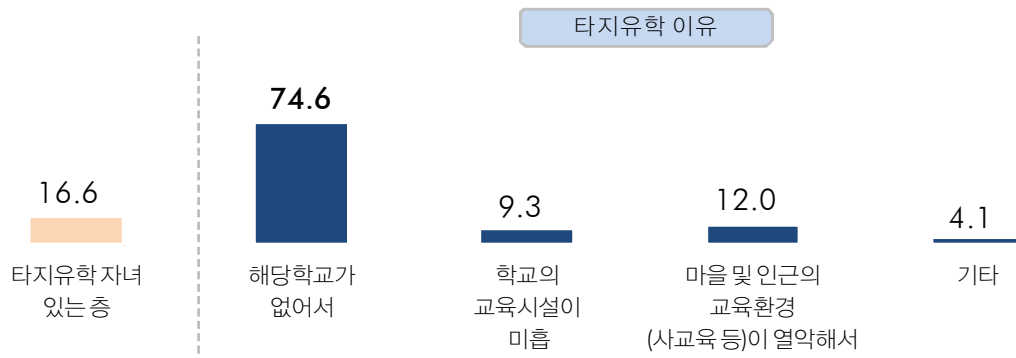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사설학원 수강	개인·그룹 과외	방과 후 교내 보충학습 참여	방과 후 교실 참여	집에서 가족이 돌봄	자녀 자율적으로 보냄
합계 (862)			47.2	4.4	20.6	8.1	5.1	14.5
읍/면	읍	(304)	52.6	3.7	17.5	5.2	5.9	15.1
	면	(559)	44.3	4.8	22.3	9.7	4.7	14.2
영농 여부	농어가	(188)	38.3	.9	29.1	10.3	7.1	14.2
	비농어가	(674)	49.7	5.4	18.2	7.5	4.6	14.6

➡ 타지유학 자녀(손자녀) 실태

- 학생자녀(손자녀)가 있는 가구 중 외지로 나가 공부하고 있는 자녀(손자녀)가 있는 가구가 16.6%, 타지 유학이유로 '해당 학교가 없어서'(74.6%)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마을 및 인근의 교육환경이 열악해서'는 12.0%, '학교의 교육 시설이 미흡'해서는 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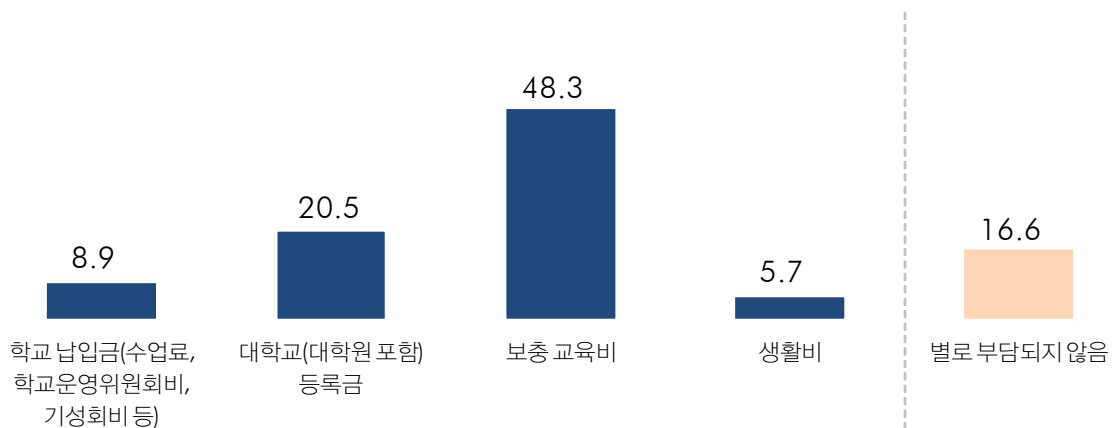
단위 : %



➡ 교육비 중 부담되는 항목

- 학원비, 개인 및 그룹 과외비 등 '보충교육비'(48.3%)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대학교(대학원 포함) 등록금'(20.5%), 수업료, 학교운영위원회비, 기성회비 등 '학교 납입금'(8.9%), 하숙, 자취, 기숙사비 등 '생활비'(5.7%) 순

단위 : %



방과 후 학교 참여실태

- 방과 후 학교 참여층이 48.2%로 나타난 가운데, 2015년 기준 1년간 총 참여 프로그램 수는 평균 2.2개, 일주일 동안 평균 참여 시간은 4.8시간, 총 참여 년수는 평균 2.2년

단위 : (명)

구분		총 참여 프로그램		참여 시간		참여 년수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합계		(425)	2.2개	(422)	4.8시간	(406)	2.2년
읍/면	읍	(138)	1.8개	(136)	3.7시간	(132)	2.1년
	면	(287)	2.4개	(286)	5.3시간	(274)	2.2년
영농 여부	농어가	(94)	2.1개	(91)	5.8시간	(83)	2.7년
	비농어가	(332)	2.2개	(331)	4.5시간	(323)	2.0년

가족

부모님 동거 여부 및 비동거 부모 거주실태

-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 가구 중 부모와 함께 살고있지 않는 층이 78.3%, 비동거층의 부모님 동거 가족으로 '부모님만 따로 살고 있음'(76.0%) 비중이 매우 높았으며, 다음으로 '장남 또는 맏며느리'(9.3%), '아들(장남 제외) 또는 며느리'(8.3%), '딸 또는 사위'(3.8%), '기타 친척'(0.1%) 순

단위 : %(명)

구분		장남 또는 맏며느리	아들(장남제외) 또는 며느리	딸 또는 사위	기타 친척	부모님만 따로 살고 있음	기타
합계 (1,445)		9.3	8.3	3.8	.1	76.0	2.4
읍/면	읍 (570)	6.2	7.4	3.7	.1	79.9	2.7
	면 (875)	11.3	8.9	3.9	.1	73.5	2.3
영농 여부	농어가 (227)	14.5	8.7	4.8		66.4	5.5
	비농어가 (1,218)	8.3	8.2	3.6	.1	77.8	1.8

☞ 부모의 생활비 마련 방법

- 부모님의 생활비를 '부모님 스스로 해결'한다는 응답이 46.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모든 자녀(아들과 딸)'(27.6%), '장남 또는 맏며느리'(15.2%), '아들(장남 제외) 또는 며느리'(7.9%), '딸 또는 사위'(2.4%) 순

단위 : %(명)

구분		장남 또는 맏며느리	아들 (장남 제외) 또는 며느리	딸 또는 사위	모든 자녀 (아들과 딸)	부모님 스스로 해결	기타
합계 (1,885)		15.2	7.9	2.4	27.6	46.6	.3
읍/면	읍 (639)	6.7	4.9	1.2	31.3	55.4	.4
	면 (1,245)	19.6	9.4	3.0	25.7	42.0	.3
영농 여부	농어가 (430)	28.2	14.5	1.8	21.7	33.0	.8
	비농어가 (1,455)	11.4	6.0	2.5	29.4	50.6	.2

☞ 노부모 부양에 대한 태도

- 노부모 부양에 관한 진술 중 '자식은 나이든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한다'에 대해 [그런 편]이라는 응답이 69.0%로 [그렇지 않은 편](9.4%)에 비해 많음. '딸도 아들과 똑같이 나이든 부모를 돌보아야 한다'에 대해서 동의하는 층이 60.9%, '자식은 나이든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에 대해 동의 하는 층이 55.2%로 나타남

단위 : %(명)

구분		자식은 나이든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 (n=3,908)			자식은 나이든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한다 (n=3,901)			딸도 아들과 똑같이 나이든 부모를 돌보아야 한다 (n=3,907)		
		그런 편 (합)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 편 (합)	그런 편 (합)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 편 (합)	그런 편 (합)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 편 (합)
합계		55.2	23.9	20.9	69.0	21.6	9.4	60.9	29.1	10.0
읍/면	읍	56.5	22.8	20.7	69.0	23.0	8.0	62.4	27.8	9.8
	면	54.7	24.3	21.0	69.0	21.1	9.9	60.4	29.6	10.1
영농 여부	농어가	52.5	22.0	25.5	67.7	20.1	12.1	54.8	30.4	14.8
	비농어가	56.7	24.9	18.5	69.6	22.4	8.0	64.1	28.4	7.5

☞ 부모의 책임에 대한 태도

- 부모는 자녀의 대학교육비를 책임져야 한다'(75.7%), '부모는 자녀의 결혼준비비용을 책임져야 한다'(45.0%)는 진술에 대해 공감하는 층이 공감하지 않는 층(대학교육비 : 7.6%, 결혼준비 : 22.1%)에 비해 다소 많았다. 반면, '부모는 필요하다면 자녀가 결혼한 후에도 돌보아줄 책임이 있다'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 층이 38.1%로 공감한다는 층(30.9%)과 비슷한 비중을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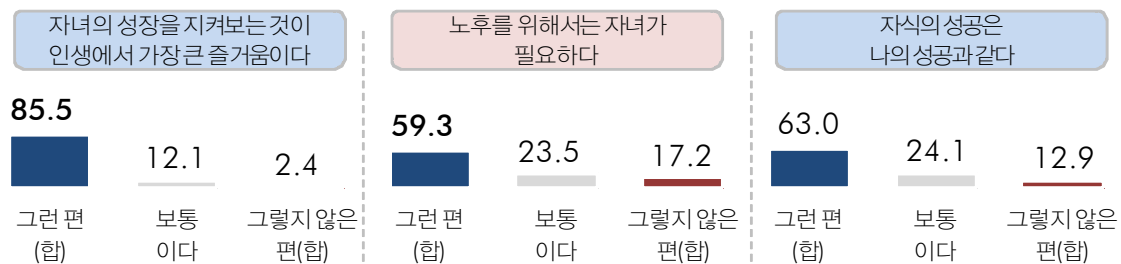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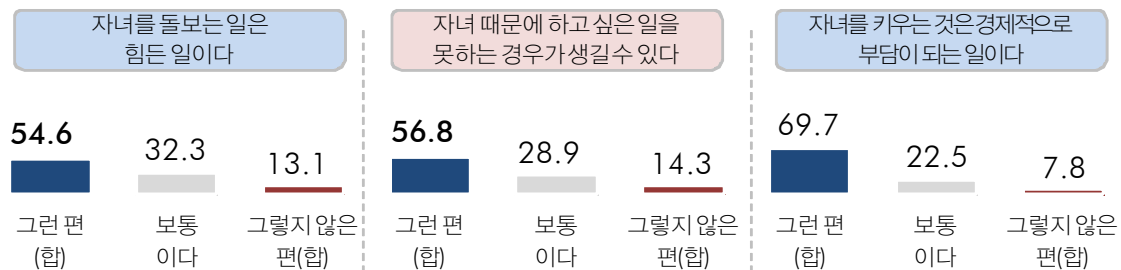
구분		부모는 자녀의 대학교육비를 책임져야 한다 (n=3,914)			부모는 자녀의 결혼준비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 (n=3,915)			부모는 필요하다면 자녀가 결혼한 후에도 돌보아줄 책임이 있다 (n=3,912)		
		그런 편 (합)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편 (합)	그런 편 (합)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편 (합)	그런 편 (합)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편 (합)
합계		75.7	16.7	7.6	45.0	33.0	22.1	30.9	30.9	38.1
읍/면	읍	73.4	17.4	9.2	39.5	36.3	24.2	27.6	30.3	42.1
	면	76.5	16.4	7.0	47.0	31.7	21.3	32.2	31.2	36.7
영농 여부	농어가	80.1	14.7	5.2	51.5	30.3	18.2	33.1	32.3	34.6
	비농어가	73.4	17.8	8.8	41.6	34.3	24.1	29.8	30.2	40.0

☞ 자녀 및 자녀 양육에 대한 태도

-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다'에 대해 공감하는 층이 85.5%로 자녀 및 자녀 양육과 관련된 6가지 진술문 중 공감도가 가장 높음. '자식의 성공은 나의 성공과 같다'(63.0%), '노후를 위해서는 자녀가 필요하다'(59.3%)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60% 가량이 공감하는 태도를 보임
- 한편, 자녀 양육에 대한 어려움과 관련하여 '자녀를 키우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일이다'(69.7%)에 대한 공감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자녀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56.8%), '자녀를 돌보는 일은 힘든 일이다'(54.6%) 순

단위 : %





➡ 분가한 자녀 유무 및 분가한 자녀와의 교류 실태

- 분가한 자녀가 있는 층이 47.4%, 분가한 자녀와 전화통화 빈도는 '일주일에 1-2회'(53.8%)가 절반가량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거의 매일'(22.0%), '한 달에 1-2회'(21.0%), '1년에 3-5회', '거의 없음'(각 1.6%) 순

단위 : %(명)

구분		거의 매일	일주일에 1-2회	한 달에 1-2회	1년에 3-5회	거의 없음
합계 (1,854)		22.0	53.8	21.0	1.6	1.6
읍/면	읍 (331)	28.1	46.8	22.9	1.3	.9
	면 (1,523)	20.7	55.3	20.6	1.6	1.7
영농 여부	농어가 (919)	19.7	57.2	20.0	1.8	1.2
	비농어가 (935)	24.3	50.5	21.9	1.3	2.0

- 분가한 자녀와 만남 빈도는 '1년에 3-5회'(40.9%)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아울러 '한 달에 1-2회'(37.7%) 비중 또한 높음. 다음으로 '일주일에 1-2회'(13.3%), '거의 매일'(4.6%), '거의 없음'(3.4%) 순

단위 : %(명)

구분		거의 매일	일주일에 1-2회	한 달에 1-2회	1년에 3-5회	거의 없음
합계 (1,843)		4.6	13.3	37.7	40.9	3.4
읍/면	읍 (329)	8.1	13.3	36.3	38.1	4.2
	면 (1,515)	3.9	13.3	38.0	41.6	3.3
영농 여부	농어가 (916)	3.3	11.9	41.9	40.1	2.9
	비농어가 (927)	6.0	14.7	33.5	41.8	4.0

➡ 결혼 및 이혼과 재혼에 대한 태도

- 결혼을 ‘반드시 해야한다’(23.4%), ‘하는 것이 좋다’(46.8%) 등 해야한다는 응답이 70.2%로 ‘하지 않는 것이 좋다’(1.0%), ‘하지 말아야 한다’(0.7%) 등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응답(1.7%)에 비해 많음

단위 : %(명)

구분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좋다	해야 한다 (합)	해도 좋 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않는 것 이 좋다	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 않아야 한다 (합)	잘 모르 겠다
합계 (3,934)		23.4	46.8	70.2	26.6	1.0	.7	1.7	1.5
읍/면	읍 (1,071)	15.0	44.6	59.5	37.5	.8	.9	1.7	1.3
	면 (2,863)	26.6	47.7	74.2	22.4	1.1	.6	1.7	1.6
영농 여부	농어가 (1,346)	28.2	53.5	81.7	16.5	.8	.2	1.0	.8
	비농어가 (2,588)	20.9	43.4	64.3	31.8	1.1	.9	2.1	1.8

- ‘이유가 있더라도 가급적 이혼해서는 안된다’(43.1%), ‘어떤 이유라도 이혼해서는 안된다’(14.3%) 등 하지 않아야 한다(57.4%)는 응답이 ‘이유가 있다면 이혼을 하는 것이 좋다’(9.6%), ‘이유가 있다면 이혼을 해야한다’(4.7%) 등 해야한다는 응답(14.3%)에 비해 많음

단위 : %(명)

구분		어떤 이유라도 이혼 해서는 안된다	이유가 있더라도 가급적 이혼 해서는 안된다	하지 않아야 한다 (합)	경우에 따라 이혼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유가 있으면 이혼을 하는 것이 좋다	이유가 있다면 이혼을 해야 한다	해야 한다 (합)	잘 모르 겠다
합계 (3,934)		14.3	43.1	57.4	25.2	9.6	4.7	14.3	3.2
읍/면	읍 (1,071)	8.5	41.0	49.5	28.9	9.3	8.6	17.9	3.7
	면 (2,863)	16.4	43.9	60.3	23.7	9.6	3.3	12.9	3.0
영농 여부	농어가 (1,346)	17.0	46.9	64.0	22.0	7.3	3.4	10.6	3.4
	비농어가 (2,588)	12.8	41.1	54.0	26.8	10.7	5.4	16.2	3.1

- 재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응답이 절반수준(52.6%)을 차지한 가운데, ‘반드시 해야한다’(0.9%), ‘하는 것이 좋다’(14.1%) 등 해야한다는 응답(15.0%)과 ‘하지 않는 것이 좋다’(10.2%), ‘하지 말아야 한다’(4.9%) 등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응답(15.1%)이 비슷한 수준

➡ 성역할 및 여성 취업에 대한 태도

- ‘아버지도 어머니와 똑같이 자녀를 잘 보살펴야 한다’는 진술에 대해 ‘매우 그렇다’(29.3%), ‘그런 편이다’(47.2%) 등 공감하는 응답이 76.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오늘날에는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다’(69.6%), ‘맞벌이 부부는 집안일도 똑같이 나누어서 해야 한다’(61.7%), ‘취학 전 자녀는 어머니가 직접 돌봐야 한다’(60.4%)는 진술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이 공감하는 태도를 보임

단위 : %(명)

구분		아버지도 어머니와 똑같이 자녀를 잘 보살펴야 한다 (n=3,922)			오늘날에는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다 (n=3,918)			남자가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여자가 할 일은 가정을 돌보는 것이다 (n=3,914)		
		그런 편 (합)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 편 (합)	그런 편 (합)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 편 (합)	그런 편 (합)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 편 (합)
합계		76.6	20.7	2.7	69.6	26.3	4.1	24.5	31.9	43.6
읍/면	읍	77.5	20.2	2.3	66.1	28.2	5.7	20.3	28.1	51.6
	면	76.2	20.9	2.9	70.9	25.6	3.5	26.1	33.3	40.6
영농 여부	농어가	75.8	20.8	3.4	70.7	25.6	3.7	29.3	31.2	39.6
	비농어가	77.0	20.6	2.4	69.0	26.7	4.3	22.0	32.3	45.7

- 한편, ‘남자가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여자가 할 일은 가정을 돌보는 것이다’(24.5%), ‘친정과 시집 모두 도움이 필요할 때, 결혼한 여자는 친정보다 시집을 먼저 도와야 한다’(23.8%)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태도가 상대적으로 약함

단위 : %(명)

구분		맞벌이 부부는 집안일도 똑같이 나누어서 해야 한다 (n=3,918)			취학 전 자녀는 어머니가 직접 돌봐야 한다 (n=3,910)			친정과 시집 모두 도움이 필요할 때, 결혼한 여자는 친정보다 시집을 먼저 도와야 한다 (n=3,905)		
		그런 편 (합)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 편 (합)	그런 편 (합)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 편 (합)	그런 편 (합)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 편 (합)
합계		61.7	31.4	6.9	60.4	25.4	14.2	23.8	35.5	40.8
읍/면	읍	60.6	31.1	8.3	57.8	27.8	14.5	21.0	38.5	40.5
	면	62.1	31.5	6.4	61.4	24.5	14.1	24.8	34.3	40.9
영농 여부	농어가	61.0	32.8	6.2	56.8	27.5	15.7	27.7	36.7	35.6
	비농어가	62.0	30.7	7.3	62.3	24.3	13.4	21.7	34.8	43.5

☞ 부부 의사결정 구조 및 역할분담 실태

- 전반적인 부부 의사결정 구조는 '부부 공동' 비중이 높은 가운데, '농사 작목을 결정하는 일'(44.0%), '수확 농산물을 판매하는 일'(38.8%) 등 농사 관련 의사결정과 '주택이나 농지를 사고파는 일'(28.6%), '경조금을 결정하는 일'(17.1%)의 경우 [남편]이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부인]에 비해 많음
- 반면, '한 달 생활비를 결정하는 일'(28.4%), '자녀교육 방법을 결정하는 일'(27.1%)의 경우 [부인]이 의사결정을 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이웃, 친척과의 교제(경조사 참가)'(68.8%), '큰 돈 관리'(51.5%)는 [부부 공동] 비중이 높은 반면, '음식준비 및 설거지'(79.8%), '세탁'(79.7%), '집안 청소'(70.4%), '자녀 돌보기'(62.0%), '살림살이 비용 관리'(59.2%) 등 육아 및 가사 노동과 관련된 부분은 [부인] 비중이 높음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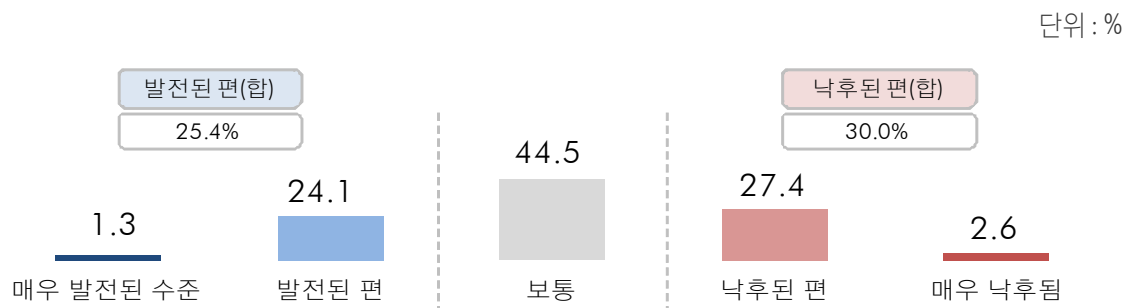
구분		큰 돈 관리(투자 및 재산 관리) (n=2,885)			살림살이 비용 관리 (n=2,883)			음식준비 및 설거지 (n=2,884)		
		남편 (합)	부부 공동	부인 (합)	남편 (합)	부부 공동	부인 (합)	남편 (합)	부부 공동	부인 (합)
합계		33.9	51.5	14.6	8.7	32.1	59.2	1.7	18.5	79.8
읍/면	읍	28.2	55.5	16.4	6.2	35.7	58.1	1.2	22.7	76.2
	면	36.2	49.9	13.9	9.8	30.6	59.6	1.9	16.8	81.3
영농 여부	농어가	49.8	42.0	8.2	14.8	28.5	56.7	1.8	14.3	83.9
	비농어가	24.9	56.9	18.2	5.3	34.1	60.6	1.7	20.9	77.5

구분		세탁 (n=2,885)			집안청소 (n=2,883)			자녀 돌보기 (n=2,876)			이웃, 친인척과의 교제(경조사 참가) (n=2,878)		
		남편 (합)	부부 공동	부인 (합)	남편 (합)	부부 공동	부인 (합)	남편 (합)	부부 공동	부인 (합)	남편 (합)	부부 공동	부인 (합)
합계		2.1	18.2	79.7	3.1	26.5	70.4	1.7	36.3	62.0	12.1	68.8	19.1
읍/면	읍	1.8	23.3	74.9	2.7	31.6	65.8	1.5	38.1	60.3	9.3	70.8	19.9
	면	2.2	16.1	81.6	3.3	24.4	72.3	1.8	35.6	62.7	13.2	68.0	18.7
영농 여부	농어가	1.9	12.0	86.1	4.2	17.1	78.7	2.2	29.6	68.2	18.4	63.8	17.9
	비농어가	2.2	21.6	76.1	2.5	31.7	65.8	1.4	40.1	58.5	8.6	71.7	19.7

지역개발 및 공동체

지역발전 정도에 대한 인식

- 현재 거주하고 있는 마을의 전반적인 발전 정도에 대해 '매우 발전된 수준'(1.3%), '발전된 편'(24.1%) 등 [발전된 편]이라는 응답이 25.4%로 '매우 낙후됨'(2.6%), '낙후된 편'(27.4%) 등 [낙후된 편](30.0%)이라는 응답과 비슷한 수준



지역개발에 대한 태도

- 지역 개발에 대한 태도로 '지역의 개발 사업의 이익은 외지인이나 특정인에게만 돌아가지 않고 지역주민들에게 공정하게 돌아간다'에 대해 [그런 편]이라는 응답이 31.9%로 [그렇지 않은 편](26.9%)에 비해 많음
- 한편,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더라도 개발사업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편] 비중이 절반 이상(58.5%)으로 [그런 편](16.4%)에 비해 높음

단위 : %(명)

구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더라도 개발사업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n=3,922)			개발 보다는 농촌 자연환경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 (n=3,922)			지역의 개발사업의 이익은 외지인이나 특정인에게만 돌아가지 않고 지역주민들에게 공평하게 돌아간다 (n=3,921)		
		그런 편 (합)	보통이다	그렇지 않은 편 (합)	그런 편 (합)	보통이다	그렇지 않은 편 (합)	그런 편 (합)	보통이다	그렇지 않은 편 (합)
합계		16.4	25.1	58.5	31.1	35.1	33.7	31.9	41.2	26.9
읍/면	읍	15.4	30.0	54.6	32.2	37.1	30.7	28.2	45.3	26.4
	면	16.8	23.3	59.9	30.7	34.4	34.8	33.3	39.7	27.0
영농 여부	농어가	20.1	22.0	57.9	32.6	31.8	35.6	34.9	35.0	30.2
	비농어가	14.5	26.7	58.7	30.4	36.9	32.7	30.4	44.5	25.1

➡ 농촌지역 우선 필요정책

- 정부가 농촌지역에 우선적으로 취해야할 정책으로 '농업인 기초소득 보장'(41.4%)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아울러 '농업의 미래 보호'(21.2%) 비중 또한 높음. 다음으로 '농촌주민 교육과 건강 증진'(11.4%), '공용버스 등 교통수단 확보'(10.7%), '농촌지역 사업체에 대한 투자확대'(5.8%), '주택의 보급 및 개량'(4.9%), '농촌의 자연환경 보호'(4.6%) 순

단위: %(명)

구분		농업인 기초소득 보장	농업의 미래 보호	농촌의 자연환경 보호	주택의 보급 및 개량	공용버스 등 교통수단 확보	농촌주민 교육과 건강 증진	농촌지역 사업체에 대한 투자확대
합계 (3,883)		41.4	21.2	4.6	4.9	10.7	11.4	5.8
읍/면	읍 (1,052)	35.0	20.6	6.4	5.7	12.7	11.3	8.3
	면 (2,831)	43.8	21.4	3.9	4.5	10.0	11.4	4.9
영농 여부	농어가 (1,335)	49.0	24.4	2.9	4.4	5.7	10.1	3.5
	비농어가 (2,548)	37.5	19.5	5.5	5.1	<u>13.4</u>	12.0	7.0

➡ 마을의 안전 정도

- 부문별 마을의 안전 정도 중 자연재해에 대해 '매우 안전함'(13.4%), '안전한 편'(52.2%) 등 [안전한 편]이라는 응답이 65.5%로 3개 부문 중 가장 안전하다는 평가. 아울러 치안에 대해서도 '매우 안전함'(10.7%), '안전한 편'(53.3%) 등 [안전한 편]이라는 응답이 64.1%
- 한편, 교통안전 및 보행에 대해서는 '매우 안전함'(6.8%), '안전한 편'(39.4%) 등 [안전한 편]이라는 의견이 절반수준(4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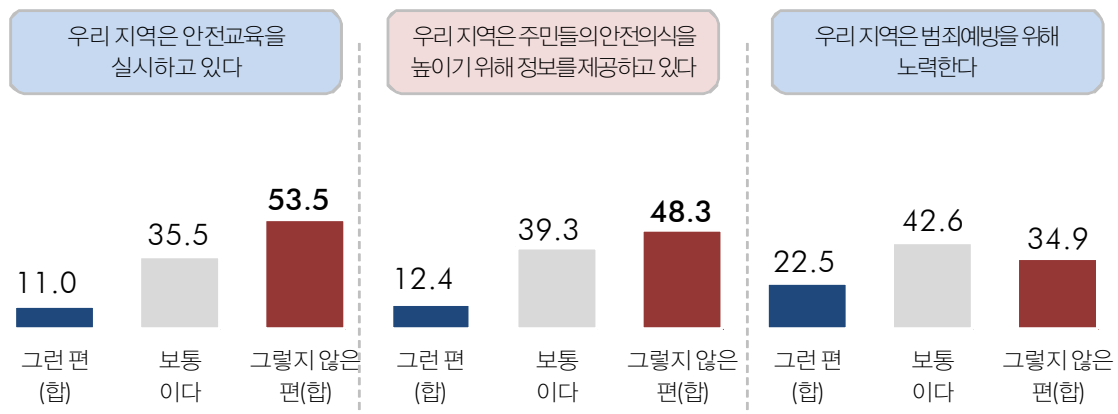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치안(n=3,922)			자연재해(n=3,919)			교통안전 및 보행(n=3,919)		
		안전한 편(합)	보통	안전하지 않은 편(합)	안전한 편(합)	보통	안전하지 않은 편(합)	안전한 편(합)	보통	안전하지 않은 편(합)
합계		64.1	27.5	8.4	65.5	28.4	6.0	46.2	35.0	18.8
읍/면	읍	56.9	<u>35.0</u>	8.2	63.0	33.2	3.8	43.8	40.2	16.1
	면	66.8	24.7	8.5	66.5	26.7	6.8	47.1	33.0	19.8
영농 여부	농어가	70.9	21.3	7.8	70.6	23.2	6.2	52.4	31.7	15.9
	비농어가	60.5	<u>30.7</u>	8.8	62.9	<u>31.2</u>	5.9	43.0	36.7	20.3

➡ 지역 안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 ‘우리 지역은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53.3%), ‘우리 지역은 주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48.3%), ‘우리 지역은 범죄예방을 위해 노력한다’(34.9%) 등 지역 안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대해 [그렇지 않은 편]이라는 응답이 우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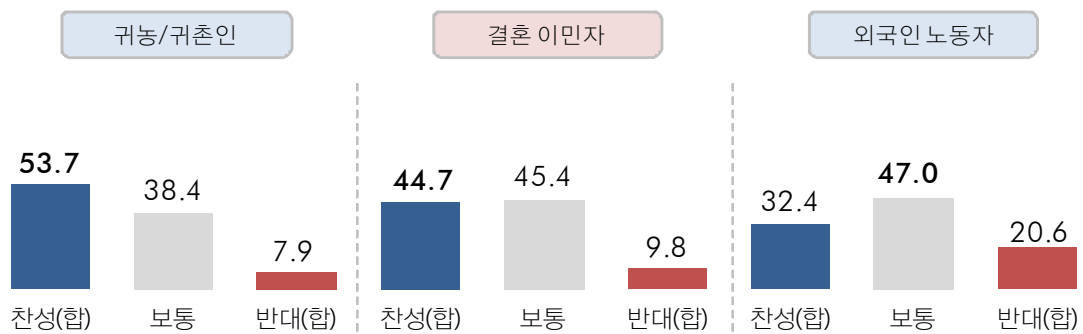
단위 : %



➡ 외부인 수용성

- 연고가 없는 외부인이 이웃에서 함께 사는 것에 대한 수용성을 살펴보면, 귀농/귀촌인에 대해서는 ‘매우 찬성’(10.0%), ‘다소 찬성’(43.7%) 등 찬성한다는 의견이 53.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결혼이민자(44.7%), 외국인 노동자(32.4%)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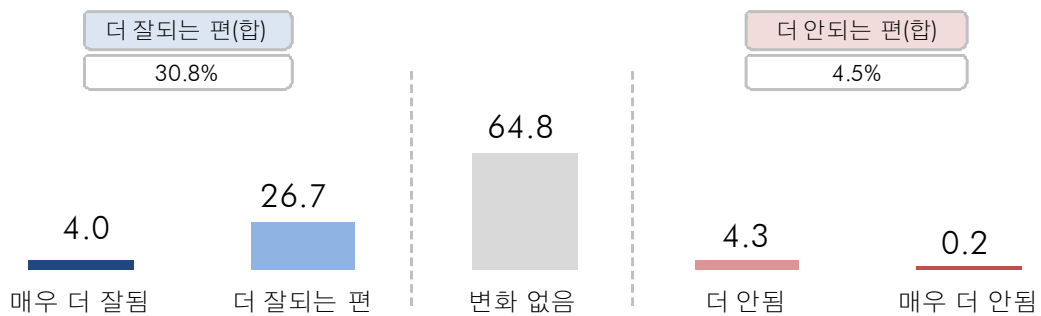
단위 : %



➡ 마을주민들 간의 친밀도 변화

- 2년 전에 비해, 마을 주민들간의 친밀도가 '매우 더 잘됨'(4.0%), '더 잘되는 편'(26.7%) 등 [더 잘되는 편]이라는 응답이 30.8%로 '더 안됨'(4.3%), '매우 더 안됨'(0.2%) 등 [더 안되는 편](4.5%)에 비해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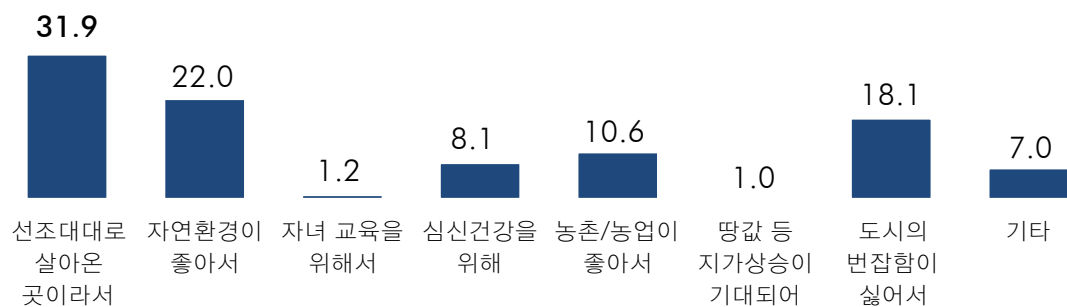
단위 : %



➡ 농촌 계속 거주 의향

- 농촌 계속 거주 의향층이 84.6%로 나타난 가운데, '선조대대로 살아온 곳이라서'(31.9%)가 농촌에 계속 거주하려는 주된 이유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자연환경이 좋아서'(22.0%), '도시의 번잡함이 싫어서'(18.1%), '농촌/농업이 좋아서'(10.6%), '심신건강을 위해'(8.1%), '자녀 교육을 위해서'(1.2%), '땅값 등 지가상승이 기대되어'(1.0%) 순

단위 : %



➡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 평소 자신의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 '매우 만족'(6.7%), '만족하는 편'(49.3%) 등 [만족하는 편]이라는 의견이 56.0%로 '전혀 만족하지 않음'(0.8%), '만족하지 않는 편'(5.1%) 등 [만족하지 않는 편](6.0%)이라는 의견에 비해 많아 전반적으로 '약간 만족하는 수준'(64.0점)의 평가

단위 : %(명)

구분			평균	매우 만족	만족하는 편	만족하는 편 (합)	보통	만족하지 않는 편	전혀 만족하지 않음	만족하지 않는 편 (합)
합계 (3,910)			64.0점	6.7	49.3	56.0	38.0	5.1	.8	6.0
읍/면	읍	(1,064)	59.1점	3.6	40.3	43.9	46.0	9.2	.9	10.1
	면	(2,845)	65.8점	7.9	52.7	60.6	35.0	3.6	.8	4.5
영농 여부	농어가	(1,337)	68.2점	9.2	59.1	68.3	27.6	3.7	.4	4.1
	비농어가	(2,572)	61.8점	5.4	44.3	49.7	43.4	5.9	1.1	7.0

➡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이웃 수

-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이웃 수로 '3-5명'(36.0%)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2명'(22.6%), '6-10명'(14.3%), '1명'(9.2%), '11명 이상'(4.2%) 순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이웃 수는 평균 4.3명

단위 : %(명)

구분			평균	없음	1명	2명	3-5명	6-10명	11명 이상
합계 (3,934)			4.3명	13.6	9.2	22.6	36.0	14.3	4.2
읍/면	읍	(1,071)	3.8명	19.8	10.8	19.0	32.4	14.8	3.2
	면	(2,863)	4.4명	11.3	8.7	23.9	37.4	14.2	4.6
영농 여부	농어가	(1,346)	5.7명	6.5	6.6	20.3	41.2	17.8	7.5
	비농어가	(2,588)	3.5명	17.3	10.6	23.8	33.3	12.5	2.5

➡ 참여하고 있는 지역사회단체 실태

- 지역사회단체에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이 27.9%로 나타난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 지역사회단체 종류로 동계, 청년회, 부녀회 등 '마을단위 자생조직'(71.0%)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문화, 여가, 취미 생활 단체 등 '친목도모단체'(14.0%), 작목반 조합 등 '경제활동단체'(10.4%), '일반시민단체'(4.6%) 순

단위 : %(명)

구분		참여층	마을단위 자생조직	경제활동 단체	친목도모 단체	일반시민 단체
합계 (3,934)		27.9	71.0	10.4	14.0	4.6
읍/면	읍 (1,071)	15.3	54.0	10.3	26.7	9.1
	면 (2,863)	32.6	73.9	10.4	11.9	3.8
영농 여부	농어가 (1,346)	49.4	75.9	14.5	6.1	3.5
	비농어가 (2,588)	16.7	63.6	4.2	26.1	6.1

➡ 공동체의식 함양 요인

- 지역(시군단위)의 공동체의식(협동심, 친밀감 등)을 만들어 내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마을단체'(26.5%), '좋은 이웃'(24.7%), '지역공동시설'(21.5%)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지역행사'(8.7%), '지자체 및 공무원'(7.0%), '서비스 편의시설'(5.6%), '종교단체'(3.4%), '학교'(2.6%)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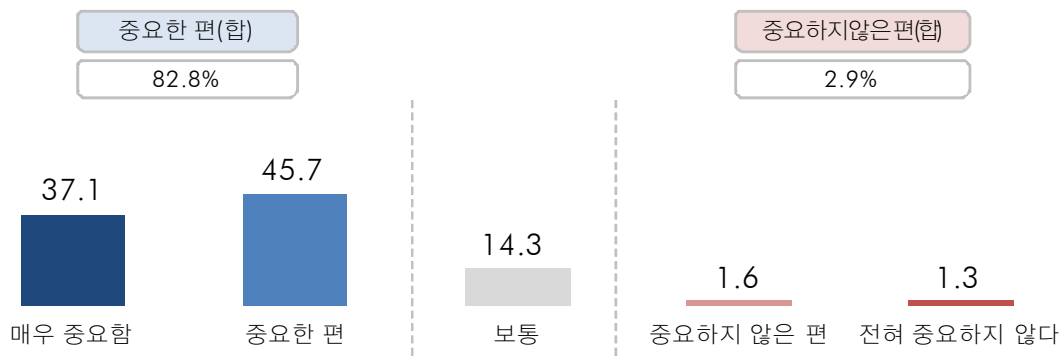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마을 단체	지자체 및 공무원	지역 공동 시설	학교	종교 단체	좋은 이웃	서비스 편의 시설	지역 행사	기타
합계 (3,877)			26.5	7.0	21.5	2.6	3.4	24.7	5.6	8.7	0.1
읍/면	읍 (1,058)	19.1	8.5	17.5	4.2	4.3	27.0	8.4	11.0	0.0	
	면 (2,819)	29.2	6.4	23.0	1.9	3.0	23.9	4.6	7.8	0.1	
영농 여부	농어가 (1,330)	31.8	5.1	27.6	1.8	2.5	22.7	2.0	6.5	0.1	
	비농어가 (2,547)	23.7	7.9	18.4	2.9	3.8	25.8	7.5	9.8	0.1	

➡ 마을리더 역할의 중요도

-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 마을리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37.1%), '중요한 편'(45.7%) 등 [중요한 편]이라는 응답이 82.8%로 마을리더 역할의 중요성을 매우 높게 인식

단위 : %



➡ 외부인 마을리더에 대한 수용성

- 연고가 없는 외부인이 거주하는 마을의 리더가 되는 것에 귀농/귀촌인의 경우, '매우 찬성'(4.9%), '다소 찬성'(33.6%) 등 [찬성](38.5%) 비중이 '매우 반대'(3.5%), '다소 반대'(15.4%) 등 [반대](18.8%)에 비해 높음
- 반면, 결혼 이민자의 경우 [찬성](25.0%)에 비해 [반대](29.1%)가 약간 높은 수준이었고,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매우 찬성'(2.3%), '다소 찬성'(15.3%) 등 [찬성](17.6%)에 비해 '매우 반대'(13.2%), '다소 반대'(28.1%) 등 [반대](41.3%) 비중이 다소 높음

단위 : %(명)

구분		귀농/귀촌인(n=3,908)			결혼 이민자(n=3,902)			외국인 노동자(n=3,906)		
		찬성 (합)	보통	반대 (합)	찬성 (합)	보통	반대 (합)	찬성 (합)	보통	반대 (합)
합계		38.5	42.7	18.8	25.0	45.8	29.1	17.6	41.1	41.3
읍/면	읍	37.9	43.4	18.8	23.6	46.0	30.4	16.6	44.8	38.6
	면	38.7	42.4	18.9	25.6	45.7	28.7	18.0	39.7	42.3
영농 여부	농어가	42.1	37.7	20.2	26.2	41.4	32.4	18.3	35.9	45.8
	비농어가	36.6	45.3	18.1	24.4	48.1	27.4	17.3	43.7	39.0

2015 농어업인 복지실태 조사 결과보고서

목차1
전체 목차

■ 조사연구 개요	55
-----------------	----

제1부 | 개인설문조사

1100. 일반사항	73
1110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74
1120 조사대상 가구의 일반적 특성	76
1130 장애 가구원 유무 및 장애 종류와 등급	77
1140 결혼이민자 유무	81
1200. 생활전반	83
1210 현 거주지 고향 여부	84
1220 주택의 건축년도	89
1230 주택의 종류 및 점유 형태	91

1240	향후 이주의향	94
1250	지역생활 만족도	100
1260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	103

1300. 교육 106

평생교육

1311	평생교육 수강 경험 및 향후 수강의사	107
1312	평생교육을 받고자 할 때의 애로사항	110

학생교육

1321	학생자녀(손자녀) 유무	112
1322	자녀(손자녀)에 대한 기대학력	113
1323	학교교육 여건 만족도	115
1324	자녀의 방과 후 시간 활용	116
1325	타지유학 자녀(손자녀) 실태	118
1326	사교육 수강 여부 및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 비용	121
1327	교육비 중 부담되는 항목	122
1328	방과 후 학교 참여 실태	123

1400. 가족 127

부모와의 관계

1411	부모님 생존 여부	128
------	-----------------	-----

1412 부모님 동거 여부 및 비동거 부모와의 교류 실태	129
1413 부모의 생활비 마련 방법	132
1414 부모의 노후 생계 돌봄 주체	133
1415 노부모 부양에 대한 태도	134

자녀와의 관계

1421 부모의 책임에 대한 태도	135
1422 자녀 및 자녀 양육에 대한 태도	136
1423 분가한 자녀 유무 및 분가한 자녀와의 교류 실태	138

가족 가치관

1431 결혼문화에 대한 태도	141
1432 결혼 및 이혼과 재혼에 대한 태도	142
1433 성역할 및 여성취업에 대한 태도	145
1434 자녀의 성별에 대한 태도	147

부부관계

1441 부부 의사결정 구조	149
1442 부부 역할분담 실태	152

1500. 지역개발 및 공동체	155
-------------------------------	-----

지역개발

1511 지역발전 정도에 대한 인식	156
---------------------------	-----

1512 지역개발에 대한 태도	158
1513 마을의 지역자원 활용	159
1514 농촌지역 우선 필요정책	161
1515 마을의 안전정도	162
1516 마을 안전시설/설비에 대한 인식	163
1517 지역 안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164

공동체

1521 외부인 거주 여부	165
1522 외부인 수용성	167
1523 마을주민들 간의 친밀도 변화	169
1524 농촌 계속 거주 의향	170
1525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173
1526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이웃 수	175
1527 참여하고 있는 지역사회단체 실태	176
1528 공동체 의식	179
1529 공동체의식 함양 요인	183
1530 마을리더 역할의 중요도	185
1531 마을리더가 될 의향	186
1532 외부인 마을리더에 대한 수용성	187

제2부 | 기존통계 활용

2100. 보건의료 부문	191
2101 유병률, 유병일수 및 외병일수	192
2102 만성질환 현황	193
2103 주관적 건강 인식	194
2104 건강검진 수진율	195
2105 월 평균 보건의료비	196
2106 연간 미치료자의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치료율	197
2107 자살 및 우울 관련 현황	198
2108 정신보건 관련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	199
2109 농작업 손상	200
2110 병상 수	201
2111 보건의료기관 수	203
2112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접근도	205
2113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	206
2200. 복지 부문	207
2201 독거노인 현황	208
2202 장수인구 비율	208

2203 치매노인 비율	209
2204 노인 희망거주 형태	209
2205 노인의 의존 소득원	210
2206 노인일자리 참여	211
2207 필요한 노인복지 서비스	212
2208 영유아 비율	213
2209 유치원 취원율	214
2210 보육시설 현황	215
2211 조손가구 비율	219
2212 장애인 추가비용	219
2213 결혼이민자 및 자녀 현황	220
2300. 교육 부문	222
2301 학생 수	223
2302 학교 수	224
2303 학급 수별 학교 수	225
2304 학생 수별 학교 수	226
2305 소규모학교 비율	227
2306 복식학교 비율	228
2307 교원 수	229

2308 연령별 교원 수	230
2309 사무직원 수	231
2310 사서교사 배치율	232
2311 보건교사 배치율	233
2312 고등학교 기숙사 보유율	234
2313 학교 컴퓨터 보급률	235
2314 방과 후 학교 참여율	236
2315 학교급별 방과 후 학교 참여율	237
2316 통학수단	238
2317 결손가정 아동 비율	239
2318 학업성취도 등급별 비율	240
2319 학교 진학률(초→중, 중→고)	243
2320 학업중단 비율	244
2321 대학(교) 진학률	245
2322 특수교육자 진학률 및 취업률	246
2323 학생 1인당 월 사교육비 및 참여율	247
2324 교육비 부담에 대한 인식	249
2325 도서관 현황	250
2326 자기계발을 위한 평생교육 경험	251

2400. 문화여가 부문	252
2401 주요 여가활동	253
2402 공연장 및 전시장 관람	254
2403 문화·예술시설 공간 수	255
2404 지역별 문화이용권(바우처) 이용현황	256
2405 지역별 문화·예술교육 및 동호회 참여현황	257
 2500. 기초생활여건/환경·경관 부문	 258
2501 주택 건축년도별 현황	259
2502 주택 종류 및 점유형태	260
2503 주택의 시설 현황	261
2504 주택(규모, 시설) 만족도	262
2505 상수도 보급률	263
2506 하수도 보급률	263
2507 도로 포장률	264
2508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만족도	266
2509 컴퓨터 보유 및 인터넷 설치 여부	267
2510 인터넷 이용 목적	268
2511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269
2512 환경오염 체감정도	271

2600. 지역역량 부문	273
2601 사회단체 참여율	274
2602 마을 홈페이지 구축 비율	275
2700. 경제활동 부문	276
2701 소득 및 가계지출	277
2702 부채 규모	278
2703 소득 만족도	279
2704 소비생활 만족도	280
2705 노후준비	281
2706 농어업 경영주의 농어업 종사기간	283
2707 자동차 보유 여부	284
부록	285
(1) 전국 표본리스트	287
(2) 주요 항목별 타 자료 비교	299
(3) 주요 항목별 상대표준오차	318
(4) 주요 용어정리	330
(5) 2015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조사표	334

목차2
표 목차

제1부 | 개인설문조사

표1110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1)	74
표1110 -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2)	75
표1120 조사대상 가구의 일반적 특성	76
표1130 - (1) 가구주와의 관계	78
표1130 - (2) - ① 장애종류 및 중복 여부	79
표1130 - (2) - ② 장애종류 및 중복 여부 - 추이	79
표1130 - (3) 장애 등급	80
표1140 - (1) 결혼이민자 유무	81
표1140 - (2) 출신국가	82
표1210 - (1) 현 거주지 고향 여부	84
표1210 - (2) - ① 이주 후 거주기간(1)	85
표1210 - (2) - ② 이주 후 거주기간(2)	86

표1210 - (3) 이주 직전 주택 위치	87
표1220 주택의 건축년도	89
표1230 - (1) 주택종류	91
표1230 - (2) - ① 주택 점유형태	93
표1230 - (2) - ② 주택 점유형태 - 추이	93
표1240 - (1) 향후 이주의향	94
표1240 - (2) 이주 희망 지역	96
표1240 - (3) 이주 희망 이유	98
표1250 - (1) 지역생활 영역별 만족도	100
표1250 - (2) 지역생활 영역별 만족도 - 추이	101
표1260 - (1)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	103
표1260 - (2) 행복의 영향 요인	104
표1311 - (1) 평생교육 수강 경험	107
표1311 - (2) 평생교육 만족도	109
표1312 평생교육을 받고자 할 때의 애로사항	110
표1321 학생자녀(손자녀) 유무	112
표1322 - (1) 자녀(손자녀)에 대한 기대학력	113
표1322 - (2) 자녀(손자녀)에 대한 기대학력 - 추이	114
표1323 학교교육 여건 만족도	115
표1324 자녀의 방과 후 시간 활용	116

표1325 - (1) 타지유학 자녀(손자녀) 실태	118
표1325 - (2) 타지 유학 이유 - 추이	119
표1325 - (3) 타지유학 자녀(손자녀) 거주형태	120
표1325 - (4) 타지 유학 자녀(손자녀) 거주형태 - 추이	120
표1326 사교육 수강 여부 및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 비용	121
표1327 교육비 중 부담되는 항목	122
표1328 - (1) 방과 후 학교 참여 실태	123
표1328 - (2) 참여 프로그램 종류	124
표1328 - (3) 방과 후 학교에 보내는 이유	125
표1328 - (4) 방과 후 학교 만족도	126
표1411 부모님 생존 여부	128
표1412 - (1) 비동거층의 부모님 동거 가족	129
표1412 - (2) 부모님 거주지와의 거리	130
표1412 - (3) 부모님과 전화통화 빈도	131
표1412 - (4) 부모님과 만남 빈도	131
표1413 부모의 생활비 마련 방법	132
표1414 부모의 노후 생계 돌봄 주체	133
표1415 노부모 부양에 대한 태도	134
표1421 부모의 책임에 대한 태도	135
표1422 자녀 및 자녀양육에 대한 태도	137

표1423 - (1) 분가한 자녀 수	138
표1423 - (2) 분가 자녀 거주지와 거리	139
표1423 - (3) 분가 자녀와 전화통화 빈도	140
표1423 - (4) 분가 자녀와 만남 빈도	140
표1431 결혼문화에 대한 태도	141
표1432 - (1) 결혼에 대한 태도	142
표1432 - (2) 이혼에 대한 태도	143
표1432 - (3) 재혼에 대한 태도	144
표1433 - (1) 성역할 및 여성취업에 대한 태도(1)	145
표1433 - (2) 성역할 및 여성취업에 대한 태도(2)	146
표1434 자녀 성별에 대한 태도	147
표1441 - (1) 부부 의사결정 구조(1)	149
표1441 - (2) 부부 의사결정 구조(2)	150
표1441 - (3) 부부 의사결정 구조 - 추이	151
표1442 - (1) 부부 역할분담 실태(1)	152
표1442 - (2) 부부 역할분담 실태(2)	153
표1442 - (3) 부부 역할분담 실태 - 추이	154
표1511 지역발전 정도에 대한 인식	156
표1512 지역개발에 대한 태도	158
표1513 - (1) 마을의 지역자원 활용(1)	159

표1513 - (2) 마을의 지역자원 활용(2)	160
표1514 농촌지역 우선 필요정책	161
표1515 마을의 안전 정도	162
표1516 마을 안전시설/설비에 대한 인식	163
표1517 지역 안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164
표1521 외부인 거주 여부	165
표1522 외부인 수용성	167
표1523 마을주민들 간의 친밀도 변화	169
표1524 - (1) 농촌 계속 거주 의향	170
표1524 - (2) 농촌을 떠나려는 이유	171
표1524 - (3) 농촌에 계속 거주하려는 이유 - 추이	172
표1524 - (4) 농촌을 떠나려는 이유 - 추이	172
표1525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173
표1526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이웃 수	175
표1527 - (1) 참여하고 있는 지역사회단체 종류	176
표1527 - (2) 임원 여부 및 참여 정도	177
표1527 - (3) 참여하지 않는 이유	178
표1528 - (1) 공동체 의식 - 종합	179
표1528 - (2) 공동체 의식 - (요인1) 귀속성	180
표1528 - (3) 공동체 의식 - (요인2) 교류성	181

표1528 - (4) 공동체 의식 - (요인3) 애착성	182
표1529 - (1) 공동체의식 함양 요인	183
표1529 - (2) 공동체의식 함양 요인 - 추이	184
표1530 마을리더 역할의 중요도	185
표1531 마을리더가 될 의향	186
표1532 외부인 마을리더에 대한 수용성	187

제2부 | 기존통계 활용

표2101 유병률, 유병일수 및 와병일수	192
표2102 만성질환 현황	193
표2103 주관적 건강 인식	194
표2104 건강검진 수진율	195
표2105 월평균 보건의료비	196
표2106 연간 미치료자의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치료율	197
표2107 자살 및 우울 관련 현황	198
표2108 정신보건 관련 의로서비스 이용 경험	199
표2109 - (1) 농기계 및 농약 사용별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 발생률	200
표2109 - (2)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 종류별 분포	200
표2110 병상 수	201

표2111 - (1) 보건의료기관 수	203
표2111 - (2) 보건의료기관 수	204
표2112 - (1)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접근도 - 농어촌(2005)	205
표2112 - (2)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접근도 - 농어촌(2010)	205
표2113 - (1)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	206
표2113 - (2) 보건의료서비스 불만족 이유	206
표2201 독거노인 현황	208
표2202 장수인구 비율	208
표2203 치매노인 비율	209
표2204 노인 희망거주 형태	209
표2205 노인의 의존 소득원	210
표2206 노인일자리 참여	211
표2207 - (1) 필요한 노인복지 서비스	212
표2207 - (2) 중요하게 생각하는 노인복지 서비스	212
표2208 영유아 비율	213
표2209 유치원 취원율	214
표2210 - (1) 설립주체별 보육시설 현황	215
표2210 - (2) 설립주체별 보육시설 현황	216
표2210 - (3) 보육시설 유형별 종사자 현황	217
표2210 - (4) 보육시설 유형별 이용 아동 현황	218

표2211 조손가정	219
표2212 장애인 추가비용	219
표2213 - (1) 결혼이민자 현황	220
표2213 - (2) 결혼이민자 자녀 현황	221
표2213 - (3) 다문화가족 자녀의 연령별 분포	221
표2213 - (4)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의 어려움	221
표2301 학생 수	223
표2302 학교 수	224
표2303 학급 수별 학교 수	225
표2304 학생 수별 학교 수	226
표2305 소규모학교 비율	227
표2306 복식학교 비율	228
표2307 교원 수	229
표2308 연령별 교원 수	230
표2309 사무직원 수	231
표2310 사서교사 배치율	232
표2311 보건교사 배치율	233
표2312 고등학교 기숙사 보유율	234
표2313 학교 컴퓨터 보급률	235
표2314 방과 후 학교 참여율	236

표2315 학교급별 방과 후 학교 참여율	237
표2316 통학수단	238
표2317 결손가정 아동 비율	239
표2318 - (1) 학업성취도 등급별 비율 - 초등학교 6학년	240
표2318 - (2) 학업성취도 등급별 비율 - 중학교 3학년	241
표2318 - (3) 학업성취도 등급별 비율 - 고등학교 2학년	242
표2319 학교 진학률	243
표2320 학업중단 비율	244
표2321 대학(교) 진학률	245
표2322 특수교육자 진학률 및 취업률	246
표2323 - (1)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247
표2323 - (2)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248
표2324 교육비 부담에 대한 인식	249
표2325 도서관 현황	250
표2326 자기계발을 위한 평생교육 경험	251
표2401 - (1) 주요 여가활동	253
표2401 - (2) 주요 여가활동	253
표2402 공연장 및 전시장 관람	254
표2403 문화·예술시설 공간 수	255
표2404 지역별 문화이용권(바우처) 이용현황	256

표2405 - (1) 지역별 문화·예술교육 참여현황	257
표2405 - (2) 지역별 문화 동아리 참여현황	257
표2501 - (1) 주택 건축년도별 현황(2005)	259
표2501 - (2) 주택 건축년도별 현황(2010)	259
표2502 - (1) 주거형태	260
표2502 - (2) 점유형태	260
표2503 - (1) 주거시설	261
표2503 - (2) 난방형태	261
표2504 주택(규모, 시설) 만족도	262
표2505 상수도 보급률	263
표2506 하수도 보급률	263
표2507 - (1) 도로 포장률	264
표2507 - (2) 도로 포장률	265
표2508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만족도	266
표2509 컴퓨터 보유 및 인터넷 설치 여부	267
표2510 인터넷 이용 목적	268
표2511 - (1)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 건축물 및 시설물/교통사고	269
표2511 - (2)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 국가안보/범죄위험	269
표2511 - (3)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 식량안보/신종 전염병	270
표2511 - (4)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 정보보안/태풍지진 등 자연재해	270

표2511 - (5)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 화재산불/전반적인 사회 안전	270
표2512 - (1) 환경오염 체감정도 - 대기오염	271
표2512 - (2) 환경오염 체감정도 - 수질오염	271
표2512 - (3) 환경오염 체감정도 - 토양오염	272
표2512 - (4) 환경오염 체감정도 - 소음공해	272
표2512 - (5) 환경오염 체감정도 - 녹지 등 주위환경 개선	272
표2601 사회단체 참여율	274
표2602 마을 홈페이지 구축 비율	275
표2701 소득 및 가계지출	277
표2702 부채 규모	278
표2703 소득 만족도	279
표2704 소비생활 만족도	280
표2705 - (1) 노후준비하고(되어) 있음	281
표2705 - (2) 노후준비하고 있지 않음	282
표2706 농어업 경영주의 농어업 종사기간	283
표2707 자동차 보유 여부	284

목차3
그림 목차

그림1130 - (1) 장애 가구원 유무	77
그림1130 - (2) 장애 가구원 유무 - 추이	77
그림1130 - (3) 가구주와의 관계 - 추이	78
그림1130 - (4) 장애등급 - 추이	80
그림1140 결혼이민자 유무 - 추이	81
그림1210 이주 직전 주택 위치 - 추이	88
그림1220 주택의 건축년도 - 추이	90
그림1230 - (1) 주택종류	91
그림1230 - (2) 주택종류 - 추이	92
그림1240 - (1) 향후 이주의향 - 추이	95
그림1240 - (2) 이주 희망 지역 - 추이	97
그림1240 - (3) 이주 희망 이유 - 추이	99
그림1260 - (1) 행복의 영향 요인	104

그림1260 - (2)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 - 추이	105
그림1311 - (1) 평생교육 수강 경험 - 추이	107
그림1311 - (2) 향후 평생교육 수강 의향	108
그림1311 - (3) 향후 평생교육 수강 의향 - 추이	108
그림1312 평생교육 받고자 할 때의 애로사항 - 추이	111
그림1322 자녀(손자녀)에 대한 기대학력	113
그림1323 학교교육 여건 만족도	115
그림1324 자녀의 방과 후 시간 활용 - 추이	117
그림1325 - (1) 타지유학 자녀(손자녀) 실태	118
그림1325 - (2) 타지유학 자녀(손자녀) 유무 - 추이	119
그림1327 교육비 중 부담되는 항목	122
그림1328 - (1) 방과 후 학교 참여 여부	123
그림1328 - (2) 참여 프로그램 종류	124
그림1328 - (3) 방과 후 학교에 보내는 이유	125
그림1328 - (4) 방과 후 학교 만족도	126
그림1411 부모님 생존 여부	128
그림1412 - (1) 부모님 동거 여부	129
그림1412 - (2) 부모님 거주지와 거리	130
그림1422 자녀 및 자녀양육에 대한 태도	136
그림1423 - (1) 분가한 자녀 유무	138

그림1423 - (2) 분가 자녀 거주지와 거리	139
그림1434 자녀 성별에 대한 태도 - 추이	148
그림1511 - (1) 지역발전 정도에 대한 인식	156
그림1511 - (2) 지역발전 정도에 대한 인식 - 추이	157
그림1517 지역 안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164
그림1521 외부인 거주 여부 - 추이	166
그림1522 - (1) 외부인 수용성	167
그림1522 - (2) 외부인 수용성 - 추이	168
그림1523 마을주민들 간의 친밀도 변화	169
그림1524 농촌을 떠나려는 이유	171
그림1525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 추이	174
그림1530 마을리더 역할의 중요도	185

조사연구 개요

 2015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조사 목적
법적 근거
조사연혁
표본설계
조사원 선정 및 교육
조사방법
조사내용
자료처리 및 분석

1. 조사 목적

-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는 농어촌의 복지실태, 교육여건 및 기초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를 파악·분석하여 농어촌의 특성에 맞는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시책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2. 법적 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 국가승인통계 제11437호('04.8.31.)

3. 조사연혁

2004. 3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 - 매 5년 주기로 「농림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실시 의무화
2004. 8~11	「농림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승인 및 조사 실시 - 농림부에서 외주용역으로 조사 실시
2008. 3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통계청으로 조사 이관
2008. 10	「농림어업인 복지실태조사」로 조사명칭 변경
2013. 3	농촌진흥청 이관, 농촌생활지표조사와 통합 추진 결정 - 보건복지부의 농어촌보건복지실태조사 항목 포괄
2013. 9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로 조사명칭 변경, 조사주기, 조사내용 등 변경
2014. 9	경제활동, 문화·여가 부문에 맞춘 조사내용 승인
2015. 9	교육, 가족, 지역개발 및 공동체 부문에 맞춘 조사내용 승인

4. 표본설계

① 모집단(survey population)

- 전국 읍/면 지역의 모든 가구(2010 인구주택총조사)

단위 : 명

시도	가구수	인구수
전국	3,308,353	8,627,388
서울	-	-
인천	27,638	70,924
경기	652,076	1,916,731
강원	211,437	548,161
대전	-	-
충북	220,551	565,190
충남	461,581	1,209,093
부산	33,772	93,106
울산	64,276	185,811
대구	55,985	167,225
경북	489,928	1,191,614
경남	436,017	1,112,808
광주	-	-
전북	209,872	502,091
전남	395,200	931,327
제주	50,020	133,307

② 추출 단위(sampling unit)

- 1차 추출단위(primary sampling unit: psu) : 읍/면
- 2차 추출단위(secondary sampling unit: ssu) : 조사구(아파트는 단지)
- 3차 추출단위(ultimate sampling unit: usu) : 가구

③ 추출 틀(sampling frame)

- 2010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자료

4 층화(stratification)

- 1차 층화 : 읍/면 지역으로 층화
- 2차 층화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3차 층화 : 내재적 층화(implicit stratification)
아파트 비율,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에 따라 지역별 1~3개로 층화

5 표본배분

- 역배분(power allocation)에 의해 지역별 표본 배분을 함

층화추출에서 흔히 고려되는 네이만배분(Neyman allocation)은 모집단 전체에 대해서나 큰 규모의 부모집단에 대해서는 매우 효율적인 표본할당을 제공하지만 소규모 부모집단에 대해서는 불충분한 표본을 할당시킴

$$n_h^{Neyman} = n \frac{N_h S_{yh}}{\sum_{h=1}^H N_h S_{yh}} \quad \text{여기서 } N_h \text{는 층크기이고 } S_{yh} \text{는 조사변수 } y \text{의 층분산}$$

이러한 단점을 피하고자 Bankier(1988)²⁾가 제시한 “역배분(power allocation)”을 고려할 수 있음. 역배분은 주어진 표본크기 n 을 H 개의 부모집단 (층)에 할당할 때, 층별 특성치 y 의 상대표준오차(coefficient of variation, CV) cv_{yh} 와 크기측도(measure of size) 혹은 중요도 t_{xh} 의 a 승의 곱에 비례하여 할당하는 것

$$n_h^{power} = \frac{(t_{xh})^a cv_{yh}}{\sum_{h=1}^H (t_{xh})^a cv_{yh}}$$

네이만배분은 $a = 1$ 과 $t_{xh} = t_{yh}$ 을 갖는 역배분의 특수형태이고, 층별 상대표준오차가 거의 동일하고 $t_{xh} = N_h$ 이라면 역배분은 층크기 기준의 절충배분의 특수형태임

기존 조사들은 주요 분석 특성들을 달리하며 하나 이상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갖는 상대표준오차들 cv_{qh} 의 조화평균을 고려

$$cv_{yh} = \left(\frac{1}{Q} \sum_{q=1}^Q cv_{qh}^{-1} \right)^{-1}$$

2) Bankier, M.D. (1988). Power allocations: determining sample sizes for subnational areas. The American Statistician 42, pp.174~177.

시도별 표본배분 결과

지역	아파트	비아파트	합계
소계	910	3,100	4,010
경기	230	250	480
강원	60	280	340
충북	110	290	400
충남	100	340	440
전북	10	390	400
전남	80	600	680
경북	140	360	500
경남	180	320	500
제주	0	270	270

6 표본추출

- 1차 추출 : 표본 읍/면 추출 - 읍/면별 인구수 pps 추출
- 2차 추출 : 읍/면 내 조사구 추출 - 동읍/면 내 인구주택 조사구 pps 추출
- 3차 추출 : 가구 추출 - 조사구 명부 기초로 계통추출

5. 조사원 선정 및 교육

- 조사원 선정 : 2년 이상의 공공조사 경력자를 중심으로 선발하였으며, 1명의 조사원이 50가구 내외를 담당함
- 조사원 교육 : 집합교육과 수시교육으로 나누어 실시
 - 집합교육 : 투입된 모든 조사원을 대상으로 일관성 있는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의 목적과 필요성, 조사방법 및 조사내용, 유의사항, 친절도에 대한 교육
 - 수시교육 : 응답거부 시 대처방안과 유형별 사례를 공유하여 문제점 해결
 - 모든 조사원이 동일한 개념과 기준을 적용하여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침서를 마련하여 조사원 교육 실시

6. 조사방법

- 조사대상 : 전국 196개 읍/면의 401개 마을에 거주하는 4,010가구
 - 전체 4,010가구 중 통상적인 응답률을 고려하여 95%(3,810가구)로 목표 응답률 설정
 - 3,934가구(응답률 98.1%) 조사 완료

-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직접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
 - 직접면접식과 자기기입식 병행
- 표본대체 : 통계적 유의성을 가진 대체방안 마련 및 그에 따른 조사 진행
 - 3회 방문 후 대체 진행을 원칙으로 함
 - 기타 장기부재,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대체 진행
- 조사 일정 : 9월 1일~10월 11일(1.5개월 - 추석연휴 제외)

7. 조사내용

-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관련 실태 및 의식에 관한 내용
 - 교육, 가족, 지역개발 및 공동체 3개 부문, 80개 항목
- 일반적인 문항의 경우 다항선택형 질문(Multiple-choice Question)과 개방형 질문(Open-ended Question)을 사용함
- 각종 평가적 신념(만족도, 인식 등)을 측정하는 척도로 Likert 척도(5점 척도)를 주로 사용함

구분		조사항목
일반사항		가족 수, 가구주와의 관계, 성, 연령, 혼인상태, 학력, 직업, 동거여부, 농어가 여부, 장애 가구원 현황, 결혼이민자 현황,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해당 여부 등
생활 전반	이주 실태	현 거주지 고향 여부 및 이주 후 거주기간, 이주 직전 주택 위치 등
	주택 여건	주택 건축년도, 주택 종류 및 점유형태 등
	생활여건	이주의향, 지역생활 영역별 중요도 및 만족도,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 행복의 영향요인, 전반적인 생활여건에 대한 만족도 등
교육	평생교육	평생교육 수강경험 및 향후 수강의사, 평생교육을 받고자 할 때의 애로사항 등
	학생교육	자녀에 대한 기대학력, 학교교육 여건 만족도, 자녀의 방과 후 시간 활용, 사교육 수강 여부 및 월 평균 사교육 비용, 방과 후 참여 실태 등
가족	부모와의 관계	부모님 동거 여부 및 비동거 부모와의 교류 실태, 부모의 생활비 마련 방법, 부모의 노후 생계 돌봄 주체, 노부모 부양에 대한 태도 등
	자녀와의 관계	부모의 책임에 대한 태도, 자녀 및 자녀 양육에 대한 태도 등
	가족 가치관	결혼 문화에 대한 태도, 성역할 및 여성 취업에 대한 태도, 자녀 성별에 대한 태도 등
	부부관계	부부 의사결정 구조, 부부 역할분담 실태 등
지역개발 및 공동체	지역개발	지역발전 정도에 대한 인식, 마을의 지역자원 활용, 농촌지역 우선 필요정책, 마을의 안전정도, 지역 안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등
	공동체	외부인 수용성, 마을 주민들 간의 친밀도 변화, 마을주민들 간의 친밀도 변화, 농촌 계속 거주 의향 실태,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참여하고 있는 지역사회 단체 실태, 공동체의식 함양 요인, 마을리더 역할의 중요도 등

8. 자료처리 및 분석

1 자료처리

- 확인/검증을 거친 최종 유효자료에 대해 코딩(Coding), 수정(Editing)과정을 거쳐 R을 이용,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교차분석(Crosstabs Analysis) 등으로 통계분석함
-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 교육여건 만족도 등 평가적 신념과 관련된 문항의 직관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평균값(Mean) 산출[100점 만점 환산 $[(X_i-1) \times 25]$ 점, X_i :측정값]
- 종합만족도³⁾ 산출방법 : 상관관계 분석으로 상관계수를 활용해 중요도를 산출하고 중요도를 감안해 종합만족도를 산출함



3) 종합만족도 : '전체 체감만족도'(전체 만족도에 대한 실측값)에 대한 요인을 구성하는 '요인별 체감만족도'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상관계수 및 중요도를 산출하고 중요도를 감안한 '전체 차원만족도'와 '전체 체감만족도'를 함께 고려해 '전체 종합만족도'를 산출함

② 추정

● 기호 정의: 층화 다단 집락추출법 추정을 위해 필요한 기호 정의

- Y : 모총계
- $\bar{Y}$: 모평균
- h : 시도, 특성에 따라 나눈 h 번째 층 ($h=1, 2, \dots, H$)
- i : i 번째 표본 읍/면
- j : j 번째 표본 가구
- y_{hij} : h 층에 속한 i 번째 읍/면의 j 번째 가구의 속성치
- $y_{hi.}$: h 층에 속한 i 번째 읍/면의 총계 추정치
- w_{hij} : h 층에 속한 i 번째 읍/면의 j 번째 가구의 설계가중치
- $w_{hi.}$: h 층에 속한 i 번째 읍/면의 설계가중치
- N_h : h 층에 속한 모집단 동/면들의 수
- n_h : h 층에 속한 표본 읍/면들의 수
- m_{hi} : h 층, i 번째 읍/면의 표본 가구수

● 총계 및 분산추정

$$\hat{Y} = \sum_{h=1}^H \sum_{i=1}^{n_h} w_{hi.} \cdot y_{hi.}$$

$$\hat{V}(\hat{Y}) = \sum_{h=1}^H \hat{V}_h(\hat{Y})$$

$$\text{여기서, } \hat{V}_h(\hat{Y}) = \frac{n_h(1-f_h)}{n_h-1} \sum_{i=1}^{n_h} (y_{hi.} - \bar{Y}_h)^2, \quad \bar{Y}_h = \frac{\sum_{i=1}^{n_h} y_{hi.}}{n_h}$$

● 모평균 및 분산추정

$$\cdot \hat{\bar{Y}} = \left(\sum_{h=1}^H \sum_{i=1}^{n_h} \sum_{j=1}^{m_{hi}} w_{hij} \cdot y_{hij} \right) / w_{..}$$

$$\text{여기서, } w_{..} = \sum_{h=1}^H \sum_{i=1}^{n_h} \sum_{j=1}^{m_{hi}} w_{hij}$$

$$\cdot \hat{V}(\hat{\bar{Y}}) = \sum_{h=1}^H \hat{V}_h(\hat{\bar{Y}})$$

$$\text{여기서, } \hat{V}_h(\bar{Y}) = \frac{n_h(1-f_h)}{n_h-1} \sum_{i=1}^{n_h} (e_{hi} - \bar{e}_{h..})^2,$$

$$e_{hi.} = \left(\sum_{j=1}^{m_{hi}} w_{hij} (y_{hij} - \hat{\bar{Y}}) \right) / w_{..}$$

$$\bar{e}_{hi.} = \left(\sum_{i=1}^{n_h} Y_{hi} \right) / n_h$$

● 설계가중치

- 1차층(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내의 가구들은 가중치 동일

$$\cdot w_{hij} = \frac{N_h}{m_{h+}} \quad , \quad m_{h+} = \sum_i \sum_j m_{hij}$$

- 읍/면부의 가중치는 최소 제주의 185에서 최대 경기의 1,580 사이의 범위

<읍/면부 가구의 설계가중치>

구분	층 번호	총 가구수	표본 가구수	가중치
경기	1	268,893	220	1,222
	2	410,821	260	1,580
강원	1	64,536	100	645
	2	25,575	40	639
	3	73,893	120	616
	4	47,433	80	593
충북	1	76,607	140	547
	2	41,629	80	520
	3	102,315	180	568

<읍/면부 가구의 설계가중치>

구분	층 번호	총 가구수	표본 가구수	가중치
충남	1	176,626	200	883
	2	59,831	60	997
	3	225,124	180	1,251
경북	1	245,825	240	1,024
	2	119,963	120	1,000
	3	180,125	140	1,287
경남	1	174,122	180	967
	2	151,533	160	947
	3	208,410	160	1,303
전북	1	122,466	200	612
	2	27,398	80	342
	3	60,008	120	500
전남	1	244,173	460	531
	2	70,973	120	591
	3	80,054	100	801
제주	1	50,020	270	185

● 사후층화에 대한 가중치 조정

- 조사 완료된 표본 응답자의 층별 연령대별 비율을 보면 상대적으로 60대와 70대 이상 고령층의 응답자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층별 표본응답자 연령대별 비율>

층 구분	20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합계
경기	12.0	13.4	23.1	20.3	31.2	100.0
강원	6.0	7.2	18.4	23.1	45.3	100.0
충북	7.0	12.9	15.4	22.9	41.8	100.0
충남	4.8	8.4	14.1	22.5	50.2	100.0
경북	6.0	9.2	14.5	19.8	50.5	100.0
경남	14.3	16.2	14.7	23.6	31.2	100.0
전북	1.7	6.2	8.2	24.4	59.5	100.0
전남	1.8	7.8	11.5	22.2	56.7	100.0
제주	4.7	14.0	17.3	25.0	39.0	100.0

- 2010년 총조사 결과에 의한 모집단 연령대별 비율을 보면 표본에 비해 50대 이하 인구비율이 높고, 60대 이상 인구 비율이 낮음
- 표본 응답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령층의 응답자 비율이 높게 나와 사후층화에 의한 가중치 조정이 필요

<층별 모집단 연령대별 비율>

층 구분	20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합계
경기	19.5	23.3	18.9	15.3	23.0	100.0
강원	6.1	13.5	23.1	21.8	35.4	100.0
충북	5.7	12.8	21.8	22.8	36.9	100.0
충남	7.8	13.5	13.8	24.8	40.1	100.0
경북	7.6	12.1	14.8	18.7	46.8	100.0
경남	10.8	19.1	15.3	18.8	36.0	100.0
전북	3.5	5.8	14.2	31.2	45.4	100.0
전남	2.2	6.7	14.2	29.2	47.8	100.0
제주	4.7	19.1	31.3	16.4	28.5	100.0

- 층별 모집단 연령대별 인구를 벤치마킹 변수로 하는 사후층화⁴⁾를 실시한 결과 사후 조정된 층별 표본 응답자 연령대별 비율은 다음과 같음
- 모집단 비율에 상당 부분 근접해진 것을 알 수 있음

<가중치 조정 후 층별 표본응답자 연령대별 비율>

층 구분	20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합계
경기	19.7	24.5	24.4	15.2	16.2	100.0
강원	15.5	20.0	25.8	17.2	21.5	100.0
충북	17.2	21.0	23.9	16.3	21.6	100.0
충남	17.8	20.6	22.9	16.5	22.2	100.0
경북	15.0	20.1	23.9	17.5	23.5	100.0
경남	18.9	22.6	23.2	15.7	19.6	100.0
전북	13.5	18.0	22.5	18.5	27.5	100.0
전남	14.2	19.0	22.0	17.8	27.0	100.0
제주	16.5	23.5	23.2	15.5	21.3	100.0

4) Holt, D., Smith, T.M.F.(1979). Post-stratification.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142(1), pp.33~46.

- 조사 완료된 표본 응답자의 층별 주택종류별 비율을 보면 상대적으로 단독주택 비율이 높음

<층별 표본응답자 주택종류별 비율>

층 구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타	합계
경기	46.1	46.8	5.2	1.7	0.2	100.0
강원	69.6	18.7	7.3	2.2	2.2	100.0
충북	58.2	29.4	5.5	3.2	3.7	100.0
충남	71.6	20.0	3.6	0.5	4.3	100.0
경북	67.3	26.1	5.2	1.0	0.4	100.0
경남	55.5	37.3	1.2	4.6	1.5	100.0
전북	90.8	2.5	4.0	0.0	2.7	100.0
전남	85.6	11.9	2.1	0.3	0.2	100.0
제주	86.4	3.4	8.5	1.7	0.0	100.0

- 2010년 총조사 결과에 의한 모집단 주택종류별 비율을 보면 표본에 비해 단독주택 비율이 낮고 아파트 비율이 높음
- 표본 응답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령층의 응답자 비율이 높게 나와 사후층화에 의한 가중치 조정이 필요

<층별 모집단 주택종류별 비율>

층 구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타	합계
경기	37.9	47.7	6.1	6.7	1.5	100.0
강원	65.4	26.9	4.6	1.0	2.0	100.0
충북	61.7	31.4	4.2	1.3	1.4	100.0
충남	59.8	33.8	3.5	1.8	1.1	100.0
경북	66.9	27.7	1.5	2.5	1.3	100.0
경남	55.8	39.5	1.8	1.8	1.2	100.0
전북	84.0	13.2	1.4	0.3	1.0	100.0
전남	80.3	16.1	1.9	0.7	1.1	100.0
제주	83.5	5.4	6.6	3.2	1.4	100.0

- 층별 모집단 주택종류별 인구를 벤치마킹 변수로 하는 사후층화⁵⁾를 실시한 결과 사후 조정된 층별 표본응답자 주택종류별 비율은 다음과 같음
- 모집단 비율에 상당 부분 근접해진 것을 알 수 있음

<가중치 조정 후 층별 표본응답자 주택종류별 비율>

층 구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타	합계
경기	37.3	46.9	6.0	6.6	3.2	100.0
강원	64.8	26.7	4.6	1.0	2.9	100.0
충북	61.2	31.1	4.1	1.3	2.2	100.0
충남	59.4	33.5	3.4	1.8	1.9	100.0
경북	83.7	13.2	1.4	0.0	1.7	100.0
경남	79.8	16.0	1.8	0.7	1.7	100.0
전북	66.5	27.5	1.5	2.5	2.0	100.0
전남	55.3	39.1	1.8	1.7	2.1	100.0
제주	84.6	5.5	6.7	3.2	0.0	100.0

5) Holt, D., Smith, T.M.F.(1979). Post-stratification.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142(1), pp.33~46.

제1부 개인 설문조사

 2015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 1100> 일반사항
- 1200> 생활전반
- 1300> 교육
- 1400> 가족
- 1500> 지역개발 및 공동체

1100> 일반사항

- 1110>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1120> 조사대상 가구의 일반적 특성
- 1130> 장애 가구원 유무 및
장애 종류와 등급
- 1140> 결혼이민자 유무

1110>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 '가구주'가 58.7%, '여성'이 58.2%, [60대 이상] 연령층이 36.4%
- ▶ '농어업종사자'가 30.7%, 종사자 지위로 '자영업자'가 50.2%



'가구주'가 58.7%, '여성'이 58.2%, [60대 이상] 연령층이 36.4%

[조사대상자(n=3,934) 중 응답자에 한해 - 가구주와의 관계, 성 : 응답률 100.0%(n=3,934)]

[연령 : 응답률 99.8%(n=3,925), 학력 : 응답률 99.2%(n=3,902)]

가구주나 배우자 중 1명이 응답하는 것을 원칙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응답자의 58.7%가 '가구주' 본인이며, 성별로는 '여성'(58.2%) 비중이 '남성'(41.8%)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연령별로 '60대'(16.2%), '70대 이상'(20.2%) 등 [60대 이상] 비중이 36.4%였으며, '30대 이하'(19.3%), '40대'(21.3%), '50대'(23.1%) 비중은 비슷한 수준이었다.

학력별로 '고등학교'(31.6%), '대학교'(23.2%), '대학원 이상'(1.8%) 등 [고등학교 이상](56.6%) 비중이 '초등학교'(19.2%), '중학교'(13.7%), '무학/미취학'(10.6%) 등 [중학교 이하] (43.4%)에 비해 높았다.

| 표1110-(1) |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1)

단위 : %(명)

구분			구성비	구분			구성비
가구주와의 관계	합계	(3,934)	100.0	성	합계	(3,934)	100.0
	가구주	(2,310)	58.7		남	(1,643)	41.8
	가구주 배우자	(1,624)	41.3		여	(2,291)	58.2
연령	합계	(3,925)	100.0	학력	합계	(3,902)	100.0
	30대 이하	(758)	19.3		무학/미취학	(412)	10.6
	40대	(836)	21.3		초등학교	(748)	19.2
	50대	(905)	23.1		중학교	(534)	13.7
	60대	(634)	16.2		고등학교	(1,234)	31.6
	70대 이상	(792)	20.2		대학교	(905)	23.2
					대학원 이상	(69)	1.8

 '농어업종사자'가 30.7%, '자영업자'가 50.2%

[직업 - 조사대상자(n=3,934) 중 응답자에 한해 : 응답률 97.8%(n=3,847)]

[종사자 지위 - 군인 및 주부/무직/기타를 제외한 자영업/직장인층(n=2,382) 중 응답자에 한해 : 응답률 99.5%(n=2,371)]

직업별로는 '주부/무직/기타'(38.0%), "사무 종사자"(9.2%), "서비스 종사자"(4.9%), "단순노무 종사자"(4.7%),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3.8%) 등 '자영업/직장인'(31.3%), '농어업종사자'(30.7%) 비중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종사자 지위로 '자영업자'(50.2%)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상용직'(25.4%), '무급가족 봉사자'(14.1%), '일용직'(6.0%), '임시직'(4.4%) 순이었다.

| 표1110 - (2) |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2)

단위 : %(명)

구분				구분			
구분			구성비	구분			구성비
직업	합계	(3,847)	100.0	종사자 지위	합계	(2,371)	100.0
	농어업종사자	(1,180)	30.7		자영업자	(1,191)	50.2
	관리자	(45)	1.2		상용직	(601)	25.4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144)	3.8		임시직	(104)	4.4
	사무 종사자	(352)	9.2		일용직	(142)	6.0
	서비스 종사자	(187)	4.9		무급가족 봉사자	(334)	14.1
	판매 종사자	(108)	2.8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11)	2.9				
	장치, 기계조작및 조립 종사자	(73)	1.9				
	단순노무 종사자	(181)	4.7				
	주부/무직/기타	(1,463)	38.0				

1120> 조사대상 가구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 가구(n=3,934) 중 응답가구에 한해]

[농어가 여부, 총 가구원 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 : 응답률 100.0%(n=3,934)/ 가족형태 : 응답률 99.6%(n=3,918)]

▶ 농어가가 34.2%, 가구원 수는 평균 2.9명, '2세대 가구'가 49.8%

농어촌 가구 중 농어가가 34.2%였으며, 면지역(42.4%)에서 농어가 비중이 읍지역(12.4%)에 비해 다소 높았다. 가구원 수는 '2명'(30.2%) 비중이 가장 높아 평균 2.9명이었으며, 부부 중심의 '1세대' 가구가 24.6%, 부모, 자녀 중심의 '2세대' 가구가 49.8%로 나타났다. 한편, 홀로 사는 '1인 가구'가 15.9%였다. 조사 대상 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는 4.0%, '차상위계층 가구'는 1.5%였다.

| 표1120 | 조사대상 가구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구분			구성비	구분			구성비
농어가 여부	합계	(3,934)	100.0	가족 형태	합계	(3,918)	100.0
	농어가	(1,346)	34.2		1인가구	(624)	15.9
	비농어가	(2,588)	65.8		1세대	(965)	24.6
총 가구원 수	합계	(3,934)	100.0		2세대	(1,952)	49.8
	1명	(633)	16.1		3세대	(372)	9.5
	2명	(1,187)	30.2		4세대	(4)	.1
	3명	(781)	19.8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 여부	합계	(3,934)	100.0
	4명	(851)	21.6		수급층	(159)	4.0
	5명	(329)	8.4		차상위계층 ⁶⁾	(59)	1.5
	6명 이상	(154)	3.9		해당없음	(3,716)	94.5

6) 최저생계비 대비 1~1.2배의 소득이 있는 '잠재 빈곤층'과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고정재산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을 합쳐 이르는 말이다.

1130> 장애 가구원 유무 및 장애 종류와 등급

- ▶ 장애 가구원이 있는 가구가 11.4%, '가구주' 비중이 58.0%
- ▶ '지체장애'(52.1%)가 주된 장애종류, 장애 급수로 '3급'(23.4%), '2급', '5급'(각 20.2%) 비중이 높음

장애 가구원이 있는 가구가 11.4%, '가구주' 비중이 5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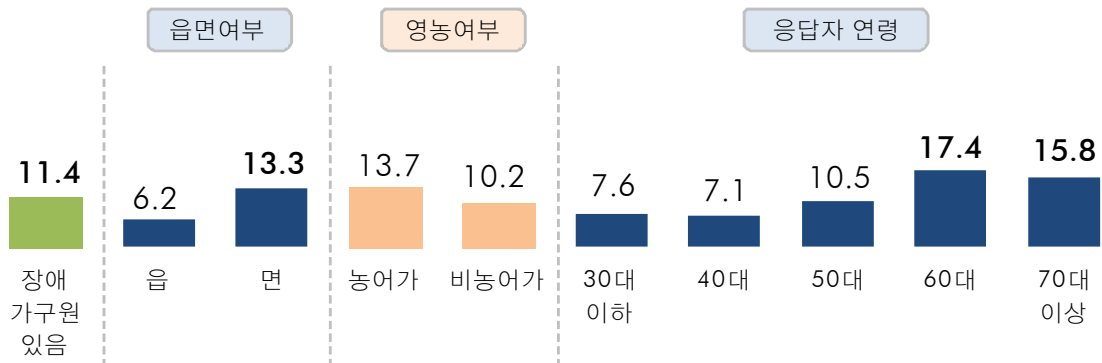
귀택에 장애가 있는 가구원이 있으십니까?

[장애 가구원 유무 - 조사대상 가구(n=3,934) 기준/ 가구주와의 관계 -장애 가구원(n=490) 기준, 중복응답, 100.0% 환산]

장애 가구원이 있는 가구가 11.4%로, 먼지역,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장애 가구원이 있는 가구 비중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 그림1130 - (1) | 장애 가구원 유무

단위 : %



장애 가구원 유무 - 추이

- 2014년 대비 장애 가구원이 있는 가구가 비슷한 수준(+0.8%p)

| 그림1130 - (2) | 장애 가구원 유무 - 추이



가구주와의 관계(n=485)로 ‘가구주’ 본인이 58.0%로 절반가량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가구주의 배우자’(18.2%), ‘가구주의 자녀’(11.3%), ‘부모’(7.5%), ‘자녀의 배우자’(1.9%), ‘손자녀/그 배우자’(1.3%), ‘기타 친인척’(1.0%), ‘형제자매/그 배우자’(0.8%) 순이었다.

읍지역, 비농어가에서 ‘가구주’ 비중이 더욱 높은 반면, 농어가에서 ‘가구주의 배우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표1130 - (1) | 가구주와의 관계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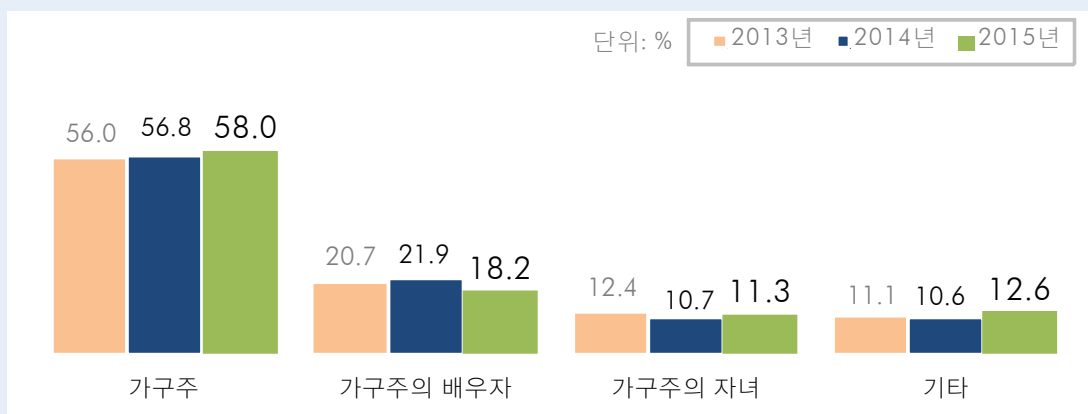
구분			가구주	가구주의 배우자	가구주의 자녀	자녀의 배우자	손자녀/그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그 배우자	기타 친인척
합계 (485)			58.0	18.2	11.3	1.9	1.3	7.5	0.8	1.0
읍/면	읍 (70)		62.3	18.8	11.0	2.3	2.2	3.4	0.0	0.0
	면 (414)		57.2	18.1	11.3	1.8	1.2	8.2	1.0	1.2
영농 여부	농어가 (195)		53.6	21.9	13.9	1.0	0.9	6.6	2.1	0.0
	비농어가 (290)		60.9	15.7	9.5	2.5	1.6	8.1	0.0	1.7



가구주와의 관계 - 추이

- 조사연도에 관계 없이 비슷한 분포를 보임

| 그림1130 - (3) | 가구주와의 관계 - 추이





‘지체장애’(52.1%)가 주된 장애종류, 장애 급수로 ‘3급’(23.4%) 비중이 높음

귀하를 포함하여 장애가 있는 가구원의 장애종류와 등급은 무엇입니까?

[장애가구원(n=490)이 있는 가구 중 응답가구에 한해]

[장애 종류 : 응답률 99.6%(n=488), 중복 여부 : 응답률 100.0%(n=490), 장애 등급 : 응답률 97.8%(n=479)]

장애종류로 ‘지체장애’(52.1%)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시각장애’(9.5%), ‘뇌병변장애’(8.7%), ‘청각장애’(7.4%) ‘정신지체’(6.7%), ‘언어장애’(6.3%), ‘신장장애’(4.9%), ‘정신장애’(1.0%) 순이었다. 한편, ‘중복’ 장애를 가진 가구원은 10.6%로 나타났다.

읍지역에서 ‘지체장애’, 중복장애 ‘비해당’ 비중이 더욱 높았다.

| 표1130 - (2) - ① | 장애종류 및 중복 여부

단위 : %(명)

구분		장애 종류									중복여부		
		사례수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사례수	비해당	중복
합계		(488)	52.1	8.7	9.5	7.4	6.3	6.7	1.0	4.9	(490)	89.4	10.6
읍/면	읍	(71)	58.4	9.9	8.5	6.9	0.6	1.6	3.3	4.7	(72)	97.7	2.3
	면	(417)	51.1	8.4	9.6	7.5	7.3	7.6	0.6	4.9	(419)	88.0	12.0
영농 여부	농어가	(199)	52.4	8.3	7.4	7.0	9.9	8.4	1.3	1.9	(199)	88.8	11.2
	비농어가	(289)	51.9	8.9	10.9	7.7	3.9	5.5	0.8	6.9	(291)	89.8	10.2

*장애종류 : 1.0% 미만은 제시하지 않음



장애 종류 및 중복 여부 - 추이

- 2014년에 비해 ‘지체장애’ 비중이 감소(-5.4%p)한 반면, ‘언어장애’(+4.6%p), ‘정신 지체’(+3.6%p), ‘중복’ 장애(+3.1%p) 비중이 약간 증가

| 표1130 - (2) - ② | 장애종류 및 중복 여부 - 추이

단위 : %(명)

구분	장애 종류									중복여부		
	사례수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사례수	비해당	중복
2015	(488)	52.1	8.7	9.5	7.4	6.3	6.7	1.0	4.9	(490)	89.4	10.6
2014	(447)	57.5	8.3	10.4	8.8	1.7	3.1	2.3	3.1	(447)	92.5	7.5
2013	(129)	45.7	11.5	10.0	8.4	2.9	5.4	2.7	5.9	(129)	79.5	20.5

*장애종류 : 2015년 기준 1.0% 미만은 제시하지 않음

장애등급으로 '3급'(23.4%)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2급', '5급'(각 20.2%), '4급'(13.6%), '6급'(13.0%), '1급'(9.5%) 순이었다.

읍지역에서 '6급', 비농어가에서 '5급' 비중이 다소 높은 반면, 면지역, 농어가에서 '2급' 비중이 다소 높았다.

| 표1130 - (3) | 장애 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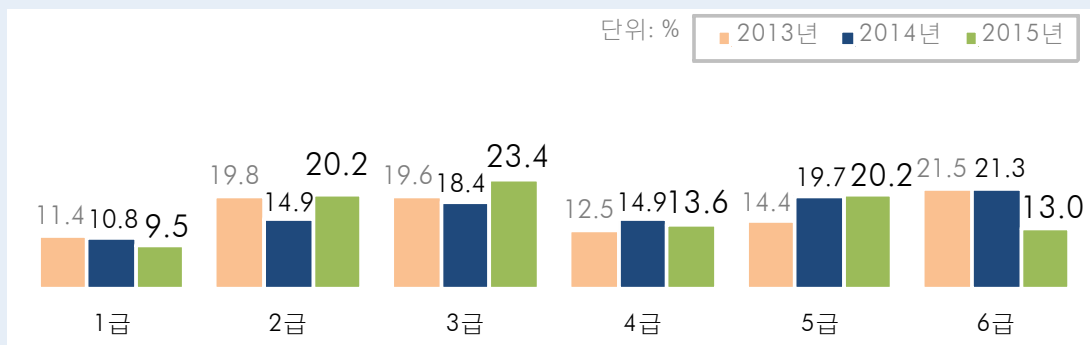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합계 (479)			9.5	20.2	23.4	13.6	20.2	13.0
읍/면	읍 (71)		5.4	11.5	25.0	12.7	23.9	21.5
	면 (408)		10.3	21.7	23.2	13.8	19.6	11.5
영농 여부	농어가 (196)		5.4	24.7	24.9	16.8	15.9	12.3
	비농어가 (283)		12.4	17.0	22.4	11.4	23.2	13.5

장애 등급 - 추이

- 2014년에 비해 '2급'(+5.3%p), '3급'(+5.0%p) 비중이 증가한 반면, '6급' 비중이 감소(-8.3%p)

| 그림1130 - (4) | 장애등급 - 추이



1140> 결혼이민자 유무

▶ 결혼이민자가 있는 가구가 2.6%, 결혼이민자의 주요 출신국가는 '중국'(43.9%)과 '베트남'(34.4%)

 결혼이민자가 있는 가구가 2.6%, '가구주의 배우자'가 81.0%

귀댁에는 결혼이민자가 있으십니까?

[결혼 이민자 유무 - 조사대상 가구(n=3,934) 기준, 가구주와의 관계 - 결혼이민자(n=113)가 있는 가구 기준]

결혼이민자가 있는 가구가 2.6%로 나타난 가운데, 가구주와의 관계로 '가구주의 배우자'(81.0%) 비중이 매우 높았으며, '가구주'(11.8%), '자녀의 배우자'(6.4%), '손자녀/그 배우자'(0.8%)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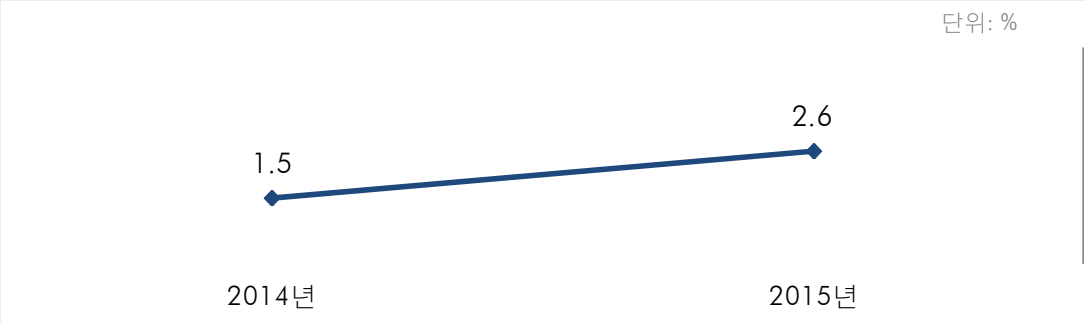
| 표1140 - (1) | 결혼이민자 유무 단위: %(명)

구분		결혼이민자 유무		가구주와의 관계				
		사례수	있음	사례수	가구주	가구주의 배우자	자녀의 배우자	손자녀/ 그 배우자
합계		(3,934)	2.6	(113)	11.8	81.0	6.4	0.8
읍/면	읍	(1,071)	2.0	(22)	4.3	87.8	7.9	0.0
	면	(2,863)	2.8	(91)	13.6	79.4	6.0	1.0
영농 여부	농어가	(1,346)	3.3	(44)	3.6	82.6	11.7	2.1
	비농어가	(2,588)	2.2	(69)	17.1	80.0	3.0	0.0

결혼 이민자 유무 - 추이

- 2014년 대비 결혼 이민자가 있는 가구가 비중이 비슷한 수준(+1.1%p)

| 그림1140 | 결혼이민자 유무 - 추이





결혼이민자의 주요 출신국가는 '중국'(43.9%), '베트남'(34.4%)

결혼이민자의 출신국가는 어디입니까?

[결혼이민자(n=113)가 있는 가구 기준]

결혼이민자(n=113)의 출신국가로 '중국'(43.9%), '베트남'(34.4%)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필리핀'(9.0%), '일본'(7.5%), '태국'(3.6%) '네팔'(0.5%), '우즈베키스탄', '미국'(각 0.4%), '몽골'(0.3%) 순이었다.

| 표1140 - (2) | 출신국가

단위 : %(명)

구분		중국	몽골	일본	베트남	태국	필리핀	네팔	우즈베키스탄	미국
합계 (113)		43.9	0.3	7.5	34.4	3.6	9.0	0.5	0.4	0.4
읍/면	읍 (22)	42.3	1.5	18.1	32.0	0.0	1.4	2.6	0.0	2.1
	면 (91)	44.3	0.0	5.0	35.0	4.4	10.8	0.0	0.5	0.0
영농 여부	농어가 (44)	33.1	0.8	10.3	37.8	9.1	7.9	0.0	1.0	0.0
	비농어가 (69)	50.9	0.0	5.7	32.3	0.0	9.6	0.8	0.0	0.7

1200> 생활전반

- 1210> 현 거주지 고향 여부
- 1220> 주택의 건축년도
- 1230> 주택의 종류 및 점유 형태
- 1240> 향후 이주의향
- 1250> 지역생활 만족도
- 1260>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

1210> 현 거주지 고향 여부

- ▶ [이주민](54.7%) 비중이 [선주민](45.3%) 보다 높은 수준
- ▶ 이주 직전 주택 위치로 '현재 살고 있는 시/군 내'(48.3%) 등 [농어촌→농어촌] 비중이 72.7%



[이주민](54.7%) 비중이 [선주민](45.3%) 보다 높은 수준

귀하께서 현 거주지로 이주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현 거주지 고향 여부 : 조사대상 가구(n=3,934) 중 응답자에 한해 : 응답률 99.8%(n=3,927)]

‘이주했다’(50.5%), ‘현 거주지가 고향이지만 외지에 나갔다가 다시 이주했다’(4.2%) 등 [이주민]이 54.7%로, 현 거주지가 고향인 [선주민](45.3%) 비중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읍지역, 비농어가, 40대 이하 연령층에서 [이주민] 비중이 높은 반면, 면지역, 농어가, 연령대가 높을수록 [선주민] 비중이 높았다.

| 표1210- (1) | 현 거주지 고향 여부

단위 : %(명)

구분			이주 했다	현 거주지가 고향이지만 외지에 나갔다가 다시 이주했다	이주민 (합)	현 거주지가 고향이다	선주민 (합)
합계			(3,927)	50.5	4.2	54.7	45.3
읍/면	읍	(1,067)	70.1	3.6	73.7	26.3	26.3
	면	(2,860)	43.1	4.4	47.6	52.4	52.4
영농 여부	농어가	(1,346)	22.8	5.5	28.2	71.8	71.8
	비농어가	(2,581)	64.9	3.6	68.5	31.5	31.5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756)	74.2	2.7	76.9	23.1	23.1
	40대	(833)	63.3	6.5	69.8	30.2	30.2
	50대	(905)	49.7	3.8	53.5	46.5	46.5
	60대	(633)	39.5	5.4	44.9	55.1	55.1
	70대 이상	(792)	23.8	2.7	26.5	73.5	73.5

 이주층의 특성

 이주층의 이주 후 평균 거주 기간은 현 거주지가 고향이었던 층이 약간 더 김(평균 +3.2년)

귀하께서 현 거주지로 이주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이주 후 거주기간 : 이주층(n=1,982/165)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9.9%(n=1,981)/100.0%(n=165)]

‘이주했다’는 층(n=1,981)의 이주 후 거주기간으로 ‘1-3년 미만’(23.3%), ‘5-10년 미만’(23.2%), ‘3-5년 미만’(12.5%), ‘1년 미만’(6.7%) 등 [10년 미만] 비중이 절반 이상(65.7%)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10-30년 미만’(25.3%), ‘30-50년 미만’(6.7%), ‘50년 이상’(2.3%) 순으로 평균 거주기간은 10.0년이였다.

면지역, 농어가, 연령대가 높을수록 평균 거주기간이 길었다.

| 표1210 - (2) - ① | 이주 후 거주기간(‘이주했다’층) 단위 : %(명)

구분		평균	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30년 미만	30-50년 미만	50년 이상
합계 (1,981)		10.0년	6.7	23.3	12.5	23.2	25.3	6.7	2.3
읍/면	읍 (747)	7.9년	10.6	22.8	12.7	25.5	23.6	3.6	1.2
	면 (1,233)	11.3년	4.4	23.7	12.3	21.9	26.3	8.5	2.9
영농 여부	농어가 (307)	20.2년	1.8	7.6	4.8	20.9	36.6	21.3	7.1
	비농어가 (1,674)	8.1년	7.6	26.2	13.9	23.6	23.2	4.0	1.4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561)	4.6년	10.0	32.0	18.8	27.2	10.7	1.4	
	40대 (527)	7.4년	4.8	23.9	11.5	28.5	30.3	1.1	
	50대 (449)	10.2년	7.8	23.1	9.3	19.1	33.5	6.5	.7
	60대 (250)	15.6년	5.1	12.5	11.0	18.5	30.7	20.6	1.7
	70대 이상 (188)	25.6년	1.5	11.6	6.4	12.3	28.2	20.0	19.9

‘현 거주지가 고향이지만 외지에 나갔다가 다시 이주’한 층(n=165)의 이주 후 거주기간으로 ‘10-30년 미만’(45.2%)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1-3년 미만’(15.4%), ‘5-10년 미만’(13.3%), ‘3-5년 미만’(9.8%), ‘1년 미만’(4.7%) 등 [10년 미만](43.2%), ‘30-50년 미만’(9.4%), ‘50년 이상’(2.1%) 순이었다. 이주층에 비해 ‘10-30년 미만’ 비중이 높아(+19.9%p) 평균 거주기간(13.2년)이 약간 더 긴(+3.2년) 것으로 나타났다.

면지역, 농어가, 연령대가 높을수록 평균 거주기간이 길었다.

| 표1210-(2)-② | 이주 후 거주기간(‘현 거주지가 고향이지만 외지에 나갔다가 다시 이주했다’층) 단위: %(명)

구분			평균	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30년 미만	30-50년 미만	50년 이상
합계 (165)			13.2년	4.7	15.4	9.8	13.3	45.2	9.4	2.1
읍/면	읍 (39)		8.8년	4.4	12.2	17.7	25.5	37.6	.3	2.3
	면 (127)		14.5년	4.8	16.4	7.4	9.6	47.6	12.2	2.0
영농 여부	농어가 (73)		17.2년	.4	11.5	4.5	12.3	54.2	15.3	1.8
	비농어가 (92)		9.9년	8.2	18.6	14.0	14.1	38.1	4.7	2.3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21)		8.0년		12.6	17.8	9.7	59.8		
	40대 (54)		8.6년		20.9	9.6	21.6	45.7	2.1	
	50대 (34)		15.1년	3.1	18.3	6.7	7.6	54.2	10.1	
	60대 (34)		13.8년	19.0	7.1	12.8	14.3	26.9	19.1	.8
	70대 이상 (21)		25.2년	1.5	13.7	3.3	3.6	45.1	18.0	14.9



‘현재 살고 있는 시/군 내’(48.3%) 등 [농어촌→농어촌] 비중이 72.7%

(이주층에 한해) 현 거주지로의 이주 직전에 거주하던 주택의 위치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이주 직전 주택 위치 : 이주층(n=2,147)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88.6%(n=1,903)]

‘현재 살고 있는 시/군 내’(48.3%), ‘다른 시/군의 농어촌(읍/면)’(24.4%) 등 농어촌 지역에서 이주해온 층이 72.7%로, ‘대도시(특별시, 광역시)’(18.3%), ‘중소도시(동)’(9.1%) 등 도시에서 이주해온 층(27.3%) 보다 많았다.

읍지역, 비농어가에서 농어촌에서 농어촌으로 이주한 비중이 높은 반면, 현 거주지가 고향이지만 외지에 나갔다가 다시 이주한 층에서 도시에서 농어촌으로 이주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표1210 - (3) | 이주 직전 주택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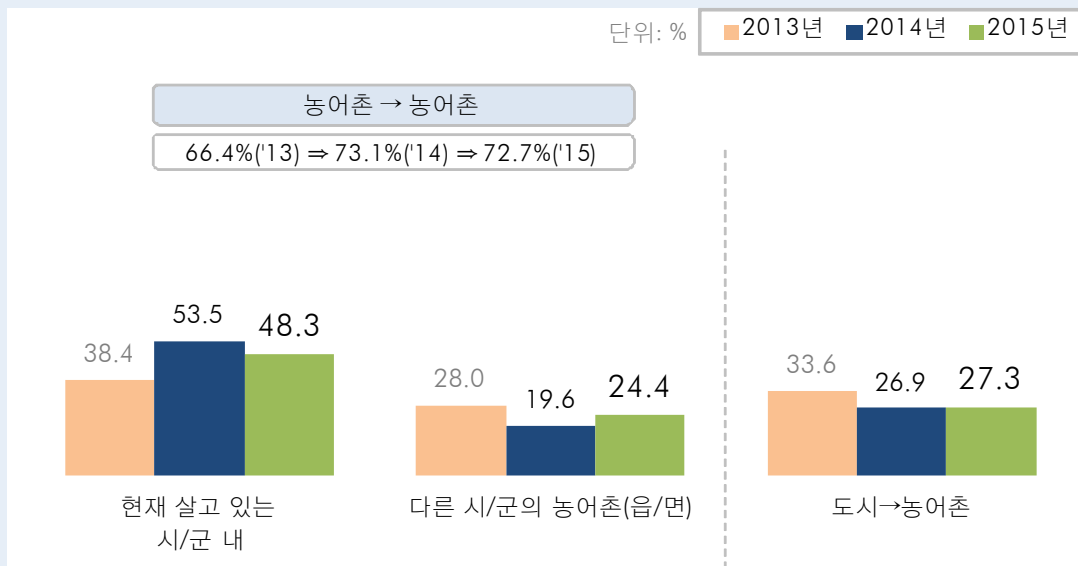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현재 살고 있는 시/군 내	다른 시/군의 농어촌 (읍/면)	농어촌 →농어촌	중소 도시 (동)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도시 →농어촌
합계 (1,903)			48.3	24.4	72.7	9.1	18.3	27.3
읍/면	읍 (692)		59.0	18.4	77.4	8.7	13.9	22.6
	면 (1,211)		42.2	27.8	70.0	9.3	20.8	30.0
영농 여부	농어가 (334)		46.2	20.3	66.5	8.4	25.1	33.5
	비농어가 (1,569)		48.8	25.2	74.0	9.2	16.8	26.0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540)		44.3	28.7	73.1	10.3	16.7	26.9
	40대 (508)		48.2	23.3	71.5	8.9	19.7	28.5
	50대 (410)		53.7	20.8	74.4	8.7	16.9	25.6
	60대 (250)		50.1	19.9	70.1	10.0	19.9	29.9
	70대 이상 (191)		46.7	28.1	74.8	6.0	19.3	25.2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했다 (1,746)		49.2	25.3	74.5	8.6	17.0	25.5
	현 거주지가 고향이지만 외지에 나갔다가 다시 이주했다 (157)		38.4	14.5	52.9	14.5	32.6	47.1

이주 직전 주택 위치 - 추이

- 2014년과 비슷한 분포를 보이는 가운데, '현재 살고 있는 시/군 내' 비중이 약간 감소 (-5.2%p) 한 반면, '다른 시/군의 농어촌(읍/면)' 비중이 증가(+4.8%p)

| 그림1210 | 이주 직전 주택 위치 - 추이



*2013년 다른 시/군의 농어촌(읍/면) : 현재 살고 있는 곳과 다른 군+현재 살고 있는 곳과 다른 시의 읍/면 지역

1220> 주택의 건축년도

현재 거주하고 계신 주택의 건축(신축)년도는 언제입니까?

[조사대상 가구(n=3,934)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6.1%(n=3,780)]

▶ 주택의 평균 노후정도는 평균 22.3년

‘1990년대’(34.5%), ‘2000년대’(31.4%)에 건축(신축)된 주택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1980년대’(11.2%), ‘1950년대 이전’(5.2%), ‘1970년대’(4.9%), ‘1960년대’(4.0%) 등 1980년대 이전에 지어져 30년 이상된 농어촌 주택이 25.3%로 전체 농어촌 가구의 1/4 가량을 차지했다. 농어촌 주택의 평균 노후정도는 22.3년이였다.

면지역, 농어가, 응답자 연령대가 높을수록, 선주민 층에서 주택 건축(신축) 후 경과 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 표1220 | 주택의 건축년도 단위 : %(명)

구분			평균	1950 년대이전	1960 년대	1970 년대	1980 년대	1990 년대	2000 년대	2010 년 이후
합계 (3,780)			22.3년	5.2	4.0	4.9	11.2	34.5	31.4	8.7
읍/면	읍 (996)		17.6년	1.5	1.5	2.2	7.2	35.8	45.5	6.3
	면 (2,784)		24.0년	6.6	5.0	5.8	12.7	34.0	26.4	9.6
영농 여부	농어가 (1,322)		25.9년	6.3	6.1	7.7	14.6	35.9	21.9	7.5
	비농어가 (2,458)		20.3년	4.7	2.9	3.4	9.4	33.7	36.6	9.3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714)		15.1년	1.8	.4	.1	4.6	35.1	45.8	12.2
	40대 (804)		18.0년	2.0	1.6	4.4	6.4	35.6	42.4	7.7
	50대 (860)		21.2년	3.1	4.8	3.3	13.6	36.7	26.4	12.2
	60대 (620)		23.6년	4.6	4.1	6.0	16.2	35.9	26.2	7.0
	70대 이상 (774)		33.6년	14.8	9.1	10.8	15.8	29.2	16.6	3.8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2,052)		17.6년	2.2	1.9	2.0	8.0	35.4	39.2	11.4
	선주민 (1,724)		27.9년	8.9	6.6	8.3	15.1	33.4	22.3	5.5



주택의 건축년도- 추이

- 2013년에 비해 2014년에 주택의 평균 노후 정도는 약간 더 긴(평균 +2.3년) 수준인 반면, 올해의 경우 2014년과 비슷한 수준(평균 -1.5년)

| 그림1220 | 주택의 건축년도 - 추이



1230> 주택의 종류 및 점유 형태

▶ ‘단독주택’ 비중이 59.7%, ‘자가’ 비중이 78.8%

 ‘단독주택’ 비중이 59.7%

현재 거주하고 계신 주택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조사대상 가구(n=3,934)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9.9%(n=3,929)]

주택의 종류로 ‘단독주택’(59.7%)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아파트’(32.2%), ‘연립주택’(3.2%), ‘다세대주택’(2.7%) 순이었다.

| 그림1230 - (1) | 주택종류 단위 : %



면지역, 농어가, 연령대가 높을수록, 선주민 층에서 ‘단독주택’ 비중이 더욱 높은 반면, 읍지역, 비농어가, 연령대가 낮을수록, 이주민 층에서 ‘아파트’ 비중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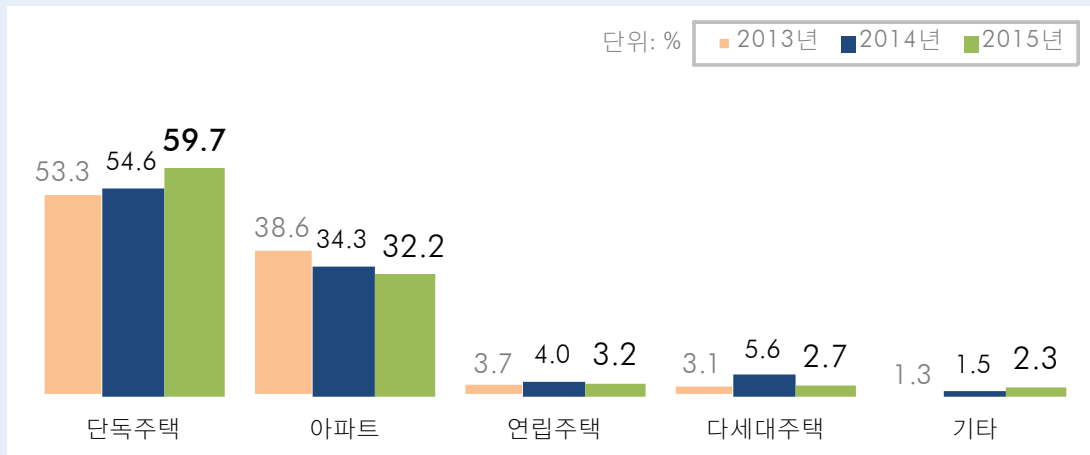
| 표1230 - (1) | 주택종류 단위 : %(명)

구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타
합계 (3,929)			59.7	32.2	3.2	2.7	2.3
읍/면	읍 (1,068)		22.3	65.3	5.0	7.0	.4
	면 (2,861)		73.6	19.8	2.5	1.1	3.0
영농 여부	농어가 (1,346)		93.4	3.0	1.2	.8	1.6
	비농어가 (2,583)		42.1	47.4	4.2	3.7	2.6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756)		22.3	69.6	3.6	3.3	1.1
	40대 (836)		45.5	47.0	3.9	2.3	1.4
	50대 (904)		65.0	19.2	4.2	5.0	6.5
	60대 (633)		77.5	16.4	2.5	2.3	1.3
	70대 이상 (792)		90.1	8.2	1.3	.3	.2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2,143)		36.4	51.7	4.6	4.1	3.2
	선주민 (1,780)		87.8	8.8	1.3	1.1	1.1

주택종류 - 추이

- 2014년에 비해 '단독주택' 비중이 약간 증가(+5.1%p)한 반면, '다세대 주택'(-2.9%p), '아파트'(-2.1%p) 비중은 감소

| 그림1230 - (2) | 주택종류 - 추이



 '자가' 비중이 78.8%

주택의 점유형태는?

[조사대상 가구(n=3,934)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9.9%(n=3,930)]

주택의 점유형태로 '자가'(78.8%)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전세'(8.8%), '보증부 월세'(5.8%), '월세(사글세)'(3.8%), '무상'(2.8%) 순이었다.

면지역, 농어가, 연령대가 높을수록, 선주민 층에서 '자가' 비중이 더욱 높은 반면, 연령대가 낮을수록, 이주민 층에서 '전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표1230 - (2) - ① | 주택 점유형태 단위 : %(명)

구분			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월세(사글세)	무상
합계 (3,930)			78.8	8.8	5.8	3.8	2.8
읍/면	읍	(1,071)	73.0	12.4	6.0	7.2	1.4
	면	(2,860)	80.9	7.4	5.7	2.6	3.4
영농 여부	농어가	(1,346)	95.1	1.2	.2	1.9	1.5
	비농어가	(2,585)	70.3	12.7	8.7	4.8	3.5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757)	56.8	23.5	7.6	7.3	4.9
	40대	(836)	71.7	12.3	10.0	4.1	1.8
	50대	(905)	82.9	4.4	6.1	3.8	2.9
	60대	(633)	90.6	1.6	3.1	2.6	2.1
	70대 이상	(790)	93.0	1.8	1.2	1.4	2.5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2,146)	67.1	14.7	9.4	6.1	2.8
	선주민	(1,778)	92.8	1.7	1.5	1.1	2.9

 주택 점유형태 - 추이

○ 2013년 이후 비슷한 분포를 보임

| 표1230 - (2) - ② | 주택 점유형태 - 추이 단위 : %(명)

구분		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월세(사글세)	무상
2015년	(3,930)	78.8	8.8	5.8	3.8	2.8
2014년	(3,938)	78.8	8.6	6.9	1.7	3.9
2013년	(2,763)	81.1	9.9	3.7	3.7	1.8

1240> 향후 이주의향

- ▶ 이주 의향층이 17.7%, 농어촌으로 이주하겠다는 응답이 68.1%
- ▶ '주택 관련 사유'(28.3%)가 주된 이주의향 이유



이주 의향층이 17.7%

귀하께서는 향후 5년 내에 현재 살고 계시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주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조사대상 가구(n=3,934)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9.9%(n=3,932)]

향후 5년 내 이주 의향이 '있다'(11.3%), '반반이다'(6.4%) 등 [이주 의향층]이 17.7%로 읍지역, 비농어가, 연령대가 낮을수록, 이주민 층에서 이주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1240 - (1) | 향후 이주의향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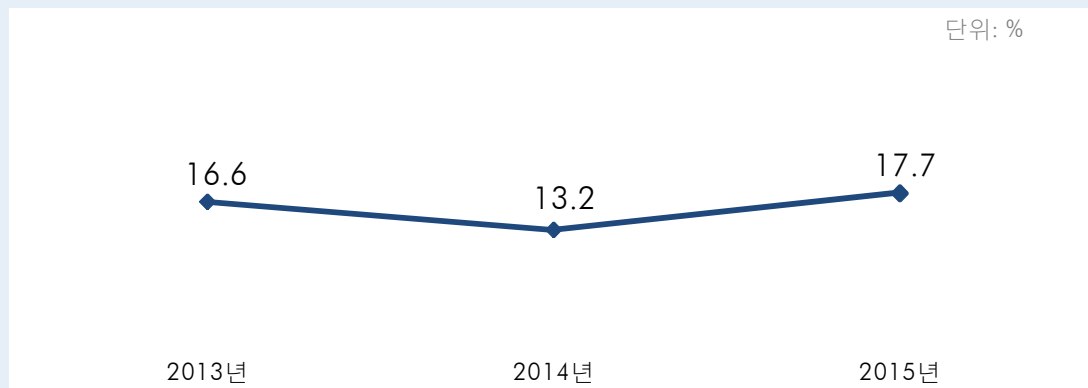
구분			있다	반반이다	이주 의향층
합계 (3,932)			11.3	6.4	17.7
읍/면	읍	(1,069)	18.3	11.5	29.9
	면	(2,862)	8.6	4.5	13.1
영농 여부	농어가	(1,346)	3.3	1.7	5.0
	비농어가	(2,586)	15.4	8.9	24.3
응답자 성	남성	(1,642)	8.8	5.2	14.0
	여성	(2,289)	13.0	7.3	20.3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757)	21.5	15.8	37.3
	40대	(835)	17.6	6.8	24.3
	50대	(905)	10.0	5.4	15.4
	60대	(634)	4.1	3.4	7.5
	70대 이상	(792)	2.0	.5	2.5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2,145)	18.4	9.9	28.3
	선주민	(1,780)	2.7	2.2	4.9



향후 이주의향 - 추이

- 2014년에 약간 감소(-3.4%p) 했다가 2015년에 다시 증가(+4.5%p)

| 그림1240 - (1) | 향후 이주의향 - 추이





농어촌으로 이주하겠다는 응답이 68.1%

다른 곳으로 이주하신다면 어디로 이주하실 생각이십니까?

[이주 의향층(n=695) 중 응답가구에 한해: 응답률 99.0%(n=688)]

‘현재 살고 있는 시/군 내’(56.0%), ‘다른 시/군의 농어촌(읍/면)’(12.1%) 등 농어촌으로 이동하겠다는 층이 68.1%로, ‘대도시(특별시, 광역시)’(16.5%), ‘중소도시(동)’(11.1%) 등 도시로 이주하겠다는 층(27.6%) 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공동생활, 요양 등 ‘시설 입소’ 비중은 0.2%였다.

농어가, 40-50대 연령층, 선주민 층에서 ‘현재 살고 있는 시/군 내’ 비중이 더욱 높은 반면, 면 지역, 비농어가, 30대 이하 연령층, 이주민 층에서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표1240 - (2) | 이주 희망 지역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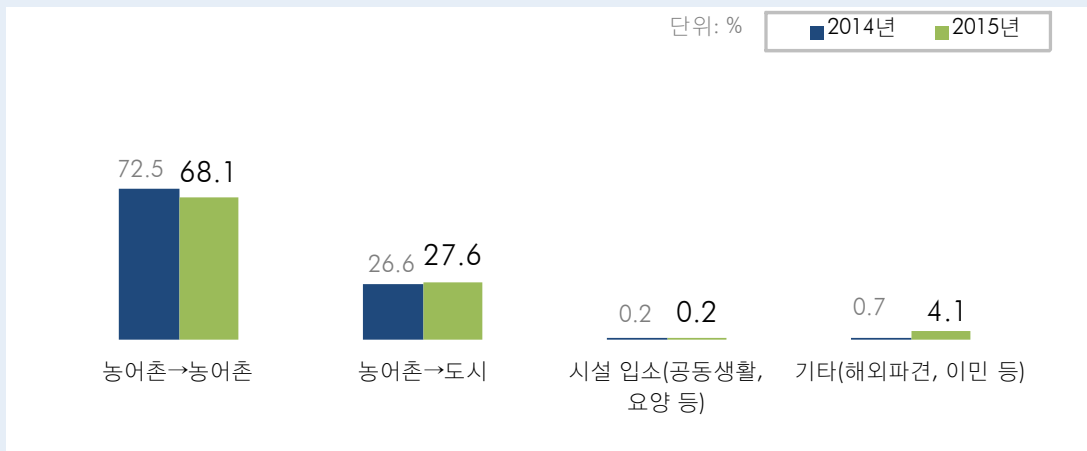
구분			농어촌→농어촌		농어촌→도시		시설 입소 (공동생활, 요양 등)	기타 (해외파견, 이민 등)
			현재 살고 있는 시/군 내	다른 시/군의 농어촌 (읍/면)	중소 도시 (동)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합계 (688)			56.0	12.1	11.1	16.5	.2	4.1
읍/면	읍 (312)		58.3	12.4	14.0	8.4	.1	6.9
	면 (375)		54.1	11.9	8.7	<u>23.1</u>	.3	1.9
영농 여부	농어가 (67)		67.6	14.3	9.2	7.1	1.8	
	비농어가 (621)		54.8	11.9	11.3	<u>17.5</u>	.0	4.6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277)		50.9	11.3	13.4	<u>22.0</u>		2.3
	40대 (203)		58.2	10.9	6.3	14.1		10.5
	50대 (139)		70.0	9.2	11.2	9.1		.6
	60대 (47)		44.5	23.5	16.4	14.0	1.6	
	70대 이상 (18)		43.3	25.9	16.7	10.8	3.4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600)		53.8	11.9	11.4	<u>18.1</u>	.2	4.6
	선주민 (87)		71.3	13.2	8.9	5.1	.5	1.0



이주 희망 지역 - 추이

- 2014년 대비 [농어촌→농어촌] 비중은 약간 감소(-4.4%p)한 반면, [기타(해외파견, 이민 등)] 비중은 증가(+3.4%p)

| 그림1240 - (2) | 이주 희망 지역 - 추이



'주택 관련 사유'(28.3%)가 주된 이주의향 이유

다른 곳으로 이주하시려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주 의향층(n=695)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8.4%(n=684)]

이주 희망 이유로 주택 확장, 신규 분양, 계약 변동 등 '주택 관련 사유'(28.3%)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아울러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찾아서'(22.7%), 직장 이동, 창업 등 '직업 관련 사유'(22.0%) 비중도 높았다. 다음으로 '자녀 교육 때문에'(15.0%), '가정경제 상황의 변화로'(7.1%), 가구원의 분가, 출생, 사망 등 '가족 관련 사유'(2.9%), '건강상의 이유로'(1.6%) 순이었다.

읍지역, 농어가, 선주민, 농어촌→농어촌 이주 희망층에서 '주택 관련 사유' 비중이 더욱 높은 반면, 비농어가, 50대 이하 연령층, 농어촌→도시 이주 희망층에서 '직업 관련 사유', '자녀교육 때문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표1240 - (3) | 이주 희망 이유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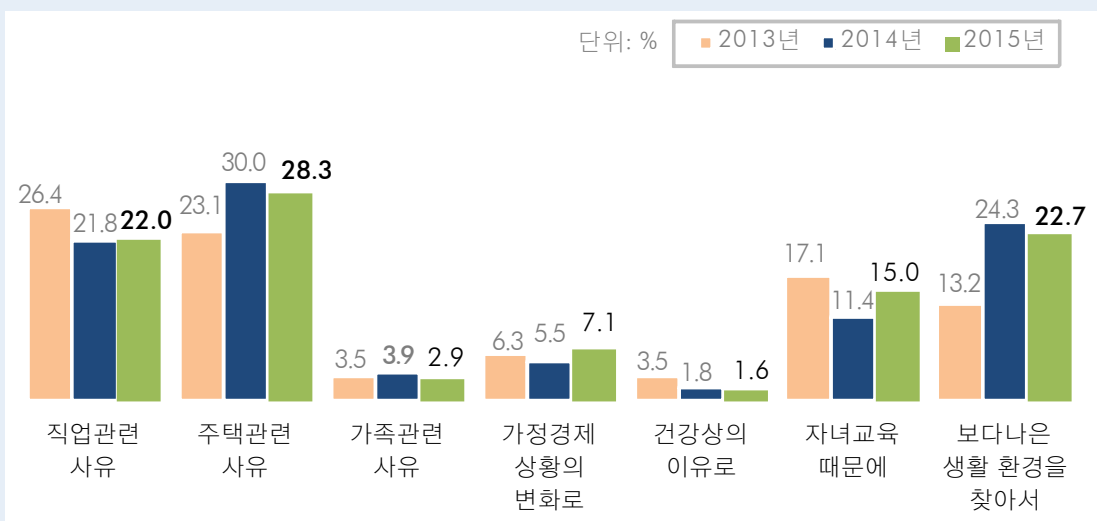
구분			직업 관련 사유	주택 관련 사유	가족 관련 사유	가정 경제 상황의 변화로	건강 상의 이유로	자녀 교육 때문에	보다 나은 생활 환경을 찾아서	기타
합계 (684)			22.0	28.3	2.9	7.1	1.6	15.0	22.7	.3
읍/면	읍	(313)	21.6	32.4	1.1	8.5	1.3	14.8	20.3	.0
	면	(371)	22.4	24.9	4.4	5.9	1.8	15.2	24.8	.6
영농 여부	농어가	(67)	10.9	41.3	8.2	3.7	5.1	2.3	28.5	
	비농어가	(617)	23.2	26.9	2.3	7.5	1.2	16.4	22.1	.3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278)	20.9	28.2	3.6	1.5		22.7	22.7	.5
	40대	(202)	29.2	26.2	2.4	5.4	1.1	18.0	17.8	
	50대	(135)	20.9	36.4	1.1	16.1	1.9	.9	22.6	.2
	60대	(47)	10.3	12.8	3.4	13.4	8.1	.9	49.8	1.3
	70대 이상	(18)	2.9	34.1	10.3	31.1	10.9		10.6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596)	23.4	26.8	2.8	7.5	1.5	15.1	22.6	.4
	선주민	(87)	12.7	39.1	3.7	4.2	1.8	14.9	23.6	
이주 희망 지역	농어촌→농어촌	(462)	18.5	38.2	3.7	8.3	1.7	10.5	19.1	.1
	농어촌→도시	(189)	23.2	8.0	1.5	5.4	.8	25.3	34.7	1.0



이주 희망 이유 - 추이

- 2014년에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찾아서'(+11.1%p), '주택관련 사유'(+6.9%p) 비중이 증가
- 2014년에 '자녀 교육 때문에'(-5.7%p), '직업 관련 사유'(-4.6%p) 비중이 감소했다가 2015년에 '자녀 교육 때문에'(+3.6%p) 비중이 다시 증가

| 그림1240 - (3) | 이주 희망 이유 - 추이



* '기타'는 제외함

1250> 지역생활 만족도

[조사대상 가구(n=3,934) 기준/만족도 100점 만점 환산: $(\chi_i - 1) \times 25.0000$, χ_i =측정 값]

▶ 지역생활전반에 대해 '보통 수준'(평균 52.5점)의 평가

지역생활전반에 대해 평균 52.5점으로 '보통 수준'의 평가를 보인 가운데, 전반적인 느낌을 반영한 체감만족도(55.4점)가 각 평가 속성별 만족도를 환산한 차원만족도(49.6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영역별로는 '환경·경관'(평균 65.4점), '자연재해, 사고, 범죄 안전'(평균 61.5점)에 대해 '약간 만족하는 수준'으로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보건의료 및 복지 서비스'(평균 48.8점), '기초생활 기반'(평균 46.6점), '경제활동 여건'(평균 43.5점), '교육 여건'(평균 42.6점), '문화여가 생활을 위한 여건'(평균 39.5점) 순이었다.

계층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연령대가 높을수록, 향후 5년 내 이주 비의향층에서 평가 영역에 관계없이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약간 높은 경향을 보였다.

| 표1250 - (1) | 지역생활 영역별 만족도

단위: 점

구분		전반적인 지역생활 만족도			보건 의료 및 복지 서비스	교육 여건	문화 여가 생활을 위한 여건	기초 생활 기반	환경 경관	경제 활동 여건	자연 재해, 사고, 범죄 안전
		종합 만족도	체감 만족도	차원 만족도							
합계		52.5	55.4	49.6	48.8	42.6	39.5	46.6	65.4	43.5	61.5
읍/면	읍	52.6	54.4	50.8	49.3	46.6	41.4	49.3	65.0	44.9	60.0
	면	52.5	55.8	49.1	48.6	41.1	38.8	45.6	65.5	43.0	62.1
영농 여부	농어가	53.3	57.2	49.4	49.1	40.1	38.3	47.7	65.8	42.7	62.9
	비농어가	52.1	54.5	49.6	48.6	44.0	40.1	46.0	65.2	43.9	60.8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51.8	55.1	48.4	48.7	46.2	37.4	42.8	60.9	43.9	60.1
	40대	51.9	54.2	49.5	47.0	43.3	38.9	46.7	67.1	44.8	60.0
	50대	52.1	54.9	49.2	48.1	41.2	38.9	46.7	66.1	43.4	61.0
	60대	53.1	56.2	50.0	48.9	41.2	40.6	49.2	66.4	42.3	62.5
	70대 이상	53.8	57.0	50.7	51.3	41.4	41.8	47.9	66.2	42.6	64.3
향후 5년 내 이주 의사	이주 의향층	49.6	51.5	47.7	47.0	42.9	36.1	45.0	61.8	44.0	57.9
	비의향층	53.1	56.3	50.0	49.1	42.6	40.2	47.0	66.2	43.4	62.3

 지역생활 영역별 만족도 - 추이

- 2014년과 전반적으로 비슷한 수준의 만족도를 보인 가운데, '보건 의료 및 복지 서비스' 만족도가 증가(+4.1점)하였으며, '체감만족도'가 다소 증가(+5.4점)하여 '종합만족도'가 증가(+3.6점)

| 표1250 - (2) | 지역생활 영역별 만족도 - 추이

단위: 점

구분		지역의 전반적 생활여건			보건 의료	복지 서비스	사 교육 여건	학교 교육 여건	문화 여가	기초 생활 기반	환경 경관	경제 활동 여건	자연 재해, 사고, 범죄 안전
		종합 만족도	체감 만족도	차원 만족도									
2015년	(3,934)	52.5	55.4	49.6	48.8		42.6	39.5	46.6	65.4	43.5	61.5	
2014년	(3,939)	48.9	50.0	47.7	44.7		43.4	38.9	47.5	63.5	42.9	61.3	
2013년	(2,764)				48.9	44.4	47.3	51.8	41.4	51.0	60.2	4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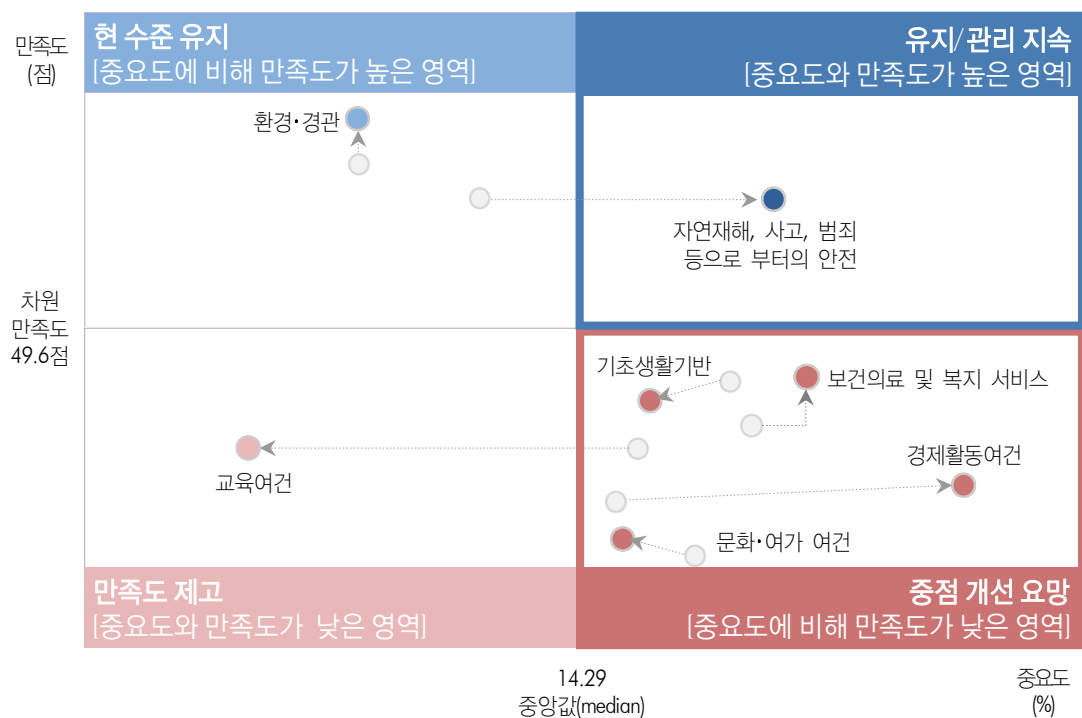
* 포트폴리오(Portfolio) 분석

[차원 만족도 기준]

- ▶ [현 수준 유지 영역] : '환경·경관'
 [유지/관리 지속 영역] : '자연재해, 사고, 범죄 등으로 부터의 안전'
 [만족도 제고 영역] : '교육여건'
 [중점개선 요망 영역] : '보건의료 및 복지 서비스', '문화·여가 여건', '기초생활기반', '경제활동여건'

'자연재해, 사고, 범죄 등으로 부터의 안전' 영역의 경우, 만족도와 중요도가 모두 높아 [유지/관리 지속]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보건의료 및 복지 서비스', '문화·여가 여건', '기초생활기반', '경제활동여건'은 중요도가 높은 반면 만족도는 낮아 [중점개선 요망]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대비 '자연재해, 사고, 범죄 등으로 부터의 안전'의 경우, 중요도를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여 [유지/관리 지속] 영역으로 이동한 반면, '교육여건'의 경우, 중요도를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여 [만족도 제고] 영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1260>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

- ▶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은 평균 60.7점
- ▶ '가족'(39.4%), '건강'(35.2%)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은 평균 60.7점

귀하의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조사대상 가구(n=3,934)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9.5%(n=3,913)]

‘행복한 편’(43.6%), ‘매우 행복함’(4.7%) 등 [행복한 편(합)]이라는 응답이 48.3%로, ‘행복하지 않은 편’(8.3%), ‘전혀 행복하지 않음’(0.8%) 등 [행복하지 않은 편(합)](9.2%)이라는 응답보다 높아 행복감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60.7점이었다. 한편, ‘보통’이라는 응답은 42.5%였다.

읍지역, 40대 이하 연령층, 이주민 층, 향후 5년 내 이주의향층에서 [행복한 편(합)] 비중이 높아 행복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반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행복하지 않은 편(합)] 비중이 높았다.

| 표1260 - (1) |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

단위 : %(명)

구분			평균	매우 행복함	행복한 편	행복한 편 (합)	보통	행복하지 않은 편	전혀 행복하지 않음	행복하지 않은 편 (합)
합계 (3,913)			60.7점	4.7	43.6	48.3	42.5	8.3	.8	9.2
읍/면	읍	(1,065)	62.7점	5.9	46.2	52.1	41.5	5.5	.9	6.4
	면	(2,848)	60.0점	4.2	42.6	46.8	43.0	9.4	.8	10.2
영농 여부	농어가	(1,340)	60.2점	3.3	44.3	47.6	43.0	8.9	.5	9.5
	비농어가	(2,573)	61.0점	5.4	43.2	48.7	42.3	8.0	1.0	9.0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752)	65.5점	5.2	55.4	60.6	36.1	2.9	.4	3.3
	40대	(831)	63.0점	6.4	46.5	53.0	39.8	6.9	.3	7.2
	50대	(903)	59.8점	4.5	41.9	46.4	43.3	8.8	1.4	10.3
	60대	(632)	58.9점	3.8	39.7	43.5	45.8	9.4	1.3	10.7
	70대 이상	(786)	56.5점	3.3	34.6	37.9	47.7	13.6	.8	14.4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2,134)	63.0점	6.0	47.4	53.4	40.3	5.6	.8	6.4
	선주민	(1,775)	58.0점	3.1	39.0	42.2	45.3	11.6	.9	12.5
향후 5년 내 이주 의사	이주의향층	(695)	62.6점	5.4	47.7	53.1	39.7	6.4	.8	7.2
	비의향층	(3,216)	60.3점	4.5	42.7	47.2	43.2	8.7	.8	9.6



'가족'(39.4%), '건강'(35.2%)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

귀하의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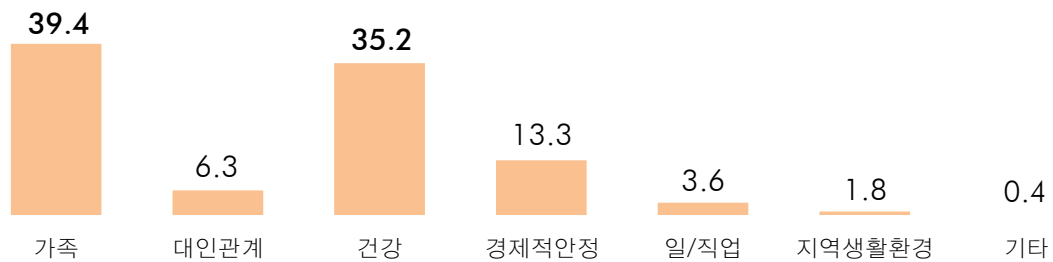
[조사대상 가구(n=3,934) 중 응답가구에 한해: 응답률 99.5%(n=3,916), 중복응답: 1순위×2+2순위×1로 가중치를 주어 100.0% 환산 함]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족'(39.4%), '건강'(35.2%)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경제적 안정'(13.3%), '대인관계'(6.3%), '일/직업'(3.6%), '지역생활환경'(1.8%) 순이었다.

읍지역, 연령대가 낮을수록 '가족' 비중이 높은 반면, 면지역, 농어가, 연령대가 높을수록 '건강' 비중이 높았다.

| 그림1260 - (1) | 행복의 영향 요인

단위: %



| 표1260 - (2) | 행복의 영향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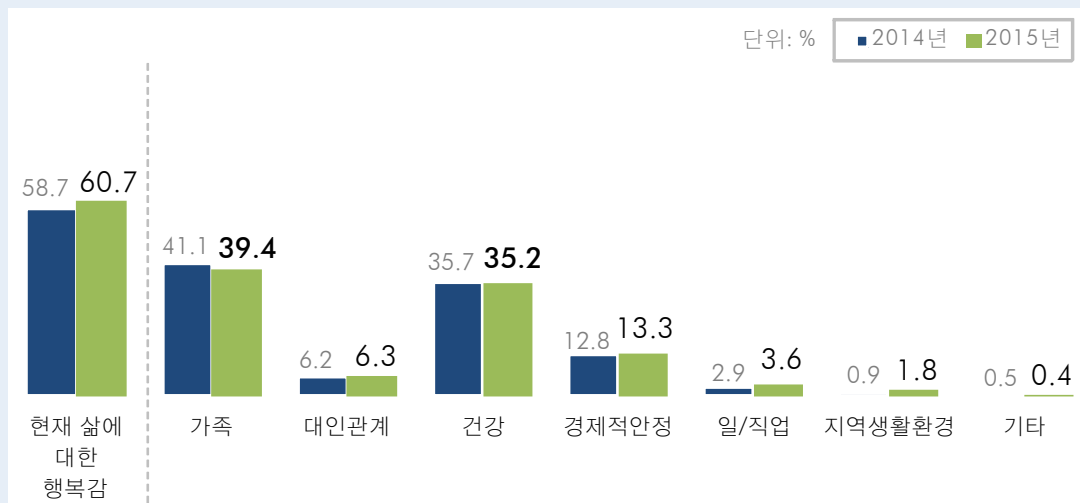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가족	대인 관계	건강	경제적 안정	일/ 직업	지역생활 환경	기타
합계 (3,916)			39.4	6.3	35.2	13.3	3.6	1.8	0.4
읍/면	읍	(1,067)	44.2	6.5	29.7	12.8	5.4	1.4	0.0
	면	(2,850)	37.6	6.2	37.3	13.6	2.9	2.0	0.5
영농 여부	농어가	(1,338)	35.3	6.3	40.2	12.8	2.4	2.2	0.8
	비농어가	(2,578)	41.6	6.2	32.6	13.6	4.2	1.6	0.1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755)	54.7	6.3	21.3	13.7	2.5	1.5	0.0
	40대	(831)	45.6	4.8	28.3	14.4	5.4	1.1	0.3
	50대	(903)	36.6	5.7	36.0	13.1	5.7	2.8	0.1
	60대	(630)	30.3	6.9	44.4	13.3	2.7	1.7	0.7
	70대 이상	(788)	29.1	8.0	47.6	11.9	0.6	1.8	0.9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 - 추이

- 2014년과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이 비슷한 수준(+2.0점)인 가운데, 행복의 영향요인 역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그림1260 - (2) |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 - 추이



1300> 교육

- 1311> 평생교육 수강 경험 및 향후 수강의사
- 1312> 평생교육을 받고자 할 때의 애로사항
- 1321> 학생자녀 유무
- 1322> 자녀에 대한 기대학력
- 1323> 학교교육 여건 만족도
- 1324> 자녀의 방과 후 시간 활용
- 1325> 타지유학 자녀 실태
- 1326> 사교육 수강여부 및 월평균 사교육 비용
- 1327> 교육비 중 가장 부담되는 항목
- 1328> 방과 후 학교 참여 실태

1311> 평생교육 수강 경험 및 향후 수강의사

- ▶ '스포츠·건강교육'(9.6%), '농업기술교육'(8.2%) 경험률이 가장 높음
- ▶ 수강한 평생교육에 대해 '약간 만족하는 수준'(68.6점)



'스포츠·건강교육'(9.6%), '농업기술교육'(8.2%) 경험률이 가장 높음

귀하께서는 지난 1년 동안 다음의 평생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조사대상 가구(n=3,934) 기준]

농어촌 주민 10명 중 1명(9.6%)이 스포츠, 건강/의료 강좌 등 '스포츠·건강교육'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업기술교육' 수강 경험층이 8.2%, '문화예술교육'(5.3%), '정보화교육'(3.3%), '직업능력교육'(2.9%), '인문교양교육'(2.8%), '문해교육'(1.1%) 순이었다. 계층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면지역, 농어가에서 '농업기술교육' 경험층 비중이 높았다.

| 표1311 - (1) | 평생교육 수강 경험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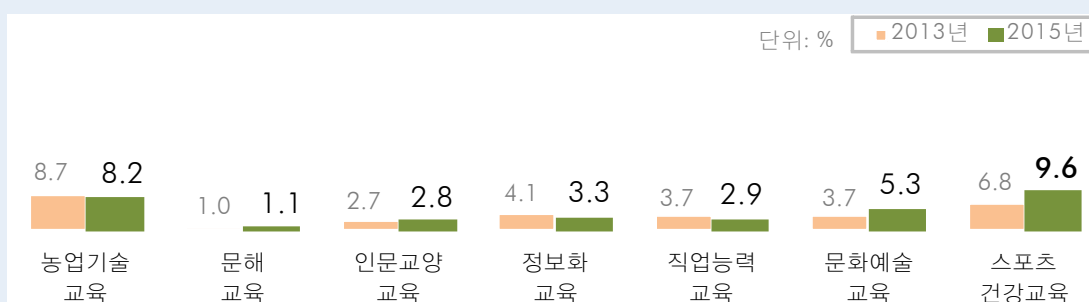
구분		농업기술 교육	문해 교육	인문교양 교육	정보화 교육	직업능력 교육	문화예술 교육	스포츠· 건강교육
합계 (3,934)		8.2	1.1	2.8	3.3	2.9	5.3	9.6
읍면 여부	읍 (1,071)	3.3	1.4	3.6	3.4	3.1	4.1	8.6
	면 (2,863)	10.0	1.0	2.5	3.3	2.9	5.7	10.0
영농 여부	농어가 (1,346)	19.3	1.1	1.1	2.8	1.7	5.3	10.5
	비농어가 (2,588)	2.4	1.1	3.7	3.6	3.6	5.3	9.2



평생교육 수강 경험 - 추이

- 전반적으로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스포츠·건강교육' 경험률이 약간 증가(+2.8%p)함

| 그림1311 - (1) | 평생교육 수강 경험 - 추이





'스포츠·건강교육'(27.6%) 의향률이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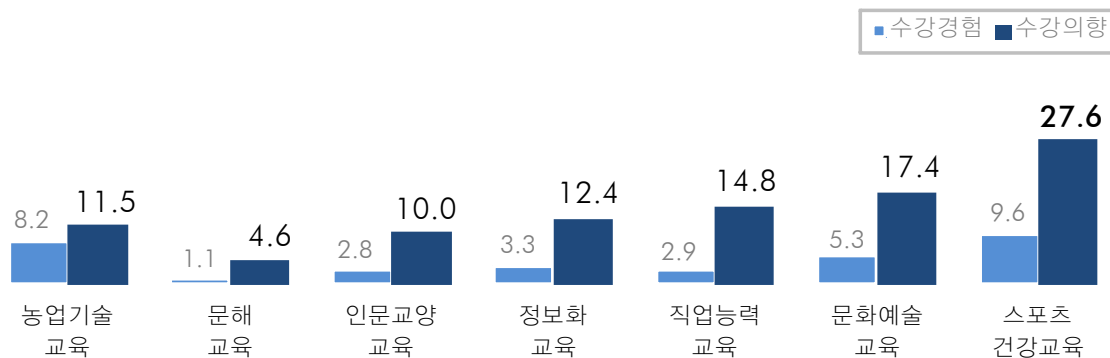
향후 어떤 내용의 평생교육을 받기를 희망하십니까?

[조사대상 가구(n=3,934) 기준]

수강 경험률이 높았던 '스포츠·건강 교육'(27.6%)이 향후 수강 의향률 또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음악, 미술강좌 등 '문화예술교육'(17.4%), 자격증 강좌, 취업/창업 준비과정 등 '직업 능력교육'(14.8%), 워드, 인터넷, 홈페이지 작성 등 '정보화 교육'(12.4%), '농업기술교육'(11.5%), 경제/경영, 외국어, 자녀교육 등 '인문교양교육'(10.0%), 한글교실, 한문교실 등 '문해교육'(4.6%) 순이었다. 전반적으로 경험률에 비해 향후 수강 의향률이 높게 나타났다.

| 그림1311 - (2) | 향후 평생교육 수강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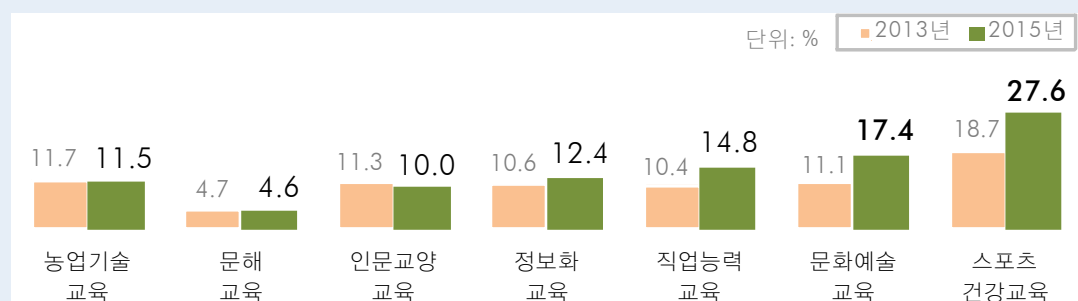
단위: %



향후 평생교육 수강 의향 - 추이

- 2013년에 비해 '스포츠·건강교육'(+8.9%p), '문화예술교육'(+6.3%p), '직업능력교육'(+4.4%p) 의향률이 높음

| 그림1311 - (3) | 향후 평생교육 수강 의향 - 추이





수강한 평생교육에 대해 '약간 만족하는 수준'(68.6점), [만족하는 편(합)]이 70.0%

(한 번이라도 평생교육 수강 경험이 있는 경우) 귀하께서 받으신 평생교육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경험층(n=848) 기준]

‘만족하는 편’(60.5%), ‘매우 만족’(9.6%) 등 [만족하는 편]이라는 견해가 70.0%로 ‘만족하지 않는 편’(4.5%), ‘전혀 만족하지 않음’(0.3%) 등 [만족하지 않는 편](4.9%)비중에 비해 높아 수강한 평생 교육에 대해 ‘약간 만족하는 수준’(68.6점)의 평가를 보였다.

먼지역, 농어가, 향후 수강의향률이 높았던 문화예술교육, 문해교육 수강층에서 평생교육 만족도가 다소 높은 반면, 직업능력교육 수강층에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 표1311 - (2) | 평생교육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평균	매우 만족	만족하는 편	만족하는 편(합)	보통	만족하지 않는 편	전혀 만족하지 않음	만족하지 않는 편(합)
합계 (849)		68.6점	9.6	60.5	70.0	25.1	4.5	.3	4.9
읍/면	읍 (187)	65.8점	7.9	54.5	62.4	31.6	4.9	1.1	6.0
	면 (661)	69.4점	10.1	62.1	72.2	23.3	4.4	.1	4.5
영농 여부	농어가 (400)	70.0점	9.4	64.0	73.4	23.9	2.5	.1	2.6
	비농어가 (449)	67.3점	9.7	57.3	67.0	26.2	6.3	.5	6.8
수강한 평생 교육	농업기술교육 (312)	68.6점	8.6	59.1	67.7	30.4	1.9		1.9
	문해교육 (39)	75.4점	24.5	57.8	82.3	13.2	3.9	.6	4.5
	인문교양교육 (104)	69.6점	13.1	55.7	68.8	28.0	2.7	.5	3.2
	정보화교육 (128)	70.0점	7.9	68.8	76.7	18.8	4.5		4.5
	직업능력교육 (111)	61.3점	7.9	40.7	48.5	40.2	11.3		11.3
	문화예술교육 (201)	72.1점	14.4	62.4	76.8	21.1	1.4	.8	2.2
	스포츠건강교육 (373)	69.4점	7.7	65.9	73.6	23.1	3.3	.1	3.4

1312> 평생교육을 받고자 할 때의 애로사항

▶ '시간적 여유가 없다'(43.9%)가 주된 애로사항

귀하께서 평생교육을 받고자 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조사대상 가구(n=3,934) 중 응답 가구에 한해 : 응답률 93.2%(n=3,665)]

시간적 여유가 없다(43.9%) 비중이 절반 수준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건강, 나이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다'(17.0%), '지역에 제공하는 시설(기관)이 없다'(12.7%),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10.0%), '원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없다'(7.4%), '교통이 불편하다'(4.6%), '비용이 부담된다'(4.1%) 순이었다.

읍지역, 50대 이하 연령층에서 '시간적 여유가 없다' 비중이 더욱 높은 반면, 면지역,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건강, 나이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다' 비중이 높았다.

| 표1312 | 평생교육을 받고자 할 때의 애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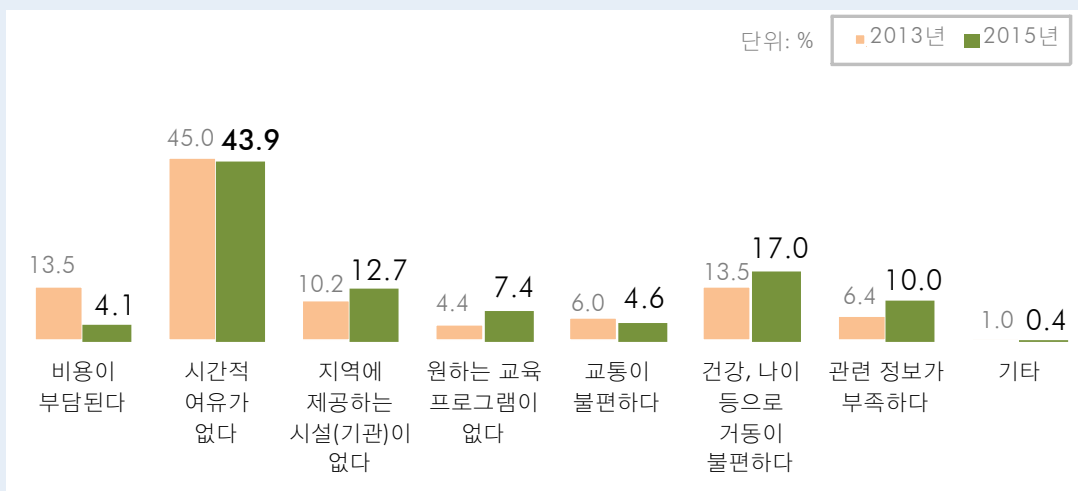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비용이 부담된다	시간적 여유가 없다	지역에 제공하는 시설(기관)이 없다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없다	교통이 불편하다	건강, 나이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다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	기타
합계 (3,665)			4.1	43.9	12.7	7.4	4.6	17.0	10.0	.4
읍/면	읍	(1,022)	4.1	51.4	10.9	7.9	3.4	9.3	12.7	.4
	면	(2,643)	4.0	41.0	13.4	7.2	5.1	19.9	9.0	.4
영농 여부	농어가	(1,219)	2.7	44.1	13.8	5.3	5.2	18.8	9.6	.5
	비농어가	(2,446)	4.7	43.8	12.2	8.5	4.3	16.0	10.2	.3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707)	4.8	50.1	13.5	13.7	3.2	1.4	12.9	.4
	40대	(800)	5.2	55.6	13.9	7.3	4.8	2.6	10.3	.2
	50대	(834)	4.4	56.1	13.5	5.9	3.8	5.7	9.7	.8
	60대	(592)	4.3	36.8	13.2	7.7	7.8	18.7	11.5	
	70대 이상	(724)	1.4	16.5	9.4	3.0	3.9	59.5	6.0	.3

평생교육을 받고자 할 때의 애로사항 - 추이

- 2013년과 구성 항목이 달라 동등 비교가 어려운 가운데, 예 비해 '비용이 부담된다'(-9.4%p) 비중은 다소 감소한 반면,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3.6%p), '건강, 나이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다'+3.5%p),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없다'+3.0%p) 비중은 약간 증가

| 그림1312 | 평생교육 받고자 할 때의 애로사항 - 추이



*2013년은 '해당 없음' 항목을 제외하고 합계 100.0%로 환산 한 값임

1321> 학생자녀(손자녀) 유무

귀댁에는 학교(초·중·고등학교, 대학교·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자녀(손자녀)가 있습니까? 있다면, 학교 급별로 각각 몇 명입니까?

[학생자녀 유무 : 조사대상 가구(n=3,934) 기준/ 학생 수 : 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n=1,160) 기준]

▶ 학생자녀(손자녀)가 있는 가구가 29.5%, 가구 당 평균 학생 자녀 수는 1.6명

농어촌 가구 3가구 당 한 가구(29.5%)에 학교(초·중·고등학교, 대학교·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자녀(손자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읍지역, 비농어가, 40대 연령층에서 학생자녀가 있는 층 비중이 다소 높았다.

학생자녀(손자녀)가 있는 가구의 평균 학생자녀(손자녀) 수는 1.6명으로, 초등학생이 평균 0.6명, 중·고등학생이 각 평균 0.3명,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 평균 0.4명으로 나타났다. 40대 연령층에서 평균 학생자녀(손자녀) 수가 약간 더 많았다.

| 표1321 | 학생자녀(손자녀) 유무

단위 : 명

구분		학생자녀 (손자녀) 있는 층	학생자녀 (손자녀) 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및 대학원생
합계 (3,934)		29.5%	1.6	.6	.3	.3	.4
읍/면	읍 (1,071)	35.7%	1.6	.6	.3	.4	.3
	면 (2,863)	27.1%	1.6	.6	.3	.3	.4
영농 여부	농어가 (1,346)	22.0%	1.7	.5	.3	.3	.5
	비농어가 (2,588)	33.3%	1.5	.7	.3	.3	.3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758)	34.0%	1.4	1.2	.1	.1	.0
	40대 (836)	68.6%	1.8	.6	.4	.5	.3
	50대 (905)	28.8%	1.4	.2	.1	.2	.9
	60대 (634)	5.7%	1.3	.4	.3	.2	.5
	70대 이상 (792)	3.8%	1.4	.5	.3	.4	.2

1322> 자녀(손자녀)에 대한 기대학력

귀하의 자녀(손자녀)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기를 바라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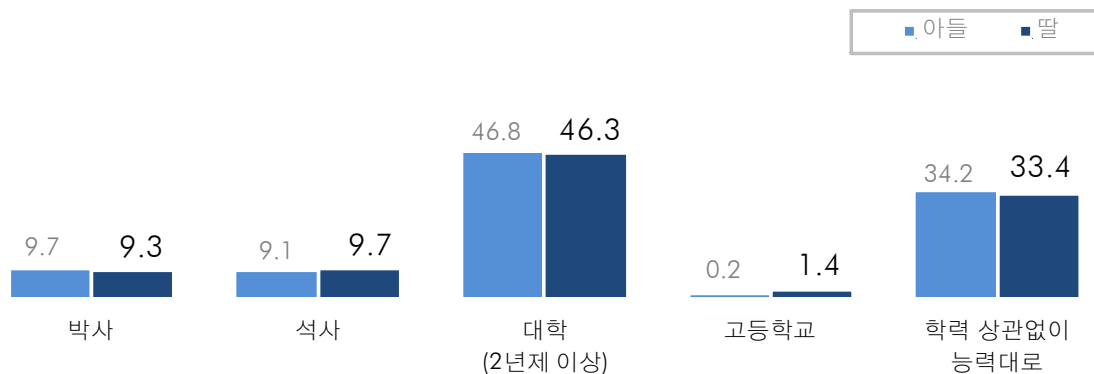
[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n=1,160) 중 아들/딸이 있는 가구 기준]

▶ 아들(46.8%), 딸(46.3%) 모두 '대학(2년제 이상)' 비중이 가장 높음

성별에 관계없이(아들 : 46.8%, 딸 : 46.3%) '대학(2년제 이상)' 비중이 절반 수준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석·박사', '고등학교' 순이었다. 한편, '학력 상관없이 능력대로' 비중도 30% 이상이었다.

| 그림1322 | 자녀(손자녀)에 대한 기대학력

단위 : %



면지역, 농어가에서 '대학(2년제 이상)' 비중이 더욱 높은 반면, 읍지역, 비농어가에서 '학력 상관없이 능력대로' 비중이 높았다.

| 표1322 - (1) | 자녀(손자녀)에 대한 기대학력

단위 : %(명)

구분			박사	석사	대학 (2년제 이상)	고등학교	학력 상관없이 능력대로
아들 (876)			9.7	9.1	46.8	.2	34.2
읍/면	읍	(303)	8.0	11.6	42.1	.3	37.9
	면	(573)	10.7	7.7	49.3	.2	32.2
영농 여부	농어가	(234)	4.4	10.2	56.4		29.0
	비농어가	(642)	11.7	8.7	43.3	.3	36.0
딸 (738)			9.3	9.7	46.3	1.4	33.4
읍/면	읍	(275)	8.5	13.4	39.0	.6	38.4
	면	(463)	9.8	7.4	50.6	1.8	30.3
영농 여부	농어가	(195)	8.2	12.1	55.2	2.6	21.9
	비농어가	(544)	9.8	8.8	43.0	.9	37.5

자녀(손자녀)에 대한 기대학력 - 추이

- 최근으로 올수록 아들/딸에 관계없이 '석·박사'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학력 상관없이 능력대로' 비중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특히 딸의 경우 2010년 이후 '석·박사' 비중이 감소하면서 '학력 상관없이 능력대로' 비중이 다소 증가함

| 표1322 - (2) | **자녀(손자녀)에 대한 기대학력 - 추이**

단위 : %

구 분	아들					딸				
	박사	석사	대학 (2년제 이상)	고등 학교	학력 상관없이 능력대로	박사	석사	대학 (2년제 이상)	고등 학교	학력 상관없이 능력대로
2015년	9.7	9.1	46.8	.2	34.2	9.3	9.7	46.3	1.4	33.4
2012년	12.0	8.8	49.6	1.8	27.8	7.2	6.0	53.5	2.1	31.2
2010년	19.6	10.6	47.8	0.5	21.5	17.6	6.4	51.1	2.3	22.7
2008년	17.1	12.0	48.4	1.0	21.6	14.8	12.1	47.7	3.0	22.3
2006년	17.8	11.1	46.6	1.5	25.9	14.8	9.9	48.4	2.0	23.9
2004년	18.3	9.5	40.3	1.5	33.1	9.8	8.2	45.5	3.8	34.6

* 2012년까지는 농촌생활지표조사 결과

1323> 학교교육 여건 만족도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읍/면)의 자녀(손자녀)에 대한 학교교육 여건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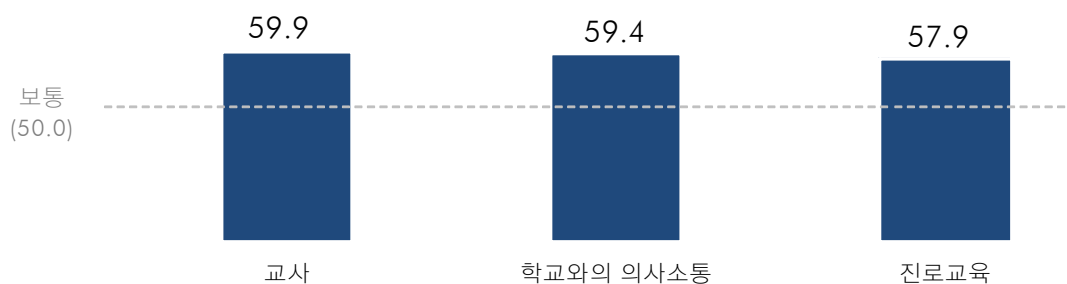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n=908) 기준]

▶ 학교교육 여건에 전반적으로 '약간 만족하는 수준'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n=908)에서 '교사'(59.9점), '학교와의 의사소통'(59.4점), '진로교육'(57.9점) 등 학교교육 여건에 대해 전반적으로 '약간 만족하는 수준'의 평가를 보인 가운데, 농어가, 60대 연령층에서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약간 높았다.

| 그림1323 | 학교교육 여건 만족도

단위: 점



| 표1323 | 학교교육 여건 만족도

단위: 점(명)

구분			교사	학교와의 의사소통	진로교육
합계 (908)			59.9	59.4	57.9
읍/면	읍	(321)	59.9	59.6	57.7
	면	(587)	59.9	59.2	58.1
영농 여부	농어가	(200)	63.8	62.1	60.4
	비농어가	(708)	58.9	58.6	57.3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254)	61.0	59.9	58.9
	40대	(503)	59.8	59.0	57.3
	50대	(103)	58.9	59.4	58.6
	60대	(22)	60.6	64.7	61.9
	70대 이상	(26)	56.7	57.4	55.6

1324> 자녀의 방과 후 시간 활용

귀댁의 자녀(손자녀)는 학교 수업을 마친 후 주로 어떻게 시간을 보냅니까?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n=908) 중 응답 가구에 한해 : 응답률 94.9%(n=862)]

▶ '사설학원 수강'(47.2%)이 주된 방과 후 시간 활용 방법

자녀가 있는 농촌 가구 2가구 중 1가구(47.2%)에서 '사설학원 수강'이 주된 방과 후 시간 활용방법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방과 후 교내 보충학습 참여'(20.6%), '자녀 자율적으로 보냄'(14.5%), '방과 후 교실(학교 외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참여'(8.1%), '집에서 가족이 돌봄'(5.1%), '개인·그룹 과외'(4.4%) 순으로 나타났다.

읍지역, 비농어가, 40대 이하 연령층에서 '사설학원 수강' 비중이 높은 반면, 농어가, 60대 연령층에서 '방과 후 교내 보충학습 참여', 70대 이상 연령층에서 '집에서 가족이 돌봄', '자녀 자율적으로 보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표1324 | 자녀의 방과 후 시간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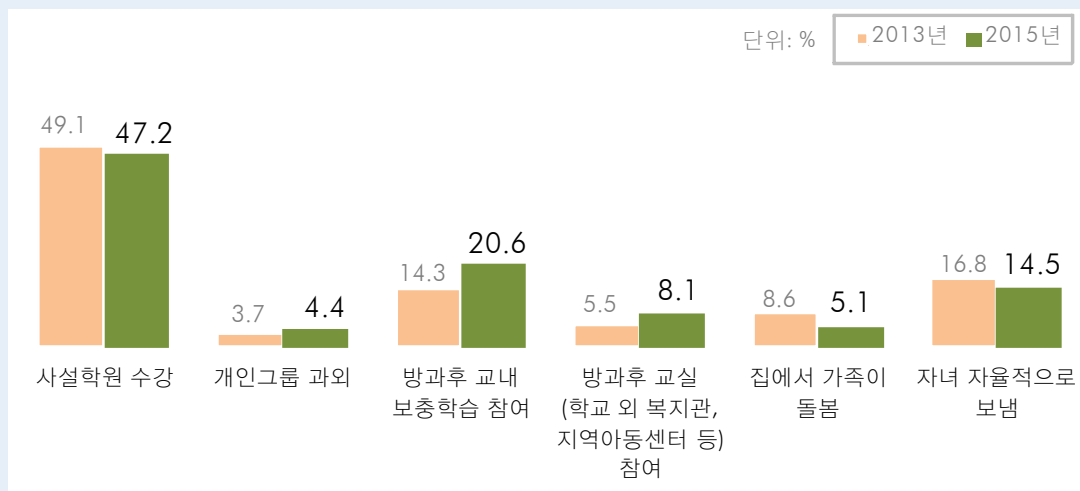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사설학원 수강	개인·그룹 과외	방과 후 교내 보충학습 참여	방과 후 교실 참여	집에서 가족이 돌봄	자녀 자율적으로 보냄
합계 (862)			47.2	4.4	20.6	8.1	5.1	14.5
읍/면	읍 (304)		52.6	3.7	17.5	5.2	5.9	15.1
	면 (559)		44.3	4.8	22.3	9.7	4.7	14.2
영농 여부	농어가 (188)		38.3	.9	29.1	10.3	7.1	14.2
	비농어가 (674)		49.7	5.4	18.2	7.5	4.6	14.6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243)		51.7	1.6	17.6	12.1	7.3	9.7
	40대 (475)		48.4	5.7	23.4	7.1	2.3	13.1
	50대 (99)		41.5	5.0	8.4	3.1	9.7	32.4
	60대 (20)		22.6	6.7	56.6	6.4	5.2	2.4
	70대 이상 (25)		25.3		18.0	10.0	19.8	26.8

자녀의 방과 후 시간 활용 - 추이

- '방과 후 교내 보충학습 참여'(+6.3%p), '방과 후 교실(학교 외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참여'(+2.6%p) 비중이 증가한 반면, '집에서 가족이 돌봄'(-3.5%p), '자녀 자율적으로 보냄'(-2.3%p) 비중은 감소

| 그림1324 | 자녀의 방과 후 시간 활용 - 추이



1325> 타지유학 자녀(손자녀) 실태

귀댁에는 외지로 나가 공부하고 있는 자녀(손자녀)가 있습니까?
(있다면) 외지에 나가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녀(손자녀)의 거주형태는 어떠합니까?

[타지유학 자녀 유무 : 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n=1,160) 기준, 타지유학 이유 : 타지유학 자녀가 있는 가구(n=192)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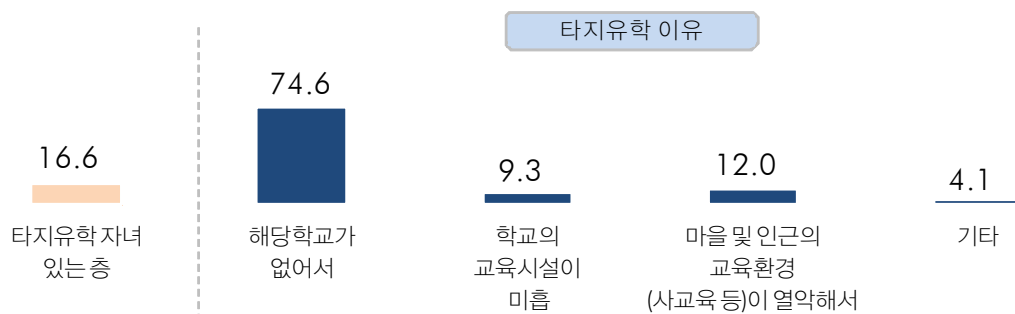
▶ 타지유학 자녀가 있는 가구가 16.6%, '해당 학교가 없어서'(74.6%)가 주된 유학 이유

학생자녀(손자녀)가 있는 가구 중 외지로 나가 공부하고 있는 자녀(손자녀)가 있는 가구가 16.6%로 면지역, 농어가에서 타지유학 자녀(손자녀) 비중이 다소 높았다.

타지유학이유로 '해당 학교가 없어서'(74.6%)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마을 및 인근의 교육환경이 열악해서'는 12.0%, '학교의 교육 시설이 미흡'해서는 9.3%였다. 면지역, 농어가에서 '해당 학교가 없어서' 비중이 더욱 높은 반면, 읍지역, 비농어가에서 '학교의 교육시설이 미흡', '마을 및 인근의 교육환경이 열악해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그림1325 - (1) | 타지유학 자녀(손자녀) 실태

단위 : %



| 표1325 - (1) | 타지유학 자녀(손자녀)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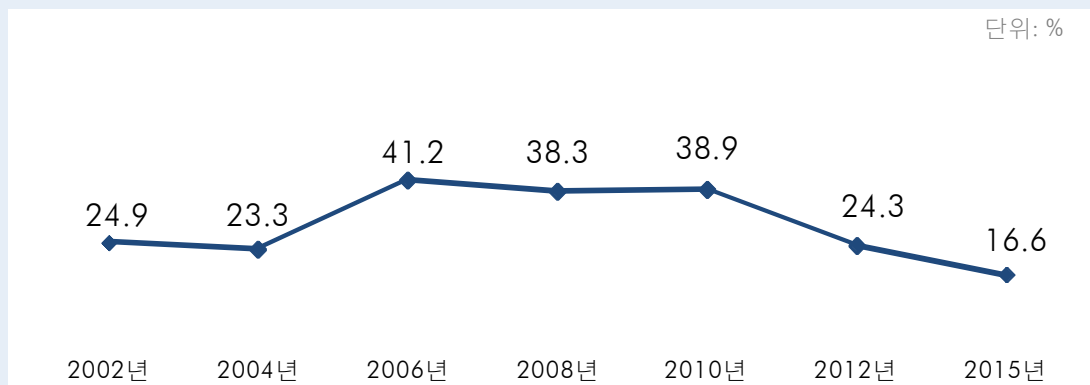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타지 유학 자녀(손자녀) 있는 총	타지 유학 이유			
			해당학교가 없어서	학교의 교육시설이 미흡	마을 및 인근의 교육환경이 열악해서	기타
합계 (1,160)		16.6	74.6	9.3	12.0	4.1
읍/면	읍 (383)	10.9	51.9	22.4	17.1	8.5
	면 (777)	19.3	80.9	5.6	10.6	2.9
영농 여부	농어가 (297)	30.1	91.4	1.2	4.6	2.9
	비농어가 (863)	11.9	60.1	16.3	18.4	5.2

타지 유학 자녀(손자녀) 실태 - 추이

- 2006년에 타 지역 유학자녀 비중이 다소 증가(+17.9%p)한 후 최근까지 꾸준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그림1325 - (2) | 타지유학 자녀(손자녀) 유무 - 추이



* 2012년까지는 농촌생활지표조사 결과

- 조사 년도에 관계없이 '해당 학교가 없어서'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2010년에 비해 '학교 교육시설이 미흡' 비중은 약간 감소(-5.0%p)한 반면, '마을 및 인근의 교육환경이 열악해서' 비중은 약간 증가(+5.0%p)

| 표1325 - (2) | 타지 유학 이유 - 추이

단위: %

구 분	해당학교가 없어서	학교의 교육시설이 미흡	마을 및 인근의 교육환경이 열악해서	기타
2015년	74.6	9.3	12.0	4.1
2012년	76.2	8.7	10.4	4.7
2010년	75.1	14.3	7.0	3.6
2008년	81.1	4.5	12.6	1.9
2006년	78.3	6.3	8.8	6.6

* 2012년까지는 농촌생활지표조사 결과

'자취'(49.7%), '기숙사'(39.2%)가 주된 거주형태

(있다면) 자녀(손자녀)의 거주형태는 어떠합니까?

[타지유학 자녀가 있는 가구(n=192) 중 응답 가구에 한해 : 응답률 99.0%(n=190)]

외지로 나가 공부하는 자녀(손자녀)의 거주형태로 '자취'(49.7%), '기숙사'(39.2%)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 하였으며, '하숙'은 8.6%, '친척집 거주'는 2.4%였다.

읍지역, 농어가에서 '자취' 비중이 더욱 높은 가운데, 비농어가에서 '기숙사' 비중이 다소 높은 반면, 농어가에서 '하숙'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표1325 - (3) | 타지유학 자녀(손자녀) 거주형태

단위 : %(명)

구분		기숙사	하숙	자취	친척집 거주
합계 (190)		39.2	8.6	49.7	2.4
읍/면	읍 (42)	35.5	4.0	58.4	2.1
	면 (149)	40.3	9.9	47.3	2.5
영농 여부	농어가 (89)	29.1	15.5	55.4	
	비농어가 (101)	48.1	2.6	44.7	4.6

타지 유학 자녀(손자녀) 거주형태 - 추이

- 최근으로 올수록 '기숙사', '자취' 비중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하숙', '친척집' 거주 비중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표1325 - (4) | 타지 유학 자녀(손자녀) 거주형태 - 추이

단위 : %

구분	기숙사	하숙	자취	친척집 거주
2015년	39.2	8.6	49.7	2.4
2012년	41.8	7.4	39.5	8.3
2010년	23.7	8.4	44.5	4.4
2008년	32.2	13.2	46.6	8.0
2006년	34.2	8.3	44.1	8.8
2004년	27.3	10.8	48.8	8.8

* 2012년까지는 농촌생활지표조사 결과 : '기타' 항목이 제외되어 합계 100.0%가 되지 않을 수 있음

1326> 사교육 수강 여부 및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 비용

귀택의 자녀(손자녀)는 사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받고 있다면) 사교육에 소요되는 월 평균 비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사교육 수강 여부 :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n=908) 기준]

[월 평균 사교육 비용 : 사교육 수강층(n=631)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5.6%(n=603)]

▶ 사교육 수강층이 69.5%, 수강층의 월 평균 사교육 비용은 25.1만원

학생자녀(손자녀)가 있는 가구 중 절반 이상(69.5%)이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읍지역, 비농어가에서 사교육 수강층 비중이 더욱 높았다.

월 평균 사교육 비용으로 '10-20만원 미만', '20-30만원 미만'(각 28.1%), '30-40만원 미만'(14.9%), '10만원 미만'(11.8%), '40-50만원 미만'(5.6%) 등 [50만원 미만](88.4%)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50-70만원 미만'(8.8%), '70-100만원 미만'(2.0%) 등 [50-100만원 미만](10.8%), '100만원 이상'(0.8%) 순으로 월 평균 사교육 비용은 25.1만원이었다. 읍지역, 비농어가에서 월 평균 사교육 비용이 다소 높았다.

| 표1326 | 사교육 수강 여부 및 월평균 사교육 비용

단위 : %(명)

구분			사교육 수강층	월 평균 사교육 비용								
				평균	10만원 미만	10-20 만원 미만	20-30 만원 미만	30-40 만원 미만	40-50 만원 미만	50-70 만원 미만	70-100 만원 미만	100 만원 이상
합계 (908)			69.5	25.1만원	11.8	28.1	28.1	14.9	5.6	8.8	2.0	.8
읍/면	읍 (321)	76.8	28.8만원	7.4	23.1	28.2	20.1	7.1	11.4	.9	2.0	
	면 (587)	65.5	22.7만원	14.6	31.2	28.1	11.6	4.6	7.2	2.7		
영농 여부	농어가 (200)	62.0	21.8만원	20.1	29.7	24.2	17.1	1.8	2.2	4.4	.5	
	비농어가 (708)	71.6	25.9만원	9.8	27.7	29.1	14.3	6.5	10.5	1.4	.8	

1327> 교육비 중 부담되는 항목

귀택의 자녀(손자녀) 교육비 가운데 가장 부담스러운 것은 어느 것입니까?

[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n=1,160) 중 응답 가구에 한해 - 응답률 90.9%(n=1,0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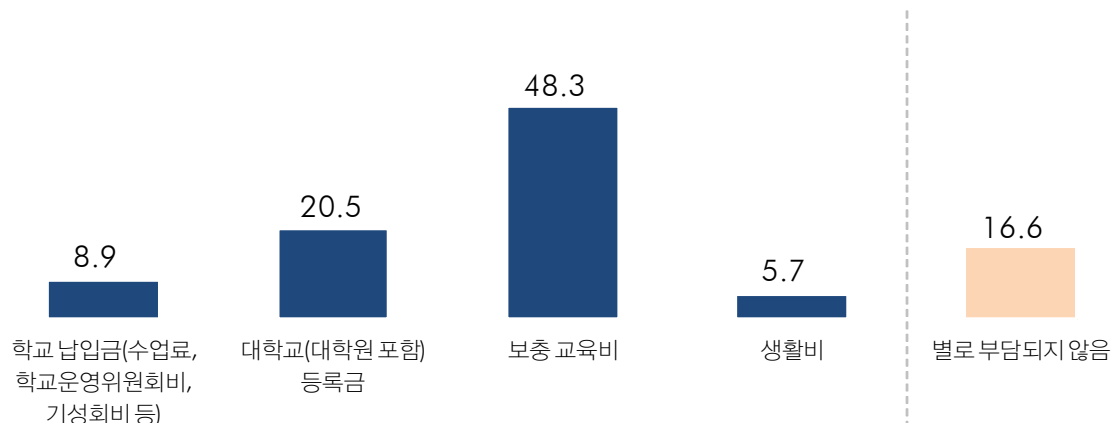
▶ '보충교육비'(48.3%)가 가장 부담되는 항목

학원비, 개인 및 그룹 과외비 등 '보충교육비'(48.3%)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대학교(대학원 포함) 등록금'(20.5%), 수업료, 학교운영위원회비, 기성회비 등 '학교 납입금'(8.9%), 하숙, 자취, 기숙사비 등 '생활비'(5.7%) 순이었다. 한편,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16.6%였다.

읍지역, 비농어가에서 '보충교육비' 비중이 더욱 높은 반면, 농어가에서 '대학교 등록금'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그림1327 | 교육비 중 부담되는 항목

단위 : %



| 표1327 | 교육비 중 부담되는 항목

단위 : %(명)

구분		학교 납입금	대학교 등록금	보충 교육비	생활비	별로 부담되지 않음
합계 (1,055)		8.9	20.5	48.3	5.7	16.6
읍/면	읍 (360)	8.9	18.6	55.6	3.2	13.7
	면 (696)	8.9	21.5	44.6	7.0	18.1
영농 여부	농어가 (280)	11.7	28.4	26.7	11.9	21.3
	비농어가 (775)	7.9	17.7	56.1	3.4	14.9

1328> 방과 후 학교 참여 실태

귀댁의 자녀(손자녀)는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참여한다면) 2015년 한 해 기준 총 참여 프로그램은 몇 개 입니까?
일주일 기준 참여 시간은 몇 시간 입니까? 방과 후 학교에 참여 하신지는 몇 년째 입니까?

[방과 후 학교 참여 여부 : 초·중·고등학생 자녀(손자녀)가 있는 가구(n=908)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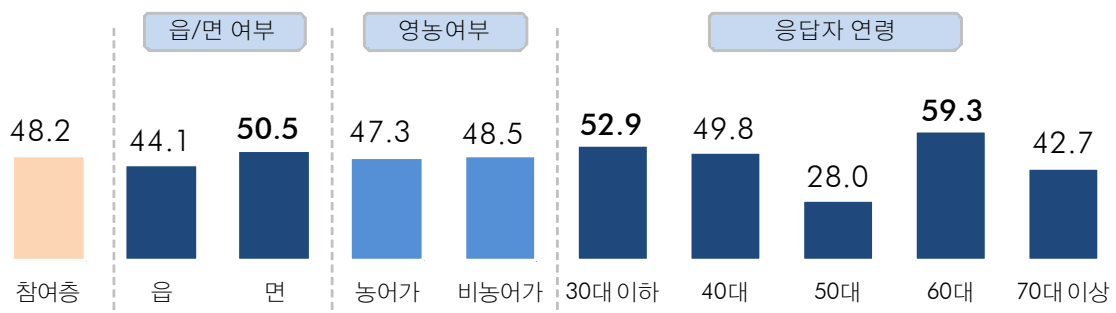
[참여층(n=438) 중 응답가구에 한해: 참여 프로그램 수 응답률 96.9%(n=379), 참여 시간 응답률 95.4%(n=373), 참여 년수 응답률 90.8%(n=355)]

- ▶ 방과 후 학교 참여층이 48.2%
- ▶ '프로그램 내용이 좋아서'(23.0%)가 주된 참여 이유

방과 후 학교 참여층이 48.2%로 나타난 가운데, 면지역, 30대 이하, 60대 연령층에서 '참여층' 비중이 다소 높았다.

| 그림1328 - (1) | 방과 후 학교 참여 여부

단위 : %



2015년 기준 1년간 총 참여 프로그램 수는 평균 2.2개, 일주일 동안 평균 참여 시간은 4.8시간, 총 참여 년수는 평균 2.2년으로 나타났다. 면지역, 농어가에서 총 참여 프로그램, 참여 시간, 참여 년수가 약간 많은 경향을 보였다.

| 표1328 - (1) | 방과 후 학교 참여 실태

단위 : (명)

구분		총 참여 프로그램		참여 시간		참여 년수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합계		(425)	2.2개	(422)	4.8시간	(406)	2.2년
읍/면	읍	(138)	1.8개	(136)	3.7시간	(132)	2.1년
	면	(287)	2.4개	(286)	5.3시간	(274)	2.2년
영농	농어가	(94)	2.1개	(91)	5.8시간	(83)	2.7년
여부	비농어가	(332)	2.2개	(331)	4.5시간	(323)	2.0년



'특기 적성'(50.6%), '교과 학습'(36.1%)이 주된 참여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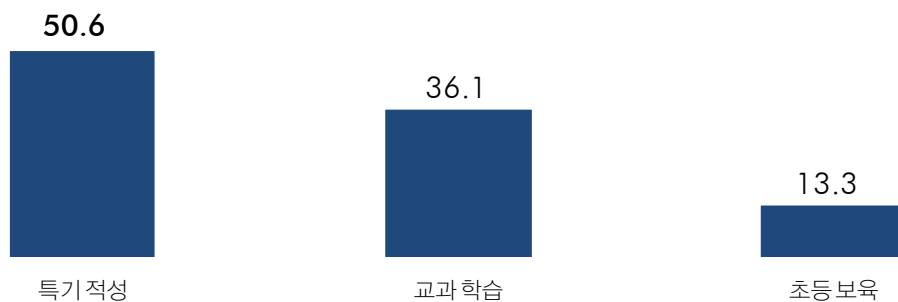
참여 프로그램 종류는 무엇입니까?

[참여층(n=438)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94.7%(n=415), 중복응답, 합계 100.0% 환산]

'특기 적성'(50.6%), '교과 학습'(36.1%)이 주된 참여 프로그램으로 나타났으며, '초등 보육'은 13.3%였다. 읍지역, 비농어가에서 '특기 적성' 비중이 더욱 높은 반면, 농어가에서 '교과 학습' 비중이 높았다.

| 그림1328 - (2) | 참여 프로그램 종류

단위 : %



| 표1328 - (2) | 참여 프로그램 종류

단위 : %(명)

구분		특기 적성	교과 학습	초등 보육
합계 (415)		50.6	36.1	13.3
읍/면	읍 (134)	55.3	33.6	11.1
	면 (281)	48.5	37.2	14.3
영농 여부	농어가 (90)	38.3	53.1	8.7
	비농어가 (325)	54.7	30.5	14.8

'프로그램 내용이 좋아서'(23.0%)가 주된 참여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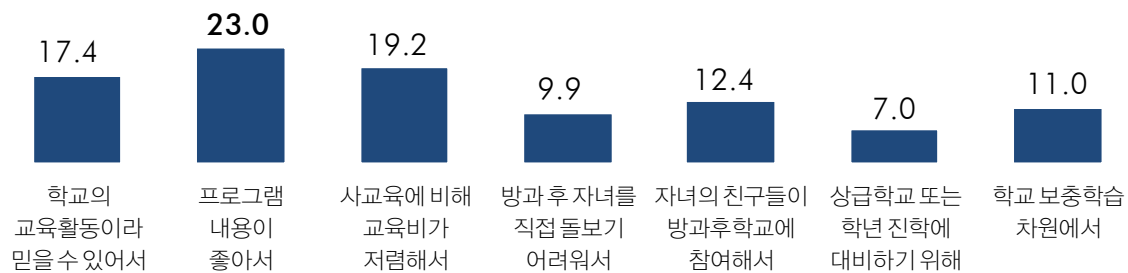
방과 후 학교에 보내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참여층(n=438)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93.6%(n=410)]

'프로그램 내용이 좋아서'(23.0%)가 방과 후 학교 주된 참여이유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사교육에 비해 교육비가 저렴해서'(19.2%), '학교의 교육활동이라 믿을 수 있어서'(17.4%), '자녀의 친구들이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해서'(12.4%), '학교 보충학습 차원에서'(11.0%), '방과 후 자녀를 직접 돌보기 어려워서'(9.9%), '상급학교 또는 학년 진학에 대비하기 위해'(7.0%) 순이었다.

| 그림1328 - (3) | 방과 후 학교에 보내는 이유

단위 : %



읍지역, 비농어가에서 '프로그램 내용이 좋아서', '사교육비에 비해 교육비가 저렴해서', '학교 보충학습 차원에서' 비중이 높은 반면, 농어가에서 '자녀의 친구들이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해서' 비중이 높았다.

| 표1328 - (3) | 방과 후 학교에 보내는 이유

단위 : %(명)

구분		학교의 교육활동이라 믿을 수 있어서	프로그램 내용이 좋아서	사교육에 비해 교육비가 저렴해서	방과 후 자녀를 직접 돌보기 어려워서	자녀의 친구들이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해서	상급학교 또는 학년 진학에 대비하기 위해	학교 보충학습 차원에서
합계 (410)		17.4	23.0	19.2	9.9	12.4	7.0	11.0
읍/면	읍 (124)	12.7	28.9	22.5	11.9	4.3	2.0	17.7
	면 (286)	19.4	20.4	17.8	9.0	16.0	9.2	8.1
영농 여부	농어가 (92)	15.5	21.1	7.2	15.0	27.4	10.7	3.1
	비농어가 (319)	18.0	23.5	22.7	8.4	8.1	6.0	13.3

‘향후 참여의향’(평균 73.7점)이 다소 높음

방과 후 학교 만족도에 관련된 다음의 문항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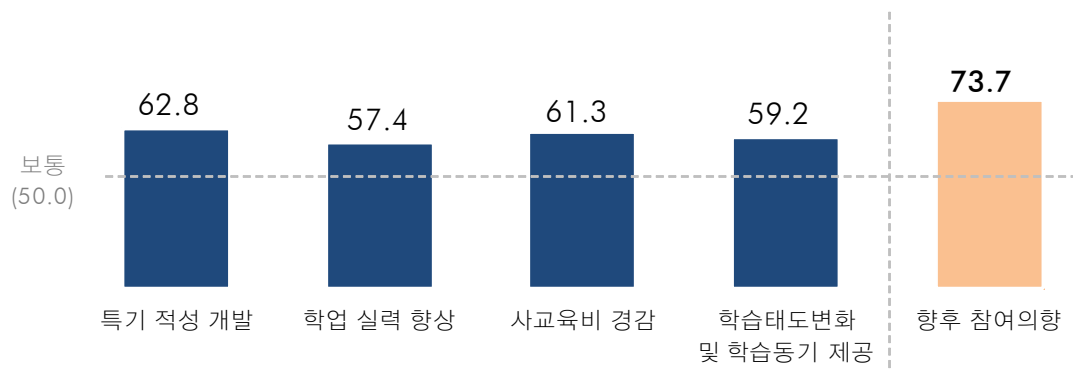
[방과 후 학교 참여층(n=413) 기준/만족도 100점 만점 환산 : $(\chi_i - 1) \times 25.0000$, χ_i =측정 값]

방과 후 학교와 관련하여 ‘특기 적성 개발’(62.8점)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사교육비 경감’(61.3점), ‘학습태도 변화 및 학습동기 제공’(59.2점), ‘학업 실력 향상’(57.4점) 순으로 전반적으로 ‘약간 만족하는 수준’의 평가를 보여 ‘향후 참여의향’(73.7점)이 다소 높았다.

농어가에서 ‘학업 실력 향상’ 만족도가 다소 높은 반면, 면지역, 비농어가에서 ‘향후 참여의향’ 만족도가 다소 높았다.

| 그림1328 - (4) | 방과 후 학교 만족도

단위: 점



| 표1328 - (4) | 방과 후 학교 만족도

단위: 점(명)

구분		특기 적성 개발	학업 실력 향상	사교육비 경감	학습태도 변화 및 학습동기 제공	향후 참여의향
합계 (413)		62.8	57.4	61.3	59.2	73.7
읍/면	읍 (137)	62.1	57.9	62.7	56.5	71.3
	면 (277)	63.2	57.1	60.7	60.4	74.8
영농 여부	농어가 (92)	60.1	64.1	59.4	61.9	70.3
	비농어가 (321)	63.6	55.6	61.9	58.4	74.6

1400> 가족

- 1411> 부모님 생존 여부
- 1412> 부모님 동거 여부 및
비동거 부모와의 교류실태
- 1413> 부모의 생활비 마련 방법
- 1414> 부모의 노후 생계 돌봄 주체
- 1415> 노부모 부양에 대한 태도
- 1421> 부모의 책임에 대한 태도
- 1422> 자녀 및 자녀양육에 대한 태도
- 1423> 분가한 자녀 유무 및
분가한 자녀와의 교류 실태
- 1431> 결혼문화에 대한 태도
- 1432> 결혼 및 이혼과 재혼에 대한 태도
- 1433> 성역할 및 여성취업에 대한 태도
- 1434> 자녀의 성별에 대한 태도
- 1441> 부부 의사결정 구조
- 1442> 부부 역할분담 실태

1411> 부모님 생존 여부

귀하의 부모님은 현재 살아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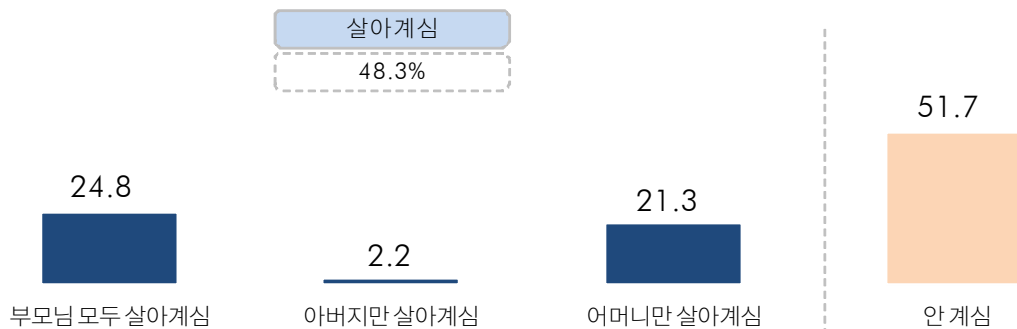
[조사대상 가구(n=3,934)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9.9%(n=3,932)]

▶ 부모님이 살아계신 층이 48.3%

‘부모님 모두 살아계심’(24.8%), ‘어머니만 살아계심’(21.3%), ‘아버지만 살아계심’(2.2%) 등 부모님이 살아계신 층이 48.3%로 읍지역, 비농어가, 응답자 연령대가 낮을수록 살아계신 층 비중이 높았다.

| 그림1411 | 부모님 생존 여부

단위 : %



| 표1411 | 부모님 생존 여부

단위 : %(명)

구분			부모님 모두 살아계심	아버지만 살아계심	어머니만 살아계심	살아 계심	안 계심
합계 (3,932)			24.8	2.2	21.3	48.3	51.7
읍/면	읍	(1,070)	38.8	2.5	19.2	60.5	39.5
	면	(2,862)	19.6	2.1	22.1	43.8	56.2
영농 여부	농어가	(1,346)	8.9	1.8	21.2	32.0	68.0
	비농어가	(2,586)	33.0	2.4	21.4	56.9	43.1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758)	77.4	3.8	12.9	94.0	6.0
	40대	(836)	35.4	3.8	40.8	80.0	20.0
	50대	(904)	9.6	2.2	34.6	46.3	53.7
	60대	(634)	.7	.6	12.5	13.7	86.3
	70대 이상	(791)	.1	.0	1.1	1.3	98.7

1412> 부모님 동거 여부 및 비동거 부모와의 교류 실태

- ▶ 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는 층이 78.3%
- ▶ 부모님 동거 가족으로 다른 가족 없이 '부모님만 따로 살고 있음'이 76.0%
- ▶ 부모님과의 전화통화 빈도로 '일주일에 1-2회'(55.2%), 만남 빈도로 '한 달에 1-2회'(37.7%) 비중이 높음



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는 층이 78.3%

귀하의 부모님은 귀댁에 함께 살고 계십니까? (비동거층의 경우) 귀하의 부모님은 누구와 함께 살고 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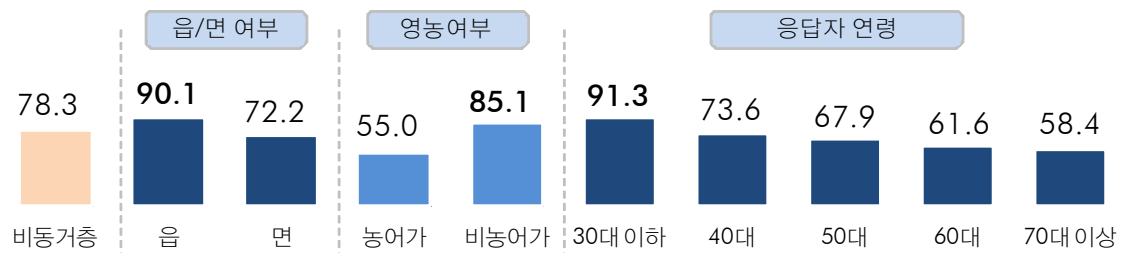
[부모님 동거 여부 : 부모님이 살아계신 가구(n=1,902) 기준]

[비동거 부모님 동거 가족 : 비동거층(n=1,490)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7.0%(n=1,445)]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 가구 중 부모와 함께 살고있지 않는 층이 78.3%(여자의 경우 친정부모님 기준)로 나타난 가운데, 읍지역, 비농어가, 응답자 연령대가 낮을수록 비동거율이 더욱 높았다.

| 그림1412 - (1) | 부모님 동거 여부

단위 : %



비동거층의 부모님 동거 가족으로 '부모님만 따로 살고 있음'(76.0%) 비중이 매우 높았으며, 다음으로 '장남 또는 맏며느리'(9.3%), '아들(장남 제외) 또는 며느리'(8.3%), '딸 또는 사위'(3.8%), '기타 친척'(0.1%) 순이었다. 비농어가에서 '부모님만 따로 살고 있음' 비중이 더욱 높았다.

| 표1412 - (1) | 비동거층의 부모님 동거 가족

단위 : %(명)

구분	장남 또는 맏며느리	아들(장남제외) 또는 며느리	딸 또는 사위	기타 친척	부모님만 따로 살고 있음	기타
합계 (1,445)	9.3	8.3	3.8	.1	76.0	2.4
읍/면						
읍 (570)	6.2	7.4	3.7	.1	79.9	2.7
면 (875)	11.3	8.9	3.9	.1	73.5	2.3
영농 여부						
농어가 (227)	14.5	8.7	4.8		66.4	5.5
비농어가 (1,218)	8.3	8.2	3.6	.1	77.8	1.8



부모님과 '차로 2시간 이상 거리'에 살고 있다는 응답이 2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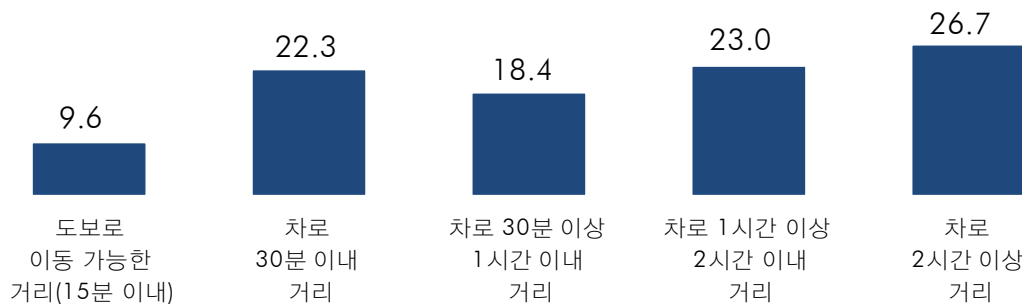
귀하의 부모님은 귀하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살고 계십니까?

[비동거층(n=1,490)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8.1%(n=1,461)]

부모님 거주지와와의 거리로 '차로 2시간 이상 거리'(26.7%)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아울러 '차로 1시간 이상, 2시간 이내 거리'(23.0%), '차로 30분 이내 거리'(22.3%) 비중 또한 높았다. 다음으로 '차로 30분 이상, 1시간 이내 거리'(18.4%),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15분 이내)'(9.6%) 순이었다.

| 그림1412 - (2) | 부모님 거주지와와의 거리

단위 : %



계층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농어가에서 '차로 30분 이내 거리' 비중이 다소 높은 반면, 비농어가에서 '차로 1시간 이상, 2시간 이내 거리' 비중이 다소 높았다.

| 표1412 - (2) | 부모님 거주지와와의 거리

단위 : %(명)

구분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 (15분 이내)	차로 30분 이내 거리	차로 30분 이상 1시간 이내 거리	차로 1시간 이상 2시간 이내 거리	차로 2시간 이상 거리
합계 (1,461)		9.6	22.3	18.4	23.0	26.7
읍/면	읍 (583)	6.8	24.6	16.0	26.1	26.5
	면 (879)	11.4	20.7	20.1	21.0	26.8
영농 여부	농어가 (219)	14.1	28.4	16.7	13.6	27.2
	비농어가 (1,242)	8.8	21.2	18.7	24.7	26.6



‘일주일에 1-2회’(55.2%) 전화통화, ‘한 달에 1-2회’(37.7%) 만남

귀하는 부모님과 얼마나 자주 전화 통화를 하거나 만나십니까?

[비동거층(n=1,490)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전화통화 빈도 응답률 97.9%(n=1,459), 만남빈도 응답률 96.4%(n=1,437)]

부모님과 전화통화 빈도로 ‘일주일에 1-2회’ 비중이 절반가량(55.2%)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거의 매일’(23.1%), ‘한 달에 1-2회’(16.7%), ‘1년에 3-5회’(2.5%), ‘거의 없음’(2.4%) 순이었다.

상대적으로 부모님 거주지와 거리가 멀었던 비농어가에서 ‘거의 매일’, ‘일주일에 1-2회’ 비중이 높은 반면, 농어가에서 ‘한 달에 1-2회’ 비중이 높았다.

| 표1412- (3) | 부모님과 전화통화 빈도

단위 : %(명)

구분		거의 매일	일주일에 1-2회	한 달에 1-2회	1년에 3-5회	거의 없음
합계 (1,459)		23.1	55.2	16.7	2.5	2.4
읍/면	읍 (578)	22.1	58.8	13.2	4.6	1.4
	면 (881)	23.9	52.9	19.1	1.1	3.1
영농 여부	농어가 (220)	14.9	47.6	31.0	.8	5.8
	비농어가 (1,240)	24.6	56.6	14.2	2.8	1.8

부모님과 만남 빈도로 ‘한 달에 1-2회’(37.7%), ‘1년에 3-5회’(28.7%)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일주일에 1-2회’(20.6%), ‘거의 매일’(8.0%), ‘거의 없음’(4.9%) 순이었다.

비농어가에서 ‘일주일에 1-2회’, ‘한 달에 1-2회’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농어가에서 ‘거의 매일’, ‘1년에 3-5회’ 비중이 높았다.

| 표1412- (4) | 부모님과 만남 빈도

단위 : %(명)

구분		거의 매일	일주일에 1-2회	한 달에 1-2회	1년에 3-5회	거의 없음
합계 (1,437)		8.0	20.6	37.7	28.7	4.9
읍/면	읍 (573)	6.0	23.2	37.8	27.6	5.4
	면 (864)	9.4	18.9	37.7	29.5	4.6
영농 여부	농어가 (220)	14.8	12.9	30.6	33.1	8.5
	비농어가 (1,217)	6.8	22.0	39.0	27.9	4.2

1413> 부모의 생활비 마련 방법

귀하의 부모님의 생활비는 주로 누가 드리고 있습니까?

[부모님이 한 분이더라도 살아계신 층(n=1,901) 중 응답 가구에 한해 : 응답률 99.2%(n=1,885)]

▶ '부모님 스스로 해결'(46.6%) 비중이 가장 높음

부모님의 생활비를 '부모님 스스로 해결'한다는 응답이 46.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모든 자녀(아들과 딸)'(27.6%), '장남 또는 맏며느리'(15.2%), '아들(장남 제외) 또는 며느리'(7.9%), '딸 또는 사위'(2.4%) 순이었다.

읍지역, 비농어가, 30대 이하 연령층에서 '부모님 스스로 해결' 비중이 더욱 높은 반면, 면지역, 농어가,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장남 또는 맏며느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1413 | 부모의 생활비 마련 방법

단위 : %(명)

구분			장남 또는 맏며느리	아들 (장남 제외) 또는 며느리	딸 또는 사위	모든 자녀 (아들과 딸)	부모님 스스로 해결	기타
합계 (1,885)			15.2	7.9	2.4	27.6	46.6	.3
읍/면	읍 (639)		6.7	4.9	1.2	31.3	55.4	.4
	면 (1,245)		19.6	9.4	3.0	25.7	42.0	.3
영농 여부	농어가 (430)		28.2	14.5	1.8	21.7	33.0	.8
	비농어가 (1,455)		11.4	6.0	2.5	29.4	50.6	.2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704)		5.3	3.7	2.1	17.1	71.9	
	40대 (665)		13.7	11.0	2.4	34.4	38.3	.2
	50대 (417)		29.4	8.5	2.5	34.3	24.4	.8
	60대 (85)		37.5	14.8	2.1	26.6	17.1	1.9
	70대 이상 (10)		27.0	19.6	14.9	34.7	3.8	

1414> 부모의 노후 생계 돌봄 주체

귀하께서는 부모님의 노후 생계는 주로 누가 돌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대상 가구(n=3,934)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8.4%(n=3,871)]

▶ '모든 자녀(아들과 딸)'(43.6%)가 함께 부모의 노후를 돌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함

부모님의 노후생계를 책임지는 주체로 '모든 자녀(아들과 딸)'(43.6%)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스스로 해결'(21.4%), '장남 또는 맏며느리'(13.4%), '능력 있는 자녀'(12.0%), '정부 또는 사회'(6.2%), '아들(장남 제외) 또는 며느리'(2.5%), '딸 또는 사위'(1.0%) 순이었다.

읍지역, 연령대가 낮을수록 '모든 자녀(아들과 딸)' 비중이 더욱 높은 반면,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부모님 '스스로 해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1414 | 부모의 노후 생계 돌봄 주체

단위 : %(명)

구분			스스로 해결	장남 또는 맏며느리	아들(장남 제외) 또는 며느리	딸 또는 사위	모든 자녀 (아들과 딸)	능력 있는 자녀	정부 또는 사회
합계 (3,871)			21.4	13.4	2.5	1.0	43.6	12.0	6.2
읍/면	읍	(1,043)	21.0	9.1	2.1	.7	48.5	11.9	6.7
	면	(2,828)	21.5	15.0	2.6	1.1	41.8	12.0	6.0
영농 여부	농어가	(1,323)	25.7	13.1	4.0	.5	41.5	9.2	6.0
	비농어가	(2,548)	19.2	13.6	1.6	1.2	44.7	13.4	6.3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739)	14.9	11.1	.8	1.5	51.3	14.6	5.7
	40대	(824)	20.6	12.0	3.0	.7	45.6	13.3	5.0
	50대	(896)	21.4	15.0	2.3	.9	43.7	12.0	4.7
	60대	(620)	27.9	11.9	3.1	1.1	38.6	10.6	6.7
	70대 이상	(783)	23.4	16.4	3.2	.7	37.9	9.2	9.3
	65세 미만	(2,759)	19.8	12.7	2.3	1.0	46.0	13.2	5.0
	65세 이상	(1,103)	25.6	15.3	2.8	.9	37.4	8.9	9.2

1415> 노부모 부양에 대한 태도

귀하께서는 노부모의 부양과 관련된 다음의 문항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조사대상 가구(n=3,934)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자식은 나이든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한다'(69.0%)에 대해 동의하는 층 비중이 가장 높음

노부모 부양에 관한 진술 중 '자식은 나이든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한다'에 대해 [그런 편]이라는 응답이 69.0%로 [그렇지 않은 편](9.4%)에 비해 많았다. '딸도 아들과 똑같이 나이든 부모를 돌보아야 한다'에 대해서 동의하는 층이 60.9%, '자식은 나이든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에 대해 동의 하는 층이 55.2%로 나타났다.

계층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비농어가, 65세 미만 연령층에서 전반적으로 공감하는 태도가 약간 더 강했다.

| 표1415 | 노부모 부양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자식은 나이든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 (n=3,908)			자식은 나이든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한다 (n=3,901)			딸도 아들과 똑같이 나이든 부모를 돌보아야 한다 (n=3,907)		
		그런 편 (합)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편 (합)	그런 편 (합)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편 (합)	그런 편 (합)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편 (합)
합계		55.2	23.9	20.9	69.0	21.6	9.4	60.9	29.1	10.0
읍/면	읍	56.5	22.8	20.7	69.0	23.0	8.0	62.4	27.8	9.8
	면	54.7	24.3	21.0	69.0	21.1	9.9	60.4	29.6	10.1
영농 여부	농어가	52.5	22.0	25.5	67.7	20.1	12.1	54.8	30.4	14.8
	비농어가	56.7	24.9	18.5	69.6	22.4	8.0	64.1	28.4	7.5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59.3	29.4	11.3	71.1	24.0	4.9	70.2	26.2	3.7
	40대	56.6	22.1	21.4	74.5	16.7	8.8	67.4	26.0	6.6
	50대	55.7	21.6	22.7	66.2	22.0	11.8	59.7	26.0	14.3
	60대	53.0	21.6	25.4	64.8	23.1	12.1	55.7	30.3	14.0
	70대 이상	51.3	24.6	24.1	67.9	22.6	9.5	50.8	37.6	11.6
	65세 미만	57.1	23.6	19.3	69.9	21.0	9.1	64.4	26.4	9.2
	65세 이상	50.6	24.3	25.1	66.8	23.0	10.2	52.1	35.7	12.2

1421 > 부모의 책임에 대한 태도

귀하께서는 부모의 책임과 관련된 다음의 문항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조사대상 가구(n=3,934) 중 응답가구에 한해]

▶ '부모는 자녀의 대학교육비를 책임져야 한다'(75.7%)에 대한 공감도가 가장 높음

‘부모는 자녀의 대학교육비를 책임져야 한다’(75.7%), ‘부모는 자녀의 결혼준비비용을 책임져야 한다’(45.0%)는 진술에 대해 공감하는 층이 공감하지 않는 층(대학교육비 : 7.6%, 결혼준비 : 22.1%)에 비해 다소 많았다. 반면, ‘부모는 필요하다면 자녀가 결혼한 후에도 돌보아줄 책임이 있다’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 층이 38.1%로 공감한다는 층(30.9%)과 비슷한 비중을 차지했다.

계층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면지역, 농어가,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전반적으로 공감하는 태도가 약간 더 강했다.

| 표1421 | 부모의 책임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부모는 자녀의 대학교육비를 책임져야 한다 (n=3,914)			부모는 자녀의 결혼준비비용을 책임져야 한다 (n=3,915)			부모는 필요하다면 자녀가 결혼한 후에도 돌보아줄 책임이 있다 (n=3,912)		
		그런 편 (합)	보통이다	그렇지 않은 편 (합)	그런 편 (합)	보통이다	그렇지 않은 편 (합)	그런 편 (합)	보통이다	그렇지 않은 편 (합)
합계		75.7	16.7	7.6	45.0	33.0	22.1	30.9	30.9	38.1
읍/면	읍	73.4	17.4	9.2	39.5	36.3	24.2	27.6	30.3	42.1
	면	76.5	16.4	7.0	47.0	31.7	21.3	32.2	31.2	36.7
영농 여부	농어가	80.1	14.7	5.2	51.5	30.3	18.2	33.1	32.3	34.6
	비농어가	73.4	17.8	8.8	41.6	34.3	24.1	29.8	30.2	40.0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65.8	21.4	12.8	30.0	38.3	31.7	27.7	31.9	40.4
	40대	78.5	11.9	9.5	40.9	30.8	28.3	26.8	29.9	43.3
	50대	79.1	14.7	6.3	49.3	31.8	19.0	33.6	27.6	38.8
	60대	76.3	18.0	5.8	49.9	33.9	16.2	35.5	31.0	33.6
	70대 이상	77.9	18.5	3.6	54.7	30.7	14.6	31.8	34.6	33.6
	65세 미만	74.9	16.0	9.1	41.2	33.7	25.0	30.2	29.6	40.2
	65세 이상	77.8	18.3	3.9	54.3	31.0	14.7	32.9	34.1	33.1

1422> 자녀 및 자녀 양육에 대한 태도

귀하께서는 자녀 및 자녀 양육과 관련된 다음의 문항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조사대상 가구(n=3,934) 중 응답가구에 한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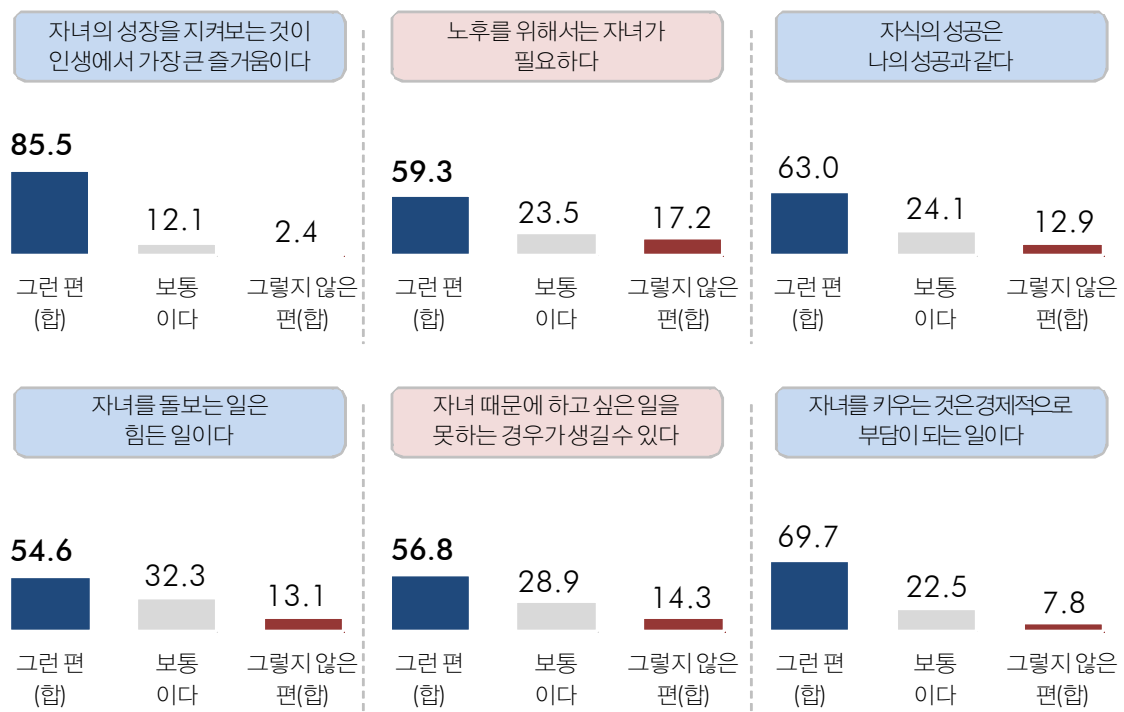
▶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다’(85.5%)에 대한 공감도가 가장 높음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다’에 대해 공감하는 층이 85.5%로 자녀 및 자녀 양육과 관련된 6가지 진술문 중 공감도가 가장 높았다. ‘자식의 성공은 나의 성공과 같다’(63.0%), ‘노후를 위해서는 자녀가 필요하다’(59.3%)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60% 가량이 공감하는 태도를 보였다.

한편, 자녀 양육에 대한 어려움과 관련하여 ‘자녀를 키우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일이다’(69.7%)에 대한 공감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자녀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56.8%), ‘자녀를 돌보는 일은 힘든 일이다’(54.6%) 순이었다.

| 그림1422 | 자녀 및 자녀양육에 대한 태도

단위 : %



계층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65세 이상 연령층에서 '자식의 성공은 나의 성공과 같다', '노후를 위해서는 자녀가 필요하다'에 대한 공감도가 다소 높았다.

| 표1422 | 자녀 및 자녀양육에 대한 태도

단위: %(명)

구분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다 (n=3,860)			노후를 위해서는 자녀가 필요하다 (n=3,859)			자식의 성공은 나의 성공과 같다 (n=3,860)		
		그런 편 (합)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편(합)	그런 편 (합)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편(합)	그런 편 (합)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편(합)
합계		85.5	12.1	2.4	59.3	23.5	17.2	63.0	24.1	12.9
읍/면	읍	84.0	12.6	3.5	55.4	23.6	21.0	58.8	21.1	20.1
	면	86.1	11.9	2.0	60.8	23.4	15.8	64.6	25.2	10.2
영농 여부	농어가	86.0	12.3	1.7	64.3	22.7	13.0	66.1	26.8	7.2
	비농어가	85.3	12.0	2.8	56.8	23.8	19.4	61.5	22.6	15.9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85.0	12.3	2.7	52.4	23.1	24.6	56.0	22.1	21.8
	40대	85.9	11.1	3.0	49.0	26.2	24.8	56.3	23.9	19.8
	50대	84.4	12.2	3.3	57.8	26.0	16.2	64.6	26.1	9.3
	60대	86.6	11.5	2.0	66.5	20.9	12.6	69.2	23.7	7.1
	70대 이상	86.1	12.9	.9	72.8	20.0	7.1	70.0	24.0	6.0
	65세 미만	85.6	11.5	2.9	54.6	24.6	20.8	60.2	24.1	15.7
	65세 이상	85.4	13.4	1.2	71.3	20.4	8.3	70.1	23.9	6.0
구분		자녀를 돌보는 일은 힘든 일이다 (n=3,849)			자녀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n=3,856)			자녀를 키우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일이다 (n=3,845)		
		그런 편 (합)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편(합)	그런 편 (합)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편(합)	그런 편 (합)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편(합)
합계		54.6	32.3	13.1	56.8	28.9	14.3	69.7	22.5	7.8
읍/면	읍	52.0	32.9	15.2	53.7	32.8	13.5	67.4	22.9	9.7
	면	55.6	32.1	12.3	58.0	27.4	14.6	70.6	22.4	7.1
영농 여부	농어가	55.8	32.5	11.7	57.5	28.9	13.6	72.1	21.5	6.4
	비농어가	53.9	32.3	13.8	56.5	28.9	14.6	68.5	23.0	8.5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59.8	26.4	13.7	67.6	24.9	7.5	74.5	20.1	5.4
	40대	50.7	33.6	15.7	59.5	28.6	11.9	70.0	22.2	7.8
	50대	50.8	34.0	15.2	49.3	30.1	20.6	64.5	23.9	11.6
	60대	57.7	32.2	10.1	54.4	28.5	17.0	71.8	21.6	6.6
	70대 이상	55.5	34.6	9.9	54.6	31.5	13.9	69.3	24.1	6.6
	65세 미만	53.9	31.5	14.6	58.0	27.8	14.2	69.5	22.2	8.3
	65세 이상	56.2	34.3	9.4	54.2	31.3	14.5	70.3	23.3	6.4

1423> 분가한 자녀 유무 및 분가한 자녀와의 교류 실태

현재 귀하의 자녀 가운데 분가해서 살고 있는 자녀가 있습니까?

[분가한 자녀 유무 : 조사대상 가구(n=3,934)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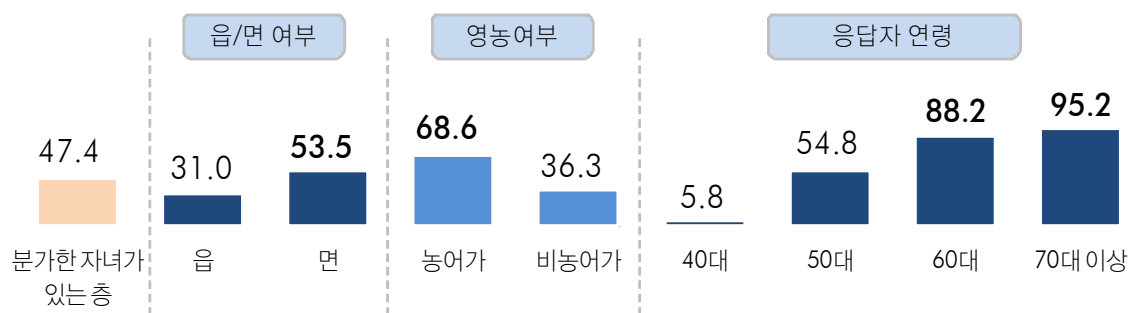
[분가한 자녀 수 : 분가한 자녀가 있는 층(n=1,863)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9.6%(n=1,855)]

- ▶ 분가한 자녀가 있는 층이 47.4%, 분가 자녀 수는 평균 2.9명
- ▶ 자녀와 통화 횟수는 '일주일에 1-2회'(53.8%), 만남은 '1년에 3-5회'(40.9%) 비중이 가장 높음

분가한 자녀가 있는 층이 47.4%로 먼지역, 농어가, 응답자 연령대가 높을수록 비중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1423 - (1) | 분가한 자녀 유무

단위 : %



분가한 자녀 수는 아들 평균 1.5명, 딸 평균 1.5명 등 평균 2.9명으로 나타났다. 계층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응답자 연령이 높을수록 분가한 자녀 수가 많았다.

| 표1423 - (1) | 분가한 자녀 수

단위 : 명

구분			분가한 자녀 수	아들	딸
합계 (1,855)			2.9	1.5	1.5
읍/면	읍 (332)		2.6	1.3	1.3
	면 (1,523)		3.0	1.5	1.5
영농 여부	농어가 (918)		2.9	1.5	1.5
	비농어가 (937)		2.9	1.5	1.5
응답자 연령	40대 (48)		1.6	.8	.8
	50대 (495)		1.9	.8	1.0
	60대 (557)		2.6	1.2	1.4
	70대 이상 (750)		4.0	2.1	1.9



분가한 자녀가 '차로 2시간 이상 거리'에 살고 있다는 응답이 3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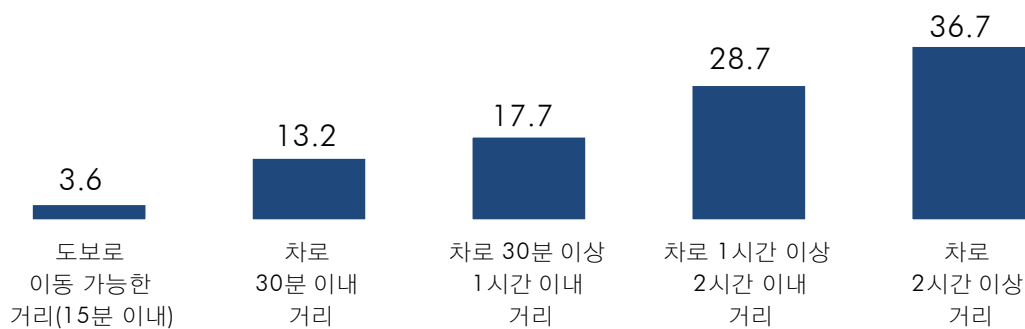
그 자녀는 귀하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살고 계십니까?

[분가한 자녀가 있는 층(n=1,863)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8.2%(n=1,830)]

분가 자녀 거주지와의 거리로 '차로 2시간 이상 거리'(36.7%)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차로 1시간 이상, 2시간 이내 거리'(28.7%), '차로 30분 이상, 1시간 이내 거리'(17.7%), '차로 30분 이내 거리'(13.2%),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15분 이내)'(3.6%) 순이었다.

| 그림1423 - (2) | 분가 자녀 거주지와의 거리

단위 : %



계층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표1423 - (2) | 분가 자녀 거주지와의 거리

단위 : %(명)

구분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 (15분 이내)	차로 30분 이내 거리	차로 30분 이상 1시간 이내 거리	차로 1시간 이상 2시간 이내 거리	차로 2시간 이상 거리
합계 (1,830)		3.6	13.2	17.7	28.7	36.7
읍/면	읍 (326)	6.2	10.6	13.1	29.5	40.7
	면 (1,504)	3.1	13.8	18.7	28.6	35.9
영농 여부	농어가 (905)	2.5	14.6	19.1	26.4	37.5
	비농어가 (925)	4.7	11.9	16.4	31.0	35.9



‘일주일에 1-2회’(53.8%) 전화통화, ‘1년에 3-5회’(40.9%), ‘한 달에 1-2회’(37.7%) 만남

귀하는 그 자녀와 얼마나 자주 전화 통화를 하거나 만나십니까?

[분가한 자녀가 있는 층(n=1,863)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전화통화 빈도 응답률 99.5%(n=1,854), 만남 빈도 응답률 98.9%(n=1,843)]

분가한 자녀와 전화통화 빈도는 ‘일주일에 1-2회’(53.8%)가 절반가량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거의 매일’(22.0%), ‘한 달에 1-2회’(21.0%), ‘1년에 3-5회’, ‘거의 없음’(각 1.6%) 순이었다.

계층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면지역, 농어가에서 ‘일주일에 1-2회’ 비중이 더욱 높은 반면, 읍지역에서 ‘거의 매일’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표1423- (3) | 분가 자녀와 전화통화 빈도

단위 : %(명)

구분		거의 매일	일주일에 1-2회	한 달에 1-2회	1년에 3-5회	거의 없음
합계 (1,854)		22.0	53.8	21.0	1.6	1.6
읍/면	읍 (331)	28.1	46.8	22.9	1.3	.9
	면 (1,523)	20.7	55.3	20.6	1.6	1.7
영농 여부	농어가 (919)	19.7	57.2	20.0	1.8	1.2
	비농어가 (935)	24.3	50.5	21.9	1.3	2.0

분가한 자녀와 만남 빈도는 ‘1년에 3-5회’(40.9%)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아울러 ‘한 달에 1-2회’(37.7%) 비중 또한 높았다. 다음으로 ‘일주일에 1-2회’(13.3%), ‘거의 매일’(4.6%), ‘거의 없음’(3.4%) 순이었다.

계층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농어가에서 ‘한 달에 1-2회’ 비중이 더욱 높았다.

| 표1423- (4) | 분가 자녀와 만남 빈도

단위 : %(명)

구분		거의 매일	일주일에 1-2회	한 달에 1-2회	1년에 3-5회	거의 없음
합계 (1,843)		4.6	13.3	37.7	40.9	3.4
읍/면	읍 (329)	8.1	13.3	36.3	38.1	4.2
	면 (1,515)	3.9	13.3	38.0	41.6	3.3
영농 여부	농어가 (916)	3.3	11.9	41.9	40.1	2.9
	비농어가 (927)	6.0	14.7	33.5	41.8	4.0

1431 > 결혼문화에 대한 태도

귀하께서는 결혼문화와 관련된 다음의 문항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조사대상 가구(n=3,934)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외국인과 결혼해도 상관없다'(30.9%)에 대한 공감도가 가장 높음

결혼문화와 관련된 진술에 대해 전반적으로 공감하는 태도가 높지 않은 가운데, '외국인과 결혼해도 상관없다'(30.9%)에 대한 공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다음으로 '결혼은 당사자보다 가족 간의 관계를 우선해야 한다'(23.3%),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22.5%),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8.7%) 순이었다.

계층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읍지역, 비농어가, 40대 이하 연령층에서 결혼문화와 관련된 진술에 공감하는 태도가 약간 높은 경향을 보였다.

| 표1431 | 결혼문화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 (n=3,926)			결혼은 당사자보다 가족 간의 관계를 우선해야 한다 (n=3,924)			외국인과 결혼해도 상관없다 (n=3,925)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n=3,925)		
		그런 편 (합)	보통 이다 (합)	그렇지 않은편 (합)	그런 편 (합)	보통 이다 (합)	그렇지 않은편 (합)	그런 편 (합)	보통 이다 (합)	그렇지 않은편 (합)	그런 편 (합)	보통 이다 (합)	그렇지 않은편 (합)
합계		22.5	18.0	59.5	23.3	28.6	48.0	30.9	28.0	41.1	8.7	15.7	75.6
읍/면	읍	30.5	17.3	52.2	24.8	29.4	45.8	35.7	28.9	35.4	13.7	18.5	67.8
	면	19.5	18.3	62.2	22.8	28.4	48.8	29.1	27.7	43.2	6.8	14.7	78.5
영농 여부	농어가	18.0	15.1	66.9	21.6	30.6	47.8	26.0	27.2	46.8	6.5	13.4	80.0
	비농어가	24.9	19.5	55.6	24.2	27.6	48.2	33.5	28.4	38.1	9.9	16.9	73.3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34.5	23.4	42.1	30.7	30.2	39.1	46.0	31.2	22.8	13.1	25.8	61.1
	40대	33.8	18.4	47.8	25.7	27.1	47.2	42.3	27.0	30.7	14.1	15.3	70.6
	50대	19.6	16.0	64.4	16.1	27.2	56.7	25.7	25.3	49.1	5.4	14.1	80.5
	60대	14.8	15.6	69.6	20.6	28.5	50.9	23.5	26.9	49.6	7.1	11.7	81.2
	70대 이상	8.7	16.4	74.9	24.1	30.4	45.5	16.6	29.8	53.6	4.0	11.3	84.7
	65세 미만	27.3	18.7	54.0	23.4	28.2	48.4	35.8	27.4	36.8	10.2	17.4	72.4
	65세 이상	10.7	16.1	73.3	23.1	29.7	47.2	18.8	29.4	51.8	5.0	11.5	83.6

1432> 결혼 및 이혼과 재혼에 대한 태도

1430>
가족
가치관

▶ 결혼을 [해야한다(합)](70.2%) > 재혼을 [해야한다(합)](15.0%) > 이혼을 [해야한다(합)](14.3%)



결혼을 [해야한다(합)](70.2%) > [하지 않아야 한다(합)](1.7%)

귀하께서는 결혼문화와 관련된 다음의 문항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조사대상 가구(n=3,934) 기준]

결혼을 ‘반드시 해야한다’(23.4%), ‘하는 것이 좋다’(46.8%) 등 해야한다는 응답이 70.2%로 ‘하지 않는 것이 좋다’(1.0%), ‘하지 말아야 한다’(0.7%) 등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응답(1.7%)에 비해 많았다.

면지역, 농어가, 응답자 연령대가 높을수록 [해야한다(합)] 비중이 더욱 높은 반면, 읍지역, 비농어가에서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표1432 - (1) | 결혼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좋다	해야 한다 (합)	해도 좋 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않는 것 이 좋다	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 않아야 한다 (합)	잘 모르 겠다
합계 (3,934)			23.4	46.8	70.2	26.6	1.0	.7	1.7	1.5
읍/면	읍	(1,071)	15.0	44.6	59.5	37.5	.8	.9	1.7	1.3
	면	(2,863)	26.6	47.7	74.2	22.4	1.1	.6	1.7	1.6
영농 여부	농어가	(1,346)	28.2	53.5	81.7	16.5	.8	.2	1.0	.8
	비농어가	(2,588)	20.9	43.4	64.3	31.8	1.1	.9	2.1	1.8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758)	8.3	42.8	51.1	45.9	.3	1.7	2.0	1.1
	40대	(836)	18.3	44.2	62.4	34.6	1.2	.4	1.6	1.4
	50대	(905)	17.9	53.6	71.6	24.6	1.0	.8	1.9	2.0
	60대	(634)	32.8	45.9	78.7	18.7	1.4	.2	1.6	1.0
	70대 이상	(792)	42.2	46.6	88.7	8.0	1.4	.2	1.6	1.7
	65세 미만	(2,805)	16.8	47.0	63.8	33.0	.8	.9	1.7	1.6
	65세 이상	(1,120)	40.1	46.5	86.6	10.3	1.6	.2	1.9	1.3



이혼을 [해야한다(합)](14.3%) < [하지 않아야 한다(합)](57.4%)

귀하께서는 이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사대상 가구(n=3,934) 기준]

‘이유가 있더라도 가급적 이혼해서는 안된다’(43.1%), ‘어떤 이유라도 이혼해서는 안된다’(14.3%) 등 하지 않아야 한다(57.4%)는 응답이 ‘이유가 있다면 이혼을 하는 것이 좋다’(9.6%), ‘이유가 있다면 이혼을 해야한다’(4.7%) 등 해야한다는 응답(14.3%)에 비해 많았다.

면지역, 농어가, 65세 이상 연령층에서 [하지 않아야 한다(합)] 비중이 더욱 높은 반면, 65세 미만 연령층에서 [경우에 따라 이혼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해야한다(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표1432 - (2) | 이혼에 대한 태도

단위: %(명)

구분			어떤 이유라도 이혼 해서는 안된다	이유가 있더라도 가급적 이혼 해서는 안된다	하지 않아야 한다 (합)	경우에 따라 이혼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유가 있으면 이혼을 하는 것이 좋다	이유가 있다면 이혼을 해야 한다	해야 한다 (합)	잘 모르 겠다
합계 (3,934)			14.3	43.1	57.4	25.2	9.6	4.7	14.3	3.2
읍/면	읍 (1,071)		8.5	41.0	49.5	28.9	9.3	8.6	17.9	3.7
	면 (2,863)		16.4	43.9	60.3	23.7	9.6	3.3	12.9	3.0
영농 여부	농어가 (1,346)		17.0	46.9	64.0	22.0	7.3	3.4	10.6	3.4
	비농어가 (2,588)		12.8	41.1	54.0	26.8	10.7	5.4	16.2	3.1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758)		6.7	37.9	44.6	35.3	12.6	6.2	18.8	1.3
	40대 (836)		7.0	37.3	44.4	33.2	13.4	6.3	19.7	2.7
	50대 (905)		13.5	45.0	58.6	23.5	8.7	4.9	13.5	4.4
	60대 (634)		18.8	47.8	66.6	18.9	8.3	3.2	11.6	2.9
	70대 이상 (792)		26.1	48.4	74.6	14.1	4.4	2.6	7.0	4.4
	65세 미만 (2,805)		9.8	41.1	50.9	29.3	11.4	5.4	16.8	3.0
	65세 이상 (1,120)		25.4	48.2	73.6	14.9	4.9	2.9	7.8	3.7



재혼을 [해야한다(합)](15.0%) ≒ [하지 않아야 한다(합)](15.1%)

귀하께서는 재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사대상 가구(n=3,934) 기준]

재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응답이 절반수준(52.6%)을 차지한 가운데, ‘반드시 해야한다’(0.9%), ‘하는 것이 좋다’(14.1%) 등 해야한다는 응답(15.0%)과 ‘하지 않는 것이 좋다’(10.2%), ‘하지 말아야 한다’(4.9%) 등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응답(15.1%)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잘 모르겠다는 의견도 17.3%였다.

계층별로 재혼에 대한 태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비농어가, 65세 미만 연령층에서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비중이 더욱 높은 반면, 65세 이상 연령층에서 [하지 않아야 한다(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표1432 - (3) | 재혼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좋다	해야 한다 (합)	해도 좋 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않는 것 이 좋다	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 않아야 한다 (합)	잘 모르 겠다
합계 (3,934)			.9	14.1	15.0	52.6	10.2	4.9	15.1	17.3
읍/면	읍	(1,071)	1.1	13.2	14.2	57.0	9.9	3.7	13.6	15.1
	면	(2,863)	.8	14.5	15.3	50.9	10.4	5.3	15.7	18.2
영농 여부	농어가	(1,346)	.6	18.0	18.6	46.2	12.6	5.4	18.0	17.2
	비농어가	(2,588)	1.0	12.2	13.1	55.9	9.0	4.6	13.6	17.4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758)	1.1	6.4	7.5	66.8	9.6	.9	10.4	15.2
	40대	(836)	.6	14.6	15.2	58.1	8.7	4.2	12.9	13.7
	50대	(905)	.4	17.0	17.4	47.9	7.8	6.2	14.1	20.6
	60대	(634)	1.1	16.2	17.3	47.6	13.3	5.1	18.5	16.6
	70대 이상	(792)	1.3	16.1	17.4	42.3	12.8	7.7	20.5	19.8
	65세 미만	(2,805)	.8	13.0	13.8	56.1	9.2	4.0	13.1	17.0
	65세 이상	(1,120)	1.1	17.0	18.1	43.7	13.0	7.2	20.2	18.1

1433> 성역할 및 여성취업에 대한 태도

귀하께서는 성역할 및 여성취업과 관련된 다음의 문항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조사대상 가구(n=3,934) 기준]

▶ '아버지도 어머니와 똑같이 자녀를 잘 보살펴야 한다'(76.6%)에 대한 공감도가 가장 높음

'아버지도 어머니와 똑같이 자녀를 잘 보살펴야 한다'는 진술에 대해 '매우 그렇다'(29.3%), '그런 편이다'(47.2%) 등 공감하는 응답이 76.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오늘날에는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다'(69.6%), '맞벌이 부부는 집안일도 똑같이 나누어서 해야 한다'(61.7%), '취학 전 자녀는 어머니가 직접 돌봐야 한다'(60.4%)는 진술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이 공감하는 태도를 보였다.

계층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응답자 연령대가 낮을수록 '아버지도 어머니와 똑같이 자녀를 잘 보살펴야 한다', '오늘날에는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다'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이 약간 많았다.

| 표1433 - (1) | 성역할 및 여성취업에 대한 태도(1)

단위 : %(명)

구분		아버지도 어머니와 똑같이 자녀를 잘 보살펴야 한다 (n=3,922)			오늘날에는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다 (n=3,918)			남자가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여자가 할 일은 가정을 돌보는 것이다 (n=3,914)		
		그런 편 (합)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 편 (합)	그런 편 (합)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 편 (합)	그런 편 (합)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 편 (합)
합계		76.6	20.7	2.7	69.6	26.3	4.1	24.5	31.9	43.6
읍/면	읍	77.5	20.2	2.3	66.1	28.2	5.7	20.3	28.1	51.6
	면	76.2	20.9	2.9	70.9	25.6	3.5	26.1	33.3	40.6
영농 여부	농어가	75.8	20.8	3.4	70.7	25.6	3.7	29.3	31.2	39.6
	비농어가	77.0	20.6	2.4	69.0	26.7	4.3	22.0	32.3	45.7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82.4	16.2	1.4	78.7	19.4	2.0	15.3	26.7	58.0
	40대	80.8	15.9	3.2	73.9	20.9	5.2	19.2	30.1	50.7
	50대	73.6	23.6	2.8	65.7	29.9	4.4	23.4	34.8	41.9
	60대	72.4	25.9	1.7	64.8	31.1	4.0	29.8	32.3	37.9
	70대 이상	73.2	22.5	4.3	64.7	30.6	4.7	36.1	35.0	29.0
	65세 미만	77.4	20.1	2.5	71.1	24.9	4.0	20.3	30.9	48.8
	65세 이상	74.3	22.2	3.5	65.7	29.9	4.4	35.1	34.3	30.6

한편, ‘남자가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여자가 할 일은 가정을 돌보는 것이다’(24.5%), ‘친정과 시집 모두 도움이 필요할 때, 결혼한 여자는 친정보다 시집을 먼저 도와야 한다’(23.8%)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태도가 상대적으로 약했다.

응답자 연령대가 높을수록 ‘남자가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여자가 할 일은 가정을 돌보는 것이다’, ‘친정과 시집 모두 도움이 필요할 때, 결혼한 여자는 친정보다 시집을 먼저 도와야 한다’에 대해 공감하는 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표1433 - (2) | 성역할 및 여성취업에 대한 태도(2)

단위 : %(명)

구분		맞벌이 부부는 집안일도 똑같이 나누어서 해야 한다 (n=3,918)			취학 전 자녀는 어머니가 직접 돌봐야 한다 (n=3,910)			친정과 시집 모두 도움이 필요할 때, 결혼한 여자는 친정보다 시집을 먼저 도와야 한다 (n=3,905)		
		그런 편 (합)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 편 (합)	그런 편 (합)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 편 (합)	그런 편 (합)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 편 (합)
합계		61.7	31.4	6.9	60.4	25.4	14.2	23.8	35.5	40.8
읍/면	읍	60.6	31.1	8.3	57.8	27.8	14.5	21.0	38.5	40.5
	면	62.1	31.5	6.4	61.4	24.5	14.1	24.8	34.3	40.9
영농 여부	농어가	61.0	32.8	6.2	56.8	27.5	15.7	27.7	36.7	35.6
	비농어가	62.0	30.7	7.3	62.3	24.3	13.4	21.7	34.8	43.5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65.3	27.1	7.6	57.5	28.0	14.5	10.6	35.3	54.2
	40대	64.6	31.8	3.6	59.7	22.1	18.2	17.5	32.5	50.1
	50대	61.4	29.9	8.7	63.4	23.7	12.8	23.8	37.5	38.8
	60대	58.8	32.8	8.3	59.5	25.0	15.5	31.2	33.5	35.3
	70대 이상	57.7	35.8	6.5	61.2	28.8	10.1	37.1	38.0	25.0
	65세 미만	62.7	30.3	7.0	60.3	24.7	15.0	19.3	34.7	45.9
	65세 이상	59.0	34.3	6.7	60.5	27.4	12.1	34.9	37.1	28.0

1434> 자녀 성별에 대한 태도

귀하께서는 자녀를 하나만 낳아 키운다고 할 때, 자녀의 성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사대상 가구(n=3,934)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8.0%(n=3,856)]

▶ [아들(합)](24.4%) > [딸(합)](10.9%), '상관없음'(64.6%)

자녀를 하나만 낳아 키운다고 가정 했을 때 자녀의 성별이 상관 없다는 응답이 64.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 가운데, '반드시 아들'(5.5%), '이왕이면 아들'(18.9%) 등 [아들]이기를 바란다는 응답이 24.4%로 '이왕이면 딸'(8.4%), '반드시 딸'(2.5%) 등 [딸](10.9%)에 비해 높았다.

면지역, 농어가, 응답자 연령이 높을수록 [아들]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비농어가, 65세 미만 연령층에서 [상관없음] 비중이 더욱 높았다.

| 표1434 | 자녀 성별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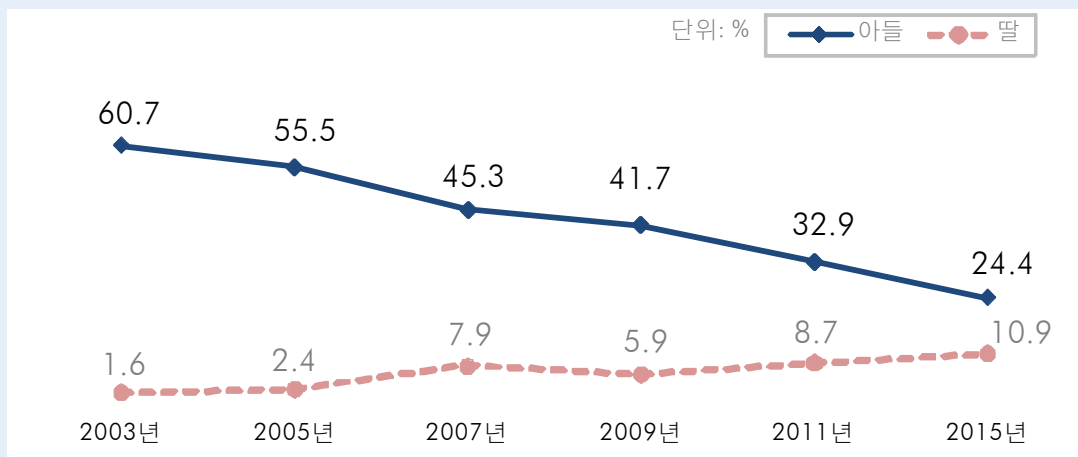
구분		반드시 아들	이왕이면 아들	아들 (합)	이왕이면 딸	반드시 딸	딸 (합)	상관 없음
합계 (3,856)		5.5	18.9	24.4	8.4	2.5	10.9	64.6
읍/면	읍 (1,044)	3.5	13.1	16.6	11.1	3.5	14.5	68.8
	면 (2,812)	6.2	21.1	27.3	7.4	2.2	9.6	63.1
영농 여부	농어가 (1,316)	5.9	27.0	32.9	6.5	1.7	8.2	58.9
	비농어가 (2,540)	5.3	14.7	20.0	9.4	3.0	12.4	67.6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746)	3.1	7.9	11.0	12.2	2.3	14.5	74.5
	40대 (818)	1.8	10.7	12.5	10.8	4.4	15.2	72.3
	50대 (888)	3.9	17.6	21.5	6.6	3.2	9.7	68.8
	60대 (622)	5.6	25.2	30.8	7.8	1.4	9.2	60.0
	70대 이상 (773)	13.5	34.8	48.3	4.9	.9	5.9	45.9
	65세 미만 (2,754)	2.9	13.7	16.6	9.3	3.1	12.5	70.9
	65세 이상 (1,093)	11.9	32.2	44.1	6.1	1.0	7.2	48.7



자녀 성별에 대한 태도 - 추이

- 최근으로 올수록 '아들'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딸' 비중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그림1434 | 자녀 성별에 대한 태도 - 추이



1441 > 부부 의사결정 구조

귀댁에서는 다음의 일들을 주로 누가 결정하십니까?

[부부가 함께 사는 가구 및 주말부부 총(n=2,885) 기준]

▶ 전반적으로 [부부 공동] 비중이 높은 가운데, 농사 관련 의사결정은 [남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전반적으로 ‘부부 공동’ 비중이 높은 가운데, ‘농사 작목을 결정하는 일’(44.0%), ‘수확 농산물을 판매하는 일’(38.8%) 등 농사 관련 의사결정과 ‘주택이나 농지를 사고파는 일’(28.6%), ‘경조금을 결정하는 일’(17.1%)의 경우 [남편]이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부인]에 비해 많았다.

반면, ‘한 달 생활비를 결정하는 일’(28.4%), ‘자녀교육 방법을 결정하는 일’(27.1%)의 경우 [부인]이 의사결정을 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반적으로 응답자 연령대가 낮을수록 [부부 공동] 비중이 더욱 높은 반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남편] 비중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 표 1441 - (1) | 부부 의사결정 구조(1)

단위 : %(명)

구분		주택이나 농지를 사고 파는 일(n=2,874)			(농가만 해당) 농사작목을 결정하는 일(n=1,015)			(농가만 해당) 수확농산물을 판매하는 일(n=1,015)		
		남편 (합)	부부 공동	부인 (합)	남편 (합)	부부 공동	부인 (합)	남편 (합)	부부 공동	부인 (합)
합계		28.6	66.9	4.5	44.0	52.6	3.4	38.8	56.2	5.0
읍/면	읍	24.2	70.5	5.3	57.7	39.0	3.3	45.6	46.9	7.5
	면	30.4	65.4	4.2	42.5	54.1	3.4	38.0	57.3	4.7
영농 여부	농어가	40.6	57.0	2.4						
	비농어가	21.8	72.5	5.7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21.0	75.2	3.8	42.7	57.3		38.4	61.6	
	40대	21.2	72.9	5.9	41.7	57.4	.8	36.0	60.4	3.6
	50대	29.8	66.5	3.7	42.4	53.0	4.6	37.9	55.3	6.8
	60대	34.6	61.4	4.1	41.4	55.1	3.5	36.2	60.0	3.8
	70대 이상	45.6	48.9	5.5	51.0	45.1	3.9	45.0	49.1	5.9
	65세 미만	24.8	70.9	4.4	41.7	55.2	3.0	36.7	58.4	4.9
	65세 이상	43.2	51.7	5.1	47.8	48.3	4.0	42.2	52.7	5.1

| 표1441 - (2) | 부부 의사결정 구조(2)

단위 : %(명)

구분		한 달 생활비를 결정하는 일 (n=2,855)			자녀교육 방법을 결정하는 일 (n=2,877)			경조금을 결정하는 일 (n=2,881)			가족 내 여가활동을 결정하는 일 (n=2,880)		
		남편 (합)	부부 공동	부인 (합)	남편 (합)	부부 공동	부인 (합)	남편 (합)	부부 공동	부인 (합)	남편 (합)	부부 공동	부인 (합)
합계		13.7	57.8	28.4	7.5	65.4	27.1	17.1	71.9	11.0	9.8	77.3	12.9
읍/면	읍	12.2	59.0	28.9	5.4	64.7	29.9	15.3	70.2	14.5	7.0	76.8	16.2
	면	14.4	57.4	28.3	8.4	65.7	25.9	17.8	72.6	9.6	10.8	77.5	11.6
영농 여부	농어가	18.2	56.8	25.1	10.9	65.8	23.3	21.2	70.0	8.7	14.0	75.5	10.5
	비농어가	11.3	58.4	30.3	5.6	65.2	29.2	14.8	73.0	12.2	7.4	78.3	14.3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2.6	64.9	22.4	5.8	66.2	28.0	15.0	76.9	8.1	10.0	78.9	11.1
	40대	9.9	56.3	33.8	4.5	65.1	30.4	14.3	73.2	12.5	7.5	79.0	13.4
	50대	13.2	56.8	30.0	8.0	64.5	27.5	18.2	70.2	11.6	8.4	78.0	13.6
	60대	13.5	59.1	27.4	8.6	68.3	23.1	17.5	72.2	10.3	9.3	78.8	11.9
	70대 이상	<u>23.6</u>	48.4	28.0	13.3	63.1	23.5	<u>23.0</u>	63.7	13.3	15.9	68.9	15.1
	65세 미만	11.7	59.5	28.8	6.3	65.2	28.5	16.2	73.1	10.7	8.7	78.4	12.9
	65세 이상	<u>21.2</u>	51.7	27.1	12.0	66.5	21.5	20.3	67.6	12.1	13.7	73.5	12.8

부부 의사결정 구조 - 추이

- 최근으로 올수록 항목에 관계없이 '부부 공동'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주택이나 농지를 사고 파는 일], [농사 작목을 결정하는 일(농가)], [수확 농산물을 판매하는 일(농가)] 등 주로 경제활동과 관련된 결정은 연도에 관계없이 남편 비중이 부인에 비해 높은 반면, [한 달 생활비를 결정하는 일], [자녀 교육 방법을 결정하는 일] 등 가계나 양육과 관련된 결정은 부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표1441 - (3) | **부부 의사결정 구조 - 추이**

단위 : %

구 분	주택이나 농지를 사고 파는 일			농사작목을 결정하는 일			수확농산물을 판매하는 일		
	남편	부부 공동	부인	남편	부부 공동	부인	남편	부부 공동	부인
2015년	28.6	66.9	4.5	44.0	52.6	3.4	38.8	56.2	5.0
2011년	47.1	48.5	4.4	52.5	43.2	4.3	47.4	46.4	6.2
2009년	48.9	48.1	2.9	52.1	43.0	4.9	47.7	46.4	6.0
2007년	55.6	39.9	4.6	63.2	32.7	4.1	60.1	34.1	5.8
2005년	45.0	52.6	2.4	45.8	50.3	3.9	38.0	52.9	9.1
2003년	45.7	52.2	2.0						
2000년	52.1	45.2	2.7						
구 분	한 달 생활비를 결정하는 일			자녀교육 방법을 결정하는 일			경조금을 결정하는 일		
	남편	부부 공동	부인	남편	부부 공동	부인	남편	부부 공동	부인
2015년	13.7	57.8	28.4	7.5	65.4	27.1	17.1	71.9	11.0
2011년	23.3	52.9	23.9	15.2	68.0	16.8	34.8	58.1	7.1
2009년	21.2	52.1	26.7	13.4	70.3	16.3	39.9	55.6	4.5
2007년	25.0	45.7	29.3	15.5	66.0	18.5	39.6	52.4	8.1
2005년	18.9	56.7	24.5	11.5	74.0	14.5	35.9	58.4	5.7
2003년	19.3	56.1	24.7	12.7	72.3	15.0	41.7	52.3	6.0
2000년	27.3	47.3	25.3	17.4	66.0	16.7	49.2	44.9	5.8

* 2011년까지는 농촌생활지표조사 결과

1442> 부부 역할분담 실태

1440>
부부
관계

귀댁에서는 다음의 일들을 주로 누가 하십니까?

[부부가 함께 사는 가구 및 주말부부 총(n=2,885) 기준]

▶ ‘이웃, 친척과의 교제(경조사 참가)’(68.8%), ‘큰 돈 관리’(51.5%)는 [부부 공동] 비중이 높은 반면, ‘음식 준비 및 설거지’(79.8%), ‘세탁’(79.7%) 등 가사 노동은 [부인] 비중이 높음

‘이웃, 친척과의 교제(경조사 참가)’(68.8%), ‘큰 돈 관리’(51.5%)는 [부부 공동] 비중이 높은 반면, ‘음식 준비 및 설거지’(79.8%), ‘세탁’(79.7%), ‘집안 청소’(70.4%), ‘자녀 돌보기’(62.0%), ‘살림살이 비용 관리’(59.2%) 등 육아 및 가사 노동과 관련된 부분은 [부인] 비중이 높았다.

전반적으로 응답자 연령대가 낮을수록 [부부 공동] 비중이 더욱 높은 반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남편] 혹은 [부인] 비중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 표1442 - (1) | 부부 역할분담 실태(1)

단위 : %(명)

구분		큰 돈 관리(투자 및 재산 관리) (n=2,885)			살림살이 비용 관리 (n=2,883)			음식준비 및 설거지 (n=2,884)		
		남편 (합)	부부 공동	부인 (합)	남편 (합)	부부 공동	부인 (합)	남편 (합)	부부 공동	부인 (합)
합계		33.9	51.5	14.6	8.7	32.1	59.2	1.7	18.5	79.8
읍/면	읍	28.2	55.5	16.4	6.2	35.7	58.1	1.2	22.7	76.2
	면	36.2	49.9	13.9	9.8	30.6	59.6	1.9	16.8	81.3
영농 여부	농어가	49.8	42.0	8.2	14.8	28.5	56.7	1.8	14.3	83.9
	비농어가	24.9	56.9	18.2	5.3	34.1	60.6	1.7	20.9	77.5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28.7	56.2	15.1	5.6	41.8	52.6	.9	30.0	69.1
	40대	24.9	57.1	18.0	6.8	26.5	66.7	.6	19.7	79.8
	50대	30.7	53.1	16.2	8.9	32.5	58.6	3.8	13.6	82.6
	60대	42.4	47.4	10.2	10.0	29.8	60.2	1.8	14.5	83.7
	70대 이상	54.5	35.6	9.8	16.1	26.5	57.4	1.3	9.3	89.3
	65세 미만	29.0	55.2	15.7	7.3	33.4	59.3	1.7	20.3	78.0
	65세 이상	52.4	37.5	10.2	14.3	27.0	58.7	1.7	11.8	86.5

| 표1442 - (2) | 부부 역할분담 실태(2)

단위 : %(명)

구분		세탁 (n=2,885)			집안청소 (n=2,883)			자녀 돌보기 (n=2,876)			이웃, 친인척과의 교제(경조사 참가) (n=2,878)		
		남편 (합)	부부 공동	부인 (합)	남편 (합)	부부 공동	부인 (합)	남편 (합)	부부 공동	부인 (합)	남편 (합)	부부 공동	부인 (합)
합계		2.1	18.2	79.7	3.1	26.5	70.4	1.7	36.3	62.0	12.1	68.8	19.1
읍/면	읍	1.8	23.3	74.9	2.7	31.6	65.8	1.5	38.1	60.3	9.3	70.8	19.9
	면	2.2	16.1	81.6	3.3	24.4	72.3	1.8	35.6	62.7	13.2	68.0	18.7
영농 여부	농어가	1.9	12.0	86.1	4.2	17.1	78.7	2.2	29.6	68.2	18.4	63.8	17.9
	비농어가	2.2	21.6	76.1	2.5	31.7	65.8	1.4	40.1	58.5	8.6	71.7	19.7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2.2	28.2	69.6	3.9	37.9	58.2	1.3	45.8	52.8	8.9	75.9	15.2
	40대	.8	19.2	80.0	1.7	27.2	71.0	.3	39.5	60.2	9.4	72.3	18.2
	50대	3.6	14.6	81.9	3.2	22.4	74.4	3.2	30.4	66.4	16.4	62.9	20.7
	60대	2.3	14.4	83.2	4.1	19.9	76.0	2.1	29.7	68.2	12.0	66.1	21.9
	70대 이상	1.3	9.7	89.0	3.0	19.6	77.4	1.8	32.2	66.0	14.9	64.0	21.1
	65세 미만	2.1	20.0	77.9	3.1	28.2	68.7	1.7	37.4	61.0	11.3	70.3	18.4
	65세 이상	2.2	11.2	86.5	3.3	19.8	76.9	1.9	32.3	65.9	15.2	63.2	21.5



부부 역할분담 실태 - 추이

- 최근으로 올수록 '부부 공동'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큰 돈 관리], [이웃, 친척과의 교제(경조사 참가)]에 대해서는 '남편' 비중이 감소한 반면, [음식 준비 및 설거지], [세탁], [집안청소], [자녀 돌보기]에 대해서는 '부인' 비중이 감소하는 추이가 나타남

| 표1442 - (3) | 부부 역할분담 실태 - 추이

단위 : %

구 분	큰 돈 관리			살림살이 비용관리			음식준비 및 설거지			세탁		
	남편	부부 공동	부인	남편	부부 공동	부인	남편	부부 공동	부인	남편	부부 공동	부인
2015년	33.9	51.5	14.6	8.7	32.1	59.2	1.7	18.5	79.8	2.1	18.2	79.7
2011년	50.6	30.8	17.8	11.8	21.0	66.4	1.0	10.7	86.9	1.5	7.7	89.3
2009년	57.2	25.6	15.9	12.1	21.5	65.1	0.7	6.3	91.0	0.9	5.5	91.7
2007년	54.2	28.0	17.0	11.5	14.9	72.6	1.2	4.5	92.9	1.3	3.8	93.3
2005년	56.6	26.3	16.6	11.4	23.3	64.8	0.7	6.0	92.9	0.8	4.8	93.7
2003년	58.0	25.9	15.4	12.8	23.4	63.1	1.1	6.4	91.5	1.3	5.1	92.3
2000년	60.2	20.2	18.4	16.4	16.7	66.3	0.6	5.4	92.4	0.8	4.4	92.8

구 분	집안청소			자녀돌보기			이웃, 친인척과의 교제 (경조사 참가)		
	남편	부부 공동	부인	남편	부부 공동	부인	남편	부부 공동	부인
2015년	3.1	26.5	70.4	1.7	36.3	62.0	12.1	68.8	19.1
2011년	2.2	17.4	78.9	1.7	32.2	64.5	21.1	60.2	18.2
2009년	1.4	12.4	84.1	0.7	25.3	70.8	27.6	61.2	10.0
2007년	1.7	9.3	87.1	1.9	23.2	73.0	29.1	54.6	15.4
2005년	1.8	17.2	79.7	1.1	35.5	61.6	21.1	66.5	11.9
2003년	2.2	17.8	78.4	1.2	36.7	59.2	27.6	62.6	7.9
2000년	15	12.1	84.6	1.6	28.3	68.6	32.4	56.6	9.9

* 2011년까지는 농촌생활지표조사 결과 : '부모', '자녀' 항목이 제외되어 합계 100.0%가 되지 않을 수 있음

1500> 지역개발

및 공동체

- 1511> 지역발전 정도에 대한 인식
- 1512> 지역개발에 대한 태도
- 1513> 마을의 지역자원 활용
- 1514> 농촌지역 우선 필요정책
- 1515> 마을의 안전정도
- 1516> 마을 안전시설/설비에 대한 인식
- 1517> 지역 안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 1521> 외부인 거주 여부
- 1522> 외부인 수용성
- 1523> 마을주민들 간의 친밀도 변화
- 1524> 농촌 계속거주 의향 실태
- 1525>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 1526>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이웃 수
- 1527> 참여하고 있는 지역단체 실태
- 1528> 공동체 의식
- 1529> 공동체의식 함양 요인
- 1530> 마을리더 역할의 중요도
- 1531> 마을리더가 될 의향
- 1532> 외부인 마을리더에 대한 수용성

1511 > 지역발전 정도에 대한 인식

1510 >
지역
개발

귀하께서는 현재 거주하고 계신 마을의 전반적인 발전 정도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사대상 가구(n=3,934)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9.2%(n=3,9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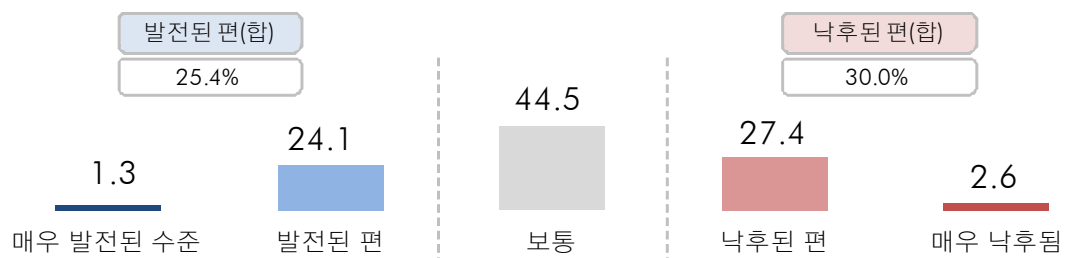
▶ [발전된 편(합)](25.4%) ≒ [낙후된 편(합)](30.0%)

현재 거주하고 있는 마을의 전반적인 발전 정도에 대해 ‘매우 발전된 수준’(1.3%), ‘발전된 편’(24.1%) 등 [발전된 편]이라는 응답이 25.4%로 ‘매우 낙후됨’(2.6%), ‘낙후된 편’(27.4%) 등 [낙후된 편](30.0%)이라는 응답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통’이라는 의견은 44.5%였다.

계층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응답자 연령이 높을수록 [발전된 편(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낮을수록 [낙후된 편(합)] 비중이 높았다.

| 그림1511 - (1) | 지역발전 정도에 대한 인식

단위 : %



| 표1511 | 지역발전 정도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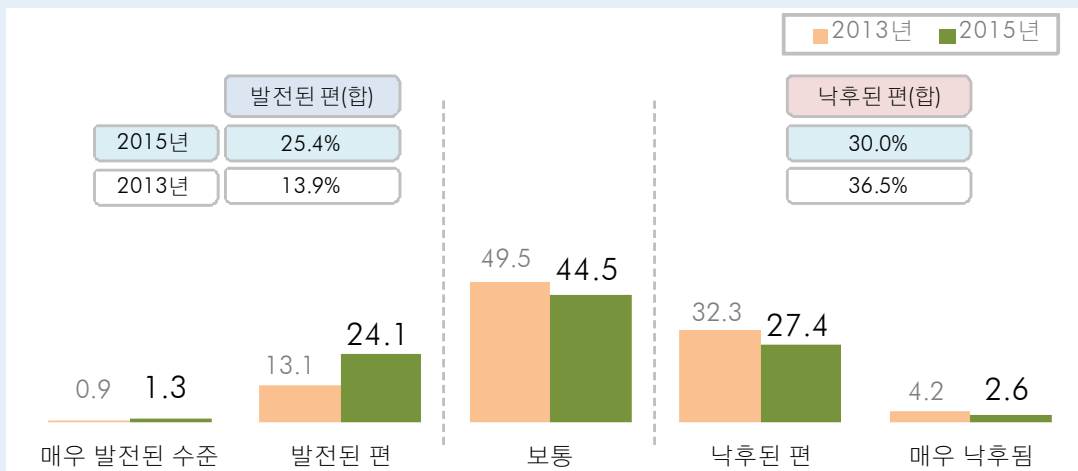
구분			매우 발전된 수준	발전된 편	발전된 편 (합)	보통	낙후된 편	매우 낙후됨	낙후된 편 (합)
합계 (3,902)			1.3	24.1	25.4	44.5	27.4	2.6	30.0
읍/면	읍 (1,063)		1.8	22.8	24.7	47.5	25.1	2.7	27.9
	면 (2,840)		1.1	24.6	25.7	43.4	28.3	2.6	30.9
영농 여부	농어가 (1,340)		.7	25.5	26.2	42.2	30.3	1.3	31.6
	비농어가 (2,562)		1.6	23.4	25.0	45.8	25.9	3.3	29.2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748)		1.0	18.2	19.3	45.6	32.9	2.2	35.2
	40대 (831)		2.2	21.4	23.6	40.7	31.8	3.9	35.7
	50대 (899)		.9	25.6	26.5	44.9	26.4	2.1	28.5
	60대 (631)		1.0	27.5	28.5	41.6	27.0	2.9	29.9
	70대 이상 (786)		1.2	28.2	29.4	49.6	18.9	2.1	21.1

지역발전 정도에 대한 인식 - 추이

- ‘발전된 편’(+11.0%p) 등 [발전된 편(합)]이라는 응답이 다소 증가(+11.5%p)한 반면, ‘낙후된 편’(-4.9%p) 등 [낙후된 편(합)]이라는 의견은 감소

| 그림1511 - (2) | 지역발전 정도에 대한 인식 - 추이

단위 : %



1512> 지역개발에 대한 태도

1510>
지역
개발

귀하께서는 지역개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사대상 가구(n=3,934)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지역의 개발사업의 이익은 외지인이나 특정인에게만 돌아가지 않고 지역주민들에게 공평하게 돌아간다’(31.9%)에 대한 공감도가 가장 높음

지역 개발에 대한 태도로 ‘지역의 개발 사업의 이익은 외지인이나 특정인에게만 돌아가지 않고 지역주민들에게 공평하게 돌아간다’에 대해 [그런 편]이라는 응답이 31.9%로 [그렇지 않은 편](26.9%)에 비해 많았다. ‘개발 보다는 농촌 자연환경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에 대해서는 [그런 편](31.1%)이라는 응답과 [그렇지 않은 편](33.7%)이라는 응답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더라도 개발사업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편] 비중이 절반 이상(58.5%)으로 [그런 편](16.4%)에 비해 높았다.

계층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농어가에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더라도 개발사업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에 대해 공감하는 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 표1512 | 지역개발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더라도 개발사업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n=3,922)			개발 보다는 농촌 자연환경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 (n=3,922)			지역의 개발사업의 이익은 외지인이나 특정인에게만 돌아가지 않고 지역주민들에게 공평하게 돌아간다 (n=3,921)		
		그런 편 (합)	보통이다	그렇지 않은 편 (합)	그런 편 (합)	보통이다	그렇지 않은 편 (합)	그런 편 (합)	보통이다	그렇지 않은 편 (합)
합계		16.4	25.1	58.5	31.1	35.1	33.7	31.9	41.2	26.9
읍/면	읍	15.4	30.0	54.6	32.2	37.1	30.7	28.2	45.3	26.4
	면	16.8	23.3	59.9	30.7	34.4	34.8	33.3	39.7	27.0
영농 여부	농어가	20.1	22.0	57.9	32.6	31.8	35.6	34.9	35.0	30.2
	비농어가	14.5	26.7	58.7	30.4	36.9	32.7	30.4	44.5	25.1

1513> 마을의 지역자원 활용

1510>
지역
개발

귀하께서는 현재 거주하고 계신 마을의 지역자원 이용과 활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사대상 가구(n=3,934)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우리 마을이 가진 지역자원이 아름답고 우수하다'(49.7%)에 대한 공감도가 가장 높음

현재 거주하고 있는 마을의 지역자원 이용 및 활용과 관련하여 '우리 마을이 가진 지역자원이 아름답고 우수하다'에 대해 공감하는 층이 절반 수준(49.7%)으로 [그렇지 않은편](15.1%)이라는 응답에 비해 많았다. '우리 마을의 자원을 지역주민 즐거움이나 교류의 장으로 이용한다'(43.8%), '우리 마을은 더욱 살기좋은 마을이 될 것이다'(38.0%), '지역자원 유지를 위한 주민활동이 지역에 착심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29.3%)에 대해서도 [그런 편]이라는 응답이 [그렇지 않은편]이라는 응답에 비해 많았다. 농어가, 40대 이상 연령층에서 [그런 편] 비중이 더욱 높은 경향을 보였다.

한편, '우리 마을은 마을자원을 활용한 상품이나 특산물, 관광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에 대해서는 [그런 편]이라는 응답이 15.8%로 [그렇지 않은편](51.0%) 비중에 비해 낮았다.

| 표1513-(1) | 마을의 지역자원 활용(1)

단위: %(명)

구분		우리 마을이 가진 지역자원이 아름답고 우수하다 (n=3,919)			우리 마을의 자원을 지역주민 즐거움이나 교류의 장으로 이용한다 (n=3,919)		
		그런 편 (합)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 편 (합)	그런 편 (합)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 편 (합)
합계		49.7	35.2	15.1	43.8	37.0	19.2
읍/면	읍	45.8	39.0	15.3	32.9	45.8	21.3
	면	51.1	33.8	15.0	47.8	33.8	18.4
영농 여부	농어가	55.5	30.2	14.4	54.7	29.2	16.0
	비농어가	46.7	37.9	15.5	38.1	41.1	20.8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38.1	44.3	17.6	25.8	52.4	21.9
	40대	53.1	33.2	13.7	38.2	39.5	22.4
	50대	48.3	33.0	18.7	46.1	32.7	21.2
	60대	51.7	35.8	12.5	52.0	29.9	18.1
	70대 이상	57.1	30.6	12.3	57.6	30.4	12.1

| 표1513- (2) | 마을의 지역자원 활용(2)

단위 : %(명)

구분		우리 마을은 마을자원을 활용한 상품이나 특산품, 관광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n=3,920)			지역자원 유지를 위한 주민활동이 지역애착심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n=3,915)			우리 마을은 더욱 살기 좋은 마을이 될 것이다 (n=3,919)		
		그런 편 (합)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 편 (합)	그런 편 (합)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 편 (합)	그런 편 (합)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 편 (합)
합계		15.8	33.2	51.0	29.3	47.0	23.7	38.0	47.6	14.4
읍/면	읍	12.2	33.9	54.0	22.7	46.9	30.4	34.9	45.7	19.4
	면	17.1	33.0	49.9	31.7	47.1	21.2	39.1	48.4	12.5
영농 여부	농어가	18.6	30.9	50.4	<u>36.3</u>	46.8	16.9	37.7	50.3	12.1
	비농어가	14.3	34.4	51.3	25.6	47.1	27.3	38.2	46.3	15.6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9.3	<u>39.1</u>	51.6	18.3	53.1	28.6	35.0	50.6	14.4
	40대	14.1	31.8	54.2	<u>28.0</u>	41.8	30.3	36.3	45.6	18.1
	50대	16.6	30.1	53.4	<u>31.9</u>	45.0	23.1	39.1	45.1	15.8
	60대	<u>19.8</u>	30.0	50.2	<u>32.6</u>	44.5	22.9	39.3	48.1	12.6
	70대 이상	<u>19.5</u>	35.0	45.5	<u>35.3</u>	50.8	13.8	40.3	49.4	10.3

1514> 농촌지역 우선 필요정책

정부가 농촌지역에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사대상 가구(n=3,934)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8.7%(n=3,883)]

▶ '농업인 기초소득 보장'(41.4%)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

정부가 농촌지역에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정책으로 '농업인 기초소득 보장'(41.4%)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아울러 '농업의 미래 보호'(21.2%) 비중 또한 높았다. 다음으로 '농촌주민 교육과 건강 증진'(11.4%), '공용버스 등 교통수단 확보'(10.7%), '농촌지역 사업체에 대한 투자확대'(5.8%), '주택의 보급 및 개량'(4.9%), '농촌의 자연환경 보호'(4.6%) 순이었다.

면지역, 농어가, 응답자 연령이 높을수록 '농업인 기초소득 보장' 비중이 더욱 높은 반면, 비농어가, 응답자 연령이 낮을수록 '공용버스 등 교통수단 확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1514 | 농촌지역 우선 필요정책

단위 : %(명)

구분		농업인 기초소득 보장	농업의 미래 보호	농촌의 자연환경 보호	주택의 보급 및 개량	공용버스 등 교통수단 확보	농촌주민 교육과 건강 증진	농촌지역 사업체에 대한 투자확대
합계 (3,883)		41.4	21.2	4.6	4.9	10.7	11.4	5.8
읍/면	읍 (1,052)	35.0	20.6	6.4	5.7	12.7	11.3	8.3
	면 (2,831)	43.8	21.4	3.9	4.5	10.0	11.4	4.9
영농 여부	농어가 (1,335)	49.0	24.4	2.9	4.4	5.7	10.1	3.5
	비농어가 (2,548)	37.5	19.5	5.5	5.1	13.4	12.0	7.0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751)	33.2	19.4	4.1	3.4	16.1	14.2	9.6
	40대 (818)	35.0	23.0	7.1	7.1	12.2	9.4	6.2
	50대 (893)	39.4	22.8	5.4	5.2	10.3	11.6	5.3
	60대 (629)	48.1	23.7	3.6	2.8	7.0	9.9	5.0
	70대 이상 (783)	53.2	16.7	2.5	5.1	7.7	11.7	3.0

1515 > 마을의 안전 정도

귀하께서는 현재 거주하고 계신 마을의 지역자원 이용과 활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사대상 가구(n=3,934)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자연재해(65.5%) > 치안(64.1%) > 교통안전 및 보행(46.2%)

부문별 마을의 안전 정도 중 자연재해에 대해 ‘매우 안전함’(13.4%), ‘안전한 편’(52.2%) 등 [안전한 편]이라는 응답이 65.5%로 3개 부문 중 가장 안전하다는 평가를 보였다. 아울러 치안에 대해서도 ‘매우 안전함’(10.7%), ‘안전한 편’(53.3%) 등 [안전한 편]이라는 응답이 64.1%였다.

한편, 교통안전 및 보행에 대해서는 ‘매우 안전함’(6.8%), ‘안전한 편’(39.4%) 등 [안전한 편]이라는 의견이 절반수준(46.2%)으로 나타났다.

계층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농어가,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전반적으로 [안전한 편] 비중이 더욱 높았다.

| 표1515 | 마을의 안전 정도

단위 : %(명)

구분		치안 (n=3,922)			자연재해 (n=3,919)			교통안전 및 보행 (n=3,919)		
		안전한 편(합)	보통	안전하지 않은 편(합)	안전한 편(합)	보통	안전하지 않은 편(합)	안전한 편(합)	보통	안전하지 않은 편(합)
합계		64.1	27.5	8.4	65.5	28.4	6.0	46.2	35.0	18.8
읍/면	읍	56.9	35.0	8.2	63.0	33.2	3.8	43.8	40.2	16.1
	면	66.8	24.7	8.5	66.5	26.7	6.8	47.1	33.0	19.8
영농 여부	농어가	70.9	21.3	7.8	70.6	23.2	6.2	52.4	31.7	15.9
	비농어가	60.5	30.7	8.8	62.9	31.2	5.9	43.0	36.7	20.3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55.0	36.0	9.0	60.2	35.9	3.9	35.3	41.9	22.8
	40대	63.8	29.1	7.1	67.0	27.8	5.3	45.2	34.1	20.7
	50대	59.5	29.6	10.9	61.5	30.7	7.8	44.2	36.6	19.3
	60대	70.0	22.1	7.9	69.5	23.1	7.4	53.6	29.6	16.8
	70대 이상	73.7	19.3	7.0	70.8	23.5	5.7	54.4	31.5	14.1

1516> 마을 안전시설/설비에 대한 인식

귀하께서는 현재 거주하고 계신 마을의 안전시설/설비 구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사대상 가구(n=3,934)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전반적으로 마을 안전시설/설비 수준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보임

‘우리 지역은 우범지역에 방범카메라가 잘 설치되어 있다’(45.5%), ‘우리 지역은 교통시설물이 잘 설치되어 있다’(31.1%)는 진술에 대해 [그렇지 않은 편]이라는 응답이 [그렇다에 비해 우세한 가운데, 읍지역에서 [그런 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우리 지역은 어두운 장소가 없도록 잘 정비되어 있다’에 대해 [그런 편](32.8%) 비중과 [그렇지 않은 편](30.7%)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난 가운데,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그런 편] 비중이 높았다.

| 표1516 | 마을 안전시설/설비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우리 지역은 우범지역에 방범카메라가 잘 설치되어 있다 (n=3,920)			우리 지역은 어두운 장소가 없도록 잘 정비되어 있다 (n=3,919)			우리 지역은 교통시설물이 잘 설치되어 있다 (n=3,917)		
		그런 편 (합)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 편 (합)	그런 편 (합)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 편 (합)	그런 편 (합)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 편 (합)
합계		27.5	27.0	45.5	32.8	36.5	30.7	27.2	41.7	31.1
읍/면	읍	33.5	30.2	36.3	35.5	34.3	30.3	32.2	43.3	24.5
	면	25.3	25.8	48.9	31.9	37.3	30.8	25.4	41.1	33.5
영농 여부	농어가	23.1	23.8	53.1	33.4	36.8	29.8	27.3	39.9	32.8
	비농어가	29.9	28.6	41.5	32.5	36.4	31.1	27.2	42.6	30.2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29.5	32.2	38.2	25.0	39.5	35.5	20.6	46.1	33.2
	40대	27.7	27.3	45.0	31.7	38.2	30.1	25.1	45.3	29.6
	50대	23.9	25.1	51.0	30.4	33.9	35.7	26.9	37.0	36.1
	60대	30.5	21.2	48.2	39.1	33.2	27.7	32.6	37.4	30.0
	70대 이상	27.0	28.4	44.6	39.4	37.3	23.3	31.8	42.4	25.8

1517> 지역 안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안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동하는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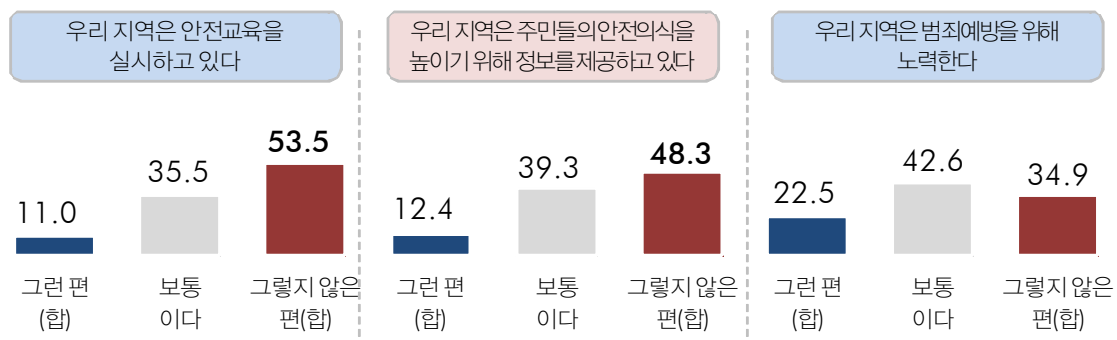
[조사대상 가구(n=3,934)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9.6%(n=3,920)]

▶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안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강함

‘우리 지역은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53.3%), ‘우리 지역은 주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48.3%), ‘우리 지역은 범죄예방을 위해 노력한다’(34.9%) 등 지역 안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대해 [그렇지 않은 편]이라는 응답이 우세한 가운데, 면지역, 농어구에서 [그렇지 않은 편] 비중이 더욱 높은 경향을 보였다.

| 그림1517 | 지역 안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단위 : %



| 표1517 | 지역 안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단위 : %(명)

구분		우리 지역은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 지역은 주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 지역은 범죄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그런 편 (합)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 편 (합)	그런 편 (합)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 편 (합)	그런 편 (합)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 편 (합)
합계		11.0	35.5	53.5	12.4	39.3	48.3	22.5	42.6	34.9
읍/면	읍	11.9	41.0	47.1	14.6	41.9	43.6	28.5	42.2	29.2
	면	10.6	33.5	55.9	11.6	38.3	50.1	20.2	42.7	37.1
영농 여부	농어가	11.6	31.0	57.5	12.5	38.4	49.1	21.1	41.2	37.7
	비농어가	10.6	37.9	51.5	12.3	39.7	48.0	23.2	43.3	33.5

1521 > 외부인 거주 여부

귀객 또는 귀하께서 거주하고 계신 마을에는 귀농·귀촌인, 결혼 이민자, 외국인 노동자가 살고 있습니까?

[조사대상 가구(n=3,934) 중 응답가구에 한해]

▶ 귀농/귀촌인(40.1%) > 결혼 이민자(39.3%) > 외국인 노동자(25.0%)

귀농/귀촌인이 ‘우리 가구에 있음’(4.3%), ‘우리 마을에 있음’(35.8%) 등 [있음] 비중이 40.1%로 [없음](23.1%)에 비해 높았다. 결혼이민자 역시 ‘우리 가구에 있음’(2.8%), ‘우리 마을에 있음’(36.5%) 등 [있음](39.3%) 비중이 [없음](27.6%)에 비해 높았다.

한편,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있음] 비중이 25.0%로 [없음](37.9%)에 비해 낮았다.

면지역, 농어가에서 귀농/귀촌인 [있음] 비중이 더욱 높은 반면, 읍지역, 비농어가에서 외국인 노동자 [있음] 비중이 다소 높았다.

| 표1521 | 외부인 거주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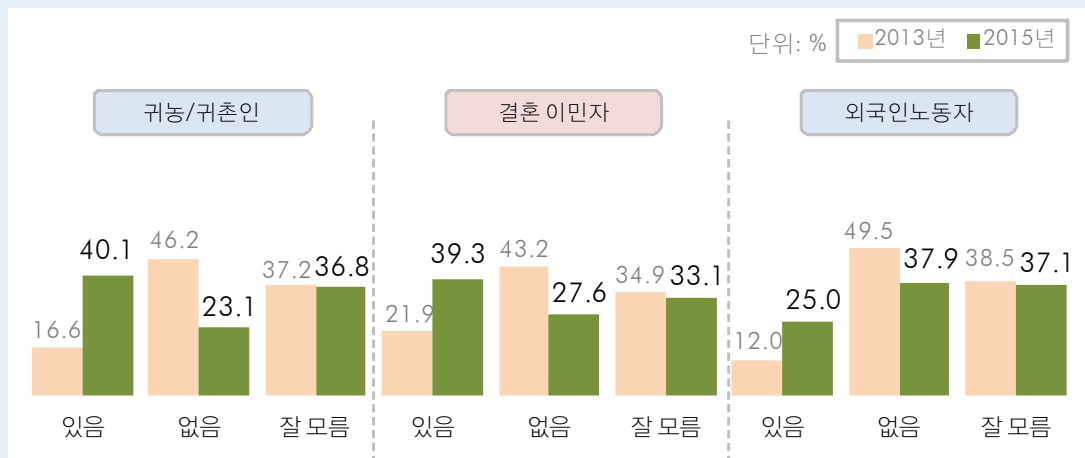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우리 가구에 있음	우리 마을에 있음	있음(합)	없음(합)	잘모름
귀농/귀촌인 (3,900)		4.3	35.8	40.1	23.1	36.8
읍/면	읍 (1,058)	3.0	28.4	31.4	16.2	52.4
	면 (2,842)	4.8	38.6	43.4	25.6	31.0
영농 여부	농어가 (1,338)	5.2	50.5	55.7	27.6	16.7
	비농어가 (2,562)	3.9	28.1	32.0	20.7	47.3
결혼 이민자 (3,923)		2.8	36.5	39.3	27.6	33.1
읍/면	읍 (1,068)	2.5	39.3	41.8	16.3	41.8
	면 (2,855)	2.8	35.5	38.3	31.9	29.8
영농 여부	농어가 (1,344)	3.3	38.2	41.5	38.8	19.6
	비농어가 (2,579)	2.5	35.7	38.1	21.8	40.0
외국인 노동자 (3,915)		.9	24.1	25.0	37.9	37.1
읍/면	읍 (1,061)	2.8	31.5	34.3	20.3	45.3
	면 (2,855)	.2	21.4	21.5	44.4	34.1
영농 여부	농어가 (1,343)	.3	16.9	17.2	57.7	25.1
	비농어가 (2,572)	1.2	27.9	29.1	27.5	43.4

외부인 거주 여부 - 추이

- 2013년에 비해 '귀농/귀촌인'(+23.5%p), '결혼 이민자'(+17.4%p), '이주노동자'(+13.0%p) 등 외부인 유입이 전반적으로 증가

| 그림1521 | 외부인 거주 여부 - 추이



1522> 외부인 수용성

1520>
공동체

귀하께서는 연고가 없는 외부인이 귀하의 이웃에서 함께 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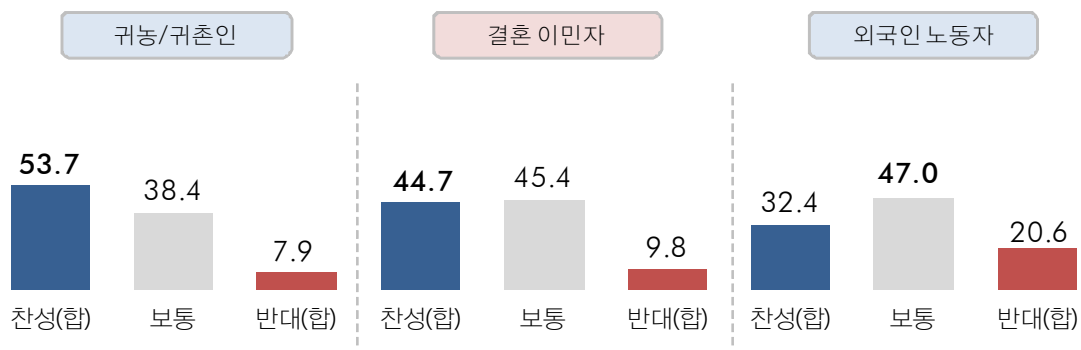
[조사대상 가구(n=3,934)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9.7%(n=3,922)]

▶ 귀농/귀촌인(53.7%) > 결혼 이민자(44.7%) > 외국인 노동자(32.4%)

연고가 없는 외부인이 이웃에서 함께 사는 것에 대해, 귀농/귀촌인에 대해 ‘매우 찬성’(10.0%), ‘다소 찬성’(43.7%) 등 찬성한다는 의견이 53.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결혼이민자(44.7%), 외국인 노동자(32.4%) 순이었다. 계층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60대 이하 연령층에서 전 반적으로 [찬성] 비중이 높았다.

| 그림 1522 - (1) | 외부인 수용성

단위 : %



| 표 1522 | 외부인 수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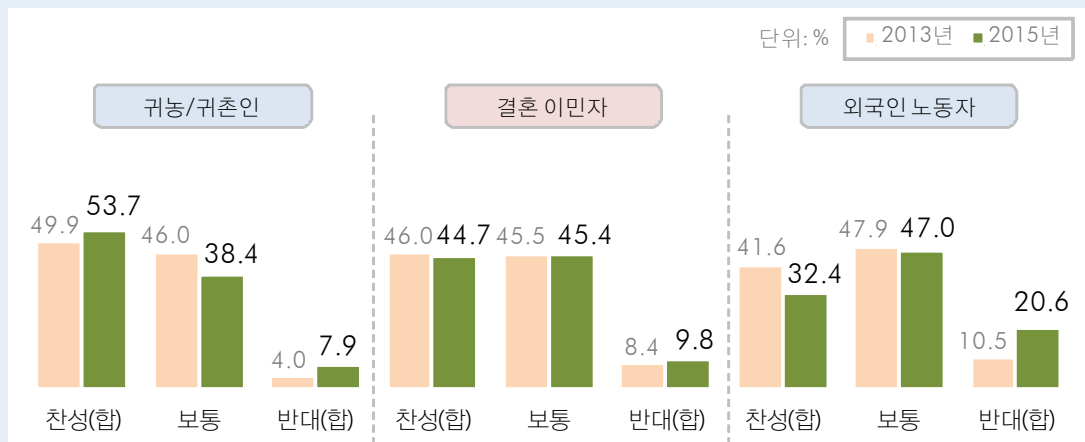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귀농/귀촌인(n=3,920)			결혼이민자(n=3,918)			외국인 노동자(n=3,918)		
		찬성 (합)	보통	반대 (합)	찬성 (합)	보통	반대 (합)	찬성 (합)	보통	반대 (합)
합계		53.7	38.4	7.9	44.7	45.4	9.8	32.4	47.0	20.6
읍/면	읍	50.7	40.2	9.0	45.2	42.4	12.3	34.3	45.5	20.2
	면	54.7	37.7	7.5	44.5	46.6	8.9	31.7	47.5	20.8
영농 여부	농어가	57.6	34.0	8.5	42.7	46.8	10.5	28.8	47.7	23.5
	비농어가	51.6	40.7	7.6	45.8	44.7	9.5	34.3	46.6	19.2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53.0	43.8	3.2	48.7	45.8	5.5	36.2	48.9	14.9
	40대	60.2	33.0	6.8	53.2	39.1	7.7	41.3	39.2	19.5
	50대	52.2	38.4	9.4	43.1	46.2	10.8	30.7	47.9	21.5
	60대	55.1	34.3	10.5	44.4	43.8	11.9	31.6	44.7	23.7
	70대 이상	48.3	42.0	9.7	34.5	52.2	13.3	22.5	53.6	23.9

외부인 수용성 - 추이

- 귀농/귀촌인(+3.9%p), '결혼 이민자'(+1.4%p), '외국인 노동자'(+10.1%p) 모두 [반대(합)] 비중이 증가

| 그림1522-(2) | 외부인 수용성 - 추이



1523> 마을주민들 간의 친밀도 변화

2년 전에 비해, 마을주민들 간의 친밀 정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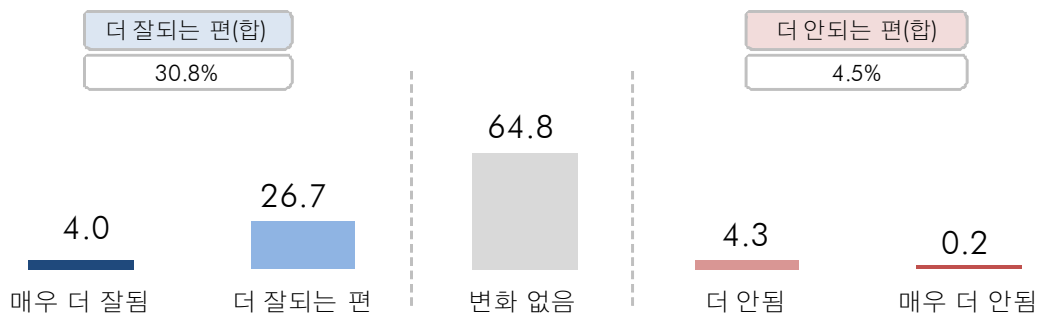
[조사대상 가구(n=3,934)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8.2%(n=3,865)]

▶ [더 잘되는 편(합)](30.8%) > [더 안되는 편(합)](4.5%)

2년 전에 비해, 마을 주민들간의 친밀도가 '더 잘됨'(4.0%), '더 잘되는 편'(26.7%) 등 [더 잘되는 편(합)]이라는 응답이 30.8%로 '더 안됨'(4.3%), '매우 더 안됨'(0.2%) 등 [더 안되는 편(합)](4.5%)에 비해 많았다. 한편, 변화 없다는 응답이 64.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 그림1523 | 마을주민들 간의 친밀도 변화

단위 : %



계층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면지역, 농어가, 응답자 연령이 높을수록 [더 잘되는 편(합)] 비중이 높은 반면, 응답자 연령이 낮을수록 [변화 없음] 비중이 더욱 높았다.

| 표1523 | 마을주민들 간의 친밀도 변화

단위 : %(명)

구분			매우 더 잘됨	더 잘되는 편	더 잘되는 편(합)	변화 없음	더 안됨	매우 더 안됨	더 안되는 편(합)
합계 (3,865)			4.0	26.7	30.8	64.8	4.3	.2	4.5
읍/면	읍	(1,045)	2.0	23.2	25.2	69.8	4.4	.6	5.0
	면	(2,820)	4.8	28.1	32.8	62.9	4.2	.0	4.3
영농 여부	농어가	(1,317)	6.4	31.2	37.6	58.8	3.6		3.6
	비농어가	(2,549)	2.8	24.4	27.2	67.9	4.6	.3	4.9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750)	1.2	23.2	24.5	72.7	2.8	.1	2.8
	40대	(824)	4.7	23.7	28.4	65.2	5.8	.7	6.5
	50대	(892)	6.0	26.2	32.2	63.7	4.1		4.1
	60대	(617)	3.6	28.5	32.0	62.8	5.1	.1	5.2
	70대 이상	(775)	4.2	32.9	37.1	59.2	3.7	.1	3.7

1524> 농촌 계속 거주 의향

1520>
공동체

▶ 농촌 계속 거주 의향층이 84.6%, '선조대대로 살아온 곳이라서'(31.9%)가 주된 계속 거주 의향 이유

농촌 계속 거주 의향층이 84.6%

귀하께서는 앞으로도 계속 농촌에 살 생각입니까? (계속 거주하려는 경우) 계속 거주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속 거주 의향 : 조사대상 가구(n=3,934) 기준]

[농촌에계속 거주하려는 이유 : 계속 거주 의향층(n=3,330)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8.5%(n=3,281)]

농촌 계속 거주 의향층이 84.6%로, 면지역, 농어가에서 계속 거주 의향률이 더욱 높았다.

‘선조대대로 살아온 곳이라서’(31.9%)가 농촌에 계속 거주하려는 주된 이유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자연환경이 좋아서’(22.0%), ‘도시의 번잡함이 싫어서’(18.1%), ‘농촌/농업이 좋아서’(10.6%), ‘심신건강을 위해’(8.1%), ‘자녀 교육을 위해서’(1.2%), ‘땅값 등 지가상승이 기대되어’(1.0%) 순이었다. 한편, “직업/사업상의 이유로”(2.8%),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2.7%), “나이/건강상의 이유로”(0.7%) 등 ‘기타’는 7.0%였다.

면지역, 농어가에서 ‘선조 대대로 살아온 곳이라서’ 비중이 더욱 높은 반면, 읍지역, 비농어가에서 ‘자연 환경이 좋아서’, ‘도시의 번잡함이 싫어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표1524 - (1) | 농촌 계속 거주 의향

단위 : %(명)

구분		계속 거주 의향층		농촌에 계속 거주하려는 이유							
		사례수	비율	선조 대대로 살아온 곳이라서	자연 환경이 좋아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심신 건강을 위해	농촌/ 농업이 좋아서	땅값 등 지가 상승이 기대되어	도시의 번잡함이 싫어서	기타
합계		(3,934)	84.6	31.9	22.0	1.2	8.1	10.6	1.0	18.1	7.0
읍/면	읍	(1,071)	77.9	16.0	30.8	2.7	6.8	4.8	.8	23.9	14.1
	면	(2,863)	87.2	37.2	19.1	.8	8.5	12.5	1.1	16.1	4.7
영농 여부	농어가	(1,346)	97.4	48.5	12.9	.2	5.9	17.8	.6	10.7	3.4
	비농어가	(2,588)	78.0	21.1	28.0	1.9	9.4	5.9	1.3	22.9	9.4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41.8%), ‘생활 환경이 좋지 않아서’(25.4%)가 농촌을 떠나려는 주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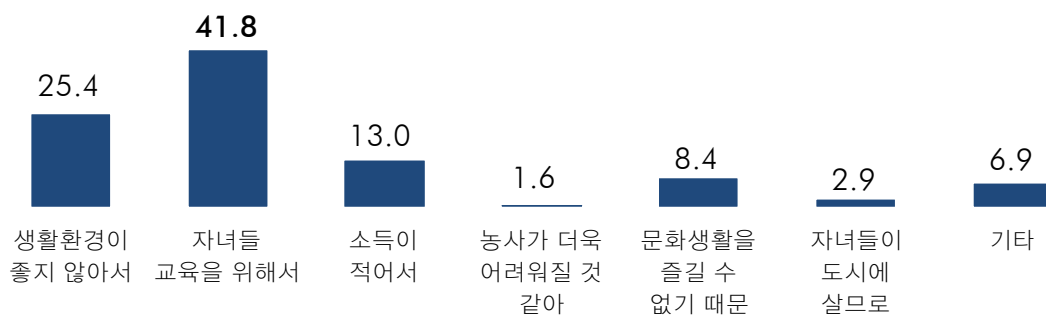
(떠나려는 경우) 농촌을 떠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주 의향층(n=604)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3.0%(n=562)]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41.8%), ‘생활 환경이 좋지 않아서’(25.4%)가 농촌을 떠나려는 주된 이유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소득이 적어서’(13.0%), ‘문화생활을 즐길 수 없기 때문’(8.4%), ‘자녀들이 도시에 살므로’(2.9%), ‘농사가 더욱 어려워질 것 같아’(1.6%) 순이었다.

| 그림1524 | 농촌을 떠나려는 이유

단위 : %



비농어가에서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생활환경이 좋지 않아서’ 비중이 높은 반면, 농어가에서 ‘소득이 적어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표1524 - (2) | 농촌을 떠나려는 이유

단위 : %(명)

구분		생활 환경이 좋지 않아서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소득이 적어서	농사가 더욱 어려워질 것 같아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없기 때문	자녀들이 도시에 살므로	기타
합계 (562)		25.4	41.8	13.0	1.6	8.4	2.9	6.9
읍/면	읍 (218)	24.6	39.6	20.5	1.0	6.3	.9	7.1
	면 (344)	25.9	43.2	8.2	2.0	9.7	4.2	6.7
영농 여부	농어가 (33)	16.5	12.8	27.3	27.7	4.3	7.6	3.8
	비농어가 (529)	26.0	43.6	12.1		8.6	2.6	7.1

농촌에 계속 거주하려는/농촌을 떠나려는 이유 - 추이

- 최근으로 올수록 '선조 대대로 살아온 곳이라서', '땅값 등 지가 상승이 기대되어' 비중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자연 환경이 좋아서', '도시의 번잡함이 싫어서' 비중은 증가

| 표1524 - (3) | 농촌에 계속 거주하려는 이유 - 추이

단위 : %

구 분	선조 대대로 살아온 곳이라서	자연 환경이 좋아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심신 건강을 위해	농촌/농업이 좋아서	땅값 등 지가 상승이 기대되어	도시의 번잡함이 싫어서
2015년	31.9	22.0	1.2	8.1	10.6	1.0	18.1
2011년	47.6	16.0	8.1	6.4	.5	13.2	8.2
2009년	52.1	16.9	1.0	13.3	1.2	10.7	4.8
2007년	62.6	13.9	2.0	7.0	.5	10.6	3.5
2005년	50.6	15.7	1.3	6.6	.2	18.6	6.9

* 2011년까지는 농촌생활지표조사 결과

- 최근으로 올수록 '생활 환경이 좋지 않아서',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비중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소득이 적어서', '농사가 더욱 어려워질 것 같아' 비중은 감소

| 표1524 - (4) | 농촌을 떠나려는 이유 - 추이

단위 : %

구 분	생활 환경이 좋지 않아서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소득이 적어서	농사가 더욱 어려워질 것 같아	문화생활을 즐길 수 없기 때문	자녀들이 도시에 살므로	기타
2015년	25.4	41.8	13.0	1.6	8.4	2.9	6.9
2011년	17.9	33.8	15.9	8.6	9.0	8.8	6.0
2009년	9.4	29.1	25.8	15.3	11.7	3.5	5.2
2007년	11.9	39.5	13.8	9.4	8.6	6.5	10.2
2005년	3.2	30.5	31.1	19.2	7.4	7.1	1.4
2003년	3.5	29.9	30.2	25.2	1.9	5.7	3.8

* 2011년까지는 농촌생활지표조사 결과

1525>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귀하께서는 평소 자신의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조사대상 가구(n=3,934) 중 응답자에 한해 : 응답률 99.4%(n=3,910), 만족도 100점 만점 환산 : $(\chi_i - 1) \times 25.0000$, χ_i =측정 값]

▶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 '약간 만족하는 수준'(64.0점)

평소 자신의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 '매우 만족'(6.7%), '만족하는 편'(49.3%) 등 [만족하는 편]이라는 의견이 56.0%로 '전혀 만족하지 않음'(0.8%), '만족하지 않는 편'(5.1%) 등 [만족하지 않는 편](6.0%)이라는 의견에 비해 많아 전반적으로 '약간 만족하는 수준'(64.0점)의 평가를 보였다.

면지역, 농어가, 응답자 연령대가 높을수록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 표1525 |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평균	매우 만족	만족하는 편	만족하는 편 (합)	보통	만족하지 않는 편	전혀 만족하지 않음	만족하지 않는 편 (합)
합계 (3,910)			64.0점	6.7	49.3	56.0	38.0	5.1	.8	6.0
읍/면	읍	(1,064)	59.1점	3.6	40.3	43.9	46.0	9.2	.9	10.1
	면	(2,845)	65.8점	7.9	52.7	60.6	35.0	3.6	.8	4.5
영농 여부	농어가	(1,337)	68.2점	9.2	59.1	68.3	27.6	3.7	.4	4.1
	비농어가	(2,572)	61.8점	5.4	44.3	49.7	43.4	5.9	1.1	7.0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754)	60.7점	4.3	38.8	43.2	52.3	4.4	.2	4.5
	40대	(827)	62.5점	6.2	43.9	50.1	45.3	2.9	1.7	4.6
	50대	(900)	63.4점	6.2	50.7	56.9	34.2	8.3	.6	8.9
	60대	(633)	65.7점	7.8	54.6	62.4	30.8	6.1	.7	6.8
	70대 이상	(787)	68.0점	9.2	59.4	68.6	26.5	4.0	.9	4.9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 추이

- 2013년과 비슷한 수준(-0.7%p)

| 그림1525 |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 추이



1526>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이웃 수

귀하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이웃이 몇 명이나 됩니까?

[조사대상 가구(n=3,934) 기준]

▶ '3-5명'(36.0%) 비중이 가장 높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이웃 수는 평균 4.3명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이웃 수로 '3-5명'(36.0%)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2명'(22.6%), '6-10명'(14.3%), '1명'(9.2%), '11명 이상'(4.2%) 순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이웃 수는 평균 4.3명이었다. 한편,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이웃이 '없다'는 응답도 13.6%였다.

면지역, 농어가, 50대 이상 연령층, 선주민 층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이웃 수가 약간 많은 반면, 비농어가, 30대 이하 연령층에서 '없음'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표1526 |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이웃 수

단위 : %(명)

구분			평균	없음	1명	2명	3-5명	6-10명	11명 이상
합계 (3,934)			4.3명	13.6	9.2	22.6	36.0	14.3	4.2
읍/면	읍	(1,071)	3.8명	19.8	10.8	19.0	32.4	14.8	3.2
	면	(2,863)	4.4명	11.3	8.7	23.9	37.4	14.2	4.6
영농 여부	농어가	(1,346)	5.7명	6.5	6.6	20.3	41.2	17.8	7.5
	비농어가	(2,588)	3.5명	17.3	10.6	23.8	33.3	12.5	2.5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758)	2.9명	21.4	12.8	29.0	25.4	9.6	1.9
	40대	(836)	4.2명	12.2	7.6	21.1	40.4	16.3	2.5
	50대	(905)	4.8명	11.8	9.2	21.3	35.8	15.2	6.7
	60대	(634)	4.7명	13.8	8.5	19.8	36.5	15.7	5.7
	70대 이상	(792)	4.7명	9.8	8.2	21.3	41.4	14.9	4.3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2,147)	3.7명	16.3	12.0	24.2	31.6	12.9	3.1
	선주민	(1,780)	5.0명	10.3	6.0	20.7	41.4	15.9	5.6

1527> 참여하고 있는 지역사회단체 실태

1520>
공동체

귀하께서는 현재 참여하고 있는 지역사회단체가 있으십니까? (있다면 해당 지역사회단체의 종류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지역사회단체 참여 여부 : 조사대상 가구(n=3,934) 기준]

[참여단체 종류 : 지역사회단체 참여층(n=1,097)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7.1%(n=1,065)]

▶ 지역사회단체 참여층이 27.9%,
참여하고 있는 단체 종류로 '마을단위 자생조직'(71.0%) 비중이 가장 높음

지역사회단체에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이 27.9%로 면지역, 농어가, 40대 이상 연령층에서 참여율이 더욱 높았다.

참여하고 있는 지역사회단체 종류로 동계, 청년회, 부녀회 등 '마을단위 자생조직'(71.0%)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문화, 여가, 취미생활 단체 등 '친목도모단체'(14.0%), 작목반 조합 등 '경제활동단체'(10.4%), '일반시민단체'(4.6%) 순이었다.

면지역, 농어가, 응답자 연령대가 높을수록 '마을단위 자생조직' 비중이 더욱 높은 반면, 읍지역, 비농어가, 응답자 연령대가 낮을수록 '친목도모 단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표1527 - (1) | 참여하고 있는 지역사회단체 종류

단위 : %(명)

구분			참여층	마을단위 자생조직	경제활동 단체	친목도모 단체	일반시민 단체
합계 (3,934)			27.9	71.0	10.4	14.0	4.6
읍/면	읍	(1,071)	15.3	54.0	10.3	26.7	9.1
	면	(2,863)	32.6	73.9	10.4	11.9	3.8
영농 여부	농어가	(1,346)	49.4	75.9	14.5	6.1	3.5
	비농어가	(2,588)	16.7	63.6	4.2	26.1	6.1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758)	8.3	51.0	5.2	38.6	5.1
	40대	(836)	25.0	50.7	16.1	21.2	12.0
	50대	(905)	36.6	69.2	13.5	12.0	5.3
	60대	(634)	39.8	81.6	7.6	8.9	1.9
	70대 이상	(792)	30.4	84.4	5.9	9.6	.1

'임원'이 19.9%,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층이 51.6%

해당 지역사회단체에서 임원이십니까? 해당 지역사회단체의 활동에 어느 정도로 참여하고 계십니까?

[지역사회단체 참여층(n=1,097)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임원여부 응답률 99.9%(n=1,096)/ 참여 정도 응답률 96.4%(n=1,057)]

‘임원’이 19.9%로 응답자 연령대가 낮을수록 ‘임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해당 단체 참여 정도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32.6%),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19.0%) 등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층이 절반 수준(51.6%)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편’(7.1%), ‘거의 참여하지 않음’(4.0%) 등 참여하지 않는 층(11.1%)에 비해 많았다.

농어가, 40-50대 연령층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 비중이 더욱 높았다.

| 표1527 - (2) | 임원 여부 및 참여 정도

단위 : %(명)

구분		임원 여부			참여정도					
		사례수	임원	회원	사례수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	보통 정도로 참여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편	거의 참여하지 않음
합계		(1,096)	19.9	80.1	(1,057)	19.0	32.6	37.3	7.1	4.0
읍/면	읍	(163)	14.4	85.6	(159)	19.1	30.3	40.7	7.1	2.7
	면	(933)	20.9	79.1	(898)	19.0	33.0	36.7	7.1	4.3
영농 여부	농어가	(665)	20.4	79.6	(644)	20.2	35.6	34.8	6.7	2.7
	비농어가	(431)	19.2	80.8	(413)	17.1	27.9	41.2	7.6	6.2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63)	<u>25.3</u>	74.7	(61)	8.0	32.5	58.4	1.1	
	40대	(209)	<u>23.0</u>	77.0	(198)	<u>29.3</u>	29.8	27.1	8.1	5.7
	50대	(330)	<u>27.5</u>	72.5	(318)	<u>24.4</u>	37.3	31.0	5.2	2.1
	60대	(252)	17.7	82.3	(243)	14.9	31.8	41.5	8.3	3.6
	70대 이상	(241)	7.9	92.1	(235)	9.9	29.6	44.8	9.1	6.6



‘지역사회단체 활동에 관심이 없다’(34.1%)가 참여하지 않는 주된 이유

(참여하지 않는다면)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참여층(n=2,837)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6.9%(n=2,749)]

참여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지역사회단체 활동에 관심이 없다’(34.1%), ‘참여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33.1%) 비중이 높았으며, 다음으로 ‘참여할 기회가 없다’(14.0%), ‘참여할 만한 지역사회단체가 없다’(6.6%), ‘참여할 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다’(5.8%), ‘나이/건강 상의 이유로 참여가 어렵다’(5.5%) 순이었다.

읍지역, 비농어가, 40대 이하 연령층에서 ‘참여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 비중이 높은 반면, 70대 이상 연령층에서 ‘나이/건강상의 이유로 참여가 어렵다’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표1527 - (3) | 참여하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구분			지역사회 단체 활동에 관심이 없다	참여할 만한 지역사회 단체가 없다	참여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	참여할 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다	참여할 기회가 없다	나이/건강 상의 이유로 참여가 어렵다	기타
합계 (2,749)			34.1	6.6	33.1	5.8	14.8	5.5	.2
읍/면	읍	(881)	31.6	7.4	40.0	4.9	14.0	2.2	
	면	(1,868)	35.3	6.3	29.8	6.2	15.1	7.0	.2
영농 여부	농어가	(666)	36.3	9.3	22.8	9.2	15.3	6.8	.2
	비농어가	(2,083)	33.4	5.8	36.4	4.6	14.6	5.1	.1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667)	33.7	6.6	46.2	1.8	11.7		
	40대	(609)	31.5	4.2	44.9	3.2	15.6	.6	
	50대	(568)	33.4	7.1	33.0	10.1	14.9	1.0	.4
	60대	(372)	32.3	11.1	26.2	8.6	16.9	4.4	.5
	70대 이상	(525)	39.4	6.0	7.7	7.0	16.2	23.7	

1528> 공동체의식

1520>
공동체

[조사대상 가구(n=3,934 기준), 만족도 5점 만점]

▶ 공동체 의식이 '약간 높은 수준'(평균 3.6점)

공동체 의식이 평균 3.6점으로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가운데, 요인별로 [교류성](평균 3.7점), [애착성](평균 3.6점)에 대한 공감도가 [귀속성](평균 3.4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면지역, 농어가, 응답자 연령대가 높을수록, 선주민층, 지역사회단체 참여층에서 공동체 의식에 대한 공감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 표1528- (1) | 공동체 의식 - 종합

단위: 점

구분		공동체 의식	[요인1] 귀속성	[요인2] 교류성	[요인3] 애착성
합계		3.6	3.4	3.7	3.6
읍/면	읍	3.3	3.2	3.5	3.4
	면	3.7	3.5	3.8	3.6
영농 여부	농어가	3.8	3.7	4.0	3.8
	비농어가	3.5	3.3	3.6	3.5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3.3	3.2	3.4	3.3
	40대	3.5	3.3	3.7	3.5
	50대	3.6	3.5	3.8	3.6
	60대	3.7	3.5	3.8	3.7
	70대 이상	3.8	3.6	4.0	3.8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3.4	3.3	3.6	3.4
	선주민	3.7	3.6	3.9	3.7
지역사회단체 참여 여부	참여층	3.9	3.8	4.0	3.8
	비참여층	3.5	3.3	3.6	3.5

[귀속성] 요인으로 ‘나는 우리 마을에서 편안함을 느낀다’(평균 3.7점), ‘나는 우리 마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평균 3.6점), ‘나는 우리 마을의 구성원이라고 느낀다’, ‘우리 마을에 사는 것이 나에게 중요하다’(각 평균 3.5점)에 대한 공감도가 높은 반면, ‘내가 노력하면 우리마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우리 마을에만 있는 우리만의 정신 또는 질서가 있다’(각 평균 3.2점)에 대한 공감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 표1528- (2) | 공동체 의식 - (요인1) 귀속성

단위: 점

구분		[요인1] 귀속성	나는 우리 마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나는 우리 마을에서 편안함을 느낀다	나는 우리 마을의 구성원 이라고 느낀다	내가 노력하면 우리 마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우리 마을에 사는 것이 나에게 중요하다	우리 마을에만 있는 우리만의 정신 또는 질서가 있다
합계		3.4	3.6	3.7	3.5	3.2	3.5	3.2
읍/면	읍	3.2	3.4	3.5	3.3	3.0	3.2	2.9
	면	3.5	3.6	3.8	3.6	3.2	3.6	3.3
영농 여부	농어가	3.7	3.8	3.9	3.8	3.4	3.7	3.4
	비농어가	3.3	3.4	3.6	3.4	3.0	3.3	3.1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3.2	3.2	3.5	3.2	3.0	3.1	2.9
	40대	3.3	3.5	3.6	3.4	3.1	3.3	3.1
	50대	3.5	3.6	3.7	3.5	3.3	3.6	3.4
	60대	3.5	3.7	3.8	3.6	3.2	3.6	3.3
	70대 이상	3.6	3.8	4.0	3.8	3.1	3.7	3.4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3.3	3.4	3.6	3.3	3.1	3.3	3.1
	선주민	3.6	3.7	3.8	3.7	3.3	3.6	3.4
지역사회단체 참여 여부	참여층	3.8	4.0	4.0	4.0	3.5	3.8	3.5
	비참여층	3.3	3.4	3.6	3.3	3.0	3.3	3.1

[교류성] 요인으로 ‘이웃들이 고통을 당하면 내 마음도 아프다’(평균 3.9점)에 대한 공감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나는 이웃들을 좋아한다’, ‘위급한 상황이나 문제가 있다면 우리 마을 사람들은 서로 도울 것이다’(각 평균 3.8점), ‘우리 마을에는 나를 걱정해주는 이웃들이 있다’(평균 3.7점), ‘나는 필요하면 우리 마을에서 대화할 사람을 바로 찾을 수 있다’(평균 3.6점) 순으로 3가지 요인 중에 공감도가 전반적으로 가장 높은 경향을 보였다.

면지역, 농어가, 응답자 연령대가 높을수록, 선주민 층, 지역사회단체 참여층에서 공동체 의식에 대한 공감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 표1528 - (3) | 공동체 의식 - (요인2) 교류성

단위: 점

구분		[요인2] 교류성	나는 이웃들을 좋아한다	나는 필요하면 우리 마을에서 대화할 사람을 바로 찾을 수 있다	우리 마을에는 나를 걱정해주는 이웃들이 있다	이웃들이 고통을 당하면 내 마음도 아프다	위급한 상황이나 문제가 있다면 우리 마을 사람들은 서로 도울 것이다
합계		3.7	3.8	3.6	3.7	3.9	3.8
읍/면	읍	3.5	3.6	3.4	3.3	3.6	3.5
	면	3.8	3.8	3.7	3.8	4.0	3.9
영농 여부	농어가	4.0	3.9	3.8	3.9	4.1	4.0
	비농어가	3.6	3.7	3.5	3.5	3.8	3.7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3.4	3.5	3.3	3.2	3.5	3.5
	40대	3.7	3.7	3.5	3.6	3.8	3.8
	50대	3.8	3.8	3.6	3.7	3.9	3.9
	60대	3.8	3.8	3.7	3.8	4.0	3.9
	70대 이상	4.0	4.0	3.8	3.9	4.1	4.0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3.6	3.7	3.4	3.5	3.7	3.7
	선주민	3.9	3.9	3.7	3.9	4.0	4.0
지역사회단체 참여 여부	참여층	4.0	4.1	3.9	4.0	4.2	4.1
	비참여층	3.6	3.7	3.5	3.5	3.7	3.7

[애착성] 요인으로 ‘나는 우리 마을을 좋아한다’(평균 3.7점), ‘나는 우리 마을이 살기좋은 곳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우리 마을에 오랫동안 살기를 바란다’(각 평균 3.6점)에 대한 공감도가 높았으며, ‘나는 우리 마을에 자부심을 느낀다’(평균 3.4점) 등 전반적으로 3점 이상의 공감도 수준을 보였다.

| 표1528- (4) | 공동체 의식 - (요인3) 애착성

단위: 점

구분		[요인3] 애착성	나는 우리 마을을 좋아한다	나는 우리 마을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우리 마을에 오랫동안 살기를 바란다	나는 우리 마을에 자부심을 느낀다
합계		3.6	3.7	3.6	3.6	3.4
읍/면	읍	3.4	3.6	3.4	3.3	3.1
	면	3.6	3.8	3.7	3.7	3.5
영농 여부	농어가	3.8	3.9	3.8	3.8	3.6
	비농어가	3.5	3.7	3.5	3.4	3.2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3.3	3.5	3.4	3.2	3.0
	40대	3.5	3.7	3.5	3.4	3.3
	50대	3.6	3.8	3.6	3.6	3.4
	60대	3.7	3.8	3.7	3.7	3.5
	70대 이상	3.8	4.0	3.8	3.9	3.6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3.4	3.6	3.5	3.4	3.2
	선주민	3.7	3.8	3.7	3.7	3.5
지역사회단체 참여 여부	참여층	3.8	4.0	3.8	3.8	3.7
	비참여층	3.5	3.6	3.5	3.4	3.2

1529> 공동체의식 함양 요인

지역(시군단위)의 공동체의식(협동심, 친밀감 등)을 만들어 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사대상 가구(n=3,934)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8.6%(n=3,877), 중복응답: 1순위×2+2순위×1로 가중치를 주어 100.0% 환산 함]

▶ ‘마을단체’(26.5%), ‘좋은 이웃’(24.7%), ‘지역공동시설’(21.5%)이 주된 공동체의식 함양 요인

지역(시군단위)의 공동체의식(협동심, 친밀감 등)을 만들어 내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마을단체’(26.5%), ‘좋은 이웃’(24.7%), ‘지역공동시설’(21.5%)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지역행사’(8.7%), ‘지자체 및 공무원’(7.0%), ‘서비스 편의시설’(5.6%), ‘종교단체’(3.4%), ‘학교’(2.6%) 순이었다.

계층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면지역, 농어가, 응답자 연령대가 높을수록 ‘마을단체’, ‘지역공동시설’ 비중이 다소 높았다.

| 표1529 - (1) | 공동체의식 함양 요인

단위 : %(명)

구분			마을 단체	지자체 및 공무원	지역 공동 시설	학교	종교 단체	좋은 이웃	서비스 편의 시설	지역 행사	기타
합계 (3,877)			26.5	7.0	21.5	2.6	3.4	24.7	5.6	8.7	0.1
읍/면	읍	(1,058)	19.1	8.5	17.5	4.2	4.3	27.0	8.4	11.0	0.0
	면	(2,819)	29.2	6.4	23.0	1.9	3.0	23.9	4.6	7.8	0.1
영농 여부	농어가	(1,330)	31.8	5.1	27.6	1.8	2.5	22.7	2.0	6.5	0.1
	비농어가	(2,547)	23.7	7.9	18.4	2.9	3.8	25.8	7.5	9.8	0.1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754)	20.2	10.3	15.2	4.5	2.8	25.1	7.9	14.0	0.0
	40대	(817)	22.2	7.5	16.9	4.8	5.1	25.6	7.2	10.6	0.0
	50대	(887)	29.5	5.5	21.6	1.0	2.5	25.1	7.0	7.4	0.4
	60대	(626)	31.5	6.2	25.2	1.0	2.9	22.1	3.8	7.3	0.0
	70대 이상	(784)	29.4	5.5	29.5	1.4	3.2	24.9	1.9	4.1	0.0



공동체의식 함양 요인 - 추이

- 최근으로 올수록 '마을단체' 비중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지역공동시설', '좋은 이웃' 비중은 증가

| 표1529 - (2) | 공동체의식 함양 요인 - 추이

단위 : %

구 분	마을 단체	지자체 및 공무원	지역 공동 시설	학교	종교 단체	좋은 이웃	서비스 편의 시설	지역 행사	기타
2015년	26.5	7.0	21.5	2.6	3.4	24.7	5.6	8.7	0.1
2011년	35.6	4.6	23.5	2.1	3.6	17.8	3.6	8.7	0.5
2009년	61.6	2	19.2	0.3	0.9	10.6	1	4.2	0.2
2007년	57.6	3.4	17.5	0.4	2.1	9.5	2.5	6.8	0.4
2005년	60.1	3.9	14.3	0.6	2.6	10.3	0.9	6.6	0.8
2003년	68.6	3.1	8.8	0.8	2.2	9.4	0.9	5.7	0.6

* 2011년까지는 농촌생활지표조사 결과

1530> 마을리더 역할의 중요도

귀하께서는 우리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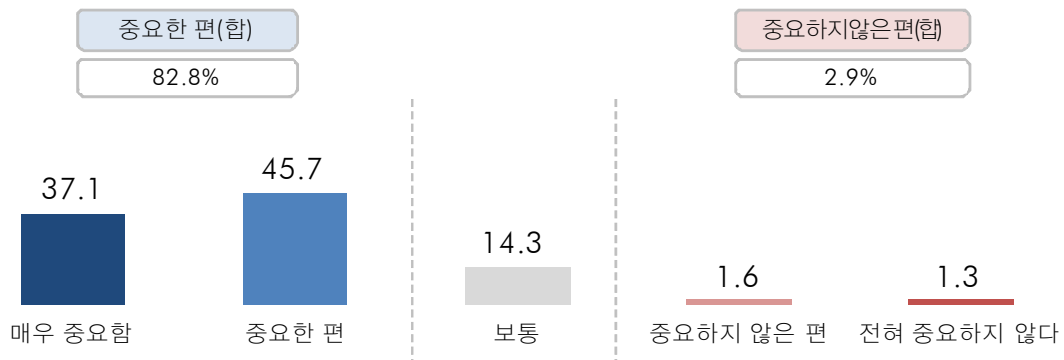
[조사대상 가구(n=3,934)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9.6%(n=3,918)]

▶ [중요한 편(합)](82.8%) > [중요하지 않은 편(합)](2.9%)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 마을리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37.1%), ‘중요한 편’(45.7%) 등 [중요한 편]이라는 응답이 82.8%로 마을리더 역할의 중요성을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 그림1530 | 마을리더 역할의 중요도

단위 : %



계층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면지역, 농어가에서 [중요한 편] 비중이 더욱 높았다.

| 표1530 | 마을리더 역할의 중요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중요함	중요한 편	중요한 편 (합)	보통	중요하지 않은 편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은 편(합)
합계 (3,918)			37.1	45.7	82.8	14.3	1.6	1.3	2.9
읍/면	읍	(1,066)	28.9	46.9	75.7	19.7	3.2	1.4	4.6
	면	(2,852)	40.1	45.3	85.4	12.3	1.0	1.2	2.2
영농 여부	농어가	(1,341)	41.5	46.1	87.6	11.8	.5	.1	.6
	비농어가	(2,576)	34.8	45.5	80.3	15.7	2.2	1.9	4.1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754)	32.9	47.5	80.4	17.3	1.1	1.2	2.3
	40대	(828)	35.5	45.9	81.5	13.4	2.8	2.3	5.2
	50대	(901)	41.8	42.8	84.7	12.1	1.6	1.6	3.3
	60대	(633)	39.6	45.8	85.4	12.5	1.4	.7	2.1
	70대 이상	(792)	35.3	47.0	82.3	16.4	.8	.4	1.2

1531 > 마을리더가 될 의향

1520 >
공동체

귀하께서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리더가 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조사대상 가구(n=3,934)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9.5%(n=3,916)]

▶ [의향층(합)](10.6%) < [비의향층(합)](75.6%)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리더가 될 의향에 대해 ‘매우 그렇다’(4.0%), ‘그런 편이다’(6.6%) 등 [의향층] 비중이 10.6%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21.5%), ‘전혀 그렇지 않다’(54.2%) 등 [비의향층](75.6%)에 비해 적었다.

계층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농어가, 남성, 40~60대 연령층, 지역사회 단체 참여층에서 [의향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읍지역, 비농어가, 여성, 70대 이상 연령층, 지역사회 단체 비참여층에서 [비의향층] 비중이 더욱 높았다.

| 표1531 | 마을리더가 될 의향

단위 : %(명)

구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의향층 (합)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비의향층 (합)
합계 (3,916)			4.0	6.6	10.6	13.8	21.5	54.2	75.6
읍/면	읍 (1,065)		2.7	3.7	6.3	9.9	24.8	58.9	83.7
	면 (2,852)		4.5	7.7	12.2	15.2	20.2	52.4	72.6
영농 여부	농어가 (1,341)		6.4	10.0	16.4	14.2	23.7	45.8	69.4
	비농어가 (2,575)		2.7	4.8	7.6	13.6	20.4	58.5	78.9
응답자 성	남 (1,638)		5.7	8.4	14.0	15.9	22.4	47.7	70.1
	여 (2,279)		2.8	5.3	8.1	12.3	20.8	58.8	79.6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754)		1.5	4.7	6.2	15.5	23.1	55.2	78.3
	40대 (827)		5.1	9.8	14.9	14.6	21.1	49.5	70.5
	50대 (901)		6.2	7.7	13.9	17.1	21.8	47.2	69.0
	60대 (633)		5.6	6.4	12.1	13.3	26.2	48.4	74.6
	70대 이상 (792)		1.3	4.1	5.4	7.7	16.2	70.7	86.9
지역사회 단체 참여 여부	참여층 (1,095)		11.5	11.7	23.2	16.9	22.7	37.2	60.0
	비참여층 (2,821)		1.0	4.7	5.7	12.6	21.0	60.7	81.7

1532> 외부인 마을리더에 대한 수용성

귀하께서는 연고가 없는 외부인이 귀하가 거주하는 마을의 리더가 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사대상 가구(n=3,934) 중 응답가구에 한해]

▶ 귀농/귀촌인(38.5%) > 결혼 이민자(25.0%) > 외국인 노동자(17.6%)

연고가 없는 외부인이 거주하는 마을의 리더가 되는 것에 대해 귀농/귀촌인의 경우, ‘매우 찬성’(4.9%), ‘다소 찬성’(33.6%) 등 [찬성](38.5%) 비중이 ‘매우 반대’(3.5%), ‘다소 반대’(15.4%) 등 [반대](18.8%)에 비해 높았고, 결혼 이민자의 경우 [찬성](25.0%) 비중과 [반대](29.1%)가 비슷한 수준이었다. 반면,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매우 찬성’(2.3%), ‘다소 찬성’(15.3%) 등 [찬성](17.6%)에 비해 ‘매우 반대’(13.2%), ‘다소 반대’(28.1%) 등 [반대](41.3%) 비중이 높았다.

계층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외부인이 마을리더가 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다소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어가에서 ‘귀농/귀촌인’에 대해서는 [찬성] 비중이 다소 높은 반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반대] 비중이 다소 높았다.

| 표1532 | 외부인 마을리더에 대한 수용성

단위: %(명)

구분		귀농/귀촌인(n=3,908)			결혼 이민자(n=3,902)			외국인 노동자(n=3,906)		
		찬성 (합)	보통	반대 (합)	찬성 (합)	보통	반대 (합)	찬성 (합)	보통	반대 (합)
합계		38.5	42.7	18.8	25.0	45.8	29.1	17.6	41.1	41.3
읍/면	읍	37.9	43.4	18.8	23.6	46.0	30.4	16.6	44.8	38.6
	면	38.7	42.4	18.9	25.6	45.7	28.7	18.0	39.7	42.3
영농 여부	농어가	42.1	37.7	20.2	26.2	41.4	32.4	18.3	35.9	45.8
	비농어가	36.6	45.3	18.1	24.4	48.1	27.4	17.3	43.7	39.0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33.8	51.7	14.5	20.1	56.7	23.2	13.0	53.3	33.6
	40대	40.7	46.8	12.5	31.3	44.2	24.5	24.0	38.1	37.9
	50대	38.9	39.2	21.8	23.9	44.4	31.6	16.4	39.6	44.0
	60대	43.0	34.6	22.4	28.2	40.0	31.8	20.7	34.1	45.3
	70대 이상	36.8	40.1	23.1	22.1	43.2	34.7	14.5	39.5	45.9

제2부 기존통계 활용



2015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
- 2100> 보건의료 부문
 - 2200> 복지 부문
 - 2300> 교육 부문
 - 2400> 문화·여가여건 부문
 - 2500> 기초생활여건/환경·경관 부문
 - 2600> 지역역량 부문
 - 2700> 경제활동 부문

2100> 보건의료 부문

- 2101> 유병률, 유병일수 및 와병일수
- 2102> 만성질환 현황
- 2103> 주관적 건강 인식
- 2104> 건강검진 수진율
- 2105> 월평균 보건의료비
- 2106> 연간 미치료자의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치료율
- 2107> 자살 및 우울 관련 현황
- 2108> 정신보건 관련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
- 2109> 농작업 손상
- 2110> 병상 수
- 2111> 보건의료기관 수
- 2112>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접근도
- 2113>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

2101 > 유병률, 유병일수 및 와병일수

▶ 농어촌의 유병률은 31.8%, 평균 유병일수 10.3일, 평균 와병일수 0.7일

2014년,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2주 동안 농어촌에서 질병이나 사고로 아팠던 사람은 31.8%로 2008년 이후 유병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도시(23.2%)에 비해서도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 표2101 | 유병률, 유병일수 및 와병일수

(단위 : %, 일)

연도	구분	유병률	평균 유병일수	평균 와병일수
2008	농어촌	21.8	9.0	0.7
	도시	16.6	8.1	0.7
2010	농어촌	25.3	8.1	0.6
	도시	19.7	7.1	0.6
2012	농어촌	30.4	9.7	0.5
	도시	22.8	8.1	0.6
2014	농어촌	31.8	10.3	0.7
	도시	23.2	8.5	0.7

자료 : 각 연도 사회조사

주 : 0세 이상 인구 대상, 지난 2주간

2102> 만성질환 현황

▶ 농어촌의 만성질환으로 '고혈압'이 많으며, 도시에 비해 유병률이 높음

2014년 기준, 농어촌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고혈압'(32.0%), '고중성지방혈증'(20.4%), '고콜레스테롤혈증'(16.4%), '당뇨병'(10.9%) 순으로 나타났다. 농어촌의 '고혈압', '당뇨병' 유병률이 2013년과 비슷한 수준인 반면, '고콜레스테롤혈증', '고중성지방혈증' 유병률은 약간 증가하였다. 한편, '고혈압' 유병률은 도시에 비해 농어촌에서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 표2102 | 만성질환 현황

(단위 : %)

연도	구분	유병률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	고중성지방혈증	당뇨병
2005	농어촌	33.8	8.6	17.3	10.1
	도시	26.6	7.9	16.5	8.8
2007	농어촌	26.6	7.7	12.6	8.1
	도시	24.7	11.7	18.2	10.2
2008	농어촌	33.4	10.3	19.3	10.3
	도시	25.7	11.3	16.9	9.9
2009	농어촌	33.0	11.1	17.8	11.4
	도시	26.7	12.0	16.7	9.7
2010	농어촌	33.1	13.2	16.6	10.8
	도시	27.6	14.4	17.1	9.9
2011	농어촌	36.1	14.9	19.1	13.8
	도시	29.3	14.4	15.8	9.6
2012	농어촌	37.2	16.5	16.7	12.4
	도시	30.1	15.1	17.2	9.2
2013	농어촌	33.2	14.7	19.5	11.9
	도시	29.7	16.2	17.1	11.9
2014	농어촌	32.0	16.4	20.4	10.9
	도시	28.2	15.5	17.6	11.1

자료 : 각 연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주 : 만 30세 이상 대상

2103> 주관적 건강 인식

▶ 농어촌 주민들의 주관적 건강 인식은 '좋다'는 평가가 43.8%

2014년 농어촌 주민들의 주관적 건강 인식은 '좋다'(43.8%)는 평가가 '나쁘다'(22.4%)에 비해 높았으며, '보통'은 33.8%였다. 건강에 대해 '좋다'고 평가하는 비율은 도시(49.7%)에 비해 약간 낮게 나타났다.

| 표2103 | 주관적 건강 인식

(단위 : %)

연도	구분	좋다			보통	나쁘다		
			매우 좋다	좋은 편이다			나쁜 편이다	매우 나쁘다
2008	농어촌	46.0	10.0	36.0	32.1	21.9	18.8	3.1
	도시	52.8	10.3	42.5	35.0	12.2	10.6	1.5
2010	농어촌	42.2	9.2	33.0	34.8	23.1	19.3	3.8
	도시	47.8	10.0	37.8	38.1	14.1	11.9	2.2
2012	농어촌	43.8	10.0	33.8	33.3	22.8	18.8	4.0
	도시	45.7	10.2	35.5	39.8	14.6	12.2	2.4
2014	농어촌	43.8	11.0	32.8	33.8	22.4	18.8	3.6
	도시	49.7	11.1	38.6	36.7	13.6	11.8	1.8

자료 : 각 연도 사회조사

주 : 2008년, 2010년 이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2년 이후 - 13세 이상 인구 대상

2104> 건강검진 수진율

▶ 농어촌의 건강검진 수진율은 60.5%

2014년 기준, 농어촌의 건강검진 수진율은 60.5%로, 도시(58.2%)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 표2104 | 건강검진 수진율

(단위: 명, %)

연도	구분	N	분율	표준오차
1998	농어촌	3,107	44.9	1.4
	도시	5,716	49.8	1.0
2001	농어촌	1,651	45.1	1.7
	도시	6,411	48.1	0.9
2005	농어촌	1,564	50.2	1.6
	도시	6,236	46.7	1.0
2007	농어촌	862	52.6	2.5
	도시	2,116	47.5	1.4
2008	농어촌	1,801	53.5	1.7
	도시	5,002	47.8	1.1
2009	농어촌	1,916	57.1	1.7
	도시	5,556	49.8	1.0
2010	농어촌	1,368	55.1	2.3
	도시	4,883	53.8	1.0
2011	농어촌	1,214	59.9	1.8
	도시	4,809	52.2	1.0
2012	농어촌	1,127	55.3	2.0
	도시	4,478	56.2	1.1
2013	농어촌	1,036	58.8	1.5
	도시	4,319	61.1	1.0
2014	농어촌	949	60.5	2.3
	도시	4,069	58.2	1.2

자료: 각 연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주: 1998년 - 만 20세 이상 대상, 2001년 이후 - 만 19세 이상 대상

2105> 월평균 보건의료비

▶ 농가의 월평균 보건의료비는 179,511원, 어가는 188,830원

2014년 농가의 월평균 보건의료비는 179,511원으로 도시 근로자가구(173,790원)와 어가(188,830원) 보다 낮았다.

| 표2105 | 월평균 보건의료비

(단위 : 원)

연도	구분	월평균 보건의료비
2007	농가	143,031
	어가	128,167
	도시근로자가구	111,985
2008	농가	153,203
	어가	137,000
	도시근로자가구	119,194
2009	농가	161,945
	어가	145,833
	도시근로자가구	142,343
2010	농가	167,058
	어가	163,333
	도시근로자가구	151,101
2011	농가	161,310
	어가	175,167
	도시근로자가구	159,985
2012	농가	162,980
	어가	167,673
	도시근로자가구	164,019
2013	농가	174,851
	어가	188,717
	도시근로자가구	163,456
2014	농가	179,511
	어가	188,830
	도시근로자가구	173,790

자료 : 각 연도 농어가경제조사, 가계조사(도시)

주 : 농어가는 2007년, 2008년 구분류 기준, 2009년 이후 신분류 기준

2106> 연간 미치료자의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치료율

▶ 농어촌의 미치료자 중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치료율은 병의원 17.6%, 치과 35.0%

2014년 기준, 농어촌의 미치료자 중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치료율은 병의원 17.6%, 치과 35.0%로 2013년에 비해 약간 감소한 가운데, ‘병의원’의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치료율은 도시에 비해 약간 낮은(7.4%p) 수준인 반면 ‘치과’의 경우 도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표2106 | 연간 미치료자의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치료율

(단위: 명, %)

연도	구분	병의원			치과		
		N	분율	표준오차	N	분율	표준오차
2007	농어촌	188	20.0	3.9	326	34.8	3.7
	도시	452	22.8	3.1	773	41.9	2.7
2008	농어촌	456	28.0	2.5	729	45.5	2.3
	도시	1,165	21.9	1.6	2,172	39.0	1.4
2009	농어촌	529	21.7	2.8	850	42.0	2.3
	도시	1,319	25.3	1.5	2,586	45.1	1.4
2010	농어촌	360	16.0	2.5	527	34.6	3.6
	도시	855	17.3	1.5	1,820	32.5	1.6
2011	농어촌	263	19.7	3.8	439	32.1	2.7
	도시	837	17.1	1.4	1,735	33.6	1.4
2012	농어촌	226	13.1	2.6	384	31.6	3.3
	도시	709	23.1	2.2	1,579	36.6	1.7
2013	농어촌	140	21.3	4.4	341	37.9	3.0
	도시	566	27.8	2.4	1,290	35.4	2.0
2014	농어촌	952	17.6		997	35.0	
	도시	4,079	25.0		4,192	34.4	

자료: 각 연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주: 2014년 만 19세 이상 대상

2107> 자살 및 우울 관련 현황

▶ 농어촌의 자살 생각률은 15.2%, 자살 생각자의 자살 시도율은 3.0%

2012년 기준, 농어촌의 자살 생각률은 15.2%로 도시 12.9%에 비해 높았지만, 자살 생각자의 자살 시도율은 농어촌 3.0%, 도시 5.0%로 도시에서 더욱 높게 나타났다.

| 표2107 | 자살 및 우울 관련 현황

(단위: 명, %)

연도	구분	자살 생각률			자살 생각자의 자살시도율		
		N	분율	표준오차	N	분율	표준오차
2007	농어촌	860	16.0	2.1	158	11.5	2.4
	도시	2,113	14.7	1.1	340	3.4	0.9
2008	농어촌	1,798	19.8	1.3	384	9.3	2.3
	도시	4,998	16.9	0.7	930	5.6	0.8
2009	농어촌	1,920	18.1	1.2	406	4.6	1.2
	도시	5,558	16.0	0.7	942	7.2	1.0
2010	농어촌	1,366	18.3	1.3	260	3.1	1.1
	도시	4,886	14.0	0.7	683	6.6	1.1
2011	농어촌	1,214	16.2	1.2	225	5.2	1.7
	도시	4,812	13.4	0.7	657	6.0	1.3
2012	농어촌	1,124	15.2	1.2	184	3.0	1.4
	도시	4,467	12.9	0.6	604	5.0	1.0
2013	농어촌	1,031	3.6	0.6	-	-	-
	도시	4,308	4.5	0.4	-	-	-

자료: 각 연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주: 만 19세 이상 대상

2108> 정신보건 관련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

▶ 농어촌의 정신문제 상담 경험률은 0.9%

2013년 기준, 농어촌에서 정신문제 상담 경험률은 0.9%로 도시와 비슷한 수준(1.3%)이었으며, 2011년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 표2108 | 정신보건 관련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명, %)

연도	구분	정신문제 상담 경험률						우울증상 경험자의 정신문제 상담 경험률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N	비율	N	비율	N	비율	N	비율	N	비율	N	비율
2008	농어촌	1,796	2.0	756	1.2	1,040	2.7	317	5.7	98	5.2	219	6.1
	도시	4,998	2.1	2,081	1.4	2,917	2.7	773	8.7	209	8.3	564	8.9
2009	농어촌	1,920	1.6	845	0.8	1,075	2.4	320	6.0	92	4.0	228	6.9
	도시	5,560	2.4	2,391	1.7	3,169	3.1	886	8.7	261	5.5	625	10.4
2010	농어촌	1,366	1.4	595	1.5	771	1.3	197	4.4	57	2.0	140	5.9
	도시	4,889	2.4	2,109	1.2	2,780	3.5	628	10.9	163	8.0	465	12.1
2011	농어촌	1,214	3.2	527	3.0	687	3.3	178	15.1	63	21.9	115	10.3
	도시	4,812	2.2	2,033	1.6	2,779	2.7	640	9.0	187	6.6	453	10.4
2012	농어촌	1,125	2.6	483	2.8	642	2.3	168	8.5	59	12.6	109	5.0
	도시	4,466	2.5	1,826	0.9	2,640	3.9	580	10.1	157	4.3	423	12.7
2013	농어촌	1,030	0.9	452	0.0	578	1.9						
	도시	4,301	1.3	1,802	1.0	2,504	1.6						

자료: 각 연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주: 만 19세 이상 대상

2109 > 농작업 손상

▶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 발생률은 3.0%, 손상 종류로는 골절(34.4%)이 가장 많음

2013년에 농업인이 경험한 업무상 손상 발생률은 3.0%인 가운데, 농기계 및 농약을 사용하는 농업인은 사용하지 않는 농업인에 비해 손상 발생률이 높게 나타나 각각 3.6%, 2.1%의 손상 발생률을 보였다. 농작업 손상 종류로는 ‘골절’ 비율이 34.4%로 가장 높았으며, ‘타박상/멍’(12.1%), ‘뺨/접질림(염좌)’(10.6%)의 순이었다. ‘농약 중독’ 발생률은 2.3%로 나타났다.

| 표2109 - (1) | 농기계 및 농약 사용별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 발생률

(단위: 명, %)

구분		업무상 손상자수	업무상 손상 발생률
2012년	농기계 사용함	43,441	3.9
	농기계 사용 안함	21,294	2.1
	총 계	64,735	3.0
2013년	농기계 사용함	49,331	3.6
	농기계 사용 안함	15,465	2.1
	총 계	64,796	3.0

자료: 각 연도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 조사

주: 업무상 손상자수 - 가중치를 적용하여 추정된 값임

| 표2109 - (2) |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 종류별 분포

(단위: 명, %)

구분	업무상 손상자수	비율	구분	업무상 손상자수	비율
굵힘/찰과상	2,527	3.9	일시적 의식상실(뇌진탕 등)	1,292	2.0
찢림	848	1.3	농약 중독	1,453	2.3
타박상/멍	7,778	12.1	동물에 물림(교상)	2,184	3.4
뺨/접질림(염좌)	6,765	10.6	일시적/영구적 청력상실	155	0.2
베임(열상/개방상)	4,349	6.8	일시적/영구적 시력상실	0	0.0
신체 절단	1,194	1.9	화상	181	0.3
골절	22,027	34.4	산소 결핍/질식	134	0.2
탈구	796	1.2	감전	0	0.0
근육/인대 파열(좌상)	4,870	7.6	복합 손상	3,309	5.2
허리/목 디스크 파열	4,160	6.5	기타	3,276	5.1
			총계	64,019	100.0

자료: 2013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 조사

주: 업무상 손상자수 - 가중치를 적용하여 추정된 값임, 다중 응답 항목으로 총계와 항목의 합이 상이함

2110 > 병상 수

▶ 농어촌의 병상 수는 77,597개로 도시(590,873개)의 약 13% 수준

2014년 기준, 농어촌의 병상 수는 총 77,597개로 ‘요양병원’(29,538개), ‘병원’(25,771개), ‘정신병원’(9,069개), ‘의원’(6,220개) 순으로 나타난 가운데, 도시의 병상 수는 590,873개였다.

| 표2110 | 병상 수

(단위 : 개)

연도	구분	계	종합병원	요양병원	병원	의원	결핵병원	한센병원
2007	농어촌	74,970	4,581	14,393	25,847	17,432	0	1,000
	도시	375,149	121,259	52,334	86,545	78,860	1,373	0
2008	농어촌	62,243	5,016	12,789	23,674	9,611	0	1,000
	도시	416,402	123,657	64,181	98,980	88,231	1,355	0
2009	농어촌	65,584	5,277	15,122	24,066	9,289	0	1,000
	도시	432,718	125,324	74,381	106,722	82,473	1,345	0
2010	농어촌	81,556	9,136	21,150	24,182	13,181	0	1,000
	도시	441,801	123,961	91,677	106,488	75,023	1,318	0
2011	농어촌	72,338	5,893	21,144	24,125	8,874	0	1,000
	도시	492,234	131,835	114,150	121,400	77,703	1,318	0
2012	농어촌	77,050	5,882	25,362	25,874	8,251	0	700
	도시	521,794	132,968	135,692	129,146	73,618	1,286	0
2013	농어촌	74,776	5,982	26,842	27,464	6,659	0	700
	도시	558,311	135,443	165,817	128,397	72,982	1,128	0
2014	농어촌	77,597	5,797	29,538	25,771	6,220	0	700
	도시	590,873	139,185	184,448	137,803	69,918	943	29

자료 : 각 연도 보건복지통계연보

연도	구분	정신병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부속의원	조산원
2007	농어촌	10,461	29	0	880	154	191	2
	도시	26,253	220	17	7,365	301	469	153
2008	농어촌	9,479	24	0	377	158	158	1
	도시	30,080	229	14	8,233	704	704	75
2009	농어촌	10,197	25	0	358	63	187	0
	도시	31,513	266	39	8,336	881	1,361	77
2010	농어촌	11,647	25	0	926	63	187	0
	도시	32,634	303	45	8,565	881	1,361	77
2011	농어촌	10,544	24	0	438	76	220	0
	도시	33,341	327	90	10,205	1,228	548	89
2012	농어촌	10,486	24	0	278	52	140	1
	도시	35,027	293	61	11,669	1,485	467	82
2013	농어촌	6,644	24	0	279	95	85	2
	도시	39,231	283	92	12,309	1,851	505	273
2014	농어촌	9,069	0	0	338	78	86	0
	도시	40,302	277	76	13,793	2,315	1,635	149

자료 : 각 연도 보건복지통계연보

2111 > 보건의료기관 수

▶ 농어촌의 보건의료기관 수는 4,766개소로 도시(58,909개소)의 약 8% 수준

2014년 기준, 농어촌의 보건의료기관 수는 총 4,766개소로 ‘의원’(2,233개소), ‘한의원’(1051개소), ‘치과의원’(1,018개소) 순이었으며, 2010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 표2111 - (1) | 보건의료기관 수

(단위: 개소)

연도	구분	계	종합병원	요양병원	병원	의원	결핵병원	한센병원
2007	농어촌	6,857	20	137	187	3,516	0	1
	도시	46,057	282	456	758	22,749	3	0
2008	농어촌	4,641	22	130	170	2,301	0	1
	도시	49,524	291	560	894	24,280	3	0
2009	농어촌	4,776	22	341	175	2,344	0	1
	도시	50,993	290	621	954	24,760	3	0
2010	농어촌	6,411	30	177	185	3,131	0	1
	도시	49,833	282	672	969	24,203	3	0
2011	농어촌	5,034	23	170	170	2,383	0	1
	도시	53,462	296	805	1,075	25,526	3	0
2012	농어촌	5,145	23	189	178	2,432	0	1
	도시	54,374	300	898	1,149	26,330	3	0
2013	농어촌	4,511	23	190	164	2,108	0	1
	도시	56,388	301	1,038	1,167	26,708	3	0
2014	농어촌	4,766	21	205	170	2,233	0	0
	도시	58,909	300	1,099	1,266	28,456	4	1

자료: 각 연도 보건복지통계연보

| 표2111 - (2) | 보건의료기관 수

(단위 : 개소)

연도	구분	정신병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부속의원	조산원
2007	농어촌	28	4	1,543	17	1,375	25	4
	도시	19	147	11,737	121	9,520	157	48
2008	농어촌	26	20	947	8	997	18	1
	도시	92	164	12,671	131	10,251	157	30
2009	농어촌	28	3	1,007	8	1,024	21	2
	도시	102	175	13,064	143	10,681	164	36
2010	농어촌	38	5	1,444	15	1,354	29	2
	도시	105	183	12,630	144	10,450	157	35
2011	농어촌	32	3	1,118	8	1,100	24	2
	도시	112	196	13,884	170	11,205	156	34
2012	농어촌	33	3	1,130	5	1,118	30	3
	도시	123	199	13,670	194	11,322	154	32
2013	농어촌	25	3	1,007	5	959	23	3
	도시	135	197	14,572	198	11,857	168	44
2014	농어촌	32	4	1,018	6	1,051	24	2
	도시	138	198	14,915	228	12,084	189	31

자료 : 각 연도 보건복지통계연보

2112>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접근도

▶ 농어촌 기준 병의원, 한의원의 51.2%, 종합병원의 89.7%가 다른 지역(읍면 경계 밖)에 있음

2010년 기준, 농어촌 주민들은 약국(61.2%), 보건소(72.1%)의 경우 읍면 내(①+②)에서 이용하고 있으나, 병·의원, 한의원 및 종합병원의 경우 각각 51.2%, 89.7%는 읍면 경계를 벗어난 다른 지역에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2112 - (1) |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접근도 - 농어촌(2005)

(단위 : %)

이동수단		이동시간		
		15분미만	15~30분	30분 이상
걸어서	15.3	9.5	3.4	2.3
자동차	69.9	24.7	25.6	19.6
기타	14.9	4.6	5.5	4.8

자료 : 2005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 표2112 - (2) |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접근도 - 농어촌(2010)

(단위 : 개, %)

구분	계 (행정리)	(우리) 행정리 안에 있음(①)	읍(면) 사무소 소재지 에 있음(②)	다른 지역(①, ② 이외)에 있음			이용 하지 않음	
				15분 미만	15~30 분	30분 이상		
약국	36,498	11.1	50.1	37.8	42.1	40.9	17.0	0.9
보건진료소	36,498	9.1	32.0	27.6	52.2	31.4	16.4	31.3
보건소	36,498	9.6	62.5	23.6	52.7	33.1	14.2	4.2
병·의원, 한의원	36,498	8.3	39.4	51.2	29.2	43.8	27.0	1.1
종합병원	36,498	1.0	4.6	89.7	6.6	26.2	67.2	4.7

자료 : 2010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원자료 분석

2113>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

▶ 농어촌의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는 '보건소(72.6%)'가 가장 높음

2014년 기준, 농어촌의 지난 1년 동안 주로 이용한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는 '보건소'(72.6%), '종합병원'(60.4%), '한의원'(55.8%), '병의원'(49.7%) 순으로 나타났다. 농어촌의 보건의료서비스 불만족 이유로는 '치료결과 미흡'(24.2%), '진료, 입원대기시간이 길다'(22.5%), '의료비가 비싸다'(17.5%) 순으로 나타났다.

| 표2113-(1) |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

(단위: %)

연도	구분	종합병원			병(의원)			한의원(한방병원)			보건소			약국		
		만족	보통	불만	만족	보통	불만	만족	보통	불만	만족	보통	불만	만족	보통	불만
2008	농어촌	62.9	26.6	10.5	54.4	38.7	6.8	55.0	37.9	7.0	75.6	21.2	3.2	30.5	63.2	6.3
	도시	52.0	33.3	14.7	47.3	44.1	8.6	55.2	38.1	6.7	51.0	38.3	10.7	30.8	61.9	7.3
2010	농어촌	58.4	29.8	11.8	53.5	44.2	7.7	52.0	38.7	9.3	71.2	26.3	2.5	36.5	52.0	11.6
	도시	51.3	33.4	15.2	46.1	43.1	9.7	56.6	35.7	7.6	50.6	35.0	14.4	32.3	58.4	9.3
2012	농어촌	58.8	30.2	10.9	54.5	37.7	7.8	52.0	35.7	9.3	70.0	25.8	4.2	28.9	68.9	2.2
	도시	51.7	34.4	13.9	45.2	45.6	9.2	56.6	36.2	7.6	56.7	34.2	9.1	28.2	65.9	5.9
2014	농어촌	60.4	34.4	12.6	49.7	43.6	6.7	55.8	37.1	7.1	72.6	23.3	4.1	47.3	50.8	1.9
	도시	53.2	34.4	12.6	47.5	45.0	7.4	54.0	38.6	7.4	62.2	33.9	4.0	30.0	66.2	3.8

자료: 각 연도 사회조사

주: 2009년, 2010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2년 - 13세 이상 인구 대상

| 표2113-(2) | 보건의료서비스 불만족 이유

(단위: %)

연도	구분	불친절함	의료비 비싸다	치료 결과 미흡	진료 불성실	진료, 입원 대기 시간 김	의료 시설 낙후 미비	과잉 진료	전문 의료 인력 부족	기타
2008	농어촌	11.7	32.8	19.9	9.4	16.4	2.0	5.6	1.6	0.6
	도시	13.4	27.9	20.3	9.0	15.7	5.9	4.1	3.7	0.0
2010	농어촌	11.7	29.9	17.9	8.0	19.4	2.6	8.5	1.7	0.3
	도시	8.4	30.7	21.1	6.7	19.8	5.1	5.1	2.9	0.2
2012	농어촌	13.5	24.3	18.1	10.1	16.3	6.7	5.5	5.2	0.2
	도시	11.1	28.2	19.7	11.1	17.9	2.4	7.9	1.4	0.2
2014	농어촌	10.3	17.5	24.2	8.6	22.5	5.1	5.8	5.2	0.7
	도시	11.2	26.1	20.0	9.6	19.8	2.2	9.1	2.0	0.1

자료: 각 연도 사회조사

주: 의료서비스 불만족자 대상

2200> 복지 부문

- 2201> 독거노인 현황
- 2202> 장수인구 비율
- 2203> 치매노인 비율
- 2204> 노인 희망거주 형태
- 2205> 노인의 의존 소득원
- 2206> 노인 일자리 참여
- 2207> 필요한 노인복지 서비스
- 2208> 영유아 비율
- 2209> 유치원 취원율
- 2210> 보육시설 현황
- 2211> 조손가구 비율
- 2212> 장애인 추가비용
- 2213> 결혼이민자 및 자녀 현황

2201 > 독거노인 현황

▶ 농어촌의 65세 이상 인구 중 1인 가구원은 440,726명

2010년 기준, 농어촌의 65세 이상 인구는 1,747,486명이며, 이 가운데 1인 가구원은 440,726명(25.2%)으로 2005년에 비해 2.2%p 증가하였다. 도시(17.7%)에 비해서도 독거노인 비율은 7.5%p 높게 나타났다.

| 표2201 | 독거노인 현황

(단위 : 명, %)

연도	구분	65세 이상 가구원	65세 이상 1인 가구원	비율
2005	농어촌	1,593,513	366,809	23.0
	도시	2,721,902	415,899	15.3
2010	농어촌	1,747,486	440,726	25.2
	도시	3,536,134	625,639	17.7

자료 : 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주 : 65세 이상 가구원 대상

2202 > 장수인구 비율

▶ 농어촌의 장수인구(85세 이상) 비율은 1.6%로 도시(0.6%)에 비해 높음

2010년 기준, 농어촌의 85세 이상 장수인구 비율은 1.6%로 나타나 도시(0.6%)에 비해 높았으며, ‘여자’(2.3%)가 ‘남자’(0.9%)에 비해 장수인구 비율이 높았다.

| 표2202 | 장수인구 비율

(단위 : %)

연도	구분	내국인	남자	여자
2005	농어촌	1.1	0.6	1.6
	도시	0.4	0.2	0.5
2010	농어촌	1.6	0.9	2.3
	도시	0.6	0.3	0.9

자료 : 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주 : 85세 이상 인구 비율

2203> 치매노인 비율

▶ 전국의 65세 이상 치매 노인 수는 540,755명, 치매 유병률은 9.18%

2012년 기준, 전국의 65세 이상 치매 노인 수는 540,755명으로, 9.18%의 치매 유병률을 나타내는 가운데, 2005년 8.25%에 비해 증가한 양상을 보였다.

| 표2203 | 치매노인 비율 (단위: 명, %)

연도	구분	65세 이상 인구	치매노인 수					치매 유병률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2005	전국	4,252,919	351,025	36,606	54,274	100,328	159,817	8.25
2012	전국	5,889,675	540,755	-	-	-	-	9.18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치매관리 Mapping 개발연구', 2012 치매 유병률 조사
주 : 노인 인구 100명당 치매노인 수

2204> 노인 희망거주 형태

▶ 농어촌 노인의 희망거주 형태는 '일반주택·아파트'

2011년 기준, 농어촌 노인 희망거주 형태는 '일반주택·아파트'(77.7%), '자녀와의 동거'(17.2%), '시설입소'(4.2%) 순으로 도시와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 표2204 | 노인 희망거주 형태 (단위: %)

연도	구분	일반 주택·아파트	자녀 동거	고령자 전용 주거 단지	그룹홈	일반 주택·아파트 + 필요시 경로당	시설 입소	기타
2011	농어촌	77.7	17.2	0.2	0.5	0.1	4.2	0.0
	도시	72.5	18.9	1.1	1.1	0.7	5.5	0.2

자료 : 2011 노인실태조사
주 : 65세 이상 인구 대상

2205> 노인의 의존 소득원

▶ 농어촌 노인의 생활비는 '본인 및 배우자'(66.1%)가 마련하는 비율이 높으며,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69.7%)이 주된 소득원임

2015년 기준, 농어촌의 60세 이상 노인의 생활비 마련 방법은 '본인 및 배우자 부담(66.1%)', '자녀 또는 친척 지원(19.9%)', '정부 및 사회단체(13.9%)' 순으로 나타나, 도시에 비해 '자녀 또는 친척 지원' 비중이 약간 낮은(4.2%p) 반면, '정부 및 사회단체' 비중이 약간 높았다(+4.8%p).

농어촌에서 '본인 및 배우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근로 소득 및 사업소득'이 69.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편, '자녀 또는 친척이 지원'하는 경우에 농어촌에서는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가족(61.5%)이 지원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도시에서는 '함께 살고 있는' 가족(53.7%)이 지원하는 비율이 약간 더 높았다.

| 표2205 | 노인의 의존 소득원

(단위 : %)

연도	구분		본인 및 배우자 부담				자녀 또는 친척 지원			정부 및 사회 단체	기타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재산 소득	연금, 퇴직 금	예금		함께 살고 있음	함께 살고 있지 않음		
2007	농어촌	66.0	81.7	5.6	7.8	4.8	28.7	40.2	59.8	5.2	0.0
	도시	59.2	56.5	14.2	20.4	8.9	36.6	58.0	42.0	4.1	0.1
2009	농어촌	63.9	73.0	5.8	17.1	4.0	27.1	34.1	65.9	9.0	0.0
	도시	58.3	48.3	16.8	27.9	7.1	33.2	48.7	51.3	8.4	0.1
2011	농어촌	63.5	70.6	4.9	17.5	7.0	28.6	35.5	64.5	7.8	0.1
	도시	58.8	42.3	15.7	32.0	10.0	33.4	51.1	48.9	7.6	0.2
2013	농어촌	65.1	74.8	6.0	13.6	5.6	25.8	32.7	67.3	9.1	0.0
	도시	63.1	44.4	14.7	29.3	11.6	29.9	50.1	49.9	7.0	0.1
2015	농어촌	66.1	69.7	7.0	17.7	5.6	19.9	38.5	61.5	13.9	0.0
	도시	66.7	48.9	13.4	31.1	6.6	24.1	53.7	46.3	9.1	0.1

자료 : 각 연도 사회조사

주 : 60세 이상 인구 대상

2206> 노인일자리 참여

▶ 농어촌의 노인일자리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한 경험이 있는 층은 7.7%

2014년 기준, 농어촌에서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층은 3.7%, 참여한 경험이 있는 층은 4.0%, 신청했으나 참여기회가 없는 층은 3.2%로 모두 도시에 비해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 표2206 | 노인일자리 참여 (단위 : %)

연도	구분	인지율	참여 실태			
			현재 참여 중	참여경험 있음	신청했으나 참여기회 없었음	비신청
2011	농어촌	66.5	3.1	7.3	3.9	85.7
	도시	69.8	4.5	6.6	9.7	79.2
2014	농어촌		3.7	4.0	3.2	89.1
	도시		4.5	4.5	5.6	86.0

자료 : 2014 노인실태조사 p424
주 : 65세 이상 인구 대상

2207> 필요한 노인복지 서비스

▶ 농어촌의 60세 이상 노인이 가장 받고 싶은 복지서비스는 '건강검진(29.8%)', '간병서비스(26.2%)'

2013년 기준, 농어촌의 60세 이상 노인의 90.7%가 평소 정부 및 사회단체로부터 복지서비스를 받고 싶다고 응답한 가운데, 받고 싶은 복지서비스는 '건강검진'(29.8%), '간병서비스'(26.2%), '가사서비스'(20.8%)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른 조사에서 2011년 기준, 농어촌의 65세 이상 노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복지서비스는 '소득 보장'(32.3%), '의료서비스'(28.3%), '수발서비스'(21.5%)로 나타났다.

| 표2207 - (1) | 필요한 노인복지 서비스

(단위: %)

연도	구분		받고 싶음									
			간병 서비스	목욕 서비스	가사 서비스	식사 제공	이야 기 상대	취업 알선	건강 검진	취미 여가 프로그램	정보 화 등 각종 교육	기타
2007	농어촌	71.5	25.3	3.0	9.4	4.1	2.6	7.2	40.6	6.6	1.0	0.1
	도시	79.1	20.0	2.3	7.6	3.2	2.7	14.0	40.3	8.1	1.5	0.3
2009	농어촌	76.6	26.9	2.2	16.2	3.8	2.2	5.2	35.6	5.4	2.0	0.5
	도시	83.8	22.1	1.3	11.7	3.5	2.6	13.1	35.6	8.3	1.4	0.3
2011	농어촌	93.1	28.3	2.5	17.8	2.6	1.9	7.3	34.5	4.0	0.9	0.2
	도시	95.3	25.2	1.8	13.2	3.3	1.6	11.9	34.3	7.0	1.4	0.3
2013	농어촌	90.7	26.2	2.7	20.8	4.2	2.4	6.9	29.8	5.8	0.8	0.4
	도시	93.2	23.4	1.8	16.3	3.8	2.2	11.9	31.3	7.9	1.2	0.2

자료 : 각 연도 사회조사

주 : 60세 이상 인구 대상

| 표2207 - (2) | 중요하게 생각하는 노인복지 서비스

(단위: %)

연도	구분	소득 보장	수발 서비스	여가 생활 지원 서비스	의료 서비스	경제 활동 지원	노후 주거 지원	기타
2011	농어촌	32.3	21.5	6.7	28.3	6.8	3.7	0.6
	도시	31.6	17.4	10.1	25.1	10.7	3.9	1.3

자료 : 2011 노인실태조사

주 : 65세 이상 인구 대상

2208 영유아 비율

▶ 농어촌의 영유아 비율은 4.8%

2015년 기준, 농어촌의 0세~5세 영유아 비율은 4.8%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도시(5.4%)에 비해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2208 | 영유아 비율 (단위 : %)

연도	구분	총인구	0세~5세		
				0세~3세	4~5세
2007	농어촌	100.0	5.3	3.4	1.8
	도시	100.0	5.8	3.8	2.0
2008	농어촌	100.0	5.2	3.4	1.8
	도시	100.0	5.7	3.7	2.0
2009	농어촌	100.0	5.2	3.5	1.7
	도시	100.0	5.6	3.7	1.9
2010	농어촌	100.0	5.1	3.5	1.6
	도시	100.0	5.5	3.7	1.8
2011	농어촌	100.0	5.1	3.4	1.7
	도시	100.0	5.6	3.7	1.9
2012	농어촌	100.0	5.1	3.4	1.8
	도시	100.0	5.6	3.7	1.9
2013	농어촌	100.0	4.9	3.3	1.6
	도시	100.0	5.5	3.7	1.8
2014	농어촌	100.0	4.9	3.2	1.7
	도시	100.0	5.4	3.6	1.8
2015	농어촌	100.0	4.8	3.1	1.7
	도시	100.0	5.4	3.6	1.9

자료 : 각 연도 주민등록인구

2209 > 유치원 취원율

▶ 농어촌의 유치원 취원율은 45.1%로 도시(48.0%)와 비슷한 수준

2015년 기준, 농어촌의 유치원 취원율은 45.1%로 5년 전인 2011년(43.2%)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도시(48.0%)와도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 표2209 | 유치원 취원율

(단위 : 명, %)

연도	구분	유치원 취원 대상자	유치원 재원자	유치원 취원율
2007	농어촌	261,908	95,242	36.4
	도시	1,241,154	446,308	36.0
2010	농어촌	241,045	90,099	37.4
	도시	1,068,985	448,488	42.0
2011	농어촌	212,865	92,009	43.2
	도시	1,088,943	472,825	43.4
2012	농어촌	246,339	97,058	39.4
	도시	1,162,159	516,691	44.5
2013	농어촌	234,651	106,015	45.2
	도시	1,152,386	552,173	47.9
2014	농어촌	237,705	105,105	44.2
	도시	1,157,489	547,441	47.3
2015	농어촌	244,483	110,373	45.1
	도시	1,192,872	572,180	48.0

자료 :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2007~2011), 주민등록인구통계, 교육통계(2012~)

주 : 1) 유치원 취원 대상자는 각 지역 만 3-5세 인구수임

2) 취원율 = 재원자 수/취원대상자 x100

3) 농어촌은 읍면지역+도서지역, 도시는 대도시+중소도시를 합한 수치임

2210> 보육시설 현황

▶ 농어촌의 영유아 보육시설(8,269개)은 도시의 절반 수준

2014년 기준, 농어촌의 보육시설은 8,265개로, 2007년 이후 계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3년 이후 소폭 감소하였다. 반면, 대도시 및 중소도시의 보육시설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4년 기준, 농어촌의 보육시설 유형별 이용 아동 수 역시 소폭의 감소 추이를 보인 가운데, '개인 민간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180,675명)가 가장 많았다.

| 표2210-(1) | 설립주체별 보육시설 현황

(단위: 개소)

연도	구분		설립 주체별						
			국공립 보육시설	법인 보육 시설	민간보육시설		부모 협동	가정 보육 시설	직장 보육 시설
					법인 외	개인			
2007	농어촌	4,901	352	673	346	2,145	1	1,342	42
	대도시	12,456	938	387	403	5,469	27	5,071	161
	중소도시	13,499	458	400	253	5,467	33	6,771	117
2008	농어촌	6,504	426	751	362	2,674	3	2,246	42
	대도시	13,018	921	384	389	5,482	29	5,628	185
	중소도시	13,977	479	323	218	5,150	33	7,651	123
2009	농어촌	6,996	468	764	358	2,775	7	2,576	48
	대도시	13,485	944	393	370	5,486	29	6,068	195
	중소도시	15,069	505	313	207	5,172	30	8,715	127
2010	농어촌	7,759	506	783	354	2,947	10	3,104	55
	대도시	14,034	977	389	343	5,558	34	6,519	214
	중소도시	16,228	551	296	191	5,284	30	9,744	132
2011	농어촌	8,030	528	781	356	3,068	13	3,224	60
	대도시	14,591	999	387	327	5,630	41	6,968	239
	중소도시	17,221	589	294	187	5,436	35	10,530	150

자료: 각 연도 보육통계

주: 2012년 기준, '법인보육시설'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 외 민간보육시설'은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으로 변경

| 표2210 - (2) | 설립주체별 보육시설 현황

(단위 : 개소)

연도	구분	설립 주체별							
			국공립 보육시설	법인 보육 시설	민간보육시설		부모 협동	가정 보육 시설	직장 보육 시설
					법인 외	개인			
2012	농어촌	8,477	555	773	363	3,178	19	3,509	80
	대도시	15,461	1,039	384	308	5,709	46	7,701	274
	중소도시	18,589	609	287	198	5,553	48	11,725	169
2013	농어촌	8,269	569	770	362	3,220	21	3,224	103
	대도시	15,852	1,120	383	302	5,746	56	7,927	619
	중소도시	19,649	643	286	204	5,785	52	12,481	198
2014	농어촌	8,265	587	754	358	3,244	24	3,178	120
	대도시	15,999	1226	378	287	5,720	64	7,985	339
	중소도시	19,478	676	288	207	5,858	61	12,155	233

자료 : 각 연도 보육통계

주 : 2012년 기준, '법인보육시설'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 외 민간보육시설'은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으로 변경

| 표2210 - (3) | 보육시설 유형별 종사자 현황

(단위 : 명)

연도	구분	설립 주체별							
			국공립 보육시설	법인 보육 시설	민간보육시설		부모 협동	가정 보육 시설	직장 보육 시설
					법인 외	개인			
2007	농어촌	30,902	2,506	6,915	2,714	13,942	5	4,550	270
	대도시	68,892	8,835	4,548	2,776	34,318	154	16,937	1,324
	중소도시	69,791	4,287	4,557	2,197	34,828	186	22,680	1,056
2008	농어촌	38,653	3,092	7,490	2,657	17,237	7,899	11	267
	대도시	74,799	9,247	4,476	2,609	36,563	11,904	8,339	1,661
	중소도시	71,450	4,482	3,581	1,940	33,257	26,920	153	1,117
2009	농어촌	45,245	3,781	8,455	3,037	20,166	32	9,403	371
	대도시	82,568	10,507	4,827	2,870	39,804	161	22,454	1,945
	중소도시	79,099	5,109	3,760	2,081	35,698	155	31,006	1,290
2010	농어촌	51,110	4,215	8,870	3,075	22,594	42	11,827	487
	대도시	90,341	11,061	4,928	2,669	43,659	203	25,518	2,303
	중소도시	87,633	5,704	3,570	1,964	38,278	153	36,550	1,414
2011	농어촌	54,512	4,530	8,857	3,115	24,577	55	12,784	594
	대도시	97,617	11,541	5,015	2,646	46,959	248	28,544	2,664
	중소도시	96,506	6,158	3,619	1,963	41,243	182	41,583	1,758
2012	농어촌	61,460	4,884	9,076	3,336	28,004	86	15,235	839
	대도시	111,076	12,183	5,284	2,616	52,339	299	35,125	3,230
	중소도시	111,701	6,658	3,651	2,142	45,896	229	50,913	2,212
2013	농어촌	63,928	5,292	9,423	3,488	30,481	99	14,021	1,124
	대도시	117,198	13,990	5,492	2,811	54,921	365	35,603	4,016
	중소도시	120,593	7,468	3,850	2,404	50,778	266	53,107	2,720
2014	농어촌	66,101	5,580	9,475	3,517	31,956	131	14,052	1,390
	대도시	120,925	15,340	5,616	2,757	56,227	421	36,059	4,505
	중소도시	124,791	8,057	3,954	2,475	53,764	304	52,836	3,371

자료 : 각 연도 보육통계

주 : 2012년 기준, '법인보육시설'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 외 민간보육시설'은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으로 변경

| 표2210 - (4) | 보육시설 유형별 이용 아동 현황

(단위 : 명)

연도	구분	설립 주체별							
			국공립 보육시설	법인 보육 시설	민간보육시설		부모 협동	가정 보육 시설	직장 보육 시설
					법인 외	개인			
2007	농어촌	227,794	19,518	54,441	20,132	111,914	34	19,921	1,834
	대도시	443,670	68,506	34,116	19,362	245,412	671	68,064	7,539
	중소도시	428,469	31,117	29,654	16,412	255,158	739	89,638	5,751
2008	농어촌	264,423	22,571	56,137	20,069	133,177	58	30,671	1,740
	대도시	453,534	68,260	32,901	18,689	246,314	727	77,710	8,933
	중소도시	417,545	32,574	24,856	15,060	236,156	706	102,057	6,136
2009	농어촌	277,630	25,185	55,724	19,954	139,279	157	35,242	2,089
	대도시	465,344	70,072	32,432	18,096	248,600	769	85,284	10,091
	중소도시	432,075	34,399	24,182	14,668	235,166	729	116,317	6,614
2010	농어촌	307,963	27,447	58,344	19,849	154,732	213	44,654	2,724
	대도시	499,674	72,250	32,956	17,265	266,763	918	97,603	11,919
	중소도시	472,273	37,907	22,754	14,012	250,396	767	139,179	7,258
2011	농어촌	320,857	28,984	57,232	20,068	163,523	289	47,528	3,233
	대도시	522,894	73,711	32,714	16,634	279,297	1,128	106,252	13,158
	중소도시	504,978	40,340	22,742	13,974	263,827	869	154,630	8,596
2012	농어촌	348,759	30,206	57,290	20,922	180,619	474	54,967	4,281
	대도시	574,723	76,753	33,120	16,167	303,679	1,325	128,424	15,255
	중소도시	563,879	42,718	22,639	14,825	283,958	1,114	188,280	10,345
2013	농어촌	340,626	30,323	55,069	20,356	180,675	480	48,397	5,326
	대도시	573,577	79,950	31,748	16,166	300,273	1,509	126,877	17,054
	중소도시	572,777	44,192	22,017	15,162	289,231	1,237	188,839	12,099
2014	농어촌	341,403	30,654	52,647	19,493	183,033	590	48,811	6,178
	대도시	575,605	83,146	30,465	15,119	297,922	1,784	128,403	18,766
	중소도시	597,663	45,444	21,440	14,563	294,459	1,400	188,036	14,321

자료 : 각 연도 보육통계

주 : 2012년 기준, '법인보육시설'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 외 민간보육시설'은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으로 변경

2211 > 조손가구 비율

▶ 농어촌의 조손가구 비율은 1.0%로 도시(0.6%)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2010년 기준, 농어촌의 조손가구 비율은 1.0%로 도시(0.6%)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 표2211 | 조손가정

(단위: 가구, %)

연도	구분	일반가구	조손가구	
				비율
2005	농어촌	3,142,188	21,633	0.7
	도시	12,744,940	36,468	0.3
2010	농어촌	3,308,353	32,626	1.0
	도시	14,031,069	86,668	0.6

자료: 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주: 조손가구는 조부모+미혼손자녀, 조부 또는 조모+미혼손자녀의 합

2212 > 장애인 추가비용

▶ 장애인 추가비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재활보조기구 구입, 유지비'가 크게 증가함

2005년에는 155.4천원이었던 장애인 추가비용이 2014년에는 164.2천원으로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재활보조기구 구입, 유지비'가 2011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12.8%p)한 반면, '의료비'(+9.2%p), '부모 사후 대비비'(+10.6%p)가 다소 증가하였다.

| 표2212 | 장애인 추가비용

(단위: 천원)

연도	총 추가 비용	교통비	의료비	교육비	보호, 간병인	재활 기관 이용료	통신비	재활 보조 기구 구입, 유지비	부모 사후 대비비
2005	155.4	22.9	90.2	6.1	11.8	2.1	1.2	6.4	8.8
2008	158.7	17.8	57.3	6.2	9.9	2.0	1.4	36.8	6.2
2011	160.7	22.8	56.8	6.0	14.1	1.9	9.6	31.7	5.4
2014	164.2	25.6	66.0	4.1	13.6	4.2	9.9	18.9	16.8

자료: 각 연도 장애인실태조사

2213> 결혼이민자 및 자녀 현황

▶ 농어촌에서 외국 여성과 혼인 비율은 8.1%, 농림어업 종사자의 외국 여성과 혼인 비율은 20.9%

2014년 기준, 농어촌 혼인건수에서 외국 여성과 혼인하는 비율은 8.1%로 도시(4.7%)에 비해 높았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림어업 종사자가 외국 여성과 혼인하는 비율은 20.9%로 도시 거주 농림어업 종사자가 외국 여성과 혼인하는 비율(11.9%)보다 높게 나타났다.

| 표2213 - (1) | 결혼이민자 현황

(단위: 건, %)

연도	구분	전체			농림어업 종사자		
		혼인건수(A)	외국 여성과의 혼인		혼인건수(C)	외국 여성과의 혼인	
			건수(B)	비율(B/A)		건수(D)	비율(D/C)
2004	농어촌	53,909	5,694	10.6	4,883	1,474	30.2
	도시	241,071	18,095	7.5	1,433	333	23.2
2005	농어촌	55,029	7,575	13.8	5,878	2,371	40.3
	도시	244,360	22,545	9.2	1,663	498	29.9
2006	농어촌	58,382	8,746	15.0	6,479	2,991	46.2
	도시	261,377	20,470	7.8	1,793	529	29.5
2007	농어촌	59,397	8,016	13.5	5,948	2,649	44.5
	도시	274,592	20,145	7.3	1,718	522	30.4
2008	농어촌	57,035	7,853	13.8	4,959	2,038	41.1
	도시	262,357	19,893	7.6	1,499	434	29.0
2009	농어촌	52,918	6,839	12.9	4,341	1,679	38.7
	도시	248,050	17,846	7.2	1,295	307	23.7
2010	농어촌	56,502	7,219	12.8	4,489	1,684	37.5
	도시	261,077	18,605	7.1	1,481	338	22.8
2011	농어촌	54,441	6,074	11.2	3,959	1,291	32.6
	도시	266,713	15,709	5.9	1,395	267	19.1
2012	농어촌	52,829	5,462	10.3	4,042	1,176	29.1
	도시	266,463	14,623	5.5	1,352	219	16.2
2013	농어촌	50,906	4,552	8.9	3,758	981	26.1
	도시	263,992	13,196	5.0	1,440	197	13.7
2014	농어촌	48,818	3,940	8.1	3,500	730	20.9
	도시	248,965	11,587	4.7	1,222	145	11.9

자료: 각 연도 인구동향조사

주: 농림어업 종사자는 남편 국적이 대한민국인 경우만 집계(외국인 제외)

2012년 기준, 농어촌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가 1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비율이 71.6%인 반면, 도시에서는 60.1%의 결혼이민자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도시 모두 다문화가족은 자녀 양육시 '양육비, 교육비 지출', '한국어 가르치기'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표2213 - (2) | 결혼이민자 자녀 현황

(단위 : %)

연도	구분	없음	1명	2명	3명이상
2009	농어촌	29.7	41.4	22.3	6.6
	도시	43.1	37.2	16.6	3.1
2012	농어촌	28.4	36.2	27.9	7.5
	도시	39.9	37.4	18.9	3.8

자료 : 각 연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 표2213 - (3) | 다문화가족 자녀의 연령별 분포

(단위 : %)

연도	구분	6세 미만	6~11세	12~14세	15~17세	18세 이상	평균(세)
2012	농어촌	54.4	26.9	9.7	4.5	4.4	6.56
	도시	51.3	24.9	7.6	4.6	11.5	7.86

자료 : 2012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 표2213 - (4) |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의 어려움

(단위 : %)

연도	구분	어려움 없음	자녀 양육 방식을 둘러싼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 와 갈등	한국어 가르 치기 어려움	자녀를 돌보아 줄 사람 또는 보육 시설이 없음	양육비, 교육비 지출	학업 성적 부진 또는 학교 생활 부적 응	자녀의 건강, 행동의 문제	부모 중 한 사람이 외국 출신 이라는 점으로 인한 아이의 심리적 혼란	기타
2012	농어촌	53.1	7.0	30.7	10.5	50.7	4.9	7.7	1.9	2.8
	도시	49.4	6.2	22.9	11.7	49.1	3.8	4.4	2.5	2.5

자료 : 2012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2300> 교육 부문

- 2301> 학생 수
- 2302> 학교 수
- 2303> 학급 수별 학교 수
- 2304> 학생 수별 학교 수
- 2305> 소규모학교 비율
- 2306> 복식학교 비율
- 2307> 교원 수
- 2308> 연령별 교원 수
- 2309> 사무직원 수
- 2310> 사서교사 배치율
- 2311> 보건교사 배치율
- 2312> 고등학교 기숙사 보유율
- 2313> 학교 컴퓨터 보급률
- 2314> 방과 후 학교 참여율
- 2315> 학교급별 방과 후 학교 참여율
- 2316> 통학수단
- 2317> 결손가정 아동 비율
- 2318> 학업성취도 등급별 비율
- 2319> 학교 진학률(초→중, 중→고)
- 2320> 학업중단 비율
- 2321> 대학(교) 진학률
- 2322> 특수교육자 진학률 및 취업률
- 2323> 학생 1인당 월 사교육비 및 > 참여율
- 2324> 교육비 부담에 대한 인식
- 2325> 도서관 현황
- 2326> 자기계발을 위한 평생교육 경험

2301 > 학생 수

▶ 농어촌의 학생 수는 964,781명

2015년 기준, 농어촌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964,781명으로 점차적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2014년 대비 초등학교의 학생 수는 약간 증가(+3,498명)하였다.

| 표2301 | 학생 수 (단위 : 명)

연도	구분	학생 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08	농어촌	1,144,550	609,385	282,418	252,747
	도시	6,473,246	3,062,822	1,756,193	1,654,231
2009	농어촌	1,109,056	570,718	277,997	260,341
	도시	6,338,103	2,903,677	1,728,975	1,705,451
2010	농어촌	1,087,631	545,841	277,955	263,835
	도시	6,148,617	2,753,253	1,696,843	1,698,521
2011	농어촌	1,060,729	521,695	275,042	263,992
	도시	5,926,118	2,610,782	1,635,530	1,679,806
2012	농어촌	1,038,396	496,997	273,273	268,126
	도시	5,682,780	2,454,998	1,575,821	1,651,961
2013	농어촌	994,318	463,026	263,333	267,959
	도시	5,487,174	2,320,720	1,540,856	1,625,344
2014	농어촌	981,213	460,649	255,014	265,550
	도시	5,304,579	2,267,860	1,462,897	1,573,822
2015	농어촌	964,781	464,147	238,321	262,313
	도시	5,124,046	2,250,463	1,347,630	1,525,953

자료 :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주 : 농어촌은 '읍면지역+도서지역', 도시는 '특별/광역시+시'를 합한 수치임

2302 > 학교 수

▶ 농어촌의 학교 수는 4,428개

2015년 기준, 농어촌의 초·중·고등학교 수는 총 4,428개로 최근으로 올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도시에서는 모든 학교급에서 학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2302 | 학교 수 (단위: 개)

연도	구분	학교 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08	농어촌	4,526	2,609	1,240	677
	도시	6,554	3,204	1,837	1,513
2009	농어촌	4,485	2,573	1,235	677
	도시	6,675	3,256	1,871	1,548
2010	농어촌	4,489	2,566	1,239	684
	도시	6,748	3,288	1,891	1,569
2011	농어촌	4,475	2,550	1,238	687
	도시	6,842	3,332	1,915	1,595
2012	농어촌	4,457	2,531	1,236	690
	도시	6,903	3,364	1,926	1,613
2013	농어촌	4,431	2,513	1,229	689
	도시	6,977	3,400	1,944	1,633
2014	농어촌	4,422	2,508	1,229	685
	도시	7,024	3,426	1,957	1,641
2015	농어촌	4,428	2,514	1,228	686
	도시	7,098	3,464	1,976	1,658

자료 :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주 : 농어촌은 '읍면지역+도서지역', 도시는 '특별/광역시+시'를 합한 수치임

2303> 학급 수별 학교 수

▶ 농어촌의 초·중·고등학교는 '1~5학급' 비중이 가장 높음

2014년 기준, 농어촌의 초·중·고등학교 학급 수는 1~5학급이 45.3%로 가장 많았으며, 7~12학급이 29.0%로 다음 순위를 나타냈다. 반면, 도시의 초·중·고등학교 학급 수는 25~36학급이 40.9%로 가장 많았으며, 19~24학급이 20.1%, 13~18학급이 13.6%로 다음 순위를 나타냈다.

| 표2303 | 학급 수별 학교 수

(단위: %)

연도	구분	학급 수별 학교 수										
		1~5 학급	6~ 10 학급	11~ 15 학급	16~ 20 학급	21~ 25 학급	26~ 30 학급	31~ 35 학급	36~ 40 학급	41~ 45 학급	46~ 50 학급	51 학급 이상
2008	농어촌	23.2	47.8	10.3	6.2	4.5	3.1	2.2	1.6	0.5	0.3	0.3
	도시	0.7	4.7	6.0	10.1	14.6	19.1	14.7	13.5	8.2	4.7	3.7
2009	농어촌	23.9	47.0	10.1	6.4	4.7	3.1	2.2	1.7	0.4	0.4	0.2
	도시	0.7	5.0	5.7	10.9	15.8	18.7	14.9	12.8	8.1	4.0	3.2
2010	농어촌	24.4	46.6	10.1	6.0	4.9	2.9	2.4	1.7	0.5	0.3	0.2
	도시	0.6	4.9	5.8	11.4	17.1	18.6	14.8	13.0	7.4	3.7	2.7
2011	농어촌	24.1	46.6	9.8	6.2	5.1	3.0	2.4	1.8	0.5	0.3	0.1
	도시	0.6	5.3	6.2	11.5	17.8	18.8	14.7	12.5	6.9	3.5	2.1
2012	농어촌	23.5	46.9	10.2	5.9	5.1	3.1	2.5	1.8	0.6	0.3	0.1
	도시	0.6	5.3	6.8	12.7	17.9	19.0	14.5	12.0	6.4	3.0	1.8
2013	농어촌	23.5	46.9	10.8	5.5	5.1	3.1	2.5	1.6	0.6	0.3	0.1
	도시	0.7	5.1	7.4	13.3	18.4	19.2	14.1	11.6	5.9	2.9	1.4
연도	구분	학급 수별 학교 수										
		1~6 학급	7~12 학급	13~18 학급	19~24 학급	25~36 학급	37~42 학급	43~48 학급	49학급 이상			
2014	농어촌	45.3	29.0	10.0	6.5	6.8	1.7	0.5	0.3			
	도시	2.1	6.0	13.6	20.1	40.9	9.9	5.3	2.1			

자료: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상임

2304> 학생 수별 학교 수

▶ 농어촌의 학생 수별 학교 수는 '100명 이하'인 학교 비율이 가장 높음

2013년 기준, 학생 수별 학교 분포를 보았을 때 농어촌에서는 학생 수 '100명 이하'가 53.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반면, 도시에서는 학생 수 '1,001~1,500명'인 학교 비율이 24.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표2304 | 학생 수별 학교 수

(단위 : %)

연도	구분	100명 이하	101~ 200명	201~ 400명	401~ 600명	601~ 800명	801~ 1,000명	1,001~ 1,500명	1,501~ 2,000명	2,001~ 3,000명	3,001명 이상
2008	농어촌	47.9	17.9	13.5	7.7	4.6	3.6	4.1	0.6	0.1	0.0
	도시	2.1	1.8	5.2	10.2	14.0	17.4	37.4	10.5	1.3	0.0
2009	농어촌	49.1	16.9	13.5	7.7	4.8	3.5	4.0	0.4	0.0	0.0
	도시	2.3	1.9	5.6	10.8	15.9	18.4	35.5	8.8	0.9	0.0
2010	농어촌	50.5	16.2	13.1	7.8	4.7	3.6	3.9	0.3	0.0	0.0
	도시	2.3	2.2	6.0	12.1	17.5	18.6	33.7	7.0	0.6	0.0
2011	농어촌	51.5	15.6	12.9	7.7	4.8	3.6	3.7	0.2	0.0	0.0
	도시	2.5	2.3	7.2	13.6	18.4	19.9	30.2	5.6	0.4	0.0
2012	농어촌	52.4	14.8	13.2	7.4	4.6	4.1	3.3	0.1	0.0	0.0
	도시	2.4	2.7	8.7	15.4	20.3	19.8	26.9	4.2	0.2	0.0
2013	농어촌	53.5	14.0	13.6	7.6	4.8	3.5	3.0	0.1	0.0	0.0
	도시	2.6	2.8	9.2	17.1	21.4	19.7	24.0	3.1	0.1	0.0

자료 :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주 : 1) 초, 중, 고등학교 대상임

2) 농어촌은 '읍면지역+도서지역', 도시는 '특별/광역시+시'를 합한 수치임

2305> 소규모학교 비율

▶ 농어촌의 소규모학교 비율은 초등학교 65.9%, 중학교 49.8%, 고등학교 14.9%

2013년 기준, 농어촌의 소규모학교(학생 수 100인 이하) 비율은 53.5%이며, ‘초등학교’가 65.9%, ‘중학교’ 49.8%, ‘고등학교’ 14.9%로 도시에 비해 매우 높았다. 특히, 농어촌의 초등학교, 중학교 가운데에는 소규모학교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였다.

표2305 소규모학교 비율		(단위 : %)			
연도	구분		소규모학교(100인 이하) 비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08	농어촌	47.9	57.2	46.3	15.1
	도시	2.1	3.8	0.7	0.3
2009	농어촌	49.1	58.7	48.0	14.6
	도시	2.3	4.1	0.9	0.2
2010	농어촌	50.5	60.2	49.2	16.2
	도시	2.3	4.0	0.9	0.3
2011	농어촌	51.5	62.1	49.4	16.0
	도시	2.5	4.4	0.8	0.4
2012	농어촌	52.4	64.1	49.4	15.1
	도시	2.4	4.3	0.8	0.3
2013	농어촌	53.5	65.9	49.8	14.9
	도시	2.6	4.5	1.1	0.3

자료 :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주 : 농어촌은 '읍면지역+도서지역', 도시는 '특별/광역시+시'를 합한 수치임

2306 > 복식학교 비율

▶ 농어촌의 복식학교 비율은 13.2%

2013년 기준, 농어촌의 전체 초등학교 2,513개 중 복식학교 비율은 13.2%로, 이 가운데 ‘2개 학년’ 복식학교 비율이 94.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시에서는 복식학교 비율이 0.9%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2306 | 복식학교 비율

(단위 : 개, %)

연도	구분	초등 학교	복식학급 학교 수						복식 학교 비율
				2개 학년	3개 학년	4개 학년	5개 학년	6개 학년	
2008	농어촌	2,609	364	362	2	—	—	—	14.0
	도시	3,204	47	23	10	10	3	1	1.5
2009	농어촌	2,573	386	381	1	3	1	—	15.0
	도시	3,256	34	24	4	3	2	1	1.0
2010	농어촌	2,566	382	379	3	—	—	—	14.9
	도시	3,288	36	24	6	3	3	—	1.1
2011	농어촌	2,550	368	355	6	1	—	6	14.4
	도시	3,332	27	19	3	3	1	1	0.8
2012	농어촌	2,531	335	320	2	3	—	10	13.2
	도시	3,364	24	16	5	2	—	1	0.7
2013	농어촌	2,513	332	314	2	1	1	14	13.2
	도시	3,400	30	17	6	2	1	4	0.9

자료 :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조사

주 : 1) 복식학급은 초등학교만 있음

2) 농어촌은 ‘읍면지역+도서지역’, 도시는 ‘특별/광역시+시’를 합한 수치임

2307 > 교원 수

▶ 농어촌의 교원 수는 88,571명

2015년 기준, 농어촌의 교원 수는 88,571명으로, 2014년 대비 증가(+352명)한 가운데, 중학교 교원 수는 2014년 대비 약간 감소(-66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의 교원 수는 340,333명으로 2014년 대비 감소(-1,957명)한 가운데, 고등학교 교원 수는 증가(+280명) 했다.

| 표2307 | 교원 수 (단위 : 명)

연도	구분	교원 수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08	농어촌	83,688	41,228	21,881	20,579
	도시	320,108	130,962	86,819	102,327
2009	농어촌	83,748	41,223	21,753	20,772
	도시	325,469	133,845	87,322	104,302
2010	농어촌	84,422	41,674	21,700	21,048
	도시	327,536	135,080	87,081	105,375
2011	농어촌	86,136	42,468	22,046	21,622
	도시	336,228	138,155	88,612	109,461
2012	농어촌	87,000	42,639	22,225	22,136
	도시	338,392	138,796	88,779	110,817
2013	농어촌	86,872	42,155	22,457	22,260
	도시	340,817	139,430	90,233	111,154
2014	농어촌	88,219	42,656	22,949	22,614
	도시	342,290	140,016	90,400	111,874
2015	농어촌	88,571	42,843	22,883	22,845
	도시	340,333	139,815	88,364	112,154

자료 :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주 : 농어촌은 '읍면지역+도서지역', 도시는 '특별/광역시+시'를 합한 수치임

2308> 연령별 교원 수

▶ 농어촌 학교의 연령별 교원 수는 30대가 29.6%로 가장 많음

2015년 기준, 농어촌 교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대'가 29.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40대'(26.2%), '50대'(25.4%)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 역시 '30대' 교원 비율이 33.7%로 가장 많았으며, '40대'(27.1%), '50대'(23.8%)의 순이었다.

| 표2308 | 연령별 교원 수

(단위 : 명, %)

연도	구분	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교원 수	비율	교원 수	비율	교원 수	비율	교원 수	비율	교원 수	비율
2008	농어촌	83,688	13,617	16.3	20,878	24.9	20,501	34.1	18,433	22.0	2,259	2.7
	도시	320,108	54,187	16.9	100,257	31.3	100,383	31.4	58,095	18.1	7,186	2.2
2009	농어촌	83,748	14,412	17.2	20,737	24.8	28,537	34.1	17,779	21.2	2,283	2.7
	도시	325,469	54,141	16.6	103,410	31.8	101,487	31.2	59,637	18.3	6,794	2.1
2010	농어촌	84,422	14,243	16.9	21,294	25.2	28,270	33.5	18,219	21.6	2,396	2.8
	도시	327,536	51,086	15.6	105,824	32.3	100,166	30.6	63,006	19.2	7,454	2.3
2011	농어촌	86,136	14,453	16.8	22,345	25.9	27,534	32.0	19,240	22.3	2,564	3.0
	도시	336,228	50,321	15.0	111,401	33.1	97,931	29.1	68,821	20.5	7,754	2.3
2012	농어촌	87,000	14,407	16.6	23,624	27.2	26,273	30.2	20,133	23.1	2,563	2.9
	도시	338,392	48,577	14.4	113,373	33.5	95,140	28.1	73,518	21.7	7,784	2.3
2013	농어촌	86,872	14,038	16.2	24,309	28.0	24,460	28.2	21,332	24.6	2,733	3.1
	도시	340,817	47,105	13.8	115,152	33.8	92,949	27.3	76,962	22.6	8,649	2.5
2014	농어촌	88,219	14,075	16.0	25,369	28.8	23,919	27.1	22,088	25.0	2,768	3.1
	도시	342,290	45,305	13.2	115,054	33.6	92,257	27.0	80,729	23.6	8,945	2.6
2015	농어촌	88,571	14,125	15.9	26,239	29.6	23,223	26.2	22,496	25.4	2,488	2.8
	도시	340,333	44,961	13.2	114,710	33.7	92,154	27.1	80,973	23.8	7,535	2.2

자료 :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주 : 농어촌은 '읍면지역+도서지역', 도시는 '특별/광역시+시'를 합한 수치임

2309> 사무직원 수

▶ 농어촌의 초·중·고교 사무직원 수는 16,634명, 학교 당 3.8명

2015년 기준, 농어촌의 초·중·고등학교 전체 사무직원수는 16,634명, 학교 당 3.8명으로 연도별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한편 도시의 학교 당 사무직원수는 학교당 4.8명으로 농어촌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2309 | 사무직원 수 (단위: 명)

연도	구분	사무직원 수				학교 당 사무직원 수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2008	농어촌	17,490	10,398	3,989	3,103	3.9	4.0	3.2	4.6
	도시	33,284	15,106	7,993	10,185	5.1	4.7	4.4	6.7
2009	농어촌	17,252	10,222	3,948	3,082	3.8	4.0	3.2	4.6
	도시	33,360	15,082	8,079	10,199	5.0	4.6	4.3	6.6
2010	농어촌	17,304	10,290	3,897	3,117	3.9	4.0	3.1	4.6
	도시	33,794	15,229	8,162	10,403	5.0	4.6	4.3	6.6
2011	농어촌	17,114	10,175	3,825	3,114	3.8	4.0	3.1	4.5
	도시	33,851	15,260	8,121	10,470	4.9	4.6	4.2	6.6
2012	농어촌	17,218	10,240	3,844	3,134	3.9	4.0	3.1	4.5
	도시	34,291	15,499	8,217	10,575	5.0	4.6	4.3	6.6
2013	농어촌	16,870	10,021	3,792	3,057	3.8	4.0	3.1	4.4
	도시	33,889	15,244	8,078	10,567	4.9	4.5	4.2	6.5
2014	농어촌	17,031	10,136	3,806	3,089	3.9	4.0	3.1	4.5
	도시	34,339	15,589	8,099	10,651	4.9	4.6	4.1	6.5
2015	농어촌	16,634	9,884	3,706	3,044	3.8	3.9	3.0	4.4
	도시	34,094	15,588	7,913	10,593	4.8	4.5	4.0	6.4

자료 :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조사
주 : 농어촌은 '읍면지역+도서지역', 도시는 '특별/광역시+시'를 합한 수치임

2310> 사서교사 배치율

▶ 농어촌 학교의 사서교사 배치율은 2.5%로 도시(8.0%)의 약 1/3수준

2013년 기준, 농어촌 학교의 사서교사 배치율은 2.5%로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도시(8.0%)의 약 1/3수준이었다.

| 표2310 | 사서교사 배치율

(단위 : %)

연도	구분	사서교사 배치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08	농어촌	2.7	2.5	2.0	4.9
	도시	7.9	4.5	5.8	17.8
2009	농어촌	2.7	2.6	2.0	4.6
	도시	7.9	4.5	5.8	17.6
2010	농어촌	2.9	2.8	2.1	4.8
	도시	8.1	4.7	5.5	18.5
2011	농어촌	3.0	2.8	2.3	4.8
	도시	8.3	4.7	6.1	18.5
2012	농어촌	2.9	2.7	2.6	4.3
	도시	8.0	4.7	5.7	17.8
2013	농어촌	2.5	2.5	2.1	3.2
	도시	8.0	4.8	6.0	17.1

자료 :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조사

주 : 1) 사서교사배치율(%)=사서교사 배치 학교수x100/전체학교수

2) 농어촌은 '읍면지역+도서지역', 도시는 '특별/광역시+시'를 합한 수치임

3)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상임

2311 > 보건교사 배치율

▶ 농어촌 학교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38.0%로 도시(80.7%)의 약 1/2수준

2013년 기준, 농어촌 학교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38.0%로, 초등학교에서 가장 높은 비율(48.1%)을 보인 반면, 중학교에서 가장 낮은 비율(16.8%)을 나타냈다. 도시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80.7%로 농어촌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 표2311 | 보건교사 배치율 (단위 : %)

연도	구분	보건교사 배치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08	농어촌	38.7	50.1	16.1	35.7
	도시	82.0	90.1	71.5	77.6
2009	농어촌	37.7	49.0	15.7	35.3
	도시	81.7	89.5	72.0	77.1
2010	농어촌	38.1	49.7	15.7	35.1
	도시	80.7	88.8	72.0	74.3
2011	농어촌	38.1	48.7	16.6	37.6
	도시	81.7	88.0	73.4	78.5
2012	농어촌	38.2	48.4	16.6	39.4
	도시	81.9	87.8	73.4	79.7
2013	농어촌	38.0	48.1	16.8	39.0
	도시	80.7	86.7	72.4	78.0
2014	농어촌	38.4	47.7	17.6	41.6
	도시	81.1	86.9	72.6	79.1

자료 :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조사
 주 : 1) 보건교사배치율(%)=보건교사 배치 학교수x100/전체학교수
 2) 농어촌은 '읍면지역+도서지역', 도시는 '특별/광역시+시'를 합한 수치임
 3)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상임

2312> 고등학교 기숙사 보유율

▶ 농어촌 고등학교의 기숙사 보유율은 76.6%

2013년 농어촌 고등학교의 기숙사 보유율은 76.6%로 2008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도시(36.9%)에 비해서는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2312 | 고등학교 기숙사 보유율

(단위 : 개, %)

연도	구분	고등학교	기숙사 보유 고등학교	
			보유 학교수	보유율
2008	농어촌	677	528	78.0
	도시	1,513	520	34.4
2009	농어촌	677	532	78.6
	도시	1,548	523	33.8
2010	농어촌	684	503	73.5
	도시	1,569	528	33.7
2011	농어촌	687	515	75.0
	도시	1,595	560	35.1
2012	농어촌	690	537	77.8
	도시	1,613	581	36.0
2013	농어촌	689	528	76.6
	도시	1,633	603	36.9

자료 :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조사

주 : 농어촌은 '읍면지역+도서지역', 도시는 '특별/광역시+시'를 합한 수치임

2313> 학교 컴퓨터 보급률

▶ 농어촌 학교의 컴퓨터 1대 당 학생 수는 2.4명

2013년 기준, 농어촌 학교의 컴퓨터 1대 당 학생 수는 2.4명으로 점차 보급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도시 4.4명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었다.

| 표2313 | 학교 컴퓨터 보급률 (단위: 명)

연도	구분		컴퓨터 1대 당 학생 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08	농어촌	3.0	3.4	3.0	2.4
	도시	5.6	6.5	6.2	4.1
2009	농어촌	2.9	3.2	2.9	2.5
	도시	5.4	6.0	6.1	4.2
2010	농어촌	2.4	2.9	1.8	2.5
	도시	5.2	5.6	5.9	4.2
2011	농어촌	2.7	2.7	2.8	2.4
	도시	4.9	5.2	5.7	4.0
2012	농어촌	2.5	2.6	2.7	2.4
	도시	4.7	4.9	5.6	4.0
2013	농어촌	2.4	2.4	2.5	2.3
	도시	4.4	4.5	5.2	3.8

자료 :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주 : 농어촌은 '읍면지역+도서지역', 도시는 '특별/광역시+시'를 합한 수치임

2314 > 방과 후 학교 참여율

▶ 농어촌의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은 41.5%

2014년 기준, 농어촌의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은 41.5%로 나타났으며, 농어촌이 대도시(53.8%) 및 중소도시(45.1%)에 비해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이 낮았다.

표2314 방과 후 학교 참여율		(단위 : %)
연도	구분	참여율
2007	농어촌	40.8
	대도시	38.1
	중소도시	37.5
2008	농어촌	37.9
	대도시	40.6
	중소도시	37.0
2009	농어촌	38.0
	대도시	45.9
	중소도시	42.0
2010	농어촌	42.1
	대도시	51.3
	중소도시	45.8
2011	농어촌	43.3
	대도시	54.1
	중소도시	45.5
2012	농어촌	37.7
	대도시	48.0
	중소도시	42.1
2013	농어촌	40.6
	대도시	52.9
	중소도시	44.7
2014	농어촌	41.5
	대도시	53.8
	중소도시	45.1
2015	농어촌	41.0
	대도시	50.9
	중소도시	44.7

자료 : 각 연도 사교육비조사

2315 학교급별 방과 후 학교 참여율

▶ 전국의 학교급별 방과 후 학교 참여 비율은 48.2%

2014년 기준, 전국의 학교급별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은 48.2%로, 고등학교(61.4%)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초등학교(52.2%), 중학교(27.8%) 순이었다.

| 표2315 | 학교급별 방과 후 학교 참여율 (단위 : %)

구분		학교급별 참여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고
2007	38.2	35.5	22.1	61.9	70.0
2008	38.7	33.8	26.5	61.2	70.2
2009	43.1	37.2	30.6	66.2	76.8
2010	47.6	39.8	38.1	70.1	80.8
2011	48.8	44.6	36.4	67.8	77.7
2012	44.1	42.4	29.3	61.0	70.1
2013	47.6	49.2	29.3	62.7	69.7
2014	48.2	52.2	27.8	61.4	68.5
2015	46.8	50.8	26.7	58.6	65.3

자료 : 각 연도 사교육비조사

2316> 통학수단

▶ 농어촌의 12세 이상 학생들의 통학수단은 '도보(37.1%)'가 가장 많고, ' 시내·좌석·마을버스'(29.3%), '승용·소형승합차'(13.9%) 순

2010년 기준, 농어촌의 12세 이상 학생들의 주된 통학수단으로는 '도보'가 37.1%로 가장 높은 가운데, 다음으로 ' 시내·좌석·마을버스'(29.3%), '승용·소형승합차'(13.9%), '통근·통학버스'(9.1%) 순이었다. 농어촌이 도시에 비해 ' 시내·좌석·마을버스', '승용·승합차' 및 '통근·통학버스' 이용률이 높은 반면, '도보' 및 '전철·지하철'은 낮게 나타났다.

| 표2316 | 통학수단

(단위: %)

연도	구분	승용 소형 승합 차	시내 좌석 마을 버스	통근 통학 버스	고속 시외 버스	전철· 지하 철	기차	택시	자전 거	도보	기타	복합 수단
2005	농어촌	11.1	35.4	8.3	2.6	0.3	0.3	0.1	2.1	37.5	0.7	1.6
	남자	12.0	34.0	8.0	2.4	0.3	0.3	0.1	3.3	37.4	0.7	1.3
	여자	10.1	37.1	8.7	2.7	0.3	0.3	0.1	0.6	37.6	0.6	1.9
	도시	5.5	29.5	5.9	1.0	7.6	0.2	0.1	1.2	45.1	0.1	3.9
	남자	6.1	28.1	5.7	1.0	7.1	0.2	0.1	2.2	45.8	0.2	3.6
	여자	4.8	31.0	6.2	1.0	8.1	0.2	0.1	0.2	44.2	0.0	4.2
2010	농어촌	13.9	29.3	9.1	1.8	0.8	0.3	0.2	2.1	37.1	0.7	4.8
	남자	14.2	28.6	8.8	1.7	0.7	0.3	0.1	3.4	37.0	0.8	4.3
	여자	13.5	30.1	9.6	1.8	0.9	0.3	0.2	0.5	37.2	0.5	5.4
	도시	6.2	26.8	6.7	0.9	6.2	0.1	0.2	1.7	43.2	0.3	7.6
	남자	6.6	25.7	6.4	0.9	5.9	0.1	0.2	3.0	43.9	0.4	6.9
	여자	5.8	28.1	7.1	0.9	6.4	0.1	0.2	0.3	42.6	0.1	8.4

자료: 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2317> 결혼가정 아동 비율

▶ 농어촌의 결혼가정 아동 비율은 7.7%로 도시(7.5%)와 비슷한 수준

2010년 기준, 농어촌의 전체 12세 이하 아동 대비 결혼가정 아동 비율은 7.7%인 가운데, 한부모 가정 아동은 5.7%, 조손 가정 아동은 2.0%로 나타났다. 한부모 가정 아동 비율이 도시에 서 더 높은 반면, 조손 가정 아동 비율은 농어촌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 표2317 | 결혼가정 아동 비율 (단위 : %)

연도	구분	결혼가정(한부모, 조손) 아동 비율		
			한부모	조손
2005	농어촌	6.7	4.8	1.9
	도시	6.7	6.2	0.5
2010	농어촌	7.7	5.7	2.0
	도시	7.5	6.7	0.8

자료 : 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주 : 12세 이하 인구 대상

2318> 학업성취도 등급별 비율

▶ 농어촌의 학생의 학업성취도 우수학력 비율은 도시에 비해 낮은 편

2014년 기준, 고등학교 2학년의 국어, 수학, 영어 우수학력 비율을 보면 각각 농어촌이 29.8%, 17.5%, 24.9%로 대도시 및 중소도시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중학교 3학년의 학업성취도를 비교했을 때에도 우수학력 비율이 대도시, 중소도시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 표2318 - (1) | 학업성취도 등급별 비율 - 초등학교 6학년

(단위: %)

연도	성취수준	국어				수학				영어			
		우수 학력	보통 학력	기초 학력	기초 학력 미달	우수 학력	보통 학력	기초 학력	기초 학력 미달	우수 학력	보통 학력	기초 학력	기초 학력 미달
2006	농어촌	15.3	47.5	30.7	6.5	16.8	58.1	23.2	1.9	44.1	23.1	27.6	5.2
	대도시	19.9	51.5	25.2	3.5	27.3	56.0	15.6	1.1	61.2	19.2	17.0	2.6
	중소도시	20.2	51.2	25.2	3.3	24.1	58.3	16.4	1.2	61.4	19.3	16.8	2.5
2009	농어촌	32.9	45.3	19.2	2.6	19.1	65.2	14.1	1.6	60.2	19.4	18.3	2.1
	대도시	36.3	44.8	16.9	2.0	29.4	59.5	10.0	1.1	72.9	13.4	12.1	1.6
	중소도시	35.2	44.7	17.7	2.4	24.9	62.3	11.5	1.3	69.2	14.9	13.9	2.0
2010	농어촌	40.7	37.0	21.0	1.3	22.8	51.6	24.3	1.2	58.9	20.8	18.2	2.1
	대도시	42.3	36.4	20.0	1.3	28.6	48.8	21.4	1.2	68.5	15.9	13.5	2.1
	중소도시	43.6	35.7	19.5	1.2	25.9	50.1	22.8	1.2	66.4	16.8	14.7	2.1
2011	농어촌	37.6	44.3	17.5	0.6	18.5	59.9	20.7	0.9	65.1	21.3	13.0	0.6
	대도시	42.7	40.8	15.8	0.7	23.7	57.5	17.7	1.1	74.1	15.4	9.7	0.7
	중소도시	40.1	42.6	16.6	0.6	20.3	59.2	19.5	1.0	70.6	17.4	11.3	0.8
2012	농어촌	49.1	33.9	16.5	0.5	34.0	43.3	21.9	0.9	66.8	21.6	10.9	0.8
	대도시	55.8	30.5	13.2	0.5	43.1	39.0	17.0	0.9	78.0	13.8	7.5	0.7
	중소도시	50.6	33.2	15.6	0.6	37.0	41.6	20.4	1.0	72.9	16.5	9.7	0.9

자료 : 각 연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연구)

*2013년부터는 초등학교 6학년은 평가에서 제외됨

| 표2318 - (2) | 학업성취도 등급별 비율 - 중학교 3학년

(단위 : %)

연도	성취수준	국어				수학				영어			
		우수 학력	보통 학력	기초 학력	기초 학력 미달	우수 학력	보통 학력	기초 학력	기초 학력 미달	우수 학력	보통 학력	기초 학력	기초 학력 미달
2006	농어촌	7.4	40.5	43.0	9.1	11.6	29.1	48.9	10.4	10.5	36.4	46.6	6.5
	대도시	11.9	44.3	36.4	7.4	20.1	34.1	39.7	6.1	23.7	36.3	35.4	4.6
	중소도시	11.0	45.3	36.6	7.0	18.3	33.9	41.0	6.8	19.9	37.9	37.5	4.7
2009	농어촌	13.4	50.3	31.1	5.2	14.1	33.1	39.8	13.0	16.0	47.6	60.1	6.2
	대도시	17.7	51.9	25.8	4.6	23.1	35.2	31.3	10.4	28.9	44.2	22.2	4.7
	중소도시	17.8	52.0	25.7	4.5	22.0	35.0	32.4	10.6	26.4	45.3	23.4	4.9
2010	농어촌	19.2	50.8	26.7	3.2	14.5	37.9	41.0	6.6	15.8	44.6	34.7	4.9
	대도시	24.3	49.8	22.8	3.1	23.6	37.9	32.8	5.8	28.7	41.7	25.9	3.7
	중소도시	23.2	49.8	23.7	3.3	21.8	37.5	34.5	6.2	24.9	42.6	28.6	3.9
2011	농어촌	26.3	52.5	19.7	1.5	12.8	44.0	38.6	4.6	21.3	42.5	34.7	1.5
	대도시	32.2	49.9	16.5	1.4	23.1	43.8	29.3	3.8	35.9	37.3	25.5	1.2
	중소도시	31.4	50.0	17.2	1.4	20.6	44.1	31.3	4.0	31.9	38.4	28.4	1.4
2012	농어촌	26.5	55.0	17.4	1.0	9.5	49.6	36.9	3.9	16.8	50.5	30.2	2.4
	대도시	33.1	51.7	14.1	1.0	19.5	50.3	27.1	3.1	32.2	44.4	21.3	2.0
	중소도시	30.6	52.6	15.6	1.1	16.1	49.8	30.3	3.7	27.1	45.8	24.6	2.3
2013	농어촌	24.9	59.7	14.5	1.1	6.8	52.4	35.5	5.3	17.1	53.2	26.4	3.3
	대도시	32.5	54.7	11.6	1.2	15.7	53.8	25.9	4.6	32.5	45.0	19.5	3.1
	중소도시	29.3	56.5	13.0	1.3	12.4	53.4	28.8	5.5	27.4	46.7	22.3	3.6
2014	농어촌	20.4	65.2	12.6	1.9	6.8	51.2	35.5	6.5	18.0	51.0	27.5	3.4
	대도시	29.0	58.8	10.0	2.1	15.5	54.6	24.7	5.2	35.2	42.5	19.1	3.2
	중소도시	26.0	61.3	10.8	2.0	12.2	54.2	27.7	6.0	29.5	45.4	21.7	3.5

자료 : 각 연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연구)

| 표2318 - (3) | 학업성취도 등급별 비율 - 고등학교 2학년

(단위 : %)

연도	성취수준	국어				수학				영어			
		우수 학력	보통 학력	기초 학력	기초 학력 미달	우수 학력	보통 학력	기초 학력	기초 학력 미달	우수 학력	보통 학력	기초 학력	기초 학력 미달
2006	농어촌	9.1	43.4	41.7	5.8	7.2	30.7	47.6	14.6	4.5	32.7	56.0	6.8
	대도시	18.3	46.3	31.4	4.0	15.0	38.5	36.8	9.6	12.8	40.6	42.5	4.2
	중소도시	20.9	44.9	29.8	4.4	16.6	37.3	35.9	10.2	14.0	39.9	41.0	5.2
2010	농어촌	23.8	43.5	28.3	4.4	16.5	45.6	31.2	6.7	17.8	32.5	44.6	5.1
	대도시	34.0	42.5	19.4	4.1	27.5	47.7	20.7	4.0	30.0	36.8	29.6	3.6
	중소도시	32.5	43.9	20.0	3.7	24.6	49.7	21.7	4.0	27.2	37.6	31.8	3.4
2011	농어촌	25.2	55.0	17.7	2.1	15.8	59.3	19.5	5.4	21.6	55.2	18.4	4.7
	대도시	34.6	51.3	12.1	2.0	25.8	56.3	13.8	4.2	35.8	49.0	11.9	3.3
	중소도시	33.1	52.4	12.6	1.9	21.6	59.3	14.8	4.3	31.8	51.4	13.1	3.7
2012	농어촌	24.6	56.5	17.4	1.5	19.0	59.3	17.1	4.6	25.0	55.9	16.3	2.8
	대도시	31.5	53.1	13.3	2.0	27.2	55.4	13.3	4.1	37.0	49.0	11.6	2.3
	중소도시	28.9	54.0	14.9	2.2	22.8	57.3	15.4	4.6	31.4	51.8	14.0	2.7
2013	농어촌	27.1	54.5	15.9	2.5	17.5	66.4	11.5	4.6	25.5	56.8	14.7	3.0
	대도시	33.2	51.3	12.7	2.8	25.1	61.4	9.3	4.2	36.7	49.9	10.9	2.5
	중소도시	29.9	53.6	13.7	2.7	20.0	64.4	10.8	4.8	31.5	52.9	12.8	2.8
2014	농어촌	29.8	55.6	13.5	1.1	17.5	65.8	10.8	5.9	24.9	57.6	11.5	6.1
	대도시	35.9	51.2	11.4	1.5	25.7	60.0	9.3	4.9	36.9	49.2	8.3	5.6
	중소도시	32.5	53.7	12.6	1.2	19.2	64.3	10.8	5.7	30.6	53.2	10.0	6.2

자료 : 각 연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연구)

*2006년 : 고등학교 1학년

2319> 학교 진학률(초→중, 중→고)

▶ 중학교 및 고등학교 진학률은 농어촌과 도시 모두 거의 100% 수준

2014년 기준, 농어촌의 학교진학률은 중학교 100.0%, 고등학교 99.7%로, 도시와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

표2319 학교 진학률		(단위 : %)	
연도	구분	중학교 진학률(초→중)	고등학교 진학률(중→고)
2008	농어촌	99.9	98.8
	도시	99.9	98.8
2009	농어촌	99.9	99.0
	도시	99.9	98.6
2010	농어촌	99.9	98.8
	도시	99.8	98.1
2011	농어촌	99.9	97.9
	도시	99.9	98.2
2012	농어촌	99.9	98.9
	도시	99.9	98.7
2013	농어촌	99.9	99.0
	도시	99.9	98.9
2014	농어촌	100.0	99.7
	도시	100.0	99.7

자료 :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주 : 농어촌은 '읍면지역+도서지역', 도시는 '특별/광역시+시'를 합한 수치임

2320 > 학업중단 비율

▶ 농어촌의 학업중단 비율은 초등학교 0.3%, 중학교 0.6%, 고등학교 2.1%

2014년 기준, 농어촌의 초·중학교 학업중단 비율은 각각 0.3%, 0.6%로 도시 0.6%, 0.9%에 비해 낮았다. 반면, 농어촌의 고등학교 학업중단 비율은 2.1%로 도시 1.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 표2320 | 학업중단 비율

(단위 : 명, %)

연도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수	학업 중단 학생	학업 중단 비율	학생 수	학업 중단 학생	학업 중단 비율	학생 수	학업 중단 학생	학업 중단 비율
2008	농어촌	609,385	2,159	0.4	282,418	1,914	0.7	252,747	6,714	2.7
	도시	3,062,822	18,291	0.6	1,756,193	18,187	1.0	1,654,231	26,229	1.6
2009	농어촌	570,718	1,820	0.3	277,997	1,882	0.7	260,341	7,196	2.8
	도시	2,903,677	15,824	0.5	1,728,975	17,793	1.0	1,705,451	27,754	1.6
2010	농어촌	545,841	1,115	0.2	277,955	1,686	0.6	263,835	7,353	2.8
	도시	2,753,253	10,519	0.4	1,696,843	14,050	0.8	1,698,521	27,187	1.6
2011	농어촌	521,695	1,496	0.3	275,042	2,016	0.7	263,992	7,775	2.9
	도시	2,610,782	17,340	0.7	1,635,530	16,850	1.0	1,679,806	31,112	1.9
2012	농어촌	496,997	1,697	0.3	273,273	1,907	0.7	268,126	7,315	2.7
	도시	2,454,998	17,466	0.7	1,575,821	15,904	1.0	1,651,961	30,076	1.8
2013	농어촌	463,026	1,375	0.3	263,333	1,781	0.7	267,959	6,724	2.5
	도시	2,320,974	15,453	0.7	1,540,856	14,645	1.0	1,625,344	28,210	1.7
2014	농어촌	460,649	1,446	0.3	255,014	1,531	0.6	265,550	5,664	2.1
	도시	2,267,860	14,462	0.6	1,462,897	12,747	0.9	1,573,822	24,718	1.6

자료 :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주 : 농어촌은 '읍면지역+도시지역', 도시는 '특별/광역시+시'를 합한 수치임

2321 > 대학(교) 진학률

▶ 농어촌의 대학(교) 진학률은 72.9%로 도시(69.7%)에 비해 약간 높음

2013년 기준, 농어촌 고등학교 졸업자는 84,850명이며, 이 중 72.9%가 대학(교)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에 비해 진학률이 감소한 가운데, 도시(69.7%)에 비해 대학(교) 진학률이 약간 높았다.

| 표2321 | 대학(교) 진학률 (단위 : 명, %)

연도	구분	고등학교 졸업자	진학자			대학(교)진학률			
			국내대학	국내 전문대학	국외대학		국내 대학	국내 전문 대학	국외 대학
2008	농어촌	76,446	37,915	26,668	264	84.8	49.6	70.3	1.0
	도시	505,475	303,546	115,998	1,222	83.2	60.1	38.2	1.1
2009	농어촌	74,708	37,008	26,342	272	85.2	49.5	71.2	1.0
	도시	501,590	281,706	122,942	1,458	81.0	56.2	43.6	1.2
2010	농어촌	82,011	39,772	28,289	340	83.4	48.5	71.1	1.2
	도시	551,528	298,665	127,707	1,489	77.6	54.2	42.8	1.2
2011	농어촌	84,007	36,076	28,052	315	76.7	42.9	77.8	1.1
	도시	564,461	261,064	139,334	1,459	71.2	46.3	53.4	1.0
2012	농어촌	83,048	34,714	26,598	274	74.2	41.8	76.6	1.0
	도시	553,676	254,738	132,920	1,082	70.2	46.0	52.2	0.8
2013	농어촌	84,850	36,053	25,512	265	72.9	42.5	70.8	1.0
	도시	546,347	254,266	125,893	870	69.7	46.5	49.5	0.7

자료 :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조사
주 : 1) 국내대학에는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진학자가 포함되어 있고 국외대학은 국외 4년제 대학교, 전문대 포함
2) 농어촌은 '읍면지역+도서지역', 도시는 '특별/광역시+시'를 합한 수치임

2322> 특수교육자 진학률 및 취업률

▶ 농어촌의 특수교육자 진학률 및 취업률은 각 43.3%, 8.2%

2013년 기준, 농어촌의 특수교육자(장애인)의 진학률은 43.3%로 도시(43.6%)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농어촌 특수교육자의 취업률은 8.2%로 도시(14.6%)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 표2322 | 특수교육자 진학률 및 취업률 (단위: %)

연도	구분	진학률			취업률		
			남	여		남	여
2008	농어촌	55.9	58.3	51.9	12.1	12.6	11.3
	도시	46.5	46.9	45.7	20.5	20.0	21.6
2009	농어촌	57.0	54.3	62.2	13.3	12.8	14.3
	도시	49.6	48.3	52.0	20.2	20.9	18.7
2010	농어촌	58.3	57.3	60.4	9.9	11.3	7.2
	도시	45.4	45.0	46.3	17.8	18.8	15.7
2011	농어촌	33.3	33.6	32.8	8.7	9.9	6.1
	도시	29.2	27.5	32.3	15.9	16.0	15.9
2012	농어촌	28.8	29.1	28.5	10.2	9.1	12.0
	도시	29.6	28.6	31.7	17.0	16.5	18.0
2013	농어촌	43.3	45.0	40.0	8.2	8.1	8.3
	도시	43.6	44.6	41.6	14.6	15.1	13.5

자료 :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조사

주 : 1) 대학(교)진학률을 의미함

2) 농어촌은 '읍면지역+도서지역', 도시는 '특별/광역시+시'를 합한 수치임

2323>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 농어촌의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16.0만원

2015년 기준, 농어촌의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16.0만원이며, 사교육 참여율은 57.7%로 나타났다. 농어촌의 사교육비는 모든 학교급에서 대도시, 중소도시에 비해 적게 나타난 가운데, 특히 고등학교에서 차이가 컸다. 농어촌의 사교육 참여율도 대도시(71.0%), 중소도시(70.0%)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 표2323 - (1) |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단위 : 만원, %)

연도	구분	학교급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사교육 참여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고			
2007	농어촌	12.1	13.2	13.1	7.9	7.8	66.4
	대도시	24.6	24.7	26.2	22.7	28.0	79.6
	중소도시	22.8	23.9	23.3	19.7	23.0	77.5
2008	농어촌	12.5	13.9	13.3	8.4	8.3	64.0
	대도시	25.5	26.0	26.8	23.3	28.1	77.6
	중소도시	24.2	25.9	24.3	21.0	24.8	75.8
2009	농어촌	15.6	18.0	17.7	8.1	11.1	67.3
	대도시	26.9	26.3	27.3	27.3	32.2	76.6
	중소도시	24.5	25.4	27.4	19.9	24.3	76.0
2010	농어촌	16.0	19.1	16.9	8.4	11.3	65.4
	대도시	26.6	25.7	27.1	27.4	31.9	75.5
	중소도시	24.4	25.6	26.7	19.9	23.9	74.7

자료 : 각 연도 사교육비조사

| 표2323 - (2) |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단위 : 만원, %)

연도	구분	학교급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사교육 참여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고			
2011	농어촌	16.0	18.6	17.8	8.6	11.0	64.0
	대도시	26.6	25.3	27.9	27.2	31.7	73.8
	중소도시	24.3	25.1	27.2	20.1	23.6	72.4
2012	농어촌	15.0	16.3	18.7	9.1	11.3	58.0
	대도시	26.3	23.6	29.7	27.1	31.7	71.9
	중소도시	23.4	21.7	28.3	21.5	25.0	70.3
2013	농어촌	14.7	16.5	16.5	10.3	12.3	57.5
	대도시	27.1	24.6	29.9	28.2	33.3	71.4
	중소도시	23.8	24.1	27.1	20.3	23.5	70.2
2014	농어촌	15.6	16.7	17.8	11.7	14.0	59.2
	대도시	27.3	25.3	29.6	28.2	33.1	70.5
	중소도시	24.1	23.6	27.7	21.5	24.9	70.1
2015	농어촌	16.0	16.8	19.8	12.1	14.8	57.7
	대도시	27.5	25.1	29.9	28.9	34.0	71.0
	중소도시	24.0	23.0	27.5	22.3	25.6	70.0

자료 : 각 연도 사교육비조사

2324> 교육비 부담에 대한 인식

▶ 농어촌의 62.0%가 교육비에 대해 ‘부담스럽다’고 느끼고 있음

2014년 기준, 농어촌의 교육비 부담에 대한 인식은 ‘부담스럽다’가 62.0%로 높게 나타난 가운데, ‘보통’은 26.8%, ‘부담스럽지 않다’는 11.2%였다. 농어촌에서 교육비가 부담된다는 비율이 2012년에 비해 감소한 가운데, 도시(70.4%)에 비해서도 낮게 나타났다.

표2324 교육비 부담에 대한 인식		(단위 : %)						
연도	구분	부담스럽다			보통	부담스럽지 않다		
			매우	약간			별로	전혀
2008	농어촌	75.9	37.9	38.0	18.6	5.6	5.0	0.6
	도시	80.5	40.1	40.4	15.0	4.4	3.9	0.5
2010	농어촌	76.6	34.6	42.0	17.6	5.8	5.1	0.7
	도시	78.7	37.9	40.8	16.4	4.9	4.2	0.7
2012	농어촌	68.6	29.4	39.2	22.1	9.2	7.2	2.0
	도시	73.7	31.9	41.8	20.8	5.4	4.5	0.9
2014	농어촌	62.0	24.3	37.7	26.8	11.2	9.6	1.6
	도시	70.4	27.4	43.0	22.5	7.0	5.6	1.4

자료 : 각 연도 사회조사
주 : 30세 이상 가구주 대상

2325> 도서관 현황

▶ 농어촌의 도서관 수는 177개, 도서관 당 종사자 수는 5.7명

2013년 기준, 농어촌의 도서관 수는 177개로 도시의 약 1/7 수준이었으며, 농어촌 도서관 당 종사자 수는 5.7명으로, 도시 8.0명에 비해 적었다.

표2325 도서관 현황		(단위 : 개, 명)		
연도	구분	도서관 수	종사자	도서관 당 종사자 수
2007	농어촌	142	920	6.5
	도시	583	8217	14.1
2013	농어촌	177	1,006	5.7
	도시	1,287	10,275	8.0

자료 : 각 연도 전국사업체조사

주 : 1) 도서관에 기록보존소 포함

2) 도시, 농어촌 구분 기준은 시부, 군부임

2326> 자기계발을 위한 평생교육 경험

▶ 농어촌의 자기계발을 위한 평생교육 참여율은 35.2%

2015년 기준, 농어촌의 자기계발을 위한 평생교육 참여율은 35.2%로, 대도시(41.9%) 및 중소도시(41.1%)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표2326 | 자기계발을 위한 평생교육 경험

(단위 : %)

연도	구분	전체 참여율			
			형식교육	비형식교육	
				직업관련	
2007	농어촌	31.7	4.2	28.3	13.9
	대도시	29.4	7.5	25.3	9.2
	중소도시	29.3	3.9	26.9	10.7
2009	농어촌	26.4	3.1	24.4	11.8
	대도시	27.6	5.5	24.2	13.3
	중소도시	29.2	3.2	27.2	16.8
2010	농어촌	30.8	3.1	29.8	19.3
	대도시	28.1	4.2	25.6	12.8
	중소도시	33.6	3.7	31.2	16.4
2011	농어촌	25.7	2.1	24.5	13.9
	대도시	35.0	5.6	32.0	16.6
	중소도시	31.8	3.3	30.1	16.3
2012	농어촌	26.6	0.4	26.2	13.4
	대도시	37.3	4.3	34.2	14.3
	중소도시	37.3	3.8	34.8	17.8
2013	농어촌	30.6	1.7	29.9	19.3
	대도시	30.7	4.6	28.1	16.1
	중소도시	29.6	3.8	27.3	15.6
2014	농어촌	37.3	1.9	36.2	28.0
	대도시	34.9	3.2	33.4	23.0
	중소도시	38.9	3.5	37.2	27.4
2015	농어촌	35.2	2.8	33.7	25.7
	대도시	41.9	4.4	40.0	27.3
	중소도시	41.1	2.8	40.2	29.1

자료 :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

주 : 1) 전체참여율은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형식교육, 비형식교육 하나라도 참여한 경우임

2) 형식교육이란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졸업장이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교육

3) 비형식교육이란 강좌형태로 기관에 등록하여 참여하거나 개인과외, 스터디클럽 형태로 참여한 교육을 의미

※대도시: 서울 및 광역시

2400> 문화여가 부문

2401> 주요 여가활동

2402> 공연장 및 전시장 관람

2403> 문화·예술시설 공간 수

2404> 지역별 문화이용권(바우처) 이용현황

2405> 지역별 문화·예술교육 및
동호회 참여현황

2401 > 주요 여가활동

▶ 농어촌의 주요 여가활동은 'TV 및 DVD 시청(45.2%)'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2015년 기준, 농어촌의 주요 여가활동으로는 'TV 및 DVD 시청'이 45.2%로 가장 많았으며, '휴식'(19.2%), '사회 및 기타활동'(8.3%) 순으로 나타났다. 농어촌의 여가 활동 중 'TV 및 DVD 시청'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대부분의 여가활동에서 비율이 낮으나 'TV 및 DVD 시청', '휴식' 비율은 약간 높게 나타났다.

| 표2401 - (1) | 주요 여가활동

(단위: %)

연도	구분	TV 및 DVD 시청	여행	문화·예술 관람	스포츠 관람	스포츠 활동	컴퓨터 게임	창작적 취미	자기 개발	봉사 활동	종교 활동	가사 일	휴식	사회 관련 일	기타
2007	농어촌	29.1	4.2	1.1	0.4	3.6	4.5	1.0	1.6	0.3	9.2	16.8	18.4	9.2	0.5
	도시	27.4	5.3	2.4	0.6	5.0	6.5	1.1	3.2	0.2	10.5	13.1	15.4	8.9	0.5
2009	농어촌	30.0	4.6	1.4	0.4	3.8	4.9	1.1	1.8	0.3	8.0	19.2	14.4	8.9	1.2
	도시	30.1	5.4	2.8	1.0	5.7	6.2	1.0	3.4	0.4	10.0	13.0	12.5	8.2	0.6
2011	농어촌	36.4	3.3	2.0	0.6	4.3	4.7	1.3	1.5	0.4	8.1	16.4	12.9	7.1	1.1
	도시	36.1	4.3	3.5	1.2	5.5	6.4	1.5	2.8	0.2	9.4	12.5	9.5	6.5	0.5
2013	농어촌	35.6	4.7	2.3	0.6	4.6	3.7	1.2	1.5	0.2	8.9	15.4	13.0	7.1	1.2
	도시	34.2	5.9	3.6	0.8	5.3	5.8	1.3	2.8	0.3	8.6	12.4	10.9	7.6	0.6

자료: 각 연도 사회조사

주: 2006년, 2009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1년, 2013년, 2015년 - 13세 이상 인구 대상

| 표2401 - (2) | 주요 여가활동

(단위: %)

연도	구분	TV 및 DVD 시청	문화 예술 관람	문화 예술 참여	스포츠 관람	스포츠 활동	관광 활동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등	취미·자기 개발 활동	휴식	사회 및 기타 활동	기타
2015	농어촌	45.2	3.8	0.7	1.0	5.4	4.2	5.2	5.7	19.2	8.3	1.3
	도시	42.0	5.4	0.9	1.2	7.7	4.9	6.8	6.7	16.2	6.8	1.3

자료: 각 연도 사회조사

주: 2006년, 2009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1년, 2013년, 2015년 - 13세 이상 인구 대상

2402> 공연장 및 전시장 관람

▶ 농어촌의 1년간 공연장 및 전시장 관람 경험률은 53.0%, 횟수는 평균 7.2회

2015년 기준, 농어촌의 지난 1년간 공연장 및 전시장 관람 경험률은 53.0%, 평균 관람 횟수는 7.2회로 나타난 가운데, 유형별로는 ‘공연장’ 관람 경험률(30.2%)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도시에 비해 관람 경험률 및 평균 관람 횟수가 낮았다.

| 표2402 | 공연장 및 전시장 관람

(단위 : %, 회)

연도	구분	관람함								관람 하지 않음
				공연장 이용		전시장 이용		스포츠 관람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2007	농어촌	42.8	5.1	79.0	4.8	38.8	2.4	15.0	3.0	57.2
	도시	56.8	7.3	88.1	6.3	36.2	2.9	19.0	3.4	43.2
2009	농어촌	38.4	6.0	84.3	5.4	33.2	2.6	17.8	3.3	61.6
	도시	58.7	7.7	90.2	6.6	32.4	3.0	20.9	3.5	41.3
2011	농어촌	42.7	7.0	30.3	3.2	21.8	2.4	20.4	4.1	57.3
	도시	62.1	8.6	34.2	3.4	23.8	2.5	24.9	4.2	37.9
2013	농어촌	45.9	7.7	30.7	3.7	22.3	2.6	19.5	3.9	54.1
	도시	67.1	9.0	34.0	3.7	22.7	2.6	22.4	4.1	32.9
2015	농어촌	53.0	7.2	30.2	3.1	21.0	2.5	18.1	4.1	47.0
	도시	63.6	8.6	33.7	3.4	23.2	2.6	21.6	3.9	36.4

자료 : 각 연도 사회조사

주 : 1) 2008년, 2010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2년 - 13세 이상 인구 대상

2) 2011년 이후, ‘음악연주회’, ‘연극·마당극·뮤지컬’, ‘무용’, ‘영화’를 ‘공연장’에 포함, ‘박물관’, ‘미술관’을 ‘전시장’에 포함

2403> 문화·예술시설 공간 수

▶ 농어촌의 문화·예술시설 공간 수는 690개로 도시(2,951)의 약 1/4 수준

2011년 기준, 농어촌의 문화·예술시설 공간 수는 총 690개로, 지역 문화복지 시설(299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시의 문화·예술시설 공간 수는 총 2,951개로 공연시설(1,647개)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 표2403 | 문화·예술시설 공간 수

(단위 : 개소)

연도	구분	총계	공연시설				전시시설		
				공공 공연장	민간 공연장	영화 상영장		미술관	화랑
2006	농어촌	715	96	69	6	21	57	41	16
	도시	2,728	1,415	296	235	884	363	125	238
2009	농어촌	690	101	72	10	19	55	52	3
	도시	2,951	1,647	342	246	1,059	387	129	258

연도	구분		지역 문화·복지 시설				기타시설
			시군 구민회관	복지회관	청소년 회관	다목적 체육 이용시설	소계
2006	농어촌	426	53	316	57	0	136
	도시	744	72	461	178	33	206
2009	농어촌	393	43	283	67	-	141
	도시	701	84	454	163	-	216

자료 : 각 연도 시도 통계연보

주 : 도시, 농어촌 구분 기준은 시부, 군부임

2404> 지역별 문화이용권(바우처) 이용현황

▶ 농어촌의 문화이용권 이용층은 1.1%

2014년 기준, 문화이용권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층이 1.1%로 매우 낮게 나타난 가운데,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문화이용권 이용층도 각 0.6%, 0.5%로 농어촌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표2404 지역별 문화이용권(바우처) 이용현황				(단위 : %)
연도	구분	이용한 적이 있다	이용한 적이 없다	
2012	농어촌	1.2	98.8	
	대도시	1.6	98.4	
	중소도시	1.7	98.3	
2014	농어촌	1.1	98.9	
	대도시	0.6	99.4	
	중소도시	0.5	99.5	

자료 : 각 연도별 문화향수실태조사

2405> 지역별 문화·예술교육 및 동호회 참여현황

▶ 농어촌의 문화·예술교육 참여율은 6.9%, 문화 관련 동아리 참여율은 4.8%

2014년 기준, 농어촌에서 대중음악교육(4.4%), '영화교육'(3.6%)에 대한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운데, 문화·예술교육 전체에 대한 참여율은 12.0%로 대도시(7.1%), 중소도시(9.0%)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농어촌의 문화 동아리 중 '역사문화유산'(6.3%) 동아리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가운데, 농어촌의 전체 동아리 참여율은 1.8%로 대도시(0.5%), 중소도시(1.0%)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 표2405 - (1) | 지역별 문화·예술교육 참여현황

(단위 : %)

연도	구분	전체	문학 교육	미술 교육	서양 음악 교육	전통 예술 교육	무용 교육	연극 교육	뮤지컬 교육	영화 교육	대중 음악 교육	역사 문화 유산 교육
2012	농어촌	12.0	2.3	2.3	2.9	1.4	0.9	0.7	1.2	3.6	4.4	1.7
	대도시	7.1	2.1	2.0	0.9	0.5	0.5	1.0	0.8	2.1	1.3	1.1
	중소도시	9.0	2.3	2.4	1.7	1.1	0.8	0.7	0.2	1.3	0.8	1.1
2014	농어촌	6.9	1.9	1.9	0.9	0.6	0.3	0.7	0.8	1.4	1.1	1.0
	대도시	6.9	2.2	1.7	1.1	0.6	0.4	0.4	0.2	1.0	0.6	1.7
	중소도시	7.0	2.1	2.1	2.3	0.6	0.5	0.5	0.3	1.6	0.9	1.2

자료: 각 년도별 문화향수실태조사

| 표2405 - (2) | 지역별 문화 동아리 참여현황

(단위 : %)

연도	구분	전체	문학	미술	서양 음악	전통 예술	무용	연극	뮤지컬	영화	대중 음악	역사 문화 유산
2012	농어촌	1.8	0.7	0.6	0.6	0.4	0.5	0.4	2.2	1.0	1.1	6.3
	대도시	0.5	0.6	0.2	0.4	0.1	0.3	0.2	0.5	0.4	0.3	2.7
	중소도시	1.0	0.7	0.9	0.6	0.4	0.3	0.0	0.2	0.6	0.3	4.3
2014	농어촌	4.8	0.8	0.9	0.6	0.8	0.1	0.2	0.3	1.4	0.5	0.7
	대도시	4.4	1.1	1.1	0.6	0.4	0.5	0.6	0.1	1.0	0.4	0.4
	중소도시	3.8	0.9	0.7	0.7	0.5	0.3	0.5	0.1	1.0	0.8	0.4

자료: 각 년도별 문화향수실태조사

2500> 기초생활 여건/

환경·경관 부문

- 2501> 주택 건축년도별 현황
- 2502> 주택 종류 및 점유형태
- 2503> 주택의 시설 현황
- 2504> 주택(규모, 시설)만족도
- 2505> 상수도 보급률
- 2506> 하수도 보급률
- 2507> 도로 포장률
- 2508>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만족도
- 2509> 컴퓨터 보유 및 인터넷 설치 여부
- 2510> 인터넷 이용 목적
- 2511>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 2512> 환경오염 체감 정도

2501 > 주택 건축년도별 현황

▶ 농어촌의 주택 건축년도는 '1995~2004년'에 지은 비율이 35.0%

2010년 기준, 농어촌의 주택 건축년도별 현황을 보면 '1995~2004년'이 35.0%로 가장 높은 가운데, 다음으로 '1980~1994년'(27.1%), '1979년 이전'(20.7%) 순이었다. '1979년 이전'에 지은 주택 비중이 도시(6.6%)에 비해 농어촌에서 높은 반면, 1980년~2004년에 지어진 주택 비율은 도시에서 더욱 높았다.

| 표2501 - (1) | 주택 건축년도별 현황(2005) (단위 : %)

연도	구분	계	2000~2005년	1990~1999년	1980~1989년	1979년 이전
2005	농어촌	100.0	19.9	40.3	15.3	24.5
	도시	100.0	22.7	47.3	20.9	9.1

자료 : 2005 인구주택총조사

| 표2501 - (2) | 주택 건축년도별 현황(2010) (단위 : %)

연도	구분	계	2005~2010년	1995~2004년	1980~94년	1979년 이전
2010	농어촌	100.0	17.3	35.0	27.1	20.7
	도시	100.0	15.2	39.9	38.3	6.6

자료 : 2010 인구주택총조사

2502> 주택 종류 및 점유형태

▶ '자가'(70.8%) 비중이 매우 높은 가운데, 주거유형은 '단독주택'(63.1%), '아파트'(30.2%) 순

2010년 기준, 농어촌의 주거형태로는 '단독주택'(63.1%)이 가장 많았으며, '아파트'(30.2%), '연립주택'(3.0%), '다세대주택'(2.4%) 등의 순이었다. 반면, 도시의 경우, '아파트'(52.4%), '단독주택'(34.9%), '다세대주택'(8.5%)의 순이었다.

농어촌의 주택 점유형태로는 '자가'(70.8%)가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도시에서는 '자가'(51.2%), '전세'(24.3%), '보증금 있는 월세'(19.5%) 순이었다.

| 표2502 - (1) | 주거형태 (단위 : %)

연도	구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2005	농어촌	68.4	24.3	3.2	2.1	2.0
	도시	39.3	46.8	3.4	8.8	1.7
2010	농어촌	63.1	30.2	3.0	2.4	1.3
	도시	34.9	52.4	2.9	8.5	1.2

자료 : 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 표2502 - (2) | 점유형태 (단위 : %)

연도	구분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무상
2005	농어촌	71.9	10.2	8.1	2.2	2.1	5.5
	도시	52.2	25.3	16.4	2.0	1.7	2.4
2010	농어촌	70.8	11.0	9.9	1.9	1.6	4.9
	도시	51.2	24.3	19.5	1.8	1.3	2.0

자료 : 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2503> 주택의 시설 현황

- ▶ 농어촌의 '입식 부엌', '수세식 화장실', '온수 목욕시설' 비중은 90%대로 높은 반면, '상수도'는 69.3%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이 96.5%, '기름보일러'가 43.8%

2010년 기준, 농어촌의 주거시설은 '입식부엌'이 97.3%, '상수도'가 69.3%, '수세식화장실'이 90.3%, '온수목욕시설'이 94.6%로 나타난 가운데, 전반적으로 도시지역(입식부엌 98.9%, 상수도 99.5%, 수세식화장실 98.6%, 온수목욕시설 98.4%)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다.

농어촌의 난방형태로는 '개별난방'이 96.5%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기름보일러'가 43.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반면, 도시의 난방시설로는 '도시가스보일러'(67.8%)가 가장 많았다.

| 표2503 - (1) | 주거시설

(단위 : %)

연도	구분	부엌			수도				화장실			목욕시설		
		입식	재래식	없음	상수도	마을 상수도	자가 수도	수도 없음	수세식	재래식	없음	온수	비온수	없음
2005	농어촌	95.5	4.3	0.2	52.9	22.8	4.0	20.3	80.1	19.7	0.1	90.5	1.1	8.4
	도시	98.6	1.1	0.3	98.4	0.4	0.6	0.7	97.5	2.4	0.1	97.2	0.1	2.6
2010	농어촌	97.3	2.6	0.1	69.3	21.5	0.9	8.3	90.3	9.7	0.0	94.6	2.0	3.4
	도시	98.9	0.9	0.3	99.5	0.2	0.1	0.3	98.6	1.4	0.0	98.4	0.4	1.2

자료 : 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 표2503 - (2) | 난방형태

(단위 : %)

연도	구분	난방방식			개별난방의 난방시설							
		중앙 난방	지역 난방	개별 난방	도시 가스 보일러	기름 보일러	프로판 보일러	전기 보일러	연탄 보일러	연탄 아궁이	재래식 아궁이	기타
2005	농어촌	1.1	1.5	97.4	15.0	57.3	8.5	9.3	3.6	0.6	1.9	1.3
	도시	7.1	10.4	82.5	59.4	17.9	2.4	1.8	0.5	0.1	0.0	0.3
2010	농어촌	0.6	2.9	96.5	24.2	43.8	8.4	12.4	3.8	0.3	1.1	2.4
	도시	5.7	12.4	81.9	67.8	9.3	1.9	2.1	0.5	0.0	0.0	0.2

자료 : 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2504 > 주택 만족도

▶ 농어촌의 주택(규모, 시설) 만족도는 52.2%

2011년 기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한 ‘만족’ 비율은 농어촌에서 52.2%로 ‘불만족’(12.5%)에 비해 높은 가운데, 도시와 비슷한 수준(52.3%)을 나타냈다.

| 표2504 | 주택(규모, 시설) 만족도 (단위: %)

연도	구분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대체로			대체로	매우
2006	농어촌	50.9	12.9	38.0	37.9	11.3	9.4	1.9
	도시	31.5	5.7	25.8	51.5	17.0	13.2	3.8
2011	농어촌	52.2	9.1	43.0	34.2	12.5	10.8	1.7
	도시	52.3	11.3	41.0	36.8	9.7	9.2	0.6

자료 : 각 연도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 조사

2505> 상수도 보급률

▶ 농어촌의 상수도 보급률은 79.1%로 도시(99.5%)에 비해 낮음

2013년 기준, 농어촌의 상수도 보급률은 79.1%로 도시(99.5%)에 비해 낮았다.

표2505 상수도 보급률		(단위 : 명, %)		
연도	구분	총인구	급수인구	상수도 보급률
2006	농어촌	9,539,023	5,677,070	59.5
	도시	40,160,933	39,625,063	98.7
2012	농어촌	9,892,779	7,561,558	72.1
	도시	42,084,490	41,857,340	99.5
2013	농어촌	9,767,113	7,729,999	79.1
	도시	42,464,861	42,263,478	99.5

자료 : 각 연도 상수도통계

주 : 1) 도시는 시가지, 농어촌은 읍면부, 도서지역을 포함함

2) 보급률=(급수인구÷총인구)×100

2506> 하수도 보급률

▶ 농어촌의 하수도 보급률은 58.9%로 특·광역시(98.4%), 중소도시(89.7%)에 비해 낮음

2013년 기준, 농어촌의 하수도 보급률은 58.9%로 특·광역시(98.4%), 중소도시(89.7%)에 비해 낮았다.

표2506 하수도 보급률		(단위 : 명, %)		
연도	구분	총인구	하수처리인구	하수도 보급률
2006	농어촌	4,984,466	2,099,011	42.1
	일반도시	32,325,541	31,386,187	97.1
	도농복합도시	12,314,262	8,964,998	72.8
2012	농어촌	2,293,128	1,394,688	60.8
	특·광역시	23,657,889	23,387,342	98.9
	중소도시	22,350,579	19,784,600	88.5
2013	농어촌	3,977,331	2,343,502	58.9
	특·광역시	24,350,968	23,971,351	98.4
	중소도시	23,799,087	21,357,422	89.7

자료 : 각 연도 하수도통계

주 : 1) 도시, 농어촌 구분 기준은 시부, 군부임

2) 보급률=(급수인구÷총인구)×100

2507> 도로 포장률

▶ 도로 포장률은 84.9%

2015년 기준, 전체적인 도로포장률이 84.9%인 가운데, ‘고속도로’(100.0%), ‘특·광역시’(100.0%), ‘구도’(99.6%), ‘일반국도’(97.9%) 포장률이 매우 높았으며, 다음으로 ‘지방도’(84.5%), ‘시도’(79.7%), ‘군도’(67.2%) 순이었다.

| 표2507 - (1) | 도로 포장률

(단위 : m,%)

연도	구분	총계	포장		미포장	미개통
				도로 포장률		
2007	농어촌	33,536,554	24,634,335	73.5	6,748,259	2,153,940
	특별·광역시	20,469,380	20,100,482	98.2	318,088	50,810
	일반시	31,358,613	22,663,720	72.3	1,101,465	7,593,428
	도농복합시	17,654,413	13,222,920	74.9	2,961,749	1,469,744
2012	총계	105,703	88,183	83.4	8,765	8,755
	고속도로	4,044	4,044	100.0	-	-
	일반국도	13,766	13,432	97.6	57	277
	특·광역시	19,464	19,298	99.1	117	49
	지방도	18,162	15,230	83.9	1,591	1,341
	시도	27,670	21,094	76.2	1,406	5,170
	군도	22,597	15,085	66.8	5,594	1,918
2013	총계	106,414	87,799	82.5	8,620	9,995
	고속도로	4,112	4,112	100.0	-	-
	일반국도	13,843	13,527	97.7	57	259
	특·광역시	4,879	4,821	98.8	20	38
	지방도	18,083	15,243	84.3	1,529	1,311
	시도	28,047	20,352	72.6	1,184	6,511
	군도	22,374	14,741	65.9	5,757	1,876
	구도	15,076	15,003	99.5	73	-

자료 : 각 연도 도로현황조사

| 표2507 - (2) | 도로 포장률

(단위 : km,%)

연도	구분	총계	포장		미포장	미개통
				도로 포장률		
2015	총계	105,673	89,701	84.9	8,218	7,754
	고속도로	4,139	4,139	100.0	-	-
	일반국도	13,950	13,651	97.9	57	242
	특·광시도	4,758	4,758	100.0	-	-
	지방도	18,058	15,251	84.5	1,504	1,303
	시도	27,170	21,650	79.7	1,066	4,454
	군도	22,202	14,921	67.2	5,526	1,755
	구도	15,396	15,331	99.6	65	-

자료 : 각 연도 도로현황조사

2508 >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만족도

▶ 농어촌의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39.0%

2014년 기준, 농어촌의 교통안전시설(신호등, 횡단보도, 표지판, 노면표시 등)에 대해서 ‘만족’하는 비율이 39.0%로 만족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도시(39.1%)와 비슷한 만족도를 보였다.

표2508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만족도 (단위 : %)								
연도	구분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약간			약간	매우
2008	농어촌	24.0	3.4	20.5	52.6	23.5	19.4	4.1
	도시	26.1	3.0	23.1	54.6	19.3	16.8	2.5
2010	농어촌	28.4	5.6	22.8	51.8	19.7	16.8	2.9
	도시	29.4	4.8	24.6	53.3	17.2	15.0	2.2
2012	농어촌	33.5	6.1	27.4	48.0	18.5	15.1	3.4
	도시	32.0	5.6	26.4	53.5	14.4	12.4	2.0
2014	농어촌	39.0	7.4	31.6	45.7	15.3	12.7	2.6
	도시	39.1	6.7	32.4	48.4	12.6	10.6	2.0

자료 : 각 연도 사회조사

주 : 2008년, 2010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2년 - 13세 이상 인구 대상

2509 > 컴퓨터 보유 및 인터넷 설치 여부

▶ 농어촌의 컴퓨터 보유가구 비율은 68.1%로 도시(80.8%)에 비해 낮음

2014년 기준, 농어촌의 컴퓨터 보유가구 비율은 68.1%이며, 보유가구 중 인터넷 접속 가능한 가구는 97.0%였다. 도시(보유율 80.8%, 접속가능률 98.9%)에 비해 보유율 및 접속 가능률 모두 낮게 나타났다.

표2509 | 컴퓨터 보유 및 인터넷 설치 여부

(단위: %)

연도	구분	보유율		계		미보유
				인터넷 접속가능	인터넷 접속 불가능	
2007	농어촌	68.5	100.0	67.3	32.7	31.5
	도시	83.3	100.0	82.8	17.2	16.7
2013	농어촌	70.1	100.0	96.2	3.8	29.9
	도시	83.3	100.0	98.6	1.4	16.7
2014	농어촌	68.1	100.0	97.0	3.0	31.9
	도시	80.8	100.0	98.9	1.1	19.2
2015	농어촌	68.0	100.0	97.2	2.8	32.0
	도시	79.4	100.0	99.2	0.8	20.6

자료: 각 연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2510> 인터넷 이용 목적

▶ 농어촌의 인터넷 이용 목적 중 '자료 및 정보 획득'(88.2%) 비중이 가장 높음

2013년 기준, 농어촌의 인터넷 이용 목적(복수 응답)은 '자료 및 정보 획득'이 88.2%로 가장 높은 가운데, 다음으로 '여가활동'(81.4%), '커뮤니케이션'(79.3%) 순이었다. 도시에서도 유사한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인터넷 금융'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경향이였다.

| 표2510 | 인터넷 이용 목적

(단위: %)

연도	구분	자료 및 정보 획득	여가 활동	커뮤니 케이션	인터넷 구매 및 판매	인터넷 금융	홈 페이지 운영	교육 학습	커뮤 니티	SW 다운/ 업그레 이드	구직 활동	파일 공유 서비스	기타
2007	농어촌	85.9	86.9	80.2	44.9	26.1	37.4	41.2	30.1	9.7	1.4	-	6.1
	도시	87.8	85.9	83.5	51.4	35.5	40.7	49.1	37.6	11.3	3.9	-	13.2
2010	농어촌	91.6	88.9	85.6	56.8	31.5	43.9	43.0	41.9	7.4	10.1	26.1	13.2
	도시	91.6	89.1	88.9	57.9	39.6	45.6	55.2	49.0	10.1	12.0	22.2	17.9
2011	농어촌	92.0	88.0	85.2	57.7	31.1	43.3	41.9	40.6	7.4	9.7	25.1	1.2
	도시	92.0	87.9	88.4	58.6	39.3	44.5	52.2	46.3	9.9	11.5	21.5	0.6
2012	농어촌	92.3	87.3	84.4	56.8	31.1	42.3	40.4	39.3	8.4	9.2	24.1	1.8
	도시	92.3	87.5	87.8	57.9	40.0	43.8	50.3	45.0	10.7	11.5	21.0	0.9
2013	농어촌	88.2	81.4	79.3	40.0	33.2	35.3	18.0	11.4	13.0	8.0	7.8	1.7
	도시	91.9	87.3	86.7	47.5	43.4	37.5	19.2	18.7	12.3	9.5	7.2	2.0
2014	농어촌	88.0	78.7	84.8	50.7	-	16.9	31.8	-	16.9	9.1	9.1	-
	도시	91.7	79.9	90.8	60.2	-	13.4	30.9	-	13.4	10.3	8.5	-

연도	구분	커뮤니 케이션	자료 및 정보 획득	여가 활동	홈페이지 운영	교육 학습	직업· 직장	기타
2015	농어촌	86.8	85.9	82.8	41.1	32.8	13.1	46.6
	도시	92.4	90.1	86.8	44.6	34.4	14.6	56.5

자료: 각 연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주: 2014년 '거래활동' 인터넷구매 및 판매, '콘텐츠 생성' 홈페이지 운영으로 구분

2511 >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 농어촌에서 '식량안보'(27.8%)에 대해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반면, 불안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범죄위험'(62.6%), '정보보안'(57.2%), '교통사고'(56.1%)에서 크게 나타남

2014년 기준, 농어촌에서는 '식량안보'(27.8%)에 대해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반면, '범죄위험'(62.6%), '정보보안'(57.2%), '교통사고'(56.1%)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도시에서도 유사한 경향이였다. 단, 대부분의 영역에서 '안전'하다는 인식이 도시에 비해 농어촌에서 더 높았으나, '신종 전염병'에 대해서는 도시에서 더욱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2511 - (1) |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 건축물 및 시설물/교통사고 (단위 : %)

연도	구분	건축물 및 시설물			교통사고		
		안전	보통	불안	안전	보통	불안
2008	농어촌	16.6	52.6	30.8	5.1	32.1	62.9
	도시	18.1	51.9	30.0	5.8	33.4	60.8
2010	농어촌	22.6	55.4	22.1	8.2	41.1	50.7
	도시	23.7	54.5	21.9	7.0	38.9	54.1
2012	농어촌	27.4	51.4	21.2	10.0	36.0	54.0
	도시	26.0	52.8	21.3	9.3	40.1	50.7
2014	농어촌	13.7	36.4	49.9	7.5	36.3	56.1
	도시	11.7	36.8	51.6	7.3	36.6	56.2

자료 : 각 연도 사회조사

주 : 2008년, 2010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2년 - 13세 이상 인구 대상

| 표2511 - (2) |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 국가안보/범죄위험 (단위 : %)

연도	구분	국가안보			범죄위험		
		안전	보통	불안	안전	보통	불안
2008	농어촌	22.0	41.7	36.2	-	-	-
	도시	25.2	43.1	31.6	-	-	-
2010	농어촌	13.5	31.1	55.4	8.8	28.1	63.2
	도시	15.3	32.9	51.9	8.0	28.7	63.2
2012	농어촌	23.1	36.8	40.1	9.2	25.5	65.3
	도시	21.8	38.9	39.4	9.1	27.0	63.9
2014	농어촌	15.8	33.3	51.0	9.6	27.7	62.6
	도시	14.8	33.4	51.8	8.7	26.3	65.0

자료 : 각 연도 사회조사

주 : 2008년, 2010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2년 - 13세 이상 인구 대상

| 표2511 - (3) |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 식량안보/신종 전염병

(단위 : %)

연도	구분	식량안보			신종 전염병		
		안전	보통	불안	안전	보통	불안
2008	농어촌	4.4	30.2	65.5	-	-	-
	도시	4.3	26.5	69.3	-	-	-
2010	농어촌	34.1	45.0	20.9	8.8	32.1	59.0
	도시	35.0	45.9	19.0	10.6	36.4	53.0
2012	농어촌	31.0	45.9	23.1	13.2	39.2	47.6
	도시	29.9	45.4	24.6	12.9	39.7	47.4
2014	농어촌	27.8	46.6	25.6	9.0	35.5	55.4
	도시	24.5	47.1	28.4	9.4	35.5	55.0

자료 : 각 연도 사회조사

주 : 2008년, 2010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2년 - 13세 이상 인구 대상

| 표2511 - (4) |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 정보보안/태풍·지진 등 자연재해

(단위 : %)

연도	구분	정보보안			태풍·지진 등 자연재해		
		안전	보통	불안	안전	보통	불안
2008	농어촌	5.4	36.8	57.8	13.1	37.4	49.5
	도시	4.6	28.6	66.7	18.3	43.9	37.8
2010	농어촌	14.4	46.5	39.1	16.2	42.2	41.6
	도시	13.3	41.7	45.1	19.4	46.1	34.5
2012	농어촌	13.6	44.4	42.0	21.9	41.3	36.7
	도시	12.2	38.4	49.3	23.5	46.1	30.3
2014	농어촌	8.4	34.3	57.2	15.4	38.7	45.9
	도시	7.2	28.8	64.0	15.0	41.1	43.9

자료 : 각 연도 사회조사

주 : 2008년, 2010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2년 - 13세 이상 인구 대상

| 표2511 - (5) |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 화재·산불/전반적인 사회 안전

(단위 : %)

연도	구분	화재·산불			전반적인 사회 안전		
		안전	보통	불안	안전	보통	불안
2008	농어촌	8.3	44.6	47.0	7.2	39.1	53.7
	도시	10.2	48.8	40.9	8.5	40.7	50.9
2010	농어촌	15.7	51.0	33.3	10.6	47.2	42.1
	도시	16.8	56.0	27.2	11.4	50.9	37.6
2012	농어촌	18.0	49.4	32.6	14.1	47.3	38.5
	도시	17.7	55.1	27.2	13.7	49.3	37.1
2014	농어촌	15.5	50.0	34.4	10.6	41.8	47.6
	도시	13.9	51.6	34.5	9.3	39.1	51.6

자료 : 각 연도 사회조사

주 : 2008년, 2010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2년 - 13세 이상 인구 대상

2512> 환경오염 체감정도

▶ 농어촌의 환경오염 체감정도는 '보통'으로 느끼는 인식이 높음

2014년 기준, 농어촌의 환경오염에 대한 체감정도는 '보통'이라는 인식이 가장 높은 가운데, '녹지 등 주위환경 개선'(55.2%)에서 긍정적인 인식이 가장 높았다. 전반적으로 '나빠졌다'는 부정적인 인식 비율이 과거에 비해 높아지고 있으며, 도시에 비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 표2512 - (1) | 환경오염 체감정도 - 대기오염 (단위 : %)

연도	구분	좋아짐			보통	나빠짐		
			매우	약간			약간	매우
2008	농어촌	7.3	1.0	6.3	54.9	37.8	33.4	4.4
	도시	9.7	0.7	9.0	50.9	39.4	33.9	5.4
2010	농어촌	60.5	24.0	36.5	30.5	9.1	8.1	1.0
	도시	30.5	6.3	24.2	46.0	23.5	19.9	3.6
2012	농어촌	67.4	32.4	35.0	24.7	7.9	6.7	1.2
	도시	34.3	8.0	26.3	47.1	18.7	15.9	2.8
2014	농어촌	11.2	1.5	9.7	74.7	14.2	12.1	2.1
	도시	13.0	3.6	9.4	76.9	10.1	9.3	0.8

자료 : 각 연도 사회조사

주 : 2008년, 2010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2년 - 13세 이상 인구 대상

| 표2512 - (2) | 환경오염 체감정도 - 수질오염 (단위 : %)

연도	구분	좋아짐			보통	나빠짐		
			매우	약간			약간	매우
2008	농어촌	7.2	0.9	6.3	54.3	38.5	33.2	5.3
	도시	11.2	0.8	10.4	59.0	29.8	25.7	4.1
2010	농어촌	54.2	18.8	35.4	35.8	9.9	8.8	1.1
	도시	29.4	4.9	24.5	54.7	15.9	13.8	2.1
2012	농어촌	59.8	25.1	34.7	30.8	9.4	8.1	1.3
	도시	32.0	6.4	25.6	55.6	12.4	10.8	1.6
2014	농어촌	12.9	3.4	9.5	76.8	10.3	9.6	0.7
	도시	10.9	1.5	9.4	80.9	8.2	7.1	1.1

자료 : 각 연도 사회조사

주 : 2008년, 2010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2년 - 13세 이상 인구 대상

| 표2512 - (3) | 환경오염 체감정도 - 토양오염

(단위 : %)

연도	구분	좋아짐			보통	나빠짐		
			매우	약간			약간	매우
2008	농어촌	6.1	0.8	5.2	53.4	40.6	34.9	5.7
	도시	9.4	0.7	8.7	56.1	34.5	29.6	4.9
2010	농어촌	48.0	14.9	33.1	38.1	13.9	12.5	1.4
	도시	26.5	4.3	22.2	52.5	21.1	18.1	3.0
2012	농어촌	54.8	21.9	32.9	34.3	10.9	9.6	1.3
	도시	29.1	5.7	23.4	53.9	17.1	14.5	2.6
2014	농어촌	11.4	3.2	8.2	75.7	13.0	12.0	1.0
	도시	10.3	1.4	8.9	78.3	11.3	9.8	1.5

자료 : 각 연도 사회조사

주 : 2008년, 2010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2년 - 13세 이상 인구 대상

| 표2512 - (4) | 환경오염 체감정도 - 소음공해

(단위 : %)

연도	구분	좋아짐			보통	나빠짐		
			매우	약간			약간	매우
2008	농어촌	5.8	0.9	4.9	52.1	42.1	34.2	7.9
	도시	7.5	0.6	6.9	44.7	47.8	38.6	9.2
2010	농어촌	46.8	17.1	29.7	33.3	19.9	15.9	4.0
	도시	23.1	4.3	18.8	40.9	36.1	27.9	8.2
2012	농어촌	52.8	23.3	29.5	29.3	17.8	14.3	3.5
	도시	23.9	5.4	18.5	41.6	34.5	26.6	7.9
2014	농어촌	10.1	2.8	7.3	72.6	17.3	14.6	2.7
	도시	8.4	1.2	7.2	71.2	20.4	16.8	3.6

자료 : 각 연도 사회조사

주 : 2008년, 2010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2년 - 13세 이상 인구 대상

| 표2512 - (5) | 환경오염 체감정도 - 녹지 등 주위환경 개선

(단위 : %)

연도	구분	좋아짐			보통	나빠짐		
			매우	약간			약간	매우
2008	농어촌	6.9	1.0	5.9	54.0	39.2	30.5	8.6
	도시	15.3	1.6	13.7	51.3	33.4	27.1	6.3
2010	농어촌	60.8	25.3	35.5	31.6	7.5	6.6	0.9
	도시	37.8	9.1	28.7	42.9	19.2	14.8	4.4
2012	농어촌	57.7	25.8	31.9	30.9	11.4	8.8	2.6
	도시	40.9	11.3	29.6	40.7	18.5	14.2	4.3
2014	농어촌	55.2	22.7	32.5	34.7	10.1	7.9	2.2
	도시	38.3	9.8	28.5	43.2	18.5	14.4	4.1

자료 : 각 연도 사회조사

주 : 2008년, 2010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2년 - 13세 이상 인구 대상



2 0 1 5 농 어 업 인 복 지 실 태 조 사

2600> 지역역량 부문

2601> 사회단체 참여율

2602> 마을 홈페이지 구축 비율

2601 > 사회단체 참여율

▶ 농어촌의 사회단체 참여율은 47.9%

2015년 기준, 농어촌의 사회단체 참여율은 47.9%인 가운데 ‘친목 및 사교단체’가 55.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종교 단체’(18.1%), ‘취미, 스포츠 및 레저단체’(11.9%), ‘지역사회모임’(7.1%) 순이었다. 농어촌의 사회단체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가운데, 도시에 비해 ‘지역사회모임’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2601 | 사회단체 참여율

(단위 : %)

연도	구분		참여율									참여 단체 없음
			친목 및 사교 단체	종교 단체	취미, 스포츠 및 레저 단체	시민 사회 단체	학술 단체	이익 단체	정치 단체	지역 사회 모임	기타 단체	
2006	농어촌	41.4	82.7	17.3	20.5	12.9	2.0	2.8	1.1	-	0.3	58.6
	도시	38.2	77.7	22.7	29.6	10.3	4.2	3.5	1.2	-	0.4	61.8
2009	농어촌	41.0	68.1	13.6	9.0	7.2	0.8	0.8	0.2	-	0.3	59.0
	도시	39.5	56.2	21.1	13.1	6.0	2.1	1.1	0.3	-	0.2	60.5
2011	농어촌	47.1	60.3	14.8	10.7	5.6	0.7	0.7	0.2	6.7	0.2	52.9
	도시	46.5	53.1	20.8	16.2	4.9	1.9	0.8	0.3	1.7	0.3	53.5
2013	농어촌	50.2	59.2	15.4	11.5	5.4	0.9	0.5	0.1	6.8	0.3	49.8
	도시	50.1	58.0	18.1	14.7	5.0	1.7	0.7	0.2	1.5	0.2	49.9
2015	농어촌	47.9	55.7	18.1	11.9	5.0	1.3	0.7	0.2	7.1	0.1	52.1
	도시	49.1	55.7	18.4	16.1	4.7	2.1	1.0	0.2	1.7	0.0	50.9

자료 : 각 연도 사회조사

주 : 2006년, 2009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1년, 2013년, 2015년 - 13세 이상 인구 대상

2602> 마을 홈페이지 구축 비율

▶ 2010년 기준, 농어촌 마을 중 홈페이지가 있는 마을은 7.2%

2010년 기준, 농어촌 마을 중 홈페이지가 있는 마을은 7.2%로 2005년 5.4%에 비해 증가하였다.

| 표2602 | 마을 홈페이지 구축 비율

(단위 : 마을, 행정리, %)

구분		총 마을 수	홈페이지가 있는 마을	비율
2005	농어촌	36,041	1,953	5.4
2010	농어촌	36,498	2,613	7.2

자료 : 각 연도 농림어업총조사

2700> 경제활동 부문

2701> 소득 및 가계지출

2702> 부채 규모

2703> 소득 만족도

2704> 소비생활 만족도

2705> 노후준비

2706> 농어업 경영주의 농어업 종사기간

2707> 자동차 보유 여부

2701 > 소득 및 가계지출

▶ 농가의 호당 연평균 소득은 34,950천원, 연평균 가계지출은 30,555천원

2014년 기준, 농가의 호당 연평균 소득은 34,950천원, 어가의 연평균 소득은 41,015천원으로 2007년 대비 어가에서 증가 소득이 다소 더 증가하였다. 한편, 같은 시기에 도시근로자의 연평균 소득은 43,874천원에서 56,815천원으로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농가의 호당 연평균 가계지출은 30,555천원이었으며, 어가는 28,237천원으로 농가에 비해 다소 적은 반면, 도시 근로자는 43,822천원으로 농가에 비해 많았다.

| 표2701 | 소득 및 가계지출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연평균 소득	연평균 가계지출
2007	농가	31,967	28,048
	어가	30,668	22,963
	도시근로자	43,874	33,918
2008	농가	30,523	27,102
	어가	31,176	25,405
	도시근로자	46,807	36,306
2009	농가	30,814	26,574
	어가	33,945	25,188
	도시근로자	46,238	36,440
2010	농가	32,121	27,672
	어가	35,696	26,695
	도시근로자	48,092	38,514
2011	농가	30,148	27,906
	어가	38,623	27,523
	도시근로자	50,983	40,376
2012	농가	31,031	27,490
	어가	37,381	26,625
	도시근로자	53,908	41,937
2013	농가	34,524	30,264
	어가	38,586	28,032
	도시근로자	55,275	42,571
2014	농가	34,950	30,555
	어가	41,015	28,237
	도시근로자	56,815	43,822

자료 : 각 연도 농어가경제조사, 가계동향조사

2702 > 부채 규모

▶ 농가의 호당 평균 부채는 27,878천원, 어가는 41,404천원

2014년 연도말 기준, 농가의 호당 평균 부채는 27,878천원으로 농업용 부채는 11,778천원, 가계용 부채는 7,539천원이었다. 같은 시기 기준, 어가의 호당 평균 부채는 41,404천원으로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는 가운데, 어업용 부채는 21,413천원, 가계용 부채는 10,092천원으로 나타났다.

| 표2702 | 부채 규모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부채		농업, 어업용		가계용	
		연도초	연도말	연도초	연도말	연도초	연도말
2007	농가	28,966	29,946	16,125	16,481	7,263	7,725
	어가	33,920	34,407	16,800	16,690	9,544	10,178
2008	농가	23,920	25,786	12,638	13,600	6,343	6,446
	어가	33,630	33,587	18,581	18,207	9,265	9,484
2009	농가	25,614	26,268	13,040	13,150	6,891	7,086
	어가	35,745	35,864	19,734	19,038	9,701	10,618
2010	농가	27,025	27,210	13,189	12,930	6,857	7,330
	어가	34,177	35,640	18,349	18,277	9,835	10,347
2011	농가	27,509	26,035	12,634	11,892	7,748	7,156
	어가	39,687	37,862	20,035	18,631	11,045	10,816
2012	농가	27,889	27,262	13,022	13,123	7,435	7,030
	어가	40,766	39,518	20,716	20,177	10,544	10,363
2013	농가	26,946	27,363	11,934	11,715	7,504	7,729
	어가	39,470	40,422	20,335	20,689	9,473	10,194
2014	농가		27,878		11,778		7,539
	어가		41,404		21,413		10,092

자료 : 각 연도 농어가경제조사

2703> 소득 만족도

▶ 농어촌에서 소득 '만족' 비율은 10.6%

2015년 기준, 농어촌에서 소득이 있는 사람의 소득 만족도는 '불만족'이 44.5%로 '만족'(10.6%)에 비해 높은 가운데, 도시 주민의 '만족' 비율(11.5%)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 표2703 | 소득 만족도

(단위 : %)

연도	구분		소득 있음							소득 없음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약간	약간		매우			
2007	농어촌	66.2	10.2	1.3	8.9	37.8	52.0	35.9	16.1	33.8
	도시	63.6	10.0	1.1	8.9	36.2	53.8	35.7	18.2	36.4
2009	농어촌	69.9	13.5	1.6	11.9	38.3	48.2	34.9	13.3	30.1
	도시	64.9	14.2	1.5	12.7	39.6	46.2	32.7	13.5	35.1
2011	농어촌	74.0	10.5	1.2	9.3	40.5	48.9	36.3	12.6	26.0
	도시	71.9	12.0	1.5	10.5	38.9	49.1	35.5	13.6	28.1
2013	농어촌	80.3	10.8	1.7	9.1	40.7	48.5	36.0	12.5	19.7
	도시	75.6	12.4	1.5	10.9	38.6	49.1	34.6	14.5	24.4
2015	농어촌	81.1	10.6	1.3	9.3	45.4	44.5	33.8	10.7	18.9
	도시	77.9	11.5	1.6	9.9	41.6	46.8	33.8	13.0	22.1

자료 : 각 연도 사회조사

주 : 2007년, 2009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1년, 2013년, 2015년 - 19세 이상 인구 대상

2704> 소비생활 만족도

▶ 농어촌의 소비생활 '만족' 비율은 12.5%

2015년 기준, 농어촌의 전반적인 소비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불만족'(36.4%)이 '만족'(12.5%)에 비해 높았으며, 도시에 비해 '만족' 비율(14.1%)이 낮게 나타났다.

| 표2704 | 소비생활 만족도

(단위 : %)

연도	구분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약간			약간	매우
2007	농어촌	10.1	1.2	8.9	45.3	44.6	33.2	11.4
	도시	10.2	1.2	9.0	43.2	46.6	33.3	13.3
2009	농어촌	12.2	1.8	10.4	45.6	42.2	33.0	9.2
	도시	14.0	1.8	12.2	46.2	39.8	29.9	9.9
2011	농어촌	10.4	1.2	9.2	49.1	40.5	31.7	8.8
	도시	13.2	1.6	11.6	46.3	40.4	30.0	10.4
2013	농어촌	12.2	1.8	10.4	48.4	39.3	31.3	8.0
	도시	13.9	2.0	11.9	46.4	39.7	29.6	10.1
2015	농어촌	12.5	1.6	10.9	51.1	36.4	28.6	7.8
	도시	14.1	2.0	12.1	47.4	38.4	28.6	9.8

자료 : 각 연도 사회조사

주 : 2007년, 2009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1년, 2013년, 2015년 - 19세 이상 인구 대상

2705> 노후준비

▶ 농어촌의 노후준비율은 64.9%, 주된 노후준비 방법은 '국민연금'(49.6%)

2015년 기준, 농어촌의 노후준비율은 64.9%인 가운데, 노후준비 방법은 '국민연금'(49.6%), '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21.0%) 순이었으며,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비율은 35.1%로 '준비능력이 없음'(51.3%), '앞으로 준비할 계획'(23.8%) 등의 이유로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도시에 비해 농어촌의 노후준비율이 낮게 나타났으며,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 경우 '자녀에게 의탁'하고자 하는 비율이 높았다.

| 표2705 - (1) | 노후준비하고(되어) 있음

(단위 : %)

연도	구분		준비하고(되어)있음						
			국민 연금	기타 공적 연금	사적 연금	퇴직금	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	부동산 운용	기타
2007	농어촌	65.6	39.7	7.9	14.6	2.8	26.1	8.4	0.5
	도시	74.2	41.4	8.0	16.6	3.9	22.5	6.6	1.1
2009	농어촌	64.3	42.9	8.4	16.6	4.0	22.4	5.1	0.6
	도시	77.8	42.6	7.3	18.0	3.8	20.7	6.3	1.2
2011	농어촌	66.4	51.6	7.9	12.3	2.9	18.7	5.3	1.3
	도시	77.9	55.9	7.1	13.7	2.5	14.5	5.3	1.1
2013	농어촌	60.1	49.0	8.2	9.3	4.3	20.8	6.9	1.5
	도시	75.7	53.1	7.8	11.6	4.6	16.9	5.1	0.9
2015	농어촌	64.9	49.6	8.3	9.3	4.4	21.0	6.6	0.7
	도시	74.3	56.1	8.6	8.9	3.8	17.1	4.9	0.6

자료 : 각 연도 사회조사

주 : 1) 2007년, 2009년 - 18세 이상 가구주 대상, 2011년, 2013년, 2015년 - 19세 이상 가구주 대상

2) '준비하고(되어) 있음'에서 기타는 '주식, 채권 등'을 포함

| 표2705 - (2) | 노후준비하고 있지 않음

(단위 : %)

연도	구분		준비하고 있지 않음			
			아직 생각안함	앞으로 준비할 계획	준비능력 없음	자녀에게 의탁
2007	농어촌	34.4	9.3	25.5	42.0	23.1
	도시	25.8	11.6	33.4	43.0	12.0
2009	농어촌	35.7	7.1	19.5	55.5	18.0
	도시	22.2	9.1	27.9	47.3	15.7
2011	농어촌	33.6	8.7	16.4	57.7	17.1
	도시	22.1	10.7	24.8	50.4	14.1
2013	농어촌	39.9	8.4	18.4	49.2	23.9
	도시	24.3	8.9	26.0	49.9	15.1
2015	농어촌	35.1	7.1	23.8	51.3	17.9
	도시	25.7	10.9	26.2	49.5	13.4

자료 : 각 연도 사회조사

주 : 1) 2007년, 2009년 - 18세 이상 가구주 대상, 2011년, 2013년, 2015년 - 19세 이상 가구주 대상

2) '준비하고(되어) 있음'에서 기타는 '주식, 채권 등'을 포함

2706> 농어업 경영주의 농어업 종사기간

▶ 농어촌 농어업 경영주의 농업 및 어업 종사기간은 '20년 이상'이 가장 많음

2010년 기준, 농어촌의 농업 경영주의 농업종사기간은 '20년 이상'이 81.6%로 가장 많았으며, '10~15년'(6.4%), '5~10년'(4.6%), '15~20년'(3.8%)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어촌의 어업 경영주의 어업 종사기간은 '20년 이상'이 75.6%로 가장 많았으며, '10~15년'(9.3%), '15~20년'(6.2%), '5~10년'(5.6%)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에 비해 농어촌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농어업 경영주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표2706 | 농어업 경영주의 농어업 종사기간

(단위 : %)

연도	구분	5년 미만	5~10년	10~15년	15~20년	20년 이상
2005	농가	3.9	5.3	6.2	3.8	80.8
	농어촌	3.0	4.3	5.3	3.5	84.0
	도시	8.7	10.2	10.6	5.6	64.9
	어가	4.2	6.5	9.3	7.2	72.8
	농어촌	3.8	6.1	9.2	7.3	73.6
	도시	5.9	7.9	9.7	6.9	69.7
2010	농가	5.1	6.6	7.8	4.2	76.4
	농어촌	3.7	4.6	6.4	3.8	81.6
	도시	11.1	14.8	14.0	5.9	54.2
	어가	3.7	5.9	9.5	6.3	74.6
	농어촌	3.4	5.6	9.3	6.2	75.6
	도시	5.0	7.5	10.4	6.7	70.5

자료: 각 연도 농림어업총조사

주: 어가는 해수면+내수면을 합한 수치임

2707 > 자동차 보유 여부

▶ 농어촌의 자동차 보유율은 61.2%

2010년 기준, 농어촌의 자동차 보유율은 61.2%로 2005년에 비해 증가했으나, 도시(64.1%)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표2707 자동차 보유 여부						(단위 : %)
연도	구분	자동차 보유율				자동차 미보유율
		1대	2대	3대 이상		
2005	농어촌	55.9	75.7	20.7	3.6	44.1
	도시	62.9	81.4	16.8	1.8	37.2
2010	농어촌	61.2	69.9	25.8	4.3	38.8
	도시	64.1	77.0	20.9	2.2	35.9

자료 : 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부록



2015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전국표본리스트

주요 항목별 타자료 비교

주요 항목별 상대표준오차

주요 용어 정리

2015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표

01 전국 표본리스트

구분	시도	시군	읍/면	리	연차
1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1
2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1
3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1
4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1
5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1
6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1
7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1
8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1
9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2
10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2
11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2
12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	2
13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내리	1
14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내리	1
15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동신리	1
16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신장리	1
17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	2
18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양기리	2
19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칠장리	2
20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두현리	2
21	경기도	양주시	남면	구암리	1
22	경기도	양주시	남면	한산2리	1
23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복지리	1
24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오산리	1
25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삼군리	1
26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심석리	1
27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	1
28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신해리**	1
29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남정리	1
30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지석리	1
31	경기도	이천시	율면	본죽리	1

*, ** 경기도 여주시 여주읍 교리, 홍문리 동승격으로 가남읍 태평리, 신해리로 대체

구분	시도	시군	읍/면	리	연차
32	경기도	이천시	율면	북두리	1
33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어석리	2
34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리	2
35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	2
36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	2
37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가리	2
38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신갈리	2
39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1
40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1
41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갈곡리	1
42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1
43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1
44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1
45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1
46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매화리	1
47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화산리	1
48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화수리	1
49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리	1
50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구교리	1
51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대치리	1
52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
53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예밀2리	1
54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외룡리	2
55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방절리	1
56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팔괴리	1
57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수암리	1
58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평장리	1
59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신평리	1
60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	1
61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1
62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	1
63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1
64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1
65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1
66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1
67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	1

구분	시도	시군	읍/면	리	연차
68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방곡리→수동리*	1
69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울문리	1
70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지내리	1
71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2
72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2
73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진리	1
74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갈마곡리	1
75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외삼포리	1
76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풍천리	1
77	강원도	홍천군	동면	후동리	2
78	강원도	홍천군	동면	속초리	2
79	강원도	홍천군	남면	양덕원리	2
80	강원도	홍천군	남면	남노일리	2
81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용담리	2
82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2
83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	1
84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중초리	1
85	충청북도	보은군	수한면	교암리	1
86	충청북도	보은군	수한면	발산리	1
87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등곡리→부강리**	1
88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리	1
89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1
90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1
91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마산리	1
92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원촌리	1
93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각계리	2
94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심천리	2
95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1
96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1
97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고당리	1
98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화성리	1
99	충청북도	옥천군	안내면	도이리	2
100	충청북도	옥천군	안내면	방하목리	2

* 방곡리 : 강촌테마랜드 인근지역으로 유원지화 되어 수동리로 대체

** 등곡리 : 한센병자 집단 거주지역으로 부강리로 대체

구분	시도	시군	읍/면	리	연차
101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소여리	2
102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	2
103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2
104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2
105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중산리	2
106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송림리	2
107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	만수리	1
108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	정중리→만수리*	1
109	충청북도	청주시	남이면	가마리	1
110	충청북도	청주시	남이면	척산리	1
111	충청북도	청주시	내수읍	마산리	1
112	충청북도	청주시	내수읍	은곡리	1
113	충청북도	청주시	오창읍	창리	1
114	충청북도	청주시	오창읍	각리	1
115	충청북도	청주시	옥산면	오산리	2
116	충청북도	청주시	옥산면	가락리	2
117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사암리	1
118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도촌리	1
119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가신리	1
120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수릉리	1
121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
122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용교리	1
123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1
124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원봉리	1
125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1
126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양지리	1
127	충청남도	당진군	석문면	삼봉리	1
128	충청남도	당진군	석문면	삼화리	1
129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읍	오곡리	1
130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읍	복운리	1
131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궁포리	1
132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낙동리	1
133	충청남도	보령시	청소면	야현리	1
134	충청남도	보령시	청소면	죽림리	1
135	충청남도	서산시	팔봉면	어송리	2
136	충청남도	서산시	팔봉면	호리	2

*청주시 오송읍 정중리 :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조성으로 만수리로 대체

구분	시도	시군	읍/면	리	연차
137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신창리	2
138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갈산리	2
139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신왕리	2
140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2
141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죽림리	2
142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죽림리	2
143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낙상리	1
144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신평리	1
145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방아리	1
14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1
147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간양리	1
148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1
149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북면	전곡리	1
150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북면	상동리	1
151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수신면	장산리	1
152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수신면	해정리	1
153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	2
154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	2
155	충청남도	천안시서북구	성거읍	요방리→천흥리*	1
156	충청남도	천안시서북구	성거읍	신월리	1
157	충청남도	천안시서북구	입장면	산정리	1
158	충청남도	천안시서북구	입장면	용정리	1
159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군량리	2
160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2
161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고남리	1
162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누동리	1
163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신덕리	1
164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1
165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1
166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삭선리	1
167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양기리	1
168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1
169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	1
170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도리리	1

* 외국인 노동자 다수 거주로 대체

구분	시도	시군	읍/면	리	연차
171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1
172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환서리	1
173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녹동리	1
174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1
175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모서리	2
176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2
177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반운리	1
178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옥산리	1
179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내상리	1
180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현문리	1
181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상곡리	1
182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상곡리	1
183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이례리	1
184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1
185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교리	1
186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이문리	1
187	경상북도	구미시	옥성면	구봉리	1
188	경상북도	구미시	옥성면	초곡리	1
189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금소리	1
190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신덕리	1
191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기산리	1
192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1
193	경상북도	안동시	임동면	중평리	2
194	경상북도	안동시	임동면	사월리	2
195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진평리	1
196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포리	1
197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도화리	1
198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만화리	1
199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2
200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백전리	2
201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백송리	2
202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담암리	2
203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호미곶면	강사1리	1
204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호미곶면	대보1리	1
205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연일읍	택전리	2

구분	시도	시군	읍/면	리	연차
206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연일읍	유강리	2
207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대송면	송동리	2
208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대송면	제내리	2
209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동해면	도구리	2
210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동해면	도구리	2
211	경상북도	포항시북구	기계면	문성리	1
212	경상북도	포항시북구	기계면	현내리	1
213	경상북도	포항시북구	흥해읍	마산리	1
214	경상북도	포항시북구	흥해읍	학천리	1
215	경상북도	포항시북구	신광면	우각리	2
216	경상북도	포항시북구	신광면	상읍리	2
217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1
218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1
219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1
220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1
221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	2
222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	2
223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	2
224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궁근정리	2
225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갈곶리	1
226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저구리	1
227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하둔리	1
228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학산리	1
229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오비리	1
230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죽토리	1
23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1
23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
233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산수리	1
234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소정리	1
235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당산리	1
236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황산리	1
237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조눌리	1
238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주동리	1
239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2
240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2

구분	시도	시군	읍/면	리	연차
241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	1
242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상곡리**	1
243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정의리	1
244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구암리	1
245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구랑리	1
246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다평리	1
247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금문리	1
248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신복리	1
249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중항리	2
250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성내리	2
251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1
252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1
253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답곡리	1
254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1
255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2
256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2
257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장사리	1
258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장사리	1
259	경상남도	진주시	내동면	신율리	1
260	경상남도	진주시	내동면	독산리	1
261	경상남도	진주시	미천면	반지리	2
262	경상남도	진주시	미천면	오방리	2
263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삼덕리	1
264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저림리→연화리***	1
265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삼화리	1
266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1
267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보덕리	1
268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1
269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1
270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1
271	전라북도	부안군	계화면	양산리	1
272	전라북도	부안군	계화면	창북리	1
273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마포리	1

*김해시 장유면 부곡리 월산마을 부영1단지 아파트 지역이 김해울하2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대체

**김해시 장유면 부곡리 월산마을 부영4단지 아파트 지역이 김해울하2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대체

*** 저림리 : 학림도라는 섬 안에 있는 지역으로 연화리로 대체

구분	시도	시군	읍/면	리	연차
274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운산리	1
275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1
276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	1
277	전라북도	부안군	줄포면	난산리	1
278	전라북도	부안군	줄포면	장동리	1
279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	서호리	1
280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	현포리	1
281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	1
282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순화리	1
283	전라북도	순창군	적성면	고원리	1
284	전라북도	순창군	적성면	석산리	1
285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갈산리	1
286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1
287	전라북도	익산시	용동면	용성리	1
288	전라북도	익산시	용동면	화배리	1
289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와리	1
290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와리	1
291	전라북도	익산시	황등면	황등리	2
292	전라북도	익산시	황등면	황등리	2
293	전라북도	익산시	망성면	내촌리	2
294	전라북도	익산시	망성면	장선리	2
295	전라북도	익산시	여산면	원수리	2
296	전라북도	익산시	여산면	여산리	2
297	전라북도	정읍시	산외면	동곡리	1
298	전라북도	정읍시	산외면	오곡리	1
299	전라북도	정읍시	입암면	접지리	1
300	전라북도	정읍시	입암면	하부리	1
301	전라북도	정읍시	북면	마정리	2
302	전라북도	정읍시	북면	한교리	2
303	전라북도	정읍시	덕천면	우덕리	2
304	전라북도	정읍시	덕천면	달천리	2
305	전라북도	정읍시	칠보면	반곡리	2
306	전라북도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	2
307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덕남리	1
308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서성리	1

구분	시도	시군	읍/면	리	연차
309	전라남도	강진군	병영면	상고리	1
310	전라남도	강진군	병영면	상낙리	1
311	전라남도	강진군	군동면	라천리	2
312	전라남도	강진군	군동면	용소리	2
313	전라남도	강진군	신전면	벌정리	2
314	전라남도	강진군	신전면	송천리	2
315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도림리	2
316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명산리	2
317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당오리	1
318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봉룡리	1
319	전라남도	고흥군	동강면	대강리	1
320	전라남도	고흥군	동강면	죽암리	1
321	전라남도	고흥군	두원면	성두리	1
322	전라남도	고흥군	두원면	신송리	1
323	전라남도	고흥군	풍양면	당두리	1
324	전라남도	고흥군	풍양면	풍남리	1
325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2
326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2
327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2
328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신금리	2
329	전라남도	고흥군	과역면	과역리	2
330	전라남도	고흥군	과역면	도천리	2
331	전라남도	고흥군	대서면	안남리	2
332	전라남도	고흥군	대서면	남정리	2
333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2
334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	2
335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월암리	2
336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복룡리	2
337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2
338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2
339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청천리	2
340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태봉리	2
341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외반리	2
342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용정리	2
343	전라남도	보성군	검백면	도안리	1

구분	시도	시군	읍/면	리	연차
344	전라남도	보성군	검백면	운림리	1
345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	1
346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우산리	1
347	전라남도	보성군	회천면	객산리	1
348	전라남도	보성군	회천면	울포리	1
349	전라남도	보성군	미력면	초당리	2
350	전라남도	보성군	미력면	용정리	2
351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구만리	1
352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선평리	1
353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	1
354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	1
355	전라남도	순천시	낙안면	평촌리	2
356	전라남도	순천시	낙안면	금산리	2
357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리	1
358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봉두리	1
359	전라남도	여수시	울촌면	신평리	1
360	전라남도	여수시	울촌면	월산리	1
361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나진리	1
362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	1
363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신복리	2
364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2
365	전라남도	완도군	군외면	당인리	1
366	전라남도	완도군	군외면	영풍리	1
367	전라남도	완도군	약산면	관산리	1
368	전라남도	완도군	약산면	해동리	1
369	전라남도	장성군	북이면	신평리	1
370	전라남도	장성군	북이면	원덕리	1
371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사창리	1
372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사창리	1
373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	2
374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장산리	2
375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1
37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1
377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1
378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1

구분	시도	시군	읍/면	리	연차
379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1
38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1
38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1
38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1
38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1
38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	1
385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
38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1
387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1
388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1
389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1
39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1
39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1
39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1
39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1
39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
39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1
39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1
39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1
39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1
39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1
4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	1
40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옹포리	1

02 주요항목별 타 자료 비교

[생활 전반 부문]

문항	항목		2014	2015	차이	타자료 비교
> 일반사항						
장애 가구원 유무	있음(%)		10.6	11.4	0.8	※14장애인실태조사 (15.6%)
장애 가구원 유형	가구주(%)		56.8	57.9	1.1	
	가구주의 배우자(%)		21.9	18.2	-3.7	
	가구주의 자녀(%)		10.7	11.3	0.6	
	자녀의 배우자(%)		1.7	1.9	0.2	
	손자녀/그 배우자(%)		2.4	1.4	-1.0	
	부모(%)		5.6	7.5	1.9	
	기타친인척(%)		0.9	1.8	0.9	
장애 종류 및 등급	장애 종류	지체장애(%)	57.5	52.1	-5.4	※'08한국복지패널조사 -지체장애(38.1%) -뇌병변장애(11.4%) -시각장애(13.0%) -청각장애(9.2%) -언어장애(1.3%) -정신지체(5.6%) -발달장애(0.6%) -정신장애(4.7%) -신장장애(3.6%) -비등록 장애인 (8.6%)
		뇌병변장애(%)	8.3	8.7	0.4	
		시각장애(%)	10.4	9.4	-1.0	
		청각장애(%)	8.8	7.4	-1.4	
		언어장애(%)	1.7	6.3	4.6	
		정신지체(%)	3.1	6.7	3.6	
		발달장애(%)	1.5	0.7	-0.8	
		정신장애	2.3	1.0	-1.3	
		신장장애(%)	3.1	4.8	1.7	
		비등록 장애인(%)	1.8	0.7	-1.1	
	중복장애 여부	비해당(%)	92.5	89.4	-3.1	
		중복(%)	7.5	10.6	3.1	
	장애 등급	1급(%)	10.8	9.5	-1.3	※'08한국복지패널조사 -1급(10.3%) -2급(17.5%) -3급(19.4%) -4급(13.2%) -5급(12.3%) -6급(18.4%)
		2급(%)	14.9	20.2	5.3	
		3급(%)	18.4	23.4	5.0	
		4급(%)	14.9	13.6	-1.3	
		5급(%)	19.7	20.2	0.5	
		6급(%)	21.3	13.0	-8.3	

문항	항목		2014	2015	차이	타자료 비교
> 일반 사항						
결혼이민자 유무	있음(%)		1.5	2.6	1.1	
결혼이민자 유형	가구주(%)		0.8	11.4	10.6	
	가구주의 배우자(%)		85.1	81.0	-4.1	
	자녀의 배우자(%)		14.1	6.4	-7.7	
출신국가	중국(%)		14.8	43.9	29.1	※'12 전국다문화 가족 실태조사 -베트남(17.7%) -태국(1.2%) -필리핀(5.2%) -캄보디아(1.8%) -중국(56.3%) -몽골(1.1%)
	베트남(%)		72.6	34.4	-38.2	
	필리핀(%)		2.2	9.0	6.8	
	일본		-	7.5	7.5	
	태국(%)		4.1	3.6	-0.5	
	네팔		-	0.5	0.5	
	미국		-	0.4	0.4	
	우즈베키스탄		-	0.4	0.4	
	몽골(%)		1.0	0.3	-0.7	
> 이주 실태						
현 거주지 고향 여부 및 이주 시기	고향이다(%)		38.5	45.3	6.8	
	이주 후 거주기간(년)	이주했다	11.4	50.5	39.1	
		현 거주지가 고향이지만 외지에 나갔다가 다시 이주했다	12.8	4.2	-8.6	
이주 직전 주택 위치	농어촌 →농어촌 (%)	현재 살고 있는 시/군 내	53.5	48.3	-5.2	
		다른 시/군의 농어촌(읍/면)	19.6	24.4	4.8	
	도시 →농어촌 (%)	중소도시(동)	8.8	9.1	0.3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18.1	18.3	0.2	

문항	항목		2014	2015	차이	타자료 비교
> 주택여건						
주택건축후 경과년수	(년)		23.8	22.3	-1.5	
주택 종류 및 점유형태	주택 종류	단독주택(%)	54.6	59.7	5.1	※'13한국복지 패널조사 -단독주택 (전국 38.47%)
		아파트(%)	34.3	32.2	-2.1	-아파트 (전국 43.49%)
		연립주택(%)	4.0	3.2	-0.8	-연립주택 (전국 4.42%)
		다세대주택(%)	5.6	2.7	-2.9	-다세대주택 (전국 9.49%)
		기타(%)	1.5	2.3	0.8	-기타 (전국 4.13%)
	점유형태	자가(%)	78.8	78.8	0	※'13한국복지 패널조사 -자가 (전국 54.06%)
		전세(%)	8.6	8.8	0.2	-전세 (전국 16.48%)
		보증부 월세(%)	6.9	5.8	-1.1	-보증부 월세 (전국 18.75%)
		월세(사글세)(%)	1.7	3.8	2.1	-월세(사글세) (전국 1.98%)
		무상(%)	3.9	2.8	-1.1	
> 생활여건						
이주의사	이주 의향충(%)		13.2	17.7	4.5	
이주 희망 이유	직업관련사유(%)		21.8	22.0	0.2	
	주택관련사유(%)		30.0	28.3	-1.7	
	자녀교육(%)		11.4	2.9	-8.5	
	현재 거주환경 불만족(%)		24.3	7.1	-17.2	
	가정 경제 상황의 변화(%)		5.5	1.6	-3.9	
	가족관련 사유(%)		3.9	15.0	11.1	
	건강상의 이유(%)		1.8	22.7	20.9	
	기타(%)		1.3	.3	-1.0	

문항	항목		2014	2015	차이	타자료 비교
> 생활여건						
이주 희망 지역	농어촌 → 농어촌 (%)	현재 살고 있는 시/군 내	62.1	56.0	-6.1	
		다른 시/군의 농어촌(읍/면)	10.4	12.1	1.7	
	농어촌 → 도시 (%)	중소도시(동)	9.6	11.1	1.5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17.0	16.5		
	시설 입소(공동생활, 요양 등)(%)		0.2	.2	-0.5	
	기타(해외 파견, 이민 등)(%)		0.7	4.1	0	
전반적인 생활여건에 대한만족도	만족도(점)		50.0	52.5	3.4	※'11농촌생활지표 지역생활만족도 (종합만족도) (농촌 46.1점)
현재 삶에 대한행복감	만족(합)(%)		45.0	48.3	2.5	
행복의 영향 요인	가족(%)		41.1	39.4	3.3	
	대인관계(%)		6.2	6.3	-1.7	
	건강(%)		35.7	35.2	0.1	
	경제적 안정(%)		12.8	13.3	-0.5	
	일/직업(%)		2.9	3.6	0.5	
	지역생활 환경(%)		0.9	1.8	0.7	
	기타(%)		0.5	0.4	0.9	

[교육 부문]

문항	항목	2013 (농어촌)	2015	차이	타자료 비교
1310> 평생 교육					
수강 경험	농업기술교육(%)	8.7	8.2	-0.5	※'14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성인기초 및 문자해독교육 (농어촌 0.7%) -인문교양교육 (농어촌 5.5%) -직업능력향상교육 (농어촌 27.2%) -문화예술스포츠교육 (농어촌 5.2%)
	문해교육(%)	1.0	1.1	0.1	
	인문교양교육(%)	2.7	2.8	0.1	
	정보화교육(%)	4.1	3.3	-0.8	
	직업능력교육(%)	3.7	2.9	-0.8	
	문화예술교육(%)	3.7	5.3	1.6	
	스포츠·건강교육(%)	6.8	9.6	2.8	
향후 수강 의향	농업기술교육(%)	11.7	11.5	-0.2	
	문해교육(%)	4.7	4.6	-0.1	
	인문교양교육(%)	11.3	10.0	-1.3	
	정보화교육(%)	10.6	12.4	1.8	
	직업능력교육(%)	10.4	14.8	4.4	
	문화예술교육(%)	11.1	17.4	6.3	
	스포츠·건강교육(%)	18.7	27.6	8.9	
평생교육 만족도	만족도(점)	-	68.6	-	
평생 교육을 받고자 할 때 애로사항	비용이 부담된다(%)	13.5	4.1	-9.4	
	시간적 여유가 없다(%)	45.0	43.9	-1.1	
	지역에 제공하는 시설(기관)이 없다(%)	10.2	12.7	2.5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없다(%)	4.4	7.4	3	
	교통이 불편하다(%)	6.0	4.6	-1.4	
	건강, 나이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다(%)	13.5	17.0	3.5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	6.4	10.0	3.6	
	기타(%)	1.0	.4	-0.6	

문항	항목		2013 (농어촌)	2015	차이	타자료 비교
1320> 학생교육						
학생자녀 (손자녀) 유무	학생자녀(손자녀) 있는 층(%)		-	29.5	-	
	학생자녀(손자녀) 수(명)		-	1.6	-	
자녀 (손자녀)에 대한 기대학력	아들	박사(%)	-	9.7	-	※'12농촌생활지표 -박사(12.0%)
		석사(%)	-	9.1	-	-석사(8.8%)
		대학(2년제 이상)(%)	-	46.8	-	-대학(2년제 이상) (49.6%)
		고등학교(%)	-	.2	-	-고등학교(1.8%)
		학력 상관없이 능력대로(%)	-	34.2	-	-학력 상관없이 능력대로 (27.8%)
	딸	박사(%)	-	9.3	-	※'12농촌생활지표 -박사(7.2%)
		석사(%)	-	9.7	-	-석사(6.0%)
		대학(2년제 이상)(%)	-	46.3	-	-대학(2년제 이상) (53.5%)
		고등학교(%)	-	1.4	-	-고등학교(2.1%)
		학력 상관없이 능력대로(%)	-	33.4	-	-학력 상관없이 능력대로 (31.2%)
학교교육 여건 만족도	교사 만족도(점)		-	59.9	-	
	학교와의 의사소통 만족도(점)		-	59.4	-	
	진로교육 만족도(점)		-	57.9	-	
자녀의 방과 후 시간 활용	사설학원 수강(%)		49.1	47.2	-1.9	
	개인·그룹 과외(%)		3.7	4.4	0.7	
	방과 후 교내 보충학습 참여(%)		14.3	20.6	6.3	
	방과후교실·학교외복지관 지역아동센터등 참여(%)		5.5	8.1	2.6	
	집에서 가족이 돌봄(%)		8.6	5.1	-3.5	
	자녀 자율적으로 보냄(%)		16.8	14.5	-2.3	

문항	항목		2013 (농어촌)	2015	차이	타자료 비교
1320> 학생교육						
타지유학 자녀 (손자녀) 실태	타지 유학 자녀(손자녀) 있는 층(%)		-	16.6	-	※'12농촌생활지표 (24.3%)
	타지 유학 이유	해당학교가 없어서(%)	-	74.6	-	※'12농촌생활지표 -해당 학교가 없어서 (76.2%)
		학교의 교육시설이 미흡(%)	-	9.3	-	-학교의 시설이 미흡 (8.7%)
		마을 및 인근의 교육환경 (사교육 등)이 열악해서(%)	-	12.0	-	-마을 및 인근의 교육환경이 열악해서 (10.4%)
		기타(%)	-	4.1	-	-기타(4.1%)
	거주 형태	기숙사(%)	-	39.2	-	※'12농촌생활지표 -기숙사(10.8%)
		하숙(%)	-	8.6	-	-하숙(7.4%)
		자취(%)	-	49.7	-	-자취(39.5%)
		친척집 거주(%)	-	2.4	-	-친척집 거주(8.3%)
사교육 수강 여부 및 월 평균 사교육 비용	사교육 수강층(%)		-	69.5%	-	※'14사교육비조사 -사교육 참여율 (읍면지역 59.2%)
	월 평균 사교육 비용(만원)		-	25.1	-	-사교육 비용 (읍면지역 평균 16.7만원)
교육비 중 부담되는 항목	학교 납입금(수업료, 학교운영위원회비, 기성회비 등)(%)		-	8.9	-	
	대학교(대학원 포함) 등록금(%)		-	20.5	-	
	보충 교육비(%)		-	48.3	-	
	생활비(%)		-	5.7	-	
	별로 부담되지 않음(%)		-	16.6	-	
방과 후 학교 참여 실태	방과 후 학교 참여층(%)		-	48.2	-	
	총 참여 프로그램(개)		-	2.2	-	
	참여 시간(시간)		-	4.8	-	
	참여 년수(년)		-	2.2	-	

문항	항목		2013 (농어촌)	2015	차이	타자료 비교
1320> 학생교육						
방과 후 학교 참여 실태	참여 프로 그램 종류	특기 적성(%)	-	50.6	-	
		교과 학습(%)	-	36.1	-	
		초등 보육(%)	-	13.3	-	
	방과 후 학교에 보내는 이유	학교의 교육활동이라 믿을 수 있어서(%)	-	17.4	-	
		프로그램 내용이 좋아서(%)	-	23.0	-	
		사교육에 비해 교육비가 저렴해서(%)	-	19.2	-	
		방과 후 자녀를 직접 돌보기 어려워서(%)	-	9.9	-	
		자녀의 친구들이 방과 후학교에 참여해서(%)	-	12.4	-	
		상급학교 또는 학년 진학에 대비하기 위해(%)	-	7.0	-	
		학교 보충학습 차원에서(%)	-	11.0	-	
	방과 후 학교 만족도	특기 적성 개발 만족도(점)	-	62.8	-	
		학업 실력 향상 만족도(점)	-	57.4	-	
		사교육비 경감 만족도(점)	-	61.3	-	
		학습태도 변화 및 학습동기 제공 만족도(점)	-	59.2	-	
		향후 참여의향(점)	-	73.7	-	

[가족 부문]

문항	항목		2013 (농어촌)	2015	차이	타자료 비교
1410> 부모와의 관계						
부모님 생존 여부	부모님 모두 살아계심(%)		-	24.8	-	※'14사회조사 (가구주 대상) -부모님 모두 계심 (읍면부 16.7%) -아버지만 계심 (읍면부 2.5%) -어머니만 계심 (읍면부 20.1%) -부모님 안계심 (읍면부 60.6%)
	아버지만 살아계심(%)		-	2.2	-	
	어머니만 살아계심(%)		-	21.3	-	
	부모님 모두 안 계심(%)		-	51.7	-	
부모님 동거 여부 및 비동거 부모와의 교류 실태	부모님 비동거층(%)		-	78.3	-	
	비동거 층의 부모님 동거 가족	장남 또는 맏며느리(%)	-	9.3	-	※'14사회조사 (가구주 대상) -장남 또는 맏며느리 (읍면부 21.5%) -그 외의 아들 또는 며느리 (읍면부 13.8%) -딸 또는 사위 (읍면부 4.7%) -기타 친척 (읍면부 0.6%) -부모님만 따로 살고 있음 (읍면부 56.5%) -기타(읍면부 2.9%)
		아들(장남 제외) 또는 며느리(%)	-	8.3	-	
		딸 또는 사위(%)	-	3.8	-	
		기타 친척(%)	-	.1	-	
		부모님만 따로 살고 있음(%)	-	76.0	-	
		기타(%)	-	2.4	-	
	부모님 거주지 와의 거리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15분 이내)(%)	-	9.6	-	
		차로 30분 이내 거리(%)	-	22.3	-	
		차로 30분 이상 1시간 이내 거리(%)	-	18.4	-	
		차로 1시간 이상 2시간 이내 거리(%)	-	23.0	-	
		차로 2시간 이상 거리(%)	-	26.7	-	

문항	항목		2013 (농어촌)	2015	차이	타자료 비교
1410> 부모와의 관계						
부모님 동거 여부 및 비동거 부모와의 교류 실태	부모 님과 전화 통화 빈도	거의 매일(%)	-	23.1	-	※'14사회조사 (가구주 대상) -거의 매일 (읍면부 16.2%) -일주일에 한두번 (읍면부 42.5%) -한달에 한두번 (읍면부 31.8%) -1년에 몇 번 (읍면부 5.6%) -거의 하지 않음 (읍면부 3.8%)
		일주일에 1-2회(%)	-	55.2	-	
		한 달에 1-2회(%)	-	16.7	-	
		1년에 3-5회(%)	-	2.5	-	
		거의 없음(%)	-	2.4	-	
	부모 님과 만남 빈도	거의 매일(%)	-	8.0	-	※'14사회조사 (가구주 대상) -거의 매일 (읍면부 9.9%) -일주일에 한두번 (읍면부 16.8%) -한달에 한두번 (읍면부 40.4%) -1년에 몇 번 (읍면부 31.0%) -거의 하지 않음 (읍면부 2.0%)
		일주일에 1-2회(%)	-	20.6	-	
		한 달에 1-2회(%)	-	37.7	-	
		1년에 3-5회(%)	-	28.7	-	
		거의 없음(%)	-	4.9	-	
부모의 생활비 마련 방법	장남 또는 맏며느리(%)		-	15.2	-	※'14사회조사 (가구주 대상) -장남 또는 맏며느리 (읍면부 15.0%) -아들 또는 며느리 (읍면부 11.6%) -딸 또는 사위 (읍면부 2.3%) -모든 자녀(아들과 딸) (읍면부 28.5%) -부모 스스로 해결 (읍면부 42.2%) -기타(읍면부 0.4%)
	아들(장남 제외) 또는 며느리(%)		-	7.9	-	
	딸 또는 사위(%)		-	2.4	-	
	모든 자녀(아들과 딸)(%)		-	27.6	-	
	부모님 스스로 해결(%)		-	46.6	-	
	기타(%)		-	.3	-	

문항	항목		2013 (농어촌)	2015	차이	타자료 비교
1410> 부모와의 관계						
부모의 노후 생계 돌봄 주체	스스로 해결(%)		-	21.4	-	※'14사회조사 (가구주 대상) -스스로 해결 (읍면부 18.5%) -장남 또는 맏며느리 (읍면부 3.6%) -아들 또는 며느리 (읍면부 1.5%) -딸 또는 사위 (읍면부 0.3%) -모든 자녀(아들과 딸) (읍면부 26.9%) -능력 있는 자녀 (읍면부 5.2%) -가족과 정부·사회 (읍면부 39.4%) -정부 또는 사회 (읍면부 4.7%)
	장남 또는 맏며느리(%)			13.4		
	아들(장남 제외) 또는 며느리(%)		-	2.5	-	
	딸 또는 사위(%)		-	1.0	-	
	모든 자녀(아들과 딸)(%)		-	43.6	-	
	능력 있는 자녀(%)		-	12.0	-	
	정부 또는 사회(%)		-	6.2	-	
노부모 부양에 대한 태도	자식은 나이든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	그런편(합) (%)	-	55.2	-	
	자식은 나이든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한다	그런편(합) (%)	-	69.0	-	
	딸도 아들과 똑같이 나이든 부모를 돌보아야 한다	그런편(합) (%)	-	60.9	-	
부모의 책임에 대한 태도	부모는 자녀의 대학교육비를 책임져야 한다	그런편(합) (%)	-	75.7	-	
	부모는 자녀의 결혼준비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	그런편(합) (%)	-	45.0	-	
	부모는 필요하다면 자녀가 결혼한 후에도 돌보아줄 책임이 있다	그런편(합) (%)	-	30.9	-	

문항	항목		2013 (농어촌)	2015	차이	타자료 비교	
1420> 자녀와의 관계							
자녀 및 자녀 양육에 대한 태도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다		그런편(합) (%)	-	85.5	-	
	노후를 위해서는 자녀가 필요하다		그런편(합) (%)	-	59.3	-	
	자식의 성공은 나의 성공과 같다		그런편(합) (%)	-	63.0	-	
	자려늘 돌보는 일은 힘든 일이다		그런편(합) (%)	-	54.6	-	
	자녀 때문에 하고싶은 일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런편(합) (%)	-	56.8	-	
	자녀를 키우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일이다		그런편(합) (%)	-	69.7	-	
분가한 자녀 유무 및 분가한 자녀와의 교류실태	분가한 자녀가 있는 층(%)			-	47.4	-	
	분가한 자녀 수(명)			-	2.9	-	
	분가 자녀 거주지 와의 거리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15분 이내)(%)		-	3.6	-	
		차로 30분 이내 거리(%)		-	13.2	-	
		차로 30분 이상 1시간 이내 거리(%)		-	17.7	-	
		차로 1시간 이상 2시간 이내 거리(%)		-	28.7	-	
		차로 2시간 이상 거리(%)		-	36.7	-	
		분가 자녀와 전화 통화 빈도	거의 매일(%)		-	22.0	-
	일주일에 1-2회(%)		-	53.8	-		
	한 달에 1-2회(%)		-	21.0	-		
	1년에 3-5회(%)		-	1.6	-		
	거의 없음(%)		-	1.6	-		
	분가 자녀와 만남 빈도	거의 매일(%)		-	4.6	-	
		일주일에 1-2회(%)		-	13.3	-	
		한 달에 1-2회(%)		-	37.7	-	
		1년에 3-5회(%)		-	40.9	-	
		거의 없음(%)		-	3.4	-	

문항	항목	2013 (농어촌)	2015	차이	타자료 비교
1430> 가족 가치관					
결혼 문화에 대한 태도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	그런편(합) (%)	- 22.5	-	※'14사회조사 (4점척도) -읍면부 44.1%
	결혼은 당사자보다 가족 간의 관계를 우선해야 한다	그런편(합) (%)	- 23.3	-	※'14사회조사 (4점척도) -읍면부 54.6%
	외국인과 결혼해도 상관없다	그런편(합) (%)	- 30.9	-	※'14사회조사 (4점척도) -읍면부 62.5%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그런편(합) (%)	- 8.7	-	※'14사회조사 (4점척도) -읍면부 23.6%
결혼 및 이혼과 재혼에 대한 태도	결혼에 대한 태도	해야한다 (합)(%)	- 70.2	-	※'14사회조사 -읍면부 64.1%
	이혼에 대한 태도	해야한다 (합)(%)	- 57.4	-	※'14사회조사 -읍면부 52.7%
	재혼에 대한 태도	해야한다 (합)(%)	- 15.0	-	※'14사회조사 -읍면부 20.1%
성역할 및 여성 취업에 대한 태도	아버지도 어머니와 똑같이 자녀를 잘 보살펴야 한다	그런편(합) (%)	- 76.6	-	
	오늘날에는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다	그런편(합) (%)	- 69.6	-	
	남자가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여자가 할 일은 가정을 돌보는 것이다	그런편(합) (%)	- 24.5	-	
	맞벌이 부부는 집안일도 똑같이 나누어서 해야한다	그런편(합) (%)	- 61.7	-	
	취학 전 자녀는 어머니가 직접 돌봐야 한다	그런편(합) (%)	- 60.4	-	
	친정과 시집 모두 도움이 필요할 때, 결혼한 여자는 친정보다 시집을 먼저 도와야 한다	그런편(합) (%)	- 23.8	-	

문항	항목	2013 (농어촌)	2015	차이	타자료 비교	
1430> 가족 가치관						
자녀 성별에 대한 태도		아들(합) (%)	-	24.4	-	※'11농촌생활지표 - 아들(합)(32.9%)
부부 의사결정 구조	주택이나 농지를 사고 파는 일	남편(합) (%)	-	28.6	-	※'11농촌생활지표 - 남편(합)(47.1합)(%)
	농사작목을 결정하는 일	남편(합) (%)	-	44.0	-	※'11농촌생활지표 - 남편(합)(52.5%)
	수확농산물을 판매하는 일	남편(합) (%)	-	38.8	-	※'11농촌생활지표 - 남편(합)(47.4%)
	한 달 생활비를 결정하는 일	남편(합) (%)	-	13.7	-	※'11농촌생활지표 - 남편(합)(23.3%)
	자녀교육 방법을 결정하는 일	남편(합) (%)	-	7.5	-	※'11농촌생활지표 - 남편(합)(15.2%)
	경조금을 결정하는 일	남편(합) (%)	-	17.1	-	※'11농촌생활지표 - 남편(합)(34.8%)
	가족 내 여가활동을 결정하는 일	남편(합) (%)	-	9.8	-	
부부 역할분담 실태	큰 돈 관리 (투자 및 재산관리)	남편(합) (%)	-	33.9	-	※'11농촌생활지표 - 남편(50.6합)(%)
	살림살이 비용 관리	남편(합) (%)	-	8.7	-	※'11농촌생활지표 - 남편(합)(11.8%)
	음식준비 및 설거지	남편(합) (%)	-	1.7	-	※'11농촌생활지표 - 남편(합)(1.0%)
	세탁	남편(합) (%)	-	2.1	-	※'11농촌생활지표 - 남편(합)(1.5%)
	집안청소	남편(합) (%)	-	3.1	-	※'11농촌생활지표 - 남편(합)(2.2%)
	자녀 돌보기	남편(합) (%)	-	1.7	-	※'11농촌생활지표 - 남편(합)(1.7%)
	이웃, 친인척과의 교제 (경조사 참가)	남편(합) (%)	-	12.1	-	※'11농촌생활지표 - 남편(합)(21.1%)

[지역개발 및 공동체 부문]

문항	항목	2013 (농어촌)	2014	차이	타자료 비교
1510> 지역 개발					
지역발전 정도에 대한 인식		발전된 편(합)(%)	13.9	25.4	
지역 개발에 대한 태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더라도 개발사업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그런편(합)(%)	-	16.4	-
	개발 보다는 농촌 자연환경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편(합)(%)	-	31.1	-
	지역의 개발사업의 이익은 외지인이나 특정인에게만 돌아가지 않고 지역주민들에게 공평하게 돌아간다	그런편(합)(%)	-	31.9	-
마을의 지역자원 활용	우리 마을이 가진 지역자원이 아름답고 우수하다	그런편(합)(%)	-	49.7	-
	우리 마을의 자원을 지역주민 즐거움이나 교류의 장으로 이용한다	그런편(합)(%)	-	43.8	-
	우리 마을은 마을자원을 활용한 상품이나 특산물, 관광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편(합)(%)	-	15.8	-
	지역자원 유지를 위한 주민활동이 지역애착심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런편(합)(%)	-	29.3	-
	우리 마을은 더욱 살기 좋은 마을이 될 것이다	그런편(합)(%)	-	38.0	-
농촌지역 우선 필요 정책	농업인 기초소득 보장(%)	-	41.4	-	
	농업의 미래 보호(%)	-	21.2	-	
	농촌의 자연환경 보호(%)	-	4.6	-	
	주택의 보급 및 개량(%)	-	4.9	-	
	공용버스 등 교통수단 확보(%)	-	10.7	-	
	농촌주민 교육과 건강 증진(%)	-	11.4	-	
	농촌지역 사업체에 대한 투자확대(%)	-	5.8	-	

문항	항목		2013 (농어촌)	2014	차이	타자료 비교
1510> 지역 개발						
마을의 안전 정도	치안	안전한 편 (합)(%)	-	64.1	-	
	자연재해	안전한 편 (합)(%)	-	65.5	-	
	교통안전 및 보행	안전한 편 (합)(%)	-	46.2	-	
마을 안전시설/ 설비에 대한 인식	우리 지역은 우범지역에 방범카메라가 잘 설치되어 있다	그런편(합) (%)	-	27.5	-	
	우리 지역은 어두운 장소가 없도록 잘 정비되어 있다	그런편(합) (%)	-	32.8	-	
	우리 지역은 교통시설물이 잘 설치되어 있다	그런편(합) (%)	-	27.2	-	
지역 안전을 위한 지방자치 단체의 노력	우리 지역은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편(합) (%)	-	11.0	-	
	우리 지역은 주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편(합) (%)	-	12.4	-	
	우리 지역은 범죄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그런편(합) (%)	-	22.5	-	
1520> 공동체						
외부인 거주 여부	귀농/귀촌인	있음(합) (%)	16.6	40.1	23.5	
	결혼이민자	있음(합) (%)	21.9	39.3	17.4	
	외국인노동자	있음(합) (%)	12.0	25.0	13	
외부인 수용성	귀농/귀촌인	있음(합) (%)	49.9	53.7	3.8	
	결혼이민자	있음(합) (%)	46.0	44.7	-1.3	
	외국인노동자	있음(합) (%)	41.6	32.4	-9.2	
마을 주민들간의 친밀도 변화	더 잘되는 편(합)(%)		-	30.8	-	

문항	항목		2013 (농어촌)	2014	차이	타자료 비교
1520> 공동체						
농촌 계속 거주 의향	계속거주 의향총(%)		83.4	84.6	-	
	계속 거주 의향 이유	선조대대로 살아온 곳이라서(%)	-	31.9	-	※'11농촌생활지표 -선조대대로 살아온 곳이라서(47.6%)
		자연환경이 좋아서(%)	-	22.0	-	-자연환경이 좋아서 (16.0%)
		자녀 교육을 위해서(%)	-	1.2	-	-자녀 교육을 위해서 (8.1%)
		심신건강을 위해(%)	-	8.1	-	-심신 건강을 위해 (6.4%)
		농촌/농업이 좋아서(%)	-	10.6	-	-농촌/농업이 좋아서 (0.5%)
		땅값 등 지가상승이 기대되어(%)	-	1.0	-	-땅값 등 지가상승이 기대되어(13.2%)
		도시의 번잡함이 싫어서(%)	-	18.1	-	-도시의 번잡함이 싫어서(8.2%)
		기타(%)	-	7.0	-	
	농촌을 떠나 려는 이유	생활환경이 좋지 않아서(%)	-	25.4	-	※'11농촌생활지표 -생활 환경이 좋지 않아서(17.9%)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	41.8	-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33.8%)
		소득이 적어서(%)	-	13.0	-	-소득이 적어서 (13.0%)
		농사가 더욱 어려워질 것 같아(%)	-	1.6	-	-농사가 더욱 어려워질 것 같아(8.6%)
		문화생활을 즐길 수 없기 때문(%)	-	8.4	-	-문화생활을 즐길 수 없기 때문(9.0%)
		자녀들이 도시에 살므로(%)	-	2.9	-	-자녀들이 도시에 살므로(8.8%)
		기타(%)	-	6.9	-	-기타(6.9%)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점)		64.7	64.0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이웃 수(명)		-	4.3	-		
참여하고 있는 지역사회 단체 실태	참여총(%)		-	27.9	-	
	지역 사회 단체 종류	마을단위 자생조직(%)	-	71.0	-	
		경제활동 단체(%)	-	10.4	-	
		친목도모단체(%)	-	14.0	-	
		일반시민단체(%)	-	4.6	-	

문항	항목	2013 (농어촌)	2014	차이	타자료 비교
1520> 공동체					
참여하고 있는 지역사회 단체 실태	임원 여부	임원(%)	-	19.9	-
		회원(%)	-	80.1	-
	참여 정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합)(%)	-	51.6	-
	참여 하지 않는 이유	지역사회단체 활동에 관심이 없다(%)	-	34.1	-
		참여할 만한 지역사회단체가 없다(%)	-	6.6	-
		참여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	-	33.1	-
		참여할 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다(%)	-	5.8	-
		참여할 기회가 없다(%)	-	14.8	-
		나이/건강상의이유로 참여가 어렵다(%)	-	5.5	-
		기타(%)	-	.2	-
공동체 의식	(요인1) 귀속성	나는 우리 마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점)	-	3.6	-
		나는 우리 마을에서 편안함을 느낀다(점)	-	3.7	-
		나는 우리 마을의 구성원이라고 느낀다(점)	-	3.5	-
		내가 노력하면 우리 마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점)	-	3.2	-
		우리 마을에 사는 것이 나에게 중요하다(점)	-	3.5	-
		우리 마을에만 있는 우리만의 정신 또는 질서가 있다(점)	-	3.2	-
	(요인2) 교류성	나는 이웃들을 좋아한다(점)	-	3.8	-
		나는 필요하면 우리 마을에서 대화할 사람을 바로 찾을 수 있다(점)	-	3.6	-
		우리 마을에는 나를 걱정해 주는 이웃들이 있다(점)	-	3.7	-
		이웃들이 고통을 당하면 내 마음도 아프다(점)	-	3.9	-
		위급한 상황이나 문제가 있다면 우리 마을 사람들은 서로 도울 것이다(점)	-	3.8	-

문항	항목		2013 (농어촌)	2014	차이	타자료 비교
1520> 공동체						
공동체 의식	(요인3) 애착성	나는 우리 마을을 좋아한다(점)	-	3.7	-	
		나는 우리 마을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한다(점)	-	3.6	-	
		나는 우리 마을에 오랫동안 살기를 바란다(점)	-	3.6	-	
		나는 우리 마을에 자부심을 느낀다(점)	-	3.4	-	
	공동체 의식 함양 요인	마을단체(%)	-	26.5	-	※'11농촌생활지표 -마을단체(35.6%) -지자체 및 공무원 (4.6%) -지역공동시설 (23.5%) -학교(2.1%) -종교단체(3.6%) -좋은 이웃(17.8%) -서비스 편의시설 (3.6%) -지역행사(8.7%) -기타(0.5%)
		지자체 및 공무원(%)	-	7.0	-	
		지역공동시설(%)	-	21.5	-	
		학교(%)	-	2.6	-	
		종교단체(%)	-	3.4	-	
		좋은 이웃(%)	-	24.7	-	
		서비스 편의시설(%)	-	5.6	-	
		지역행사(%)	-	8.7	-	
		기타(%)	-	0.1	-	
마을리더 역할의 중요도	중요한 편(합)(%)		-	82.8	-	
마을 리더가 될 의향	의향층(합)(%)		-	10.6	-	
외부인 마을리더에 대한 수용성	귀농/귀촌인	찬성(합)(%)	-	38.5	-	
	결혼 이민자	찬성(합)(%)	-	25.0	-	
	외국인 노동자	찬성(합)(%)	-	17.6	-	

03 주요 항목별 상대표준오차⁷⁾

표준오차(SE)와 상대표준오차(RSE)

◦ 표본오차 (sampling error)

- 모집단 전체가 아닌 일부 표본을 확률 추출하는 데에서 생기는 통계적 오차
- 표본조사를 통해 구한 통계의 정확성(precision)을 나타내는 척도
- 일반적으로 표준오차, 상대표준오차, 신뢰구간 등의 형태로 표현

◦ 표준오차 (standard error: SE)

- 추정치의 표준편차: $\sqrt{Var(\hat{\theta})}$

◦ 상대표준오차 (relative standard error: RSE)

- $RSE(\hat{\theta}) = \frac{\sqrt{Var(\hat{\theta})}}{\hat{\theta}}$

- 상대표준오차는 추정치나 표준오차의 단위와 상관없이 일정하므로 표본조사 품질 척도로 널리 사용됨

◦ 95% 신뢰구간 (95% confidence interval)

- $\hat{\theta} \pm 1.96 \sqrt{Var(\hat{\theta})}$

◦ 표준오차, 상대표준오차, 신뢰구간 모두 $Var(\hat{\theta})$ 의 함수로 표현

- 모두 수학적으로 동등함

◦ 우리나라 국가통계의 통계적 정확도

- 통계의 중요성, 목적, 용도에 따라 정확도 요구가 다름
- 일반적으로, 전국 통계의 상대표준오차는 1 ~ 5% 정도이고
- 시도별, 속성별 통계의 상대표준오차는 3 ~ 10% 정도임
- 상대표준오차가 지나치게 크면 공표를 지양해야 함

7) 전체 문항에 대한 상대표준오차는 별책으로 발간된 「부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생활 영역별 만족도

구분		n	평균	SE	RSE(%)
종합만족도	합계	3,934	52.5	0.77	1.5
	읍/면 유무	읍	1,071	52.6	1.17
		면	2,863	52.5	0.96
	영농여부	농어가	1,346	53.3	1.08
		비농어가	2,588	52.1	0.85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758	51.8	1.19
		40대	836	51.9	1.09
		50대	905	52.1	1.42
		60대	634	53.1	1.20
		70대 이상	792	53.8	0.84
	향후 5년 내 이주 의사	이주 의향층	695	49.6	1.23
		비의향층	3,239	53.1	0.84
차원만족도	합계	3,934	55.4	0.82	1.5
	읍/면 유무	읍	1,071	54.4	1.40
		면	2,863	55.8	0.98
	영농여부	농어가	1,346	57.2	1.18
		비농어가	2,588	54.5	0.91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758	55.1	1.48
		40대	836	54.2	1.29
		50대	905	54.9	1.54
		60대	634	56.2	1.25
		70대 이상	792	57.0	0.92
	향후 5년 내 이주 의사	이주 의향층	695	51.5	1.58
		비의향층	3,239	56.3	0.86
체감만족도	합계	3,934	49.6	0.87	1.8
	읍/면 유무	읍	1,071	50.8	1.08
		면	2,863	49.1	1.12
	영농여부	농어가	1,346	49.4	1.15
		비농어가	2,588	49.6	0.98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758	48.4	1.45
		40대	836	49.5	1.17
		50대	905	49.2	1.46
		60대	634	50.0	1.32
		70대 이상	792	50.7	0.92
	향후 5년 내 이주 의사	이주 의향층	695	47.7	1.21
		비의향층	3,239	50.0	0.94

지역생활 영역별 만족도

구분			n	평균	SE	RSE(%)
보건의료 및 복지 서비스	합계		3,934	48.8	1.14	2.3
	읍/면 유무	읍	1,071	49.3	1.41	2.9
		면	2,863	48.6	1.43	2.9
	영농여부	농어가	1,346	49.1	1.68	3.4
		비농어가	2,588	48.6	1.28	2.6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758	48.7	2.26	4.7
		40대	836	47.0	1.54	3.3
		50대	905	48.1	1.74	3.6
		60대	634	48.9	1.88	3.8
		70대 이상	792	51.3	1.40	2.7
향후 5년 내 이주 의사	이주 의향층	695	47.0	1.76	3.8	
	비의향층	3,239	49.1	1.23	2.5	
자녀 학교 교육, 형생 교육 등 교육 여건	합계		3,934	42.6	1.22	2.9
	읍/면 유무	읍	1,071	46.6	1.28	2.7
		면	2,863	41.1	1.61	3.9
	영농여부	농어가	1,346	40.1	1.54	3.8
		비농어가	2,588	44.0	1.35	3.1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758	46.2	2.10	4.5
		40대	836	43.3	1.84	4.2
		50대	905	41.2	2.00	4.9
		60대	634	41.2	1.68	4.1
		70대 이상	792	41.4	1.35	3.3
향후 5년 내 이주 의사	이주 의향층	695	42.9	1.60	3.7	
	비의향층	3,239	42.6	1.37	3.2	
문화, 여가 생활을 위한 여건	합계		3,934	39.5	1.37	3.5
	읍/면 유무	읍	1,071	41.4	1.64	4.0
		면	2,863	38.8	1.75	4.5
	영농여부	농어가	1,346	38.3	1.60	4.2
		비농어가	2,588	40.1	1.66	4.1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758	37.4	2.71	7.2
		40대	836	38.9	1.89	4.9
		50대	905	38.9	2.19	5.6
		60대	634	40.6	1.84	4.5
		70대 이상	792	41.8	1.38	3.3
향후 5년 내 이주 의사	이주 의향층	695	36.1	2.27	6.3	
	비의향층	3,239	40.2	1.42	3.5	

구분			n	평균	SE	RSE(%)
주택, 도로, 대중교통 등 기초생활 기반	합계		3,934	46.6	1.04	2.2
	읍/면 유무	읍	1,071	49.3	1.56	3.2
		면	2,863	45.6	1.30	2.9
	영농여부	농어가	1,346	47.7	1.36	2.9
		비농어가	2,588	46.0	1.23	2.7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758	42.8	2.24	5.2
		40대	836	46.7	1.38	3.0
		50대	905	46.7	1.86	4.0
		60대	634	49.2	1.48	3.0
		70대 이상	792	47.9	1.30	2.7
	향후 5년 내 이주 의사	이주 의향층	695	45.0	1.72	3.8
		비의향층	3,239	46.9	1.08	2.3
환경, 경관	합계		3,934	65.4	1.10	1.7
	읍/면 유무	읍	1,071	65.0	1.66	2.5
		면	2,863	65.5	1.39	2.1
	영농여부	농어가	1,346	65.8	1.80	2.7
		비농어가	2,588	65.2	1.05	1.6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758	60.9	1.85	3.0
		40대	836	67.1	1.54	2.3
		50대	905	66.1	1.60	2.4
		60대	634	66.4	1.76	2.6
		70대 이상	792	66.2	1.79	2.7
	향후 5년 내 이주 의사	이주 의향층	695	61.8	1.67	2.7
		비의향층	3,239	66.2	1.20	1.8
직업 기회, 소득, 물가 등 경제활동 여건	합계		3,934	43.5	1.10	2.5
	읍/면 유무	읍	1,071	44.9	1.09	2.4
		면	2,863	43.0	1.43	3.3
	영농여부	농어가	1,346	42.7	1.63	3.8
		비농어가	2,588	43.9	1.11	2.5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758	43.9	1.73	3.9
		40대	836	44.8	1.52	3.4
		50대	905	43.4	1.78	4.1
		60대	634	42.3	1.61	3.8
		70대 이상	792	42.6	1.36	3.2
	향후 5년 내 이주 의사	이주 의향층	695	44.0	1.20	2.7
		비의향층	3,239	43.4	1.24	2.8

구분			n	평균	SE	RSE(%)
자연재해, 사고, 범죄 등으로 부터의 안전	합계		3,934	61.5	0.96	1.6
	읍/면 유무	읍	1,071	60.0	1.83	3.0
		면	2,863	62.1	1.10	1.8
	영농여부	농어가	1,346	62.9	1.25	2.0
		비농어가	2,588	60.8	1.11	1.8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758	60.1	1.59	2.6
		40대	836	60.0	1.59	2.6
		50대	905	61.0	1.86	3.0
		60대	634	62.5	1.71	2.7
		70대 이상	792	64.3	1.17	1.8
	향후 5년 내 이주 의사	이주 의향층	695	57.9	2.24	3.9
		비의향층	3,239	62.3	0.93	1.5

평생교육을 받고자 할 때의 애로사항

구분	n	비율(%)	SE	RSE(%)
합계	3,665	100.0		
비용이 부담 된다	148	4.1	0.70	17.3
시간적 여유가 없다	1,607	43.9	1.87	4.3
지역에 제공하는 시설(기관)이 없다	467	12.7	1.15	9.1
원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없다	272	7.4	0.89	12.1
교통이 불편하다	168	4.6	0.53	11.7
건강, 나이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다	622	17.0	1.19	7.0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	367	10.0	1.10	11.0
기타	13	0.4	0.14	38.2

학생자녀(손자녀) 유무

구분		n	비율(%)	SE	RSE(%)
합계		1,160	29.5	1.72	5.8
읍/면 여부	읍	383	35.7	3.31	9.3
	면	777	27.1	2.07	7.6
영농 여부	농어가	297	22.0	2.09	9.5
	비농어가	863	33.3	2.03	6.1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257	34.0	3.58	10.6
	40대	574	68.6	3.38	4.9
	50대	261	28.8	3.37	11.7
	60대	36	5.7	1.28	22.6
	70대 이상	30	3.8	0.58	15.3

자녀(손자녀)의 방과 후 시간 활용

구분	n	비율(%)	SE	RSE(%)
합계	862	100.0		
사설학원 수강	407	47.2	3.67	7.8
개인/그룹 과외	38	4.4	1.14	25.9
방과 후 교내 보충학습 참여	178	20.6	3.09	15.0
방과 후 교실 참여	70	8.1	1.66	20.5
집에서 가족이 돌봄	44	5.1	1.14	22.2
자녀 자율적으로 보냄	125	14.5	2.37	16.3

교육비 중 부담되는 항목

구분	n	비율(%)	SE	RSE(%)
합계	1,055	100.0		
학교 납입금	94	8.9	1.47	16.5
대학교 등록금	216	20.5	2.55	12.4
보충 교육비	510	48.3	3.91	8.1
생활비	60	5.7	1.25	22.0
별로 부담되지 않음	175	16.6	2.28	13.7

부모의 생활비 마련 방법

구분	n	비율(%)	SE	RSE(%)
합계	1,885	100.0		
장남 또는 맏며느리	287	15.2	2.88	19.0
아들(장남 제외) 또는 며느리	149	7.9	0.94	11.9
딸 또는 사위	45	2.4	0.63	26.5
모든 자녀(아들과 딸)	520	27.6	2.28	8.3
부모님 스스로 해결	878	46.6	3.19	6.9
기타	6	0.3	0.19	58.7

부모의 책임에 대한 태도

구분		n	비율(%)	SE	RSE(%)
부모는 자녀의 대학교육비를 책임져야 한다	합계	3,914	100.0		
	매우 그렇다	1,227	31.3	2.48	7.9
	그런 편이다	1,735	44.3	2.06	4.6
	보통이다	654	16.7	1.26	7.5
	그렇지 않은 편이다	284	7.3	0.72	9.9
	전혀 그렇지 않다	14	0.3	0.10	29.3
부모는 자녀의 결혼준비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	합계	3,915	100.0		
	매우 그렇다	514	13.1	1.36	10.4
	그런 편이다	1,247	31.9	2.06	6.5
	보통이다	1,290	33.0	1.72	5.2
	그렇지 않은 편이다	762	19.5	1.36	7.0
	전혀 그렇지 않다	101	2.6	0.48	18.4
부모는 필요하다면 자녀가 결혼한 후에도 돌보아줄 책임이 있다	합계	3,912	100.0		
	매우 그렇다	257	6.6	1.11	16.9
	그런 편이다	953	24.4	2.13	8.7
	보통이다	1,210	30.9	1.66	5.4
	그렇지 않은 편이다	1,057	27.0	1.86	6.9
	전혀 그렇지 않다	435	11.1	1.19	10.7

분가한 자녀 유무

구분		n	분가한 자녀 있는 층(%)	SE	RSE(%)
합계		3,934	47.4	2.27	4.8
읍/면 여부	읍	1,071	31.0	2.90	9.4
	면	2,863	53.5	2.85	5.3
영농 여부	농어가	1,346	68.6	2.21	3.2
	비농어가	2,588	36.3	2.29	6.3
응답자 연령	40대	836	5.8	1.46	25.1
	50대	905	54.8	3.08	5.6
	60대	634	88.2	1.68	1.9
	70대 이상	792	95.2	0.65	0.7

결혼문화에 대한 태도

구분		n	비율(%)	SE	RSE(%)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	합계	3,926	100.0		
	매우 그렇다	183	4.7	0.84	18.0
	그런 편이다	701	17.9	1.43	8.0
	보통이다	707	18.0	1.30	7.2
	그렇지 않은 편이다	1,197	30.5	1.75	5.7
	전혀 그렇지 않다	1,137	29.0	1.88	6.5
결혼은 당사자보다 가족 간의 관계를 우선해야 한다	합계	3,924	100.0		
	매우 그렇다	193	4.9	0.71	14.4
	그런 편이다	722	18.4	1.48	8.0
	보통이다	1,124	28.6	1.61	5.6
	그렇지 않은 편이다	1,393	35.5	2.15	6.1
	전혀 그렇지 않다	492	12.5	1.36	10.8
외국인과 결혼해도 상관없다	합계	3,925	100.0		
	매우 그렇다	391	10.0	1.24	12.5
	그런 편이다	822	21.0	1.46	7.0
	보통이다	1,099	28.0	1.64	5.9
	그렇지 않은 편이다	997	25.4	1.74	6.8
	전혀 그렇지 않다	615	15.7	1.64	10.5
외국인과 결혼해도 상관없다	합계	3,925	100.0		
	매우 그렇다	76	1.9	0.43	22.1
	그런 편이다	266	6.8	0.81	11.9
	보통이다	616	15.7	1.29	8.2
	그렇지 않은 편이다	1,110	28.3	1.92	6.8
	전혀 그렇지 않다	1,857	47.3	2.05	4.3

성역할 및 여성취업에 대한 태도(1)

구분		n	비율(%)	SE	RSE(%)
아버지도 어머니와 똑같이 자녀를 잘 보살펴야 한다	합계	3,922	100.0		
	매우 그렇다	1,150	29.3	2.39	8.1
	그런 편이다	1,853	47.2	1.93	4.1
	보통이다	811	20.7	1.77	8.6
	그렇지 않은 편이다	102	2.6	0.43	16.7
	전혀 그렇지 않다	5	0.1	0.08	61.2

성역할 및 여성취업에 대한 태도(2)

구분		n	비율(%)	SE	RSE(%)
아버지도 어머니와 똑같이 자녀를 잘 보살펴야 한다	합계	3,922	100.0		
	매우 그렇다	1,150	29.3	2.39	8.1
	그런 편이다	1,853	47.2	1.93	4.1
	보통이다	811	20.7	1.77	8.6
	그렇지 않은 편이다	102	2.6	0.43	16.7
	전혀 그렇지 않다	5	0.1	0.08	61.2
오늘날에는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다	합계	3,918	100.0		
	매우 그렇다	879	22.4	2.03	9.1
	그런 편이다	1,847	47.1	2.06	4.4
	보통이다	1,031	26.3	1.93	7.4
	그렇지 않은 편이다	157	4.0	0.63	15.7
	전혀 그렇지 않다	4	0.1	0.06	61.9
남자가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여자가 할 일은 가정을 돌보는 것이다	합계	3,914	100.0		
	매우 그렇다	242	6.2	0.79	12.7
	그런 편이다	716	18.3	1.30	7.1
	보통이다	1,248	31.9	2.27	7.1
	그렇지 않은 편이다	1,344	34.3	1.95	5.7
	전혀 그렇지 않다	363	9.3	1.41	15.1
맞벌이 부부는 집안일도 똑같이 나누어서 해야 한다	합계	3,918	100.0		
	매우 그렇다	931	23.8	2.02	8.5
	그런 편이다	1,485	37.9	2.05	5.4
	보통이다	1,230	31.4	1.88	6.0
	그렇지 않은 편이다	267	6.8	0.79	11.5
	전혀 그렇지 않다	4	0.1	0.05	46.1
취학 전 자녀는 어머니가 직접 돌봐야 한다	합계	3,910	100.0		
	매우 그렇다	851	21.8	1.62	7.5
	그런 편이다	1,510	38.6	2.08	5.4
	보통이다	994	25.4	1.56	6.1
	그렇지 않은 편이다	514	13.2	1.54	11.7
	전혀 그렇지 않다	41	1.0	0.28	27.0
친정과 시집 모두 도움이 필요할 때, 결혼한 여자는 친정보다 시집을 먼저 도와야 한다	합계	3,905	100.0		
	매우 그렇다	214	5.5	0.66	12.0
	그런 편이다	714	18.3	1.77	9.7
	보통이다	1,385	35.5	2.06	5.8
	그렇지 않은 편이다	1,184	30.3	2.02	6.6
	전혀 그렇지 않다	407	10.4	1.31	12.6

지역발전 정도에 대한 인식

구분	n	비율(%)	SE	RSE(%)
합계	3,902	100.0		
매우 발전된 수준	50	1.3	0.32	25.2
발전된 편	942	24.1	1.71	7.1
보통	1,738	44.5	1.62	3.6
낙후된 편	1,069	27.4	1.79	6.5
매우 낙후됨	103	2.6	0.46	17.6

농촌지역 우선 필요정책

구분	n	비율(%)	SE	RSE(%)
합계	3,883	100.0		
농업인 기초소득 보장	1,608	41.4	1.89	4.6
농업의 미래 보호	822	21.2	1.54	7.3
농촌의 자연환경 보호	179	4.6	0.63	13.6
주택의 보급 및 개량	189	4.9	0.76	15.6
공용버스 등 교통수단 확보	417	10.7	1.44	13.4
농촌주민 교육과 건강 증진	441	11.4	1.17	10.3
농촌지역 사업체에 대한 투자확대	226	5.8	0.74	12.6

외부인 수용성

구분		n	비율(%)	SE	RSE(%)
귀농/ 귀촌인	합계	3,920	100.0		
	매우 찬성	392	10.0	0.96	9.6
	다소 찬성	1,712	43.7	1.96	4.5
	보통	1,506	38.4	2.00	5.2
	다소 반대	280	7.2	0.89	12.4
	매우 반대	30	0.8	0.24	31.7
결혼 이민자	합계	3,918	100.0		
	매우 찬성	323	8.2	0.84	10.2
	다소 찬성	1,430	36.5	1.72	4.7
	보통	1,780	45.4	1.95	4.3
	다소 반대	318	8.1	0.85	10.5
	매우 반대	67	1.7	0.38	22.4
외국인 노동자	합계	3,918	100.0		
	매우 찬성	243	6.2	0.83	13.4
	다소 찬성	1,028	26.2	1.56	5.9
	보통	1,840	47.0	1.68	3.6
	다소 반대	643	16.4	1.32	8.1
	매우 반대	166	4.2	0.52	12.4

마을주민들 간의 친밀도 변화

구분	n	비율(%)	SE	RSE(%)
합계	3,865	100.0		
매우 더 잘됨	156	4.0	0.97	24.1
더 잘되는 편	1,033	26.7	1.66	6.2
변화 없음	2,504	64.8	2.05	3.2
더 안됨	165	4.3	0.57	13.4
매우 더 안됨	7	0.2	0.08	45.3

농촌 계속 거주 의향

구분		n	계속 거주 의향층(%)	SE	RSE(%)
합계		3,934	84.6	2.25	2.7
읍/면 여부	읍	1,071	77.9	3.55	4.6
	면	2,863	87.2	2.79	3.2
영농 여부	농어가	1,346	97.4	0.61	0.6
	비농어가	2,588	78.0	3.01	3.9
아파트 여부	아파트	1,244	70.3	4.85	6.9
	비아파트	2,690	91.3	1.72	1.9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758	61.6	5.07	8.2
	40대	836	78.5	3.79	4.8
	50대	905	91.1	2.67	2.9
	60대	634	94.5	1.16	1.2
	70대 이상	792	98.0	0.42	0.4

농촌을 떠나려는 이유

구분	n	비율(%)	SE	RSE(%)
합계	562	100.0		
생활환경이 좋지 않아서	143	25.4	5.73	22.5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235	41.8	7.72	18.5
소득이 적어서	73	13.0	3.79	29.2
농사가 더욱 어려워질 것 같아	9	1.6	1.01	61.6
문화생활을 즐길 수 없기 때문	47	8.4	2.39	28.6
자녀들이 도시에 살므로	16	2.9	0.79	27.1
기타	39	6.9	1.90	27.5

참여하고 있는 지역사회단체 유무

구분		n	참여총(%)	SE	RSE(%)
합계		3,934	27.9	2.13	7.6
읍/면 여부	읍	1,071	15.3	2.22	14.5
	면	2,863	32.6	2.78	8.5
영농 여부	농어가	1,346	49.4	3.17	6.4
	비농어가	2,588	16.7	1.87	11.2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758	8.3	2.22	26.9
	40대	836	25.0	3.22	12.9
	50대	905	36.6	3.54	9.7
	60대	634	39.8	3.05	7.7
	70대 이상	792	30.4	3.35	11.0

공동체의식 함양 요인

구분	n	비율(%)	SE	RSE(%)
합계	3,877	100.0		
마을단체	1,091	26.5	1.08	4.1
지자체 및 공무원	262	7.0	0.72	10.4
지역공동시설	802	21.5	1.06	4.9
학교	94	2.6	0.34	13.4
종교단체	127	3.4	0.54	16.3
좋은 이웃	963	24.7	1.04	4.2
서비스 편의시설	225	5.6	0.79	14.0
지역행사	281	8.7	0.85	9.8
기타	4	0.1	0.06	67.2

04 주요 용어정리

- **가구주** :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상의 가족관계 또는 세대주와 관계없이 가구를 대표하고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생계책임자를 말한다.
- **생계책임자** : 단순히 가구원 중에서 소득이 제일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관리자** : 공공 및 기업 고위직,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 전문서비스 관리직,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직, 판매 및 고객서비스 관리직 등을 말한다.
-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법률 및 행정 전문직, 경영·금융 전문가 및 관련직,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등을 말한다.
- **사무 종사자** :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금융 및 보험 사무직, 법률 및 감사 사무직, 상담·안내·통계 및 기타 사무직 등을 말한다.
- **서비스 종사자** :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 이미용·예식 및 의료보조 서비스직,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등을 말한다.
- **판매 종사자** : 영업직, 매장 판매직, 방문·노점 및 통신 판매 관련 종사자 등을 말한다.
- **농어업 종사자** : 농·축산 숙련직, 임업 숙련직, 어업 숙련직 등을 말한다.
-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식품가공관련 기능직, 섬유·의복 및 가죽 관련 기능직, 목재·가구·악기 및 간판 관련 기능직, 금속성형 관련 기능직, 운송 및 기계 관련 기능직, 전기 및 전자 관련 기능직,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 영상 및 통신 장비 관련 기능직, 기타 기능 관련직 등을 말한다.

-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 식품가공관련 기계조작직,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조작직, 화학관련 기계조작직,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조작직, 기계제조 및 관련 기계 조작직,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조작직,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상·하수도 처리장치 조작용, 목재·인쇄 및 기타 기계 조작직 등을 말한다.
- **단순노무 종사자** :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노무직, 운송관련 단순노무직, 제조관련 단순노무직,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노무직,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노무직,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노무직 등을 말한다.
- **자영업자(고용주)**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모두 해당된다. 농업 종사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자영업자로 본다.
- **상용직** :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설정된 사람, 또는 특별한 고용계약이 없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회사 내규에 의해 채용되어 인사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고 상여금, 수당 및 퇴직금 등의 수혜를 받는 사람 등 일반직장인, 공무원, 교원, 법인경영자(월급 사장) 등이 해당된다.
- **임시직** : 임금근로자 중 상용이 아닌 사람으로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 또는 일정한 사업완료 필요성에 의해서 고용된 사람 등을 말한다.
- **일용직** :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 또는 매일 매일 고용되어 일급, 일당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받는 경우, 또는 일정한 사업장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일한 대가를 받는 사람 등을 말한다.
- **무급가족종사자** : 직접적인 보상이 없더라도 자기 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데 기여한 자로 주당 근로시간이 18시간 이상인 자를 말한다.
- **결혼이민자** :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가구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부양 능력이 있는 부양의 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를 말한다. 이들은 자신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만으로는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계층이다. 급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자의 연령, 가구, 규모, 거주지역, 그 밖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정하며, 개별가구 단위로 급여를 실시하되 일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이란 최저생계비 대비 1~1.2배의 소득이 있는 ‘잠재 빈곤층’과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고정재산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을 합쳐 이르는 말이다.
- **단독주택** : 단독주택이란 단일 가구가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위한 구조의 주택을 말한다.
- **아파트** : 아파트란 공동주택의 일종으로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 **연립주택** : 연립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일종으로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 **다세대주택** : 다세대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일종으로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이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 **전세** : 전세란 계약한 액수의 돈을 미리 지불하고 입주하여 살다가 퇴거할 때 그 금액을 되찾아 나오는 방식으로, 이 경우 실질적인 방세는 입주할 때 낸 금액의 이자이다.
- **보증부 월세** : 보증부 월세란 보증금을 내고 별도로 매월 월세를 지불하는 형식으로, 월세가 제 때에 지불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월세분의 10배 정도의 금액을 입주할 때 보증금으로 내는 방식이다. 이 경우 실질적인 방세는 보증금의 이자와 매월 내는 월세의 합계액이다.
- **월세(사글세)** : 사글세란 매월 월세액을 정한 뒤 미리 1년분 정도의 월세 합계액을 선세(先貰)

로 내고 그 금액을 매달 삭감해 가는 형식이다. 사글세액의 잔액이 떨어질 때가 계약이 만료 되는 달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퇴거해야 한다. 만일 계약기간 내에 퇴거할 경우에는 삭감된 액수의 잔액을 되찾아갈 수 있다. 월세란 보증금이나 선세(先貰) 없이 매월 방세를 지불하는 형식이다.

- **평생교육** : 평생교육이란, 학교 밖의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폭넓게 지칭하는 것으로서, 유사용어로 성인교육, 사회교육 등이 있다.
- **귀농/귀촌인** : 귀농인이란 도시에서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귀촌인이란 전원생활 등을 목적으로 도시에서 농어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
- **결혼 이민자** : 결혼 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 **외국인 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말하며, 국민건강보험법 및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
- **마을 리더** : 마을의 리더란 마을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마을의 공동 문제를 인식하고 주민들을 조직화하여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대표적인 마을 리더로는 이장, 새마을지도자, 청년회장, 부녀회장 등이 있다.

05 2015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표

ID	층번호	아파트 여부	키	값	열	자	리	거처	번	호
----	-----	-----------	---	---	---	---	---	----	---	---

2015년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농어촌 주민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 교육, 가족, 지역개발 및 공동체 -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에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 범 정부적 차원에서 제정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보건복지, 교육,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여 관련 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2015년 조사는 교육, 가족, 지역개발 및 공동체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조사표에 기재된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목적 이외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해 귀댁의 적극적인 협조와 정확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9월

작성기관 농촌진흥청
 실시기관 코뮤니타스
 전화번호 053-746-0021

면접원 이름

조사	방문일자	방문시간	대체	방문일자	방문시간
1회 방문	월 일	:	1회 방문	월 일	:
2회 방문	월 일	:	2회 방문	월 일	:
3회 방문	월 일	:	3회 방문	월 일	:
비고	(회수 예정 시간 및 대체사유 등)		비고	(대체 전 원표본 주소)	

응답자	① 가구주 ② 가구주 배우자	조사표 기입방법	① 조사원 면접식 ② 자기기입식
도로명 주소	()광역시/도 ()시/군/구 ()		
상세주소	연락처 () - () - ()		

※ 연락처는 응답하신 내용에 대해 추가 질문사항이 있을 경우 질의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참여 동의서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에 협조해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사는 농촌진흥청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제정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전국 농어촌 4,01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농어촌의 보건복지, 교육,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여 관련 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2015년 조사는 **교육, 가족, 지역개발 및 정보화**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사에서는 귀하의 **전화번호, 주소**를 수집하고 있으며, 상기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간 동안에 한하여 보유 및 이용됩니다. 조사표에 기재된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엄격히 보장**되며, **통계작성 목적 이외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귀하는 각 지역을 대표하기에, 조사 내용에 대해 있는 그대로 응답해주시면 **농어촌 지역의 삶의 질 실태를 파악하는 데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귀하의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2015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설명자 : (서명)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답례품 수령 확인서

본인은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에 성실히 응답하였으며, 이에 대한 사례로 소정의 답례품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5년 월 일
수령인 : (서명)

I. 개인 및 가구원 관련 사항

1. 다음은 귀하 및 가구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타 지역 직장 근무, 유학 등으로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배우자, 자녀)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결혼해서 분가한 경우는 제외하고 작성해 주십시오.

[보기] 가구주와의 관계

- ① 가구주 ② 가구주의 배우자 ③ 가구주의 자녀 ④ 자녀의 배우자
⑤ 손자녀/그 배우자 ⑥ 부모 ⑦ 조부모 ⑧ 형제자매/그 배우자
⑨ 기타 친인척

* 직업의 경우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구분	가구주와의 관계 (보기참고)	성별	태어난 연도	혼인 상태	학력		직업 및 종사자 지위		동거 여부 및 비동거 사유	
					학교급	상태	직업*	종사자 지위	동거 여부	비동거 사유
01	① (가구주)	① 남 ② 여	년	① 미혼 ② 기혼 ③ 사별 ④ 이혼	① 무학/미취학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대학교 ⑥ 대학원 이상	① 졸업 ② 재학 ③ 중퇴		① 자영업자 ② 상용직 ③ 임시직 ④ 일용직 ⑤ 무급가족 종사자	① 동거 ② 비동거	① 타 지역 직장 근무 ② 해외 근무 ③ 타 지역 유학 ④ 해외 유학 ⑤ 입원, 요양 ⑥ 다른 곳에 맡겨진 미취학 자녀 ⑦ 기타(군복무, 별거, 기출 등)
02	② (가구주 배우자)	① 남 ② 여	년	① 미혼 ② 기혼 ③ 사별 ④ 이혼	① 무학/미취학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대학교 ⑥ 대학원 이상	① 졸업 ② 재학 ③ 중퇴		① 자영업자 ② 상용직 ③ 임시직 ④ 일용직 ⑤ 무급가족 종사자	① 동거 ② 비동거	① 타 지역 직장 근무 ② 해외 근무 ③ 타 지역 유학 ④ 해외 유학 ⑤ 입원, 요양 ⑥ 다른 곳에 맡겨진 미취학 자녀 ⑦ 기타(군복무, 별거, 기출 등)
03		① 남 ② 여	년	① 미혼 ② 기혼 ③ 사별 ④ 이혼	① 무학/미취학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대학교 ⑥ 대학원 이상	① 졸업 ② 재학 ③ 중퇴		① 자영업자 ② 상용직 ③ 임시직 ④ 일용직 ⑤ 무급가족 종사자	① 동거 ② 비동거	① 타 지역 직장 근무 ② 해외 근무 ③ 타 지역 유학 ④ 해외 유학 ⑤ 입원, 요양 ⑥ 다른 곳에 맡겨진 미취학 자녀 ⑦ 기타(군복무, 별거, 기출 등)

[보기] 가구주와의 관계

- ① 가구주 ② 가구주의 배우자 ③ 가구주의 자녀 ④ 자녀의 배우자
 ⑤ 손자녀/그 배우자 ⑥ 부모 ⑦ 조부모 ⑧ 형제자매/그 배우자
 ⑨ 기타 친인척

* 직업의 경우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구분	가구주와의 관계 (보기참고)	성별	태어난 연도	혼인 상태	학력		직업 및 종사자 지위		동거 여부 및 비동거 사유	
					학교급	상태	직업*	종사자 지위	동거 여부	비동거 사유
04	① (가구주)	① 남 ② 여	년	① 미혼 ② 기혼 ③ 사별 ④ 이혼	① 무학/미취학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대학교 ⑥ 대학원 이상	① 졸업 ② 재학 ③ 중퇴		① 자영업자 ② 상용직 ③ 임시직 ④ 일용직 ⑤ 무급가족 종사자	① 동거 ② 비동거	① 타 지역 직장 근무 ② 해외 근무 ③ 타 지역 유학 ④ 해외 유학 ⑤ 입원, 요양 ⑥ 다른 곳에 맡겨진 미취학 자녀 ⑦ 기타(군복무, 별거, 기출 등)
05	② (가구주 배우자)	① 남 ② 여	년	① 미혼 ② 기혼 ③ 사별 ④ 이혼	① 무학/미취학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대학교 ⑥ 대학원 이상	① 졸업 ② 재학 ③ 중퇴		① 자영업자 ② 상용직 ③ 임시직 ④ 일용직 ⑤ 무급가족 종사자	① 동거 ② 비동거	① 타 지역 직장 근무 ② 해외 근무 ③ 타 지역 유학 ④ 해외 유학 ⑤ 입원, 요양 ⑥ 다른 곳에 맡겨진 미취학 자녀 ⑦ 기타(군복무, 별거, 기출 등)
06		① 남 ② 여	년	① 미혼 ② 기혼 ③ 사별 ④ 이혼	① 무학/미취학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대학교 ⑥ 대학원 이상	① 졸업 ② 재학 ③ 중퇴		① 자영업자 ② 상용직 ③ 임시직 ④ 일용직 ⑤ 무급가족 종사자	① 동거 ② 비동거	① 타 지역 직장 근무 ② 해외 근무 ③ 타 지역 유학 ④ 해외 유학 ⑤ 입원, 요양 ⑥ 다른 곳에 맡겨진 미취학 자녀 ⑦ 기타(군복무, 별거, 기출 등)
07		① 남 ② 여	년	① 미혼 ② 기혼 ③ 사별 ④ 이혼	① 무학/미취학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대학교 ⑥ 대학원 이상	① 졸업 ② 재학 ③ 중퇴		① 자영업자 ② 상용직 ③ 임시직 ④ 일용직 ⑤ 무급가족 종사자	① 동거 ② 비동거	① 타 지역 직장 근무 ② 해외 근무 ③ 타 지역 유학 ④ 해외 유학 ⑤ 입원, 요양 ⑥ 다른 곳에 맡겨진 미취학 자녀 ⑦ 기타(군복무, 별거, 기출 등)

[보기] 가구주와의 관계

- ① 가구주 ② 가구주의 배우자 ③ 가구주의 자녀 ④ 자녀의 배우자
 ⑤ 손자녀/그 배우자 ⑥ 부모 ⑦ 조부모 ⑧ 형제자매/그 배우자
 ⑨ 기타 친인척

* 직업의 경우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구분	가구주와의 관계 (보기참고)	성별	태어난 연도	혼인 상태	학력		직업 및 종사자 지위		동거 여부 및 비동거 사유	
					학교급	상태	직업*	종사자 지위	동거 여부	비동거 사유
08	① (가구주)	① 남 ② 여	년	① 미혼 ② 기혼 ③ 사별 ④ 이혼	① 무학/미취학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대학교 ⑥ 대학원 이상	① 졸업 ② 재학 ③ 중퇴		① 자영업자 ② 상용직 ③ 임시직 ④ 일용직 ⑤ 무급가족 종사자	① 동거 ② 비동거	① 타 지역 직장 근무 ② 해외 근무 ③ 타 지역 유학 ④ 해외 유학 ⑤ 입원, 요양 ⑥ 다른 곳에 맡겨진 미취학 자녀 ⑦ 기타(군복무, 별거, 기출 등)
총 _____명			가구원(동거)		_____명		농어가 여부		① 농어가(농어업 종사자가 있음) ② 비농어가(농어업 종사자 없음)	
			비동거 가족		_____명					

2. 귀택에 장애가 있는 가구원이 있으십니까?

① 있음

② 없음

↳ **문 3번** 으로 가십시오.

2.1. 귀하를 포함하여 장애가 있는 가구원의 장애종류와 등급은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되십니까? 여러 분이 계실 경우 각각의 가구원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 중복장애의 경우, 주요 장애 한 가지만 표시하되, 등급이 같은 경우에는 생활에 더 큰 어려움을 주는 장애로 표시함

구분	장애 종류(보기 참고)	중복장애 여부	장애 등급
(1) () 번 가구원		① 비해당 ② 중복	() 급
(2) () 번 가구원		① 비해당 ② 중복	() 급
(3) () 번 가구원		① 비해당 ② 중복	() 급

<보기 - 장애 종류>

- | | | | |
|----------------------|-----------|---------|--------|
| ① 지체장애 | ② 뇌병변장애 | ③ 시각장애 | ④ 청각장애 |
| ⑤ 언어장애 | ⑥ 정신지체 | ⑦ 발달장애 | ⑧ 정신장애 |
| ⑨ 신장장애 | ⑩ 심장장애 | ⑪ 호흡기장애 | ⑫ 간장애 |
| ⑬ 안면장애 | ⑭ 장루·요루장애 | ⑮ 간질장애 | |
| ⑯ 비등록장애인(보훈처등록장애인포함) | | | |

3. 귀택에는 결혼이민자가 있으십니까?

① 있음

② 없음

↳ **문 4번** 으로 가십시오.

3.1. 결혼이민자의 출신국가는 어디입니까? 여러 분이 계실 경우 각각의 가구원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출신국가	구분	출신국가
(1) () 번 가구원		(3) () 번 가구원	
(2) () 번 가구원			

4. 귀택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십니까?

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가구원 중 일부수급가구 포함) ② 차상위계층 ③ 해당없음

II. 생활전반

5. [월평균 가구소득] 귀댁의 2014년('14.1.1.~12.31.) 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가구소득은 얼마나 됩니까? 각 항목별로 응답해 주시고, 해당 소득이 없을 경우 '0'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구 분	금 액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1) 농업 소득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판매액에서 비용을 제외한 순소득)					만원
(2) 어업 소득 (어획, 양식 등을 통한 수산물 판매액에서 비용을 제외한 순소득)					만원
(3) 사업 소득 (농업 외 사업장 운영을 통한 매출액에서 비용을 제외한 순소득)					만원
(4) 임금 소득 (상용 또는 임시·일용근로를 통한 총 급여 또는 보수로서 소득세, 기여금 등 세금 및 각종 사회보장부담금 등을 공제하기 전 금액)					만원
(5) 재산 소득 (이자, 배당금, 임대료 등)					만원
(6) 기타 (사적 이전소득, 공적 이전소득, 연금, 경조금, 보상금, 보조금 등)					만원
합 계					만원

6. [이주 시기 및 이주 직전 주택의 위치] 귀하께서 현 거주지로 이주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작성. 여성 응답자가 혼인시 이주하여 계속 거주하는 경우, 가구주(남편)를 기준으로 작성

① () 년도에 이주했다

② 현 거주지가 고향이지만 외지에 나갔다가 () 년도에 이주했다 ③ 현 거주지가 고향이다



↳ **문 7번** 으로 가십시오.

6.1. 현 거주지로의 이주 직전에 거주하던 주택의 위치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현재 살고 있는 시/군 내

② 다른 시/군의 농어촌(읍/면)

③ 중소도시(동)

④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7. [주택의 건축 및 신축년도] 현재 거주하고 계신 주택의 건축(신축)년도는 언제입니까?

() 년도

8. [주택의 종류] 현재 거주하고 계신 주택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① 단독주택

② 아파트

③ 연립주택

④ 다세대주택

⑤ 기타 (⇒)

9. [주택의 점유형태] 주택의 점유형태는?

① 자가

② 전세

③ 보증부 월세

④ 월세(사글세)

⑤ 무상

10. [이주 의사, 계획 및 이주 희망 이유] 귀하께서는 향후 5년 내에 현재 살고 계시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주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 ① 그렇다 ② 반반이다 ③ 그렇지 않다



나, **문 11번** 으로 가십시오.

10.1. 다른 곳으로 이주하신다면 어디로 이주하실 생각이십니까?

- ① 현재 살고 있는 시/군 내 ② 다른 시/군의 농어촌(읍/면)
③ 중소도시(등) ④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⑤ 시설 입소(공동생활, 요양 등) ⑥ 기타(해외파견, 이민 등)

10.2. 다른 곳으로 이주하시려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직장 이동, 창업 등 직업 관련 사유 ② 주택 확장, 신규 분양, 계약 변동 등 주택 관련 사유
③ 가구원의 분가, 출생, 사망 등 가족 관련 사유 ④ 가정경제 상황의 변화로
⑤ 건강상의 이유로 ⑥ 자녀교육 때문에
⑦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찾아서 ⑧ 기타 (⇨)

11. [지역생활 영역별 만족도]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생활의 여러 영역 각각에 대해 귀하께서 만족하시는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매우 만족	만족하는 편	보통	만족하지 않는 편	전혀 만족하지 않음
(1) 보건의료 및 복지 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2) 자녀 학교교육, 평생교육 등 교육 여건	①	②	③	④	⑤
(3) 문화·여가 생활을 위한 여건	①	②	③	④	⑤
(4) 주택, 도로, 대중교통 등 기초생활기반	①	②	③	④	⑤
(5) 환경·경관	①	②	③	④	⑤
(6) 직업 기회, 소득, 물가 등 경제활동 여건	①	②	③	④	⑤
(7) 자연재해, 사고, 범죄 등으로부터의 안전	①	②	③	④	⑤

12. [지역의 전반적 생활여건에 대한 만족도]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의 전반적인 생활여건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만족하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3.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 귀하께서는 현재의 삶에 대해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 ① 매우 행복하다 ② 행복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행복하지 않은 편이다 ⑤ 전혀 행복하지 않다

14. [행복의 영향 요인] 귀하의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개를 골라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가족 ④ 경제적 안정 ⑦ 기타 (→)	② 대인관계(친구, 이웃, 공동체 등) ⑤ 일/직업 ③ 건강 ⑥ 지역 생활 환경

Ⅲ. 교육

— 평생교육 —

15. [평생교육 수강 경험 및 향후 수강의사] 귀하께서는 지난 1년 동안 다음의 평생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한 향후 어떤 내용의 평생교육을 받기를 희망하십니까?

구분	수강 경험		향후 수강의사	
	있음	없음	있음	없음
(1) 농업기술교육	①	②	①	②
(2) 문해교육(한글교실, 한문교육 등)	①	②	①	②
(3) 인문교양교육(경제/경영, 외국어, 자녀교육 등)	①	②	①	②
(4) 정보화교육(워드, 인터넷, 홈페이지 작성 등)	①	②	①	②
(5) 직업능력교육(자격증 강좌, 취업/창업 준비과정 등)	①	②	①	②
(6) 문화예술교육(음악, 미술 강좌 등)	①	②	①	②
(7) 스포츠·건강교육(스포츠, 건강/의료 강좌 등)	①	②	①	②
(8) 기타 ()	①	②	①	②

16. [평생교육 만족도] [한 번이라도 평생교육 수강 경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귀하께서 받으신 평생교육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만족하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7. [평생교육을 받고자 할 때의 애로사항] 귀하께서 평생교육을 받고자 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① 비용이 부담된다 ② 시간적 여유가 없다
 ③ 지역에 제공하는 시설(기관)이 없다 ④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없다
 ⑤ 교통이 불편하다 ⑥ 건강, 나이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다
 ⑦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 ⑧ 기타 ()

↳ **문 30번**으로 가십시오.

↳ **문 27번** 으로 가십시오.

총 참여 프로그램	2015년 기준 총 ()개	참여 시간	1주일에 ()시간
참여 프로그램 (중복응답)	☐ ① 특기 적성 ☐ ② 교과 학습 ☐ ③ 초등 보육 ☐ ④ 기타()	참여 년수	()년 째

25.3. 방과 후 학교 만족도에 관련된 다음의 문항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을 골라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매우 그렇 다	약간 그렇 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 지 않다	전혀 그렇 지 않다	해당 없음
(1) 자녀(손자녀)의 특기 적성 개발에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자녀(손자녀)의 학업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사교육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자녀(손자녀)의 학습태도를 변화하거나 학습동기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5) 앞으로도 방과 후 학교에 계속 참여시키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IV. 가족

—  부모와의 관계(결혼한 여성의 경우, 친정 부모님 기준)

26. [부모의 생존 여부] 귀하의 부모님은 현재 살아계십니까?

① 부모님 모두 살아계심 ② 아버지만 살아계심 ③ 어머니만 살아계심 ④ 부모님 모두 안 계심



↳ **문 33번** 으로 가십시오

27. [부모의 동거 여부, 동거 가족, 거주 위치, 접촉 빈도] 귀하의 부모님은 귀댁에 함께 살고 계십니까?

① 함께 살고 있음

② 함께 살고 있지 않음

↳ **문 32번** 으로 가십시오



27.1. 귀하의 부모님은 누구와 함께 살고 계십니까?

① 장남 또는 맏며느리

② 아들(장남 제외) 또는 며느리

③ 딸 또는 사위

④ 기타 친척

⑤ 부모님만 따로 살고 있음

⑥ 기타 ()

27.2. 귀하의 부모님은 귀하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살고 계십니까?

①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15분 이내) ② 차로 30분 이내 거리

③ 차로 30분 이상 1시간 이내 거리 ④ 차로 1시간 이상 2시간 이내 거리

⑤ 차로 2시간 이상 거리

32. [자녀 및 자녀 양육에 대한 태도] 귀하께서는 자녀 및 자녀 양육과 관련된 다음의 문항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을 골라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노후를 위해서는 자녀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3) 자식의 성공은 나의 성공과 같다	①	②	③	④	⑤
(4) 자녀를 돌보는 일은 힘든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5) 자녀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자녀를 키우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33. [분가 자녀 유무, 거주 위치, 접촉빈도] 현재 귀하의 자녀 가운데 분가해서 살고 있는 자녀가 있습니까?

① 있다 (아들 : 명, 딸 명)

② 없다



↳ **문 38번** 으로 가십시오.

33.1. 그 자녀는 귀하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살고 계십니까?

※ 분가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더 자주 연락하거나 만나는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

- ①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15분 이내) ② 차로 30분 이내 거리
 ③ 차로 30분 이상 1시간 이내 거리 ④ 차로 1시간 이상 2시간 이내 거리
 ⑤ 차로 2시간 이상 거리

33.2. 귀하는 그 자녀와 얼마나 자주 전화 통화를 하거나 만나십니까?

※ 분가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더 자주 연락하거나 만나는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

구분	거의 매일	일주일에 1~2회	한 달에 1~2회	1년에 3~5회	거의 없음
(1) 전화 통화	①	②	③	④	⑤
(2) 만남	①	②	③	④	⑤

— 가족 가치관

34. [결혼문화에 대한 태도] 귀하께서는 결혼문화와 관련된 다음의 문항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을 골라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결혼은 당사자보다 가족 간의 관계를 우선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외국인과 결혼해도 상관없다	①	②	③	④	⑤
(4)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5. [결혼에 대한 태도] 귀하께서는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반드시 해야 한다 ② 하는 것이 좋다 ③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④ 하지 않는 것이 좋다 ⑤ 하지 말아야 한다 ⑥ 잘 모르겠다

36. [이혼에 대한 태도] 귀하께서는 이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어떤 이유라도 이혼해서는 안된다 ② 이유가 있더라도 가급적 이혼해서는 안된다
 ③ 경우에 따라 이혼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④ 이유가 있으면 이혼을 하는 것이 좋다 ⑤ 이유가 있다면 이혼을 해야한다
 ⑥ 잘 모르겠다

37. [재혼에 대한 태도] 귀하께서는 재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반드시 해야 한다 ② 하는 것이 좋다 ③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④ 하지 않는 것이 좋다 ⑤ 하지 말아야 한다 ⑥ 잘 모르겠다

38. [성역할 및 여성취업에 대한 태도] 귀하께서는 성역할 및 여성취업과 관련된 다음의 문항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을 골라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아버지도 어머니와 똑같이 자녀를 잘 보살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오늘날에는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남자가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여자가 할 일은 가정을 돌보는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맞벌이 부부는 집안일도 똑같이 나누어서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취학 전 자녀는 어머니가 직접 돌봐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친정과 시집 모두 도움이 필요할 때, 결혼한 여자는 친정보다 시집을 먼저 도와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9. [자녀의 성별에 대한 태도] 귀하께서는 자녀를 하나만 낳아 키운다고 할 때, 자녀의 성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반드시 아들 ② 이왕이면 아들 ③ 이왕이면 딸 ④ 반드시 딸 ⑤ 상관없다

— 부부관계(‘부부가 함께 사는 가구’, ‘주말부부’ 등 포함)

40. [부부 의사결정] 귀댁에서는 다음의 일들을 주로 누가 결정하십니까? 해당하는 것을 골라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전적으로 남편	대체로 남편	부부 공동	대체로 부인	전적으로 부인
(1) 주택이나 농지를 사고 파는 일	①	②	③	④	⑤
(2) (농가만 해당) 농사작목을 결정하는 일	①	②	③	④	⑤
(3) (농가만 해당) 수확농산물을 판매하는 일	①	②	③	④	⑤
(4) 한 달 생활비를 결정하는 일	①	②	③	④	⑤
(5) 자녀교육 방법을 결정하는 일	①	②	③	④	⑤
(6) 경조금을 결정하는 일	①	②	③	④	⑤
(7) 가족 내 여가활동을 결정하는 일	①	②	③	④	⑤

41. [부부 역할분담] 귀댁에서는 다음의 일들을 주로 누가 하십니까? 해당하는 것을 골라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전적으로 남편	대체로 남편	부부 공동	대체로 부인	전적으로 부인
(1) 큰 돈 관리(투자 및 재산 관리)	①	②	③	④	⑤
(2) 살림살이 비용 관리	①	②	③	④	⑤
(3) 음식준비 및 설거지	①	②	③	④	⑤
(4) 세탁	①	②	③	④	⑤
(5) 집안청소	①	②	③	④	⑤
(6) 자녀 돌보기	①	②	③	④	⑤
(7) 이웃, 친인척과의 교제(경조사 참가)	①	②	③	④	⑤

V. 지역개발 및 공동체

— 지역개발

42. [지역발전 정도에 대한 인식] 귀하께서는 현재 거주하고 계신 마을의 전반적인 발전 정도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① 매우 발전된 수준이다 ② 발전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낙후된 편이다 ⑤ 매우 낙후되어 있다

- 43. [지역개발에 대한 태도]** 귀하께서는 지역개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각의 질문에 대하여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 지역개발이란 관광지개발, 아파트건설, 댐건설, 도로확장 등 지역의 물리적 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분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더라도 개발사업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①	②	③	④	⑤
(2) 개발 보다는 농촌 자연환경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3) 지역의 개발사업의 이익은 외지인이나 특정인에게만 돌아가지 않고 지역주민들에게 공평하게 돌아간다	①	②	③	④	⑤

- 44. [마을의 지역자원 활용]** 귀하께서는 현재 거주하고 계신 마을의 지역자원 이용과 활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각의 질문에 대하여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우리 마을이 가진 지역자원(자연, 경관, 문화 등)이 아름답고 우수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마을의 자원(회관, 경로당 등 공동 공간)을 지역주민 즐거움이나 교류의 장으로 이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마을은 마을자원을 활용한 상품이나 특산품, 관광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지역자원 유지를 위한 주민활동(마을가꾸기, 마을문 화보전 등)이 지역애착심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마을은 더욱 살기 좋은 마을이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 45. [농촌지역 우선 필요정책]** 정부가 농촌지역에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만 골라 응답해 주십시오.

- | | |
|---------------------|------------------|
| ① 농업인 기초소득 보장 | ② 농업의 미래 보호 |
| ③ 농촌의 자연환경 보호 | ④ 주택의 보급 및 개량 |
| ⑤ 공용버스 등 교통수단 확보 | ⑥ 농촌주민 교육과 건강 증진 |
| ⑦ 농촌지역 사업체에 대한 투자확대 | ⑧ 기타 (→) |

46. [마을의 안전 정도]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고 계신 마을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각각의 질문에 대하여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매우 안전하다	안전한 편이다	보통이다	안전하지 않은 편이다	전혀 안전하지 않다
(1) 치안	①	②	③	④	⑤
(2) 자연재해	①	②	③	④	⑤
(3) 교통안전 및 보행	①	②	③	④	⑤

47. [마을 안전시설/설비에 대한 인식]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고 계신 마을의 안전시설/설비 구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각의 질문에 대하여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우리 지역은 우범지역에 방범카메라가 잘 설치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지역은 어두운 장소가 없도록 잘 정비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지역은 교통시설물이 잘 설치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8. [지역 안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안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동하는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각각의 질문에 대하여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우리 지역은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지역은 주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지역은 범죄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 공동체

49. [외부인 거주 여부] 귀댁 또는 귀하께서 거주하고 계신 마을에는 귀농·귀촌인, 결혼 이민자, 외국인 노동자가 살고 있습니까?

구분	우리 가구에 있음	우리 마을에 있음	없음	잘 모름
(1) 귀농·귀촌인	①	②	③	④
(2) 결혼 이민자	①	②	③	④
(3) 외국인 노동자	①	②	③	④

50. [외부인 수용성] 귀하께서는 연고가 없는 외부인이 귀하의 이웃에서 함께 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보통	다소 반대	매우 반대
(1) 귀농·귀촌인	①	②	③	④	⑤
(2) 결혼 이민자	①	②	③	④	⑤
(3) 외국인 노동자	①	②	③	④	⑤

51. [마을주민들 간의 친밀도 변화] 2년 전에 비해, 마을주민들 간의 친밀 정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더 잘된다 ② 더 잘되는 편이다 ③ 변화 없다
④ 더 안된다 ⑤ 매우 더 안된다

52. [농촌 계속 거주 의향] 귀하께서는 앞으로도 계속 농촌에 살 생각이십니까?

① 계속 살겠다



② 농촌을 떠나겠다



52.1. 계속 거주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선조대대로 살아온 곳이라서
② 자연환경이 좋아서
③ 자녀 교육을 위해서
④ 심신건강을 위해
⑤ 농촌/농업이 좋아서
⑥ 땅값 등 지가상승이 기대되어
⑦ 도시의 번잡함이 싫어서
⑧ 기타 (구체적으로 :)

52.2. 농촌을 떠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생활환경이 좋지 않아서
②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③ 소득이 적어서
④ 농사가 더욱 어려워질 것 같아
⑤ 문화생활을 즐길 수 없기 때문
⑥ 자녀들이 도시에 살므로
⑦ 기타 (구체적으로 :)

53.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귀하께서는 평소 자신의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만족하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54.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이웃 수] 귀하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이웃이 몇 명이나 됩니까?

() 명

55. [참여하고 있는 지역사회단체 실태] 귀하께서는 현재 참여하고 있는 지역사회단체가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가장 대표적인 지역사회단체는 어떤 것입니까?

① 있다



② 없다



57. [공동체의식 함양 요인] 지역(시군단위)의 공동체의식(협동심, 친밀감 등)을 만들어 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1)	(2)
① 마을단체(청년회, 부녀회, 노인회 등)	② 지자체 및 공무원
③ 지역공동시설(사회복지관, 마을회관, 경로당 등)	④ 학교
⑤ 종교단체	⑥ 좋은 이웃
⑦ 서비스 편의시설(상점, 우체국, 은행 등)	⑧ 지역행사(지역축제, 전통행사 등)
⑨ 기타 (구체적으로 :	)

58. [마을리더 역할의 중요도] 귀하께서는 우리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중요하다 ② 중요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⑤ 전혀 중요하지 않다

59. [마을리더가 될 의향] 귀하께서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리더가 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다소 그렇다 ③ 보통
 ④ 다소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60. [외부인 마을리더에 대한 수용성] 귀하께서는 연고가 없는 외부인이 귀하가 거주하는 마을의 리더가 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보통	다소 반대	매우 반대
(1) 귀농·귀촌인	①	②	③	④	⑤
(2) 결혼 이민자	①	②	③	④	⑤
(3) 외국인 노동자	①	②	③	④	⑤

♣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검증원 이름		검증 결과	
--------	--	-------	--